沈大平和尊演說大選集

第 2 輯

忠清南道

沈大平知事演說文選集

第 2 輯

忠清南道



希望찬 내일 榮光의 새 忠南

道政方針

1. 人本行政
2. 和合安定
3. 創意開發

영진 속셈학원

영진속셈학원

道政의 발자취



▲ 낙도어린이 방문단 환영('89. 7 .28)



▲ 충남함 자매 결연식('89. 9 .29)



▲ 제41회 도민체육대회 개회식('89.10.28)



▲ 올림픽기념 생활관 기공식 ('89.11.24)



▲ 제33회 도문화상 시상식 ('89.11.28)



▲ 농산물 상담역 회의 ('89.12.7)



▲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90.5.1)



▲ 어린이날 기념식 ('90.5.5)



▲ 부여문화재연구소 현판식 ('90.5.9)



▲ 기능경기대회장 방문 격려 ('90.5.17)



▲ 스승의 날 "은사의 밤"행사('90.5.15)



▲ 교장선생님 초청 간담회('90.5.24)

◇ 이동위민실 운영('90. 5. 14)



▲ 논산시장 방문



▲ 보건진료 격려



▲ 농기계수리 현장 순시



▲ 무의탁 노인 방문 격려

發 刊 辭

우리는 늘 지나온 歷史의 흐름속에서 明暗을 살피고 오늘의 현실을 直視하면서 미래로 향하는 叡智로 새 進路를 여는 슬기를 지니고자 노력합니다.

沈大平 道知事님께서 고향의 道伯으로 오신후 영일없는 2년째의 생생한 발자취와 주옥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새로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激變하는 世界,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결단으로 自律과 開放의 소망스런 물결이 포용의 도를 넘쳐, 우리주변 일각에서는 正道가 아닌 이질적인 社会文化가 생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각 분야에 걸친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전진으로, 영광의 새 忠南時代를 創出하려는 각고의 정성들이 이 章을 넘길때마다 돋보이고 있습니다.

忠南에서 大田이 분가한 이후, 빠른 道勢回復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도약한 道政의 성과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다가온 21世紀를 對備하여 90년대를 맞이 한 금년에도, 각종 개발이 크게 可視化되어 進行되고 있고 希望찬 내일의 약속이 직접 우리 앞에 와 닿는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外來思潮로 일부 사라져 가는 道義를 옛 百濟로 부터 내려온 忠孝로 되살리며 새 忠南精神으로 거듭나는 道民像을 集積시켜 나가고, 公務員도 創意와 責任·奉仕의 企業精神을 신조로 일할때 "忠南人의 얼"이 영원히 계승되는 방향도 제시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온 1년간, 沈知事님의 의지의 실천과 행동철학이 일구어 낸 道政의 값진 열매와 함께 앞날의 지침서가 될 연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펴 냅니다.

산하 공무원은 물론 이를 접하신 모든이들이 다시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고 다가오는 2000년대를 맞이하는 산 자료로 활용되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안습니다.

1990년 5월 20일

忠淸南道副知事 한 청 수

차 례

1989

5 월

24 일 冠堂里 福祉會館 竣工式 致辭 …… 35
〃 日本 熊本縣 細川護熙 知事에게 보내는 書翰 …… 39
〃 日本 熊本縣 金子康男 議長에게 보내는 書翰 …… 41
〃 日本 熊本縣 居留民團長에게 보내는 書翰 …… 42
25 일 職業訓練希望者 募集案內 書翰 …… 43
30 일 浸禮神學大學 캠퍼스 移轉 起工式 祝辭 …… 45

6 월

1 일 月例朝會 訓示 …… 49
〃 護國·報勳의 달을 맞아 國家有功者 및 遺家族에게 人事 書翰 …… 57
8 일 端午節 民俗놀이大會 激勵辭 …… 59
〃 自由民主守護 大田·忠淸南道協議會 創立總會 祝辭 …… 61
9 일 生鮮묵과 게맛살 料理講習 및 試食會 祝辭 …… 63
10 일 在富川 忠淸南道 鄕友會 創立總會 祝辭 …… 65
16 일 第 12 回 協會長旗 爭奪 및 道內種別 태권도 選手權大會 激勵辭 …… 67

17일 第 20 回 忠南地區 JC會員大會 祝辭 …… 69
〃 木川 己未獨立萬歲運動 紀念碑 除幕式 祝辭 …… 71
18일 第 6 回 보이·걸스카웃 큰잔치 激勵辭 …… 73
19일 第 36 回 反共의 날 紀念式 激勵辭 …… 75
20일 忠淸南道 女性大會 激勵辭 …… 77
21일 運輸團體長과 懇談會 人事 …… 79
22일 自由와 平和를 지키는 忠淸南道民大會 激勵辭 …… 82
27일 天安綜合터미널 竣工 祝辭 …… 84
29일 第 4 回 道知事旗, 第 32 回 會長旗爭奪 柔道大會 및 第 70 回
全國體典 忠南選拔大會 激勵辭 …… 86
30일 第 15 回 大日報勳大賞 施賞式 祝辭 …… 88

7 월

1일 大川海水浴場 開場式 激勵辭 …… 93
〃 泰安郡－邑面間 FAX施設 開通 메시지 …… 96
2일 第 1 回 忠淸南道知事旗 爭奪 市郡對抗 배드민턴大會 激勵辭 …… 97
3일 月例朝會訓示 …… 99
7일 輸出農産物 開發 戰略에 대한「심포지움」人事 …… 108
11일 禮山버스터미널 起工式 祝辭 …… 110
〃 禮山鄕土 詩碑 除幕式 致辭 …… 112
20일 自治時代의 展開와 地域財政의 對應에 관한 세미나 歡迎辭 …… 114
21일 2／4分期 道政評價團 會議 人事 …… 117
22일 牧園大學 보이스카웃隊員 百濟文化遺蹟探査 激勵辭 …… 120

22 일 全國 文協支部長 會議 歡迎辭 …… 121
27 일 바르게살기運動 促進決意大會 致辭 …… 123
28 일 高麗人蔘廠 示範訓練 激勵辭 …… 125
〃 第3次 韓國 青年指導者 聯合會 大田·忠南協議会 定期總會 祝辭 … 127
29 일 山有花歌 發表會 激勵辭 …… 129

8 월

1 일 月例朝會 訓示 …… 133
3 일 地域經濟·建設局 懇談會 訓示 …… 140
5 일 健全 消費風土 造成에 대한 公翰 …… 153
〃 天安 JC 20年史 發刊 祝刊辭 …… 155
10 일 洪城龜項 農工地區 起工式 致辭 …… 157
17 일 光復 第44周年 紀念 忠清地域 獨立運動 세미나 祝辭 …… 160
24 일 國家·社會的 現實과 關聯, 道政 모니터에게 보내는 書翰 …… 162
29 일 새마을 婦女會 附設 主婦大學 特講 …… 164
30 일 勞動福祉會館 開館式 式辭 …… 181

9 월

1 일 圈域別 開發計劃 公聽會 基調人事 …… 187
〃 希望 青少年教育 特講 …… 191
〃 中都日報 續刊 1周年 祝賀 메세지 …… 202
2 일 月例朝會 訓示 …… 203

3일 青少年 善導를 當付하는 書翰 …… 213
7일 舒川, 長項 農工地區 起工式 致辭 …… 216
8일 忠南 씨름왕 選拔大會 激勵辭 …… 218
9일 韓國肥料 創立 25周年, 韓肥優秀賞 15周年 祝辭 …… 220
12일 仲秋節에 즈음 道內寺刹에 發送한 書翰 …… 222
16일 大田日報 寫眞콘테스트 祝辭 …… 223
24일 第 70 回 全國體育大會 參加 選手團 結團式 致辭 …… 225
25일 나라와 道政을 위한 祈禱會 激勵辭 …… 227
28일 第 30 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出演 팜프렛 揭載用 인사말씀 …… 229
29일 忠南艦 姉妹結緣式 結緣辭 …… 231
30일 忠南 敎育委員會 國政監事 人事 …… 233
〃 第 13 回 常綠文化祭 人事 …… 234

10 월

2일 第 14 回 望鄕의 동산 合同慰靈祭 追悼辭 …… 241
4일 月例朝會訓示 …… 243
5일 第 70 回 全國體典 選擧團 激勵에 對한 書翰 …… 251
〃 第 70 回 全國體典 歡待에 대한 感謝書翰 …… 253
7일 第 9 回 錦山人蔘祭 致辭 …… 254
11일 새마을 幼兒園長 硏修大會 激勵辭 …… 256
12일 第 17 回 忠南少年體育大會 激勵辭 …… 261
13일 百濟文化祭 小祭 致辭 …… 263
〃 道內 全國體典 後援人士, 團體長, 加盟團體長에 대한 書翰 …… 265

13 일 第 70 回 全國體典時 京畿道 後援人士團體에 보내는 書翰 …… 267
〃 第 28 回 忠清南道 家畜 品評會 致辭 …… 268
14 일 第2次 國際로타리 368地區 年次大會 致辭 …… 270
〃 걷기 大會를 爲한 朝餐모임 人事 …… 272
16 일 '89 忠清美術作家展圖錄揭載 激勵辭 …… 273
19 일 韓國美術協會 忠清南道支部 會員展 팜플렛 揭載用 激勵辭 …… 275
20 일 第 35 回 百濟文化祭 致辭 …… 276
23 일 第 1 回 苧山文化祭 激勵辭 …… 278
24 일 大韓建築士協會, 忠清南道支部 定期總會 …… 280
〃 道政評價團 會議 人事 …… 282
26 일 第 41 回 道民體育大會 大會辭 …… 286
〃 忠義会創立 6周年 記念式 祝辭 …… 288
27 일 第 3 回 天安삼거리 흥타령文化祭 致辭 …… 290
〃 日本 熊本縣知事에게 보내는 書翰 …… 292
28 일 第 3 回 文化의달 記念 藝術人 大會 激勵辭 …… 293
〃 第 41 回 道民體育大會 閉会辭 …… 295
〃 第 9 回 忠南寫眞協會員 作品集 發刊 激勵辭 …… 297
30 일 中都日報 続刊 1周年 記念 統一問題 세미나 祝辭 …… 298
〃 第 29 回 統計年報發刊辭 …… 300
31 일 第 26 回 貯蓄의 날 記念辭 …… 301
〃 公設運動場 竣工 및 第 2 回 公州市民體育大會 激勵辭 …… 303

11 월

2 일 月例朝会 訓示 …… 307
3 일 綜合土地稅 施行에 따른 市長郡守·邑面長에게 보내는 書翰 …… 313
4 일 日本 熊本縣 知事에 對한 書翰 …… 315
5 일 忠淸南道知事盃 골프大會 致辭 …… 316
6 일 第 41 回 道民體育大會를 마치고 各界에 보내는 書翰 …… 318
7 일 第 6 代 새마을運動 忠淸南道支部長 就任 祝辭 …… 320
8 일 第 7 回 道知事旗 타기 태권도 選手權大会 激勵辭 …… 322
9 일 '89 忠淸南道 合唱競演大會 大會辭 …… 324
10 일 第 16 回 大日飛虎大賞 施賞式 祝辭 …… 326
〃 湖西大學校 地域開發 學術심포지움 祝辭 …… 328
11 일 第 3 回 忠淸南道 産業美術大展 激勵辭 …… 331
〃 百濟의얼 象徵塔 除幕 登山大會 致辭 …… 333
13 일 在서울 忠南出身 公務員에게 보내는 書翰 …… 335
15 일 第 4 回 公山敎育賞 施賞式 祝辭 …… 337
〃 韓國에너지研究所 創立 30 周年 祝辭 …… 339
16 일 歸順勇士와의 朝餐 人事 …… 341
19 일 萬海 韓龍雲 禪師 語錄碑 除幕式 祝辭 …… 344
20 일 새마을金庫 聯合會 大田·忠南道支部 會館 起工式 祝辭 …… 346
22 일 保寧周浦 農工團地 起工式 致辭 …… 348
23 일 韓國의 꽃 세미나 激勵辭 …… 351
〃 韓國의 꽃 세미나 午餐場 人事 …… 353
24 일 올림픽紀念 國民生活館 起工式 激勵辭 …… 356
26 일 大田高 31回 追加卒業狀 授與式 祝賀書翰 …… 358
28 일 名譽消防官에 대한 書翰 …… 359

28 일 第 33 回 忠清南道 文化賞 施賞 式辭 …… 361
29 일 道政諮問委員會 全體會議 人事 …… 363
30 일 農・漁民 後繼者 懇談會 激勵辭 …… 366

12 월

1 일 月例朝会 訓示 …… 377
〃 西部地域 運轉免許試驗場 開廳式 致辭 …… 383
〃 論山工業高等學校 體育科 强化訓練 發團式 激勵辭 …… 385
〃 大田極東放送局 開局 祝賀宴 祝辭 …… 388
5 일 第 21 回 國民教育憲章 宣布記念式 祝辭 …… 390
〃 韓國自由總聯盟 忠南道支会長 就任式 祝辭 …… 392
8 일 忠南職業訓練院의 寄宿舍 및 實習棟 竣工式 激勵辭 …… 394
9 일 道政모니터 全體教育 人事 …… 396
11 일 새마을幼兒園 美術公募 施賞式 激勵辭 …… 400
13 일 行政同友會 會員에 對한 書翰 …… 402
15 일 세밑 이웃돕기 運動에 즈음한 談話文 …… 404
〃 4H 會員에게 보내는 書翰 …… 405
18 일 市郡 山林組合長 懇談会 激勵辭 …… 407
〃 文化 藝術人들에 對한 書翰 …… 410
19 일 '89새마을 指導者 大會 祝辭 …… 412
〃 北韓社會 開放促求 決意大會 激勵辭 …… 414
〃 接見人士에게 보내는 書翰 …… 416
20 일 도정모니터에게 보내는 書翰 …… 418

27 일 第 33期 택시 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 致辭 …… 584
〃 '90 停年退任 및 · 勳 褒章 授與式 祝辭 …… 586
28 일 洪城職業訓練院 入校, 修了式 激勵辭 …… 588
〃 第 12 回 3.1節 紀念烽火祭 致辭 …… 591

3 월

2 일 月例朝會 訓示 …… 595
〃 瑞山市廳『射擊 팀』創團式 致辭 …… 600
〃 主婦敎室 忠淸南道支部長 離 · 就任式 致辭 …… 603
6 일 農漁村 젊은이 敎育 激勵辭 …… 605
10 일 '90 勤勞者의 날 施賞式 激勵辭 …… 608
16 일 瑞山 消防署 開署式 激勵辭 …… 613
21 일 鷄龍出場所 巡視時 訓示 …… 615
23 일 金佐鎭將軍 청산리 대첩 70周年 記念 記念辭 …… 618
28 일 邑 · 面 · 洞 · 長 施策班 敎育特講 …… 620
〃 道義社會發展을 為한 한마음 다짐大會 致辭 …… 636
30 일 文藝振興 委員會 人事 …… 638

4 월

2 일 月例朝會 訓示 …… 643
〃 鹽峙邑 開廳式 祝辭 …… 651
〃 唐津機池市 줄다리기 人事 …… 654

7 일 創設 第 22周年 豫備軍의날 紀念辭 …… 655
9 일 大川市民體育館 起工式 致辭 …… 658
11 일 天安,天原,住民自律 防犯隊 發隊式 激勵辭 …… 661
13 일 勉庵先生 崇慕顯正会 發起人 大會 激勵辭 …… 663
17 일 民主平和統一委員 懇談會 人事 …… 664
21 일 『瑞山 보리수 合唱團』 創團 公演 激勵辭 …… 665
22 일 第 6 回 桃園文化祭 開幕式 致辭 …… 667
〃 浦渚 趙翼, 松谷 趙復陽 先生 保護閣 竣工式 祝辭 …… 669
23 일 忠南職業訓練院 後援會 創立總會 人事 …… 671
〃 道政과 民生治安을 為한 晩餐 祈禱會 人事 …… 673
24 일 1／4分期 道政評價團 會議 人事 …… 675
25 일 中央部處 公務員 招請 道政說明會 人事 …… 678
〃 海外 勤勞者 家族에게 보내는 書翰 …… 681
26 일 道政說明會 晩餐場 人事 …… 683
27 일 笠場 己未獨立萬歲運動 紀念塔 除幕式 追念辭 …… 687
28 일 御醫井 發願祭 祝辭 …… 689
29 일 第 7次 藝總 全國 代表者 大會 人事 …… 691
〃 道政說明会를 마치고 在京 鄕友에게 보내는 書翰 …… 693
30 일 全州製紙(株) 長項工場 起工式 祝辭 …… 694
〃 4H會員과 對話時 人事 …… 697

5 월

1 일 犯罪없는 마을 懸板式 激勵辭 …… 701

2 일 月例朝會 訓示 …… 704
〃 스승尊敬 運動에 따라 各級 學敎長에게 보내는 書翰 …… 710
〃 스승尊敬 運動에 따라 各級機關團體長에게 보내는 書翰 …… 712
3 일 木曜 朝餐會 人事 …… 714
〃 택시業體代表와의 懇談會 人事 …… 717
〃 地域開發情報誌 發刊辭 …… 719
〃 民族統一 忠淸南道 促進大會 激勵辭 …… 721
5 일 第 68 回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談話文 …… 724
〃 第 68 回 어린이날 記念式 記念辭 …… 726
8 일 第 8 回 어버이날 記念式 記念辭 …… 729
〃 工藝品 競進大會 施賞式 人事 …… 732
9 일 "스승의 恩惠는 하늘 같아라" 冊子의 머리글 …… 735
〃 百濟文化財 硏究所 開所式 致辭 …… 736
13 일 大然 白明基 敎授 回甲記念論文集 發刊 祝辭 …… 739
15 일 스승의 날 祝辭 …… 740
〃 恩師의 밤 人事 …… 742
16 일 學校長 招請 懇談會 人事 …… 745
〃 市長·郡守會議 訓示 …… 749
17 일 中小企業人의 밤 激勵辭 …… 762
20 일 第 6 回 靑少年 健全놀이 大會 激勵辭 …… 766

5 월



▲ 보이·걸스카웃 큰잔치 격려

1989

冠堂里 福祉會館 竣工式

1989년 5월 24일

致 辭

우리 保寧郡 熊川面 冠堂里에 살고계신 주민 여러분, 또 保寧郡民 여러분, 그리고 충남지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농어민 여러분!

오늘 저는 큰 감격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武昌浦 마을 주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감격은 저보다도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30일 盧泰愚 大統領께서 우리 武昌浦 마을을 訪問하셨을때 말씀이 "내가 대통령 후보로 보령군을 찾았을때에 보령군민 중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시거든 우리 마을을 꼭 한번 찾아와 주십시요'"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차중에서 大統領께서 제게 "사람이 한번 약속하면 지위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나이가 많아지건 또는 자기의 생활이 유복하든 유복하지않던 꼭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난해 대통령 후보로써 주민과 약속했던 것이 아니고 人間 盧泰愚가 정말로 주민들과 한 약속이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자리에 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식사중에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후에도 아마 보통사람, 늘-보통사람들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보통 大統領이였다면 그렇게 約束을 지키시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知事인 저도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바쁜날을 보내고 했는데 하물며 大統領께서의 일정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로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고 또 마침 그때에 대통령께서는 그 분주한 일정중에서 별도의 구상을 위해서 삼일동안에 年暇를 내셨던 그런 기간이였습니다.

저 같아도 하루쯤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은데 하루쯤 쉬고 싶어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고를 피하시며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가시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민속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大統領이시구나 그러한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무창포에 와서 제가 이 마을会館 竣工式을 보면서 느낀것은 이 마을 회관 준공이 아니고 郡民会館 정도의 규모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武昌浦 마을로써 대단히 큰 규모의 마을회관을 가졌고 아마 全國 어느 마을도 이런 정도 規模의 会舘을 갖진 못했으리라 봅니다. 이것도 주민들께서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아마 말씀하신분은 지나가는 말씀정도로 그쳐 마을회관 하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잊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좋겠느냐 하셔서 저희들이 규모와 利用度 이런것을 전부 소상하게 計劃을 수립해서 報告를 드려 거기에 따라서 豫算을 支援해 주시고 오늘 이와같이 좋은 마을회관을 建立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회관 건립에 의미를 부여하는것이 아니라 大統領께서 당신이 約束하신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한 建物을 여기에 세우셨나 봅니다.

우리군민 우리도민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마을 회관을 와서 본다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大統領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대통령께서 임명해 주실때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서 일하라는 그런 당부말씀하신 사항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만은 우리 公務員 모두가 이 건물을 보면서 대통령과 생각을 함께하고 그리고 住民과 함께하는 行政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더욱 굳게 갖습니다.

오늘 武昌浦 마을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어있고 여러분께서 박수를 보내 주시는 것이 제게 보내주는 박수가 아니고 대

통령께 보내 드리는 박수로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밝은 웃음속에서 내일의 우리 忠淸南道에 밝은 西海岸의 時代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무창포 마을이 바로 서해안의 잘사는 농어촌의 가장 대표적인 마을이 되어서 이 마을을 중심으로 保寧郡 전체가 그리고 충남 서해안 전체가 모두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또 서로 돕는 그러한 좋은 기풍을 진작 시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안습니다.

政府에서 최근에 農漁村의 획기적 開發計劃을 발표한바 있읍니다만은 저희 道에서도 우리 농어촌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정적 支援과 努力을 기우려 나갈 計劃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처음에 知事로 와서 여러분께 約束한대로 농촌은 농촌답게 그리고 어촌은 어촌답게 도시는 도시답게 가꾸어서 우리 忠淸南道가 전국에서 가장 自然이 잘 보존되고 그리고 都市가 잘 開發되고 우리 주민이 가장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地域으로 만들겠다는 約束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무창포 마을에는 또 하나의 좋은 선물을 대통령께서 주셨읍니다.

여러분들이 전천후 港口施設을 원하셨기때문에 금년도에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50미터의 방파제를 별도로 만들고 내년도까지 총 17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 전체 방파제를 完工하도록 이렇게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비단 무창포 마을, 이 마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사는 農漁村을 하나씩 하나씩 建設해나가는 그러한 첫단계 사업이란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인식해 주시고 政府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려 마지 안습니다.

이 지역의 농어민 지도자로 있는 방금 인사를 한 任 地導者 그리고 婦女会長, 里長님 모두가 함께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좋은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크게 뒷받침을 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박창규 위원장님과 각급 기관장님 그리고 유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熊本縣 細川護熙 知事에게 보내는

1989년 5월 24일

書 翰

熊本을 떠나온지도 벌써 10여일이 흘렀습니다.

방문기간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인 일행에 대한 知事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縣民 여러분의 歡待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訪問을 통하여 우리 兩道. 縣간에는 그동안 맺어온 6년간의 姉妹結緣의 情만이 아니라 1500여년전부터 맺어 온 아주 오래된 포근한 歷史의 情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泰勝寺에서 그윽한 香氣가 깃든 전통적인 茶와 飮食을 들면서 느낄 수 있었던 知事님 내외분의 정성어린 友情에 대하여 무엇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린피아 南阿蘇에서 아스펙타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를 뭉클하게 하였던 "손에 손잡고"의 서울올림픽 노래를 들으면서 阿蘇山 기슭을 내려다 보던 흐뭇한 감회와 리셉션場에서 한분 한분이 보내주셨던 親切과 友意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訪問을 통하여 우리들의 友情이 양국의 友好增進에 이바지함은 물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까지도 길이길이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確信을 얻고 돌아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早速한 시일내에 知事님 내외분께서 꼭 우리 忠南을 訪問해 주시어 또다시 그리운 모습을 뵈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외분의 건강과 더불어

熊本縣民 여러분의 앞날에 榮光과 繁榮이 함께 하시기를 衷心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熊本縣 金子康男 議長에게 보내는

1989년 5월 24일

書 翰

熊本을 떠나온지도 벌써 10여일이 흘렀습니다.
방문기간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인 일행에 대한 議長님의 각별하신 환대와 議員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이제 지난 訪問에서 貴縣이 저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와 우정을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려 합니다.

특히 熊本縣政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緑化 3倍施策에 의한 푸른 산하와 잘 가꾸어진 街路樹, 최첨단 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어 態本은 한편의 오케스트라라는 깊은 감명을 받고 앞으로 忠南道政을 이끌어가는데 큰 教訓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하여 가꾼 兩道. 縣간의 실질적인 交流의 열매가 지금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까지도 오래 오래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韓. 日 양국간의 모범적인 地方外交가 되어 양국의 友好增進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양도. 현간 親善의 歷史가 더욱 굳건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議長님과 議員여러분의 건강과 熊本縣 議政의 앞날에 무궁한 發展과 榮光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熊本縣 居留民団長에게 보내는 書翰

1989년 5월 24일

書 翰

安団長 님!

熊本을 떠나온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방문기간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본인 일행에 대한 團長님을 비롯한 僑胞 여러분의 각별하신 환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몸은 고국을 떠나계셔도 한시도 祖國을 잊지 않고 강인한 삶의 의지와 신념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교포 여러분을 뵙게 되었을때 감사함과 더불어 깊은 尊敬心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祖國이 더욱 發展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는 모습들을 뵙고 국내에 사는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면서 歸國의 길에 올랐습니다.

아무쪼록 한 핏줄로 태어난 同胞임을 잊지않고 저희들은 국내에서, 團長님을 비롯한 僑胞여러분은 異國에서 각각 이 나라를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발전을 지속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21세기에는 우리 祖國이 꿈에도 그리던 先進 韓國으로 跳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團長님 내외분을 비롯한 僑胞 여러분의 健康과 앞날에 榮光과 繁榮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職業 訓練 希望者, 募集 案內

1989년 5월 25일

書 翰

己巳年이 벌써 중순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먼저 귀댁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빕니다.

서면으로 인사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 하면서 道政의 力點 事業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한가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忠淸南道에서는 생활보호 대상(1종, 2종) 가구의 자활 자립 능력을 만들어 주고자 젊은 대상자에게 職業訓練을 전액 국비로 이수케 하여 職場을 갖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하려면 전망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所得을 올려야 함은 自明한 사실입니다.

시책에 적극 참여 하셔서 職業訓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술을 배워, 家運을 好轉시키고 자립의 기반을 앞당기는 동시에 자랑스런 技能人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꿈을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忠南道內에는 洪城과 論山에 公共職業 訓練院이 있는데 지난 2월에 모집이 끝났고, 또 도내에는 중장비, 자동차 정비, 고압가스 열관리, 전자통신, 간호, 미용등 25개 私設學院이 있는데 연중 수시 모집을 하고 있어서 희망 하시면 國費支援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 가셔서 받아도 됩니다.

또한 5월~6월 사이에 각 地方 勞動廳 또는 勞動 事務所에서는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자동차 정비, 굴삭기 운전, 선반, 유선, 통신 기계, 미용 등 18개 직종에 2,875명(전국)에 달하며 3~6개월간 전액 국비로 훈련시켜 전원 취업 알선할 예정이고 이 훈련은 學歷이나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生活 保護者를 우선 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합니다.

뜻을 세우시고 거주하시는 市廳 또는 郡廳 社會課로 가셔서 상담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희망에 찬 결단을 기대 합니다.

浸禮神學大學캠퍼스 移轉起工式

1989년 5월 30일

祝 辭

오늘 浸禮神學大學의 開校 35周年 記念禮拜와 더불어 조용하고 아늑한 교외에 새로운 캠퍼스 起工式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랜 歷史와 信念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福音을 傳播하고 수 많은 基督敎 敎役者를 배출한 본 大學의 크나큰 발자취와 貢獻에 대하여 道民과 더불어 讚辭를 드립니다.

한 世代를 넘는 가르침과 배움의 傳統!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基督敎의 理念 속에서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고 나서 오늘날의 기쁨과 祝福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開化期의 역경과 日帝의 질곡아래서도 우리 民族에게 希望을 주고 信念을 부어주었던 浸禮敎團이 6·25직후의 참담한 좌절 속에서도 이곳 대전에 基督敎敎育의 殿堂을 세운 것은 바로 의지를 세운것이요 우뚝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개교당시 황량한 만주와 北韓地域에 편중돼 있던 浸禮敎團의 大田 定着은 곧 地域社會의 精神文化 啓發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소중한 계기였슴을 回顧합니다.

이제 지난 30여년동안 정들었던 목동 캠퍼스를 벗어나 여기 하기동 캠퍼스로

擴張 移轉을 하는 것은 지난 35년이 본 神學大學 제1의 成長期였다면 오늘 이 시각부터는 제2의 跳躍期를 맞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캠퍼스에서 깊고 넓은 基督敎의 理念과 사랑을 공부한 지성인들은 지역사회는 물론 基督敎 韓國의 指導者와 함께 아시아와 世界의 敎團을 이 끌어 나아갈 훌륭한 인재가 틀림없이 배출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이러한 所望과 祝福의 成就는 바로 오랜 세월동안 쌓아 올린 역사와 전통 그리고 人材의 量보다는 質을 고집스럽게 지향해온 大學의 學風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急激하게 變化되는 고도의 産業社會化 現像, 그리고 傳統的 價値와 새로운 意識사이에서 생기는 空白과 당황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時代에서 더 많은 基督敎의 指導者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장의 자랑인 浸禮 神學大學이 크고 넓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인재의 양과 질을 함께 目標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歡迎합니다.

더욱이 이곳 하기동 캠퍼스를 물색할 때 함께 參與하고 苦心한 한 사람으로서 感懷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신축공사의 진행과 더불어 앞으로 浸禮神學大學의 무궁한 發展과 허긴 學長님을 비롯하신 大學家族, 그리고 同門 여러분들의 幸運과 榮光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6 월



▲ 망향의 동산 참배

1989

1989년 6월 1일

訓　　示

오늘은 지난해 6월 1일, 내가 부임해서 첫번째 月例朝會를 한지 1년만에 다시 갖는 月例朝會로 퍽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던 반면, 국가적, 지방적으로 볼때 아주 보람있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거 어느때보다 알찬 1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道政遂行에 自信感을 가질 수 있었던 1년이었다고 回顧를 해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와함께 정말로 열심히 자기의 責任을 다해주고,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워 精誠된 마음으로 道民들에게 겸허한 行政을 펴는데 큰 전환의 기간을 보냈었다고 스스로 評價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내가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內部結束에 대해서 상위직의 희생적 노력과 하위직의 상위직에 대한 尊敬을 바탕으로 同僚愛로 함께 뭉쳐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년동안 출근시간을 1시간씩이나 앞당기고, 자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마다하지 않고 도와준 전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년을 단위로 反省과 設計를 반복해 나갑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道知事라는 公

人의 의미에서 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만, 과거는 현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마감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狀況을 제대로 診斷하고 評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가 존재하는 것은 현재를 享樂하기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밝은 來日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역사를 評價하는 것처럼 큰 의미를 갖는것은 아니지만, 道政責任을 맡아 1년을 보낸 기간이 道政史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혁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러가지 상황적 여건을 檢討해 보면서, 내가 처음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하고자 했던가 하는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道政을 전개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현재를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제의 잘못과 어제의 功績을 함께 檢討해 보는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來日로 이어지는 현재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부임후 그동안 道政方針을 설정해서 추진해 온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人本行政으로써,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적 측면을 앞세운 道行政의 哲學的 基礎였다고 생각합니다.

道政이란 대체로 물량적, 물질적 측면만을 강조하기 쉽고, 또 과거 道政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당장 可視化되는 물량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먼 앞날을 내다보고 基礎를 다져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道政의 方針을 설정, 그 제일을 "人本行政"에 두었고 이는 行政目的 자체가 사람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勿論, 그 결정과정 자체까지도 사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3共和國에서 5共和國을 거쳐 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行政能率의 극대화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이에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이 지금까지 대단히 큰 葛藤要因을 噴出시키고 있습니다.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적인 富를 축적하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등 可視的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지만, 개인이 지시하고 개인이 決定하며, 개인이 推進하는 독선적 行政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물량적 성장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균형된 成長을 追求해 나가되, 인간을 위해 늘 생각하고 인간을 위해 判斷하고 인간을 위해 決定하고, 인간을 위해 業務를 推進해야 하며, 이러한 근본을 유지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組織의 힘과 能率을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 내부적으로도 전 공무원 한 家族運動을 적극적으로 展開해 나감으로써 공무수행을 위한 기계적 行政組織으로써만이 아니라 同僚愛가 바탕이 된 인간적 職場으로 內部結束을 다져 나가야겠으며, 司正業務에 있어서도 公務員 非違나 摘發하고 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도민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道를 찾는 企業人을 비롯, 轉入住民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道民의 기대에 부응하고 道民에 무한한 奉仕를 아끼지 않는것이 바로 人本行政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和合安定으로써 이는 경제적 발전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民主主義 發展의 滋養分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和合을 이루어낼 수 있는 忠南精神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더욱이 道政의 方向을 물질적 측면보다는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오늘 당장 實績이 나타나는것 보다는 3년, 5년, 10년뒤에 나타날 수 있는 狀況을 豫見, 행정을 펴 나가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마을運動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단순한 잘살기 運動으로써, 60-70년대 중반까지 環境改善과 所得增大,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정신적 측면과 사회체육방향 등으로 그 중심을 옮겼지만, 앞으로의 새마을運動은 우리모두가 "함께 生活의 質을 높일 수 있는 잘살기 運動"으로 변모시켜 나가되 새로운 도민정신을 발양할 수 있는 도의새마을 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가진 사람들의 지나친 誇示慾과 이기주의적 行動등으로 國民和合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小貪에 집착하여 大失을 犯하는, 즉, 大義를 喪失한 소치라 하겠습니다.

일찌기 孔子께서 "小人은 不和而同이요, 君子는 和而不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大義를 중히 여기는 道義새마을運動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和合과 安定을 더욱 다져나가야 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스승尊敬運動의 일환으로 추진한 스승의 날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둔것은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좋은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道義를 존중하는 忠南人의 긍지를 높이는 시책으로써, 앞으로도 새로운 忠南精神을 발휘하는 가장 진실된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물질적 측면으로써 創意啓發의 追求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이 충남을 福된 約束의 땅으로 가꾸어 내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創意를 아낌없이 발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부임직후 가장 먼저 신경쓴 일은 大田直轄市 승격 분리후의 예상되는 道勢萎縮部分을 사전 도출 대비하고 행정의 空洞現象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內務部 관계관을 이해 설득시키고 長官께 報告하여 6개월 전에 直轄市昇格 準備團을 발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며, 이 일은 道民의 도세약화의 우려를 조기에 拂拭하고 오히려 도세회복에 대한 自信感을 갖게 하여 모든 力量을 이에 결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忠南開發을 과거 大田發展 중심에서 均衡開發 쪽으로 方向을 설정하고 어느 지역이든 소외되는 곳이 없이 道政을 이끌어 가겠다는 意志에서 권역별 開發計劃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道民쪽에서 볼때, 忠淸人의 생각은 아주 소극적인 無待接論에만 집착돼 있어 적극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해 왔으며,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전 公務員의 대내, 외적인 活動이 컸다고 評價할 수 있고, 그 성과는 기필코 하나씩 結實을 맺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내년도 地域懸案事業費 확보를 위하여 市長, 郡守들이 직접 上京活動을 벌리고 있는데 "努力하는 過程"이 중요한 일로서 당년에는 비록 효과를 못얻더라도 언제인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임 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농촌을 이끌고 갈 "農村指導役軍 育成問題"입니다. 4-H會員, 農漁民後繼者, 農村指導者등에 대하여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고 認定感 부여로 農村에 땀을 흘리게 하고 흘린 땀에 愛情을 갖고 보람을 찾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되, 政府는 재정적 지원을 지방행정은 農村을 지키는 사람을 육성하는 사람支援 쪽으로 行政의 方向을 두고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부임시 3대 道政方針을 기초로 금년 道政의 3대목표를 설정하고, 大田市 분리이후 새로운 忠南時代를 확실하게 열어 나가고자 우리 모두가 한마음되어 3大力點施策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올 한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을 맞아 되돌아 보면, 금년 5월은 유난히도 일기가 좋았습니다만, 좋은 일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볼때는 혼란한 사건들이 많았던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東義大 警察官 犧牲事件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조차 가르치는것 보다는 노조를 결성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教員勞組事態, 또는 京畿 富川, 慶南, 蔚山등 지에서 일어났던 勞使紛糾의 극한적 대립상황등은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혼란속에서도 政府는 정부대로 이제 더이상 이러한 상황을 民主化의 이름속에서 放置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게 다지게 되었고, 國民들은 국민들대로 이것이 民主化는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는 轉換點의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젊은 몰지각한 소수의 學生들이 民主主義는 피를먹고 산다고 하면서 화염병과 돌을 던져 民主主義를 爭取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하여 대학내에 평양시가지 사진을 전시하는 사태를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어떻게 보면 방관 내지는 망각하는 習性마저 생겨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民主主義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지 함께 모두 반성하면서 이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5.27 燕岐郡 모내기행사에 오셔서 住民들과 對話를 하시면서 "더이상 民主主義 이름으로 左傾暴力勢力이 준동하는 것을 放置해서는 않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오늘을 보다 슬기롭고 밝은 未來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6·25 廢墟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은 피와 땀의 結晶體인 오늘에 살면서 이 나라가 바로 6·25를 겪지 못하고, 經濟開發計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주기 시작한 60년대말 또는 70년대 이후에 태어났던 젊은 世代들이 자기들만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른들로써 이것을 올바로 잡아주어야 할 義務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旣成世代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과거의 時代的 狀況을 외면하곤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세대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수도 있는 것이고, 民主化를 進展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이끌어 갈때, 共産化가 되는 것을 放置하게 되는것은 우리가 개인적 살길을 포기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이상 責任을 미루고 회피하거나 後退할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음을 바로 6·25를 겪었던 이 달에 다시 음미해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25기간 동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라의 獨立과 發展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護國英靈을 追慕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정리해야 할 달이 바로 報勳의달 6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地方行政 公務員들이 비장한 각오로 자기의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로서, 남에게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해서는 안될 절박한 상황임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

니다.

나에게 부여된 책무를 놓고, 나한테 利益이 될 일이냐? 나한테 損害가 날 일이냐? 내가 責任져야 할 일이냐? 내가 責任을 免할 수 있는 일이냐?를 따지고 저울질 하며 주판질 해서는 결코 안되며, 또 할 수도 없는 狀況입니다.

問題는 나라가 흔들리고 체제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일로 나만 죽는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 딸까지 함께 죽는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자세로, 어떤 사안이 우리 忠南發展에 필요하고 體制를 守護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발휘해서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어제는 舒川地域과 우박피해를 입은 公州地域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農民들도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북이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에 더이상 어디서 물을 뿜어 올릴수도 없는 狀況에서 집안에 파놓은 食水를 경운기에 실어다 한바가지씩을 못자리에 붓고 있는 검디검은 얼굴과 그리고 터진 손을 함께 잡고 속으로는 같이 슬퍼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라면, 또 각오라면 우리가 충분히 9년연속 豊年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農民들에게 강인한 意志力을 심어주고자 격려의 말을 하고 왔습니다.

함께 물통을 들어 부으면서 自然의 힘이 거대하다는데 畏敬心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왔는데, 그 지역의 公務員들이 아침 6시부터 밤 늦게까지 農民들과 生活을 함께 하고 있다는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흐뭇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地域은 이미 모내기가 완료 되었고, 물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금년도 지난해에 못지않은 豊年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豊年農事는 우리모두의 精誠이 하늘에 통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것은 아니라는 말

씀을 드리며, 우리가 支援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最少의 費用을 들여서 最大의 効果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6월을 맞이 하여 두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되돌아 보면서 오늘의 보람을 찾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設計함으로써 하루라도 절대로 허송하지 아니하는 行政을 우리 다함께 전개하자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護國 英靈들에 대한 追慕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方向을 가슴속에 설정하고, 과거의 선배 英靈들께서 나라를 이끌어 오고 이룩해 오신 業績을 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지금 겪고있는 가뭄등 사회적 시련을 극복하는데 우리들의 精誠과 努力을 다하고, 그 精誠과 노력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금년도 豊年農事를 이룩하자는 期約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내가 지난 4월에 熊本縣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傳統이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先輩들이 쌓고 또 쌓아놓은 토대위에 우리도 새로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더 올려서 우리 後輩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과거 훌륭했던 분들도 중요하고 큰 業績들을 많이 남기셨지만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개선되어 나가는 行政, 더 나은 業績을 만들어서 우리 선배들에게는 물론 우리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만 우리 고향과 나라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함께 傳統을 維持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사람의 힘은 대단히 미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200만 道民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마음과 투철한 使命感을 가지고 發展行政을 主導해 나간가면 이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大田直轄市의 분리로 약화된 道勢의 早期回復과 2000年代를 향한 새로운 忠南時代를 여는 役軍으로써 맡은바 責任을 성실히 遂行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護國·報勳의 달을 맞아 國家 有功者및 遺家族에게 人事

1989년 6월 1일

書 翰

뜻깊은 護國·報勳의 달을 맞이하여 먼저 高堂의 행운을 기원 합니다. 일찌기 우리 민족의 生存과 自由를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신 殉國 先烈과 戰歿軍警의 높은 충절을 추앙하면서 그 遺業을 받들어 오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政府에서는 6월 한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여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호국 영령의 높은 뜻을 추모하고 선양함으로써 온 국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國家 有功者와 그 遺族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어려운 여건을 딛고 일어서 눈부신 國家 發展을 이룩하고 마침내는 세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한 '88서울올림픽을 성공 시킨것도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국가가 累卵의 危機에 처해 있을때 反共 戰線에서 산화한 전몰 장병과 국가 유공자들의 貢獻과 犧牲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이기에 금번 호국·보훈의 달은 더욱 깊은 의미와 숙연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처럼 우리 先代가 역경과 곡절을 겪은 다음 뼈 아프게 얻은 오늘의 성장과 跳躍의 機會를 잊어버린 일부 既成世代와 젊은 학생들이 北韓 共産黨과 같은 의식의 發想과 行動은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民主化의 과정은 온 국민이 所望하는 바 이지만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뜻에 반하는 환상적 理念과 급진적 事故 그리고 일방적 行動主義는 마땅이 이 땅에서 추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것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이 전환적 시기에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 社會의 安定과 國家 安保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신님들의 유업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다짐 드리는 바 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幸運과 더불어 하나님의 加護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9년 6월 8일

激 勵 辭

멀리 市郡에서 오신 民俗놀이 선수 여러분!

그리고 公州市民과 道民여러분! 이처럼 짙은 녹음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錦江邊에서 첫번째의 단오절 民俗놀이 大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祖上들은 오랜 옛날부터 4계절이 뚜렷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氣候와 아름다운 風光에 따라 다양한 歲時 風俗을 즐겨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傳統的인 風俗이 많은 것에 대하여 民俗學者들은 農耕社會에서 反復되는 勤勞의 어려움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農事의 마무리와 새로운 의욕을 얻는데 그 知慧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는 서운한 憾情을 풀고 同苦同樂하는 이웃간의 和合을 도모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의 希望을 期約하는 민속 놀이야 말로 반 만년 우리 民族의 歷史를 가꾸어온 根本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民俗놀이는 거의가 庶民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함께 즐기고 삶의 멋으로 장식해온 소중한 文化遺産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가슴 깊은 共感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端午節은 우리의 祖上들이 농사의 豊作을 所願하는 제삿날로 삼아 수리치떡 등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茶禮를 올리면서 여자는 그네를 뛰고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즐기는 男女가 동등한 위치에서 즐기는 名節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가 近世에 걸쳐 思想과 文化의 격동을 겪는 과정에서 설날과 仲秋節 다음으로 치던 우리 고유의 端午 名節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이 農耕社會에서 高度 産業社會로 변화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 時代에 알맞는 고유 민속의 保存과 宣揚 특히 端午節과 같은 민속놀이의 계승은 곧 民族文化를 보람있게 가꾸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올림픽을 칭찬하던 外國의 어느 유명한 學者가 말했듯이 "가장 韓國的인 것이 가장 世界적인것"이며 이것이 곧 서울올림픽 成功의 밑바탕 이었다는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 두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端午節 民俗놀이를 계기로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놓은 文化遺産을 더욱 소중히 갈고 닦아 나갈 것을 道民과 함께 다짐합니다.

아울러 이 뜻있는 행사를 주관 해주시는 李雄烈 中都日報 회장님, 林喆圭 社長님과 社友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리면서 선수 여러분의 善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自由民主守護 大田·忠淸南道 協議會 創立總會

1989년 6월 8일

祝 辭

오늘 이 시대를 올바르게 診斷하고 前向的으로 이끌어 가시는 指導級 人士 여러분들이 한데 모여 自由民主守護 大田直轄市·忠淸南道協議會의 創立을 보게된 것을 진심으로 歡迎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組織과 團體가 함께 일어서 우리가 지난날 갖은 고난을 克服하고 일으켜 세운 이 나라의 존립자체를 뒤흔드는 左翼勢力에게 이처럼 단호한 意志를 보여주는 것이 더 없이 믿음직 스럽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우리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의 勸誘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結成하는 自由守護와 民主韓國을 위한 충청인의 외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대학에서, 知識人과 文化 藝術界에서, 그리고 산업의 現場, 심지어는 우리 농촌과 어린 학생들의 배움터인 國民學校 敎室에까지 左翼의 붉은씨가 뿌려지고 또 돋아나고 있습니다.

自由民主 守護의 指導者 여러분!

그리고 忠節의 傳統을 빛내는 忠淸人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共産主義로 부터 얼마나 뼈아픈 苦痛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과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많은 苦痛과 슬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祖国의 分斷이라는 엄연한

현실과 더불어 1천만 離散家族의 恨은 또 누가 풀어줄 것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시켜 줄 제3자는 아무도 없으며, 오로지 우리 自由大韓과 저 北韓 共産當局 사이에 가로놓인 絶對絶命의 課題입니다.

그러나 고장의 指導者 여러분!

지금 저들 北韓共産당국이 진정으로 民族의 和解나 祖国의 平和統一에 대하여 진지한 姿勢와 努力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엊그제 저들은 赤十字를 통해 남북에 흩어져 있는 離散家族의 相互 訪問을 다시 提議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人道主義的인 이 提案도 실은 오늘날 우리의 社會的 現實을 이용하려는 고도의 對南戰略이요, 對外宣傳用 政治工作이라는 사실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問題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共産主義를 이기는 것은,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는 길은, 또한 祖国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는 지름길은, 오직 하나 이 땅의 左翼勢力이 단 한 뿌리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내부의 安定과 團結속에서 저들이 결국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품안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도록 우리의 힘을 備蓄하는 일입니다.

우리모두 이 힘을 기르는 일에 忠清人의 의연한 기개를 보여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生鮮묵과 게맛살料理講習 및 試食会

1989년 6월 9일

祝 辭

대전시가 우리도에서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로 이렇게 大田直轄市 主婦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많이 뵙게된것이 오늘의 아마 처음인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러한 훌륭한 자리에서 제가 축사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된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것 같습니다.

祝辞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을 뵙게 되면서 엉뚱한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6. 25때의 생각입니다. 저희 家族이 피난을 갔었는데 보리개떡을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식사로 연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나이 10~11살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어머니에게 왜 보리개떡만 매일 먹어야 되느냐?"라 했었던 記憶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때 生鮮을 먹었던 기억은 고등어를 사서 먹었던 일입니다.

여기 계신 50대이상의 主婦님들께서는 고등어 한손이라는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고등어를 소금에다가 절여서 배를 따가지고 적은 고등어를 거기에다 넣어 짚으로 묶었던 것으로 이를 고등어 한손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主婦님께서는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고등어 한손을 사가지고 가면은 한달을 먹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이 불과 30여년전입니다.

오늘 그 고등어 한손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양이 좋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料理講習에 이렇게 많은 주부님들이 참석 하신것을 보면은 정말로

그때와는 隔世之感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가꾸며 일으켜 온 나라가 30여년만에 이와같이 변모되었다 하는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마침 6.25의 달을 맞이하여 이러한 자리에 서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고 우리 선배님들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라를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발전시키고 이끌어 온 이 나라를 더욱 더 잘 이끌어야 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맛을 주로 생각하는 음식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營養의 質을 생각하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묵의 歷史를 찾아보니까 日本은 100년의 역사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약 30년의 역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접해 있고 특히 우리 忠淸南道는 瑞山, 泰安 이쪽으로 해서 淸淨海域이고 또 국립해상공원인 이 지역에 수억원의 자금을 들여서 고기가 잘 살 수 있는 고기집을 넣어주고 또 인공부화를 하고 稚魚를 방류해서 많은 고기를 養殖하고 자연적으로 생육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젖줄도 좋은 음식으로 더 營養價 있게 개발해 내지 않으면 우리의 식탁에서 환영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주부여러분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와같이 많은 주부님들이 나오신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가정의 식탁을 가꾸고 가정의 가족건강을 지키기 위해 家族營養을 보살피는 것처럼 어렵게 어렵게 가꾸어 만들어 낸 우리나라를 잘 가꾸고 발전시키는데 主婦님들의 역할이 기대 됩니다.

오늘 이와같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왕준련 한국 식생활 개발연구회 회장님과 그리고 삼호 물산 주식회사 조강호 회장님과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水産資源開發과 그리고 수산 자원이 우리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水産庁의 漁政局長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여 주심에 대해 정말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忠淸南道 도민과 대전직할시민 여러분의 식탁이 오늘 이후로 더욱 더 윤택하여 지시길 빌어 마지 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있으시고 건승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在富川忠南道鄕友會創立總會

1989년 6월 10일

祝　　辭

이번에 富川市에 모여 사는 우리 忠南 出身 出鄕人 여러분이 뜻있는 鄕友會를 창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鄕友會員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친지가 살고 계신 고향 도민들의 따뜻한 安否와 人事를 전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향에는 오랫동안 계속 되었던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지는 등 금년 農事를 크게 걱정했으나 흡족한 비가 내려 고향 사람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1월1일을 기해 大田 直轄市가 승격 분리됨에 따라 고향 忠南도 道勢의 많은 부분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道民들은 대전시라는 맏아들을 分家시켜 준 기쁨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약화된 道勢 回復에 도민 모두의 힘과 力量을 한데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멀리 객지에 계시지만 고향의 發展을 위해서 아무쪼록 많은 聲援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在 富川 忠南 鄕友會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의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정을 나누시고 相扶相助하는 전통적인 道民 精神을 선양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단결과 화합이야 말로 禮節 바르고 人情 많은 忠南人의 긍지와 명예를 더욱 드높이는 일이며 고향을 사랑하는 愛鄕心의 근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創立을 본 재 부천 충남 향우회의 앞날에 무궁한 發展과 더불어 향우회원 여러분의 家庭에 가득한 幸運과 祝福을 기원합니다.

第12回 協會長旗 爭奪및 道內 種別태권도 選手權 大會

1989년 6월 16일

激 勵 辭

오늘 초여름의 문턱에 이곳 대천에서 고장의 태권도 家族이 한데 모여 제12회 會長旗爭奪을 겸한 금년도 種別 選手權 大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大會는 大田直轄市 體育會의 분리에 따라 우리 태권도협회가 새로운 執行部를 構成한 이후 첫 대회이며 全國體典을 앞두고 選拔戰을 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우리의 國技인 태권도의 發展에 힘쓰면서 또한 忠南體育 發展에 貢獻해오신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와 激勵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초에 우리 태권도 협회는 물론 忠南體育이 둘로 나뉘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體育施設은 물론 모든 분야의 選手와 指導者들이 우리 忠南을 떠난 후인 지금 이제 우리 忠南體育은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을 體育 振興의 元年으로 삼아 전통적인 忠南道民의 底力을 바탕으로 道民과 體育人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다시 한번 忠南體育의 矜持와 名譽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태권도 가족여러분!

태권도는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이 心身을 바르게 연마할 수 있는 좋은 運動競技

입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우리 青少年들에게는 평소 그들의 生活 속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뛰어놀고 健全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의 責任임을 깊이 認識하고 스포츠를 통한 青少年의 지도육성에 우리 體育人 모두가 努力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要請과 課題를 안고있는 우리 忠南 태권도에 대한 期待가 자못 큽니다.

부디 그동안 땀흘려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發揮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大會 準備에 애쓰신 이종승 會長님을 비롯한 任員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致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第20回 忠南地區JC會員大會

1989년 6월 17일

祝 辭

행동하는 젊음의 충남 JC회원 여러분!

그리고 JC부인회원 여러분!

오늘 스무번째의 뜻깊은 成年 會員大會가 충절과 정서의 도시 溫陽에서 이처럼 성대히 開幕 된 것을 道民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6월 본인이 고향에 돌아온 직후 여러분과 함께 公州에서 반가운 만남의 廣場을 갖고 다시 1년만에 再會를 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습니다.

본인이 여러분과 처음 만난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나간 1년은 실로 몇 년의 흐름과 변화에 버금하는 期待와 成就의 싯점 이었습니다.

그 격한 물살의 흐름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땀흘려 努力하는 方向과 일치하는 줄달음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에게 큰 失望과 衝擊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世界를 熱狂시킨 서울 올림픽이 그러하였고 오늘날 사회 일각의 성급한 行動主義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JC家族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變化나 挑戰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물꼬를 트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는 知慧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더욱이 大田直轄市를 昇格시킨 기쁨 뒤의 도세 회복, 안정과 질서위에 성취되는 地方化 時代, 그리고 벅차게 다가오는 西海岸 時代의 主役으로서 地域社會는 지금

여러분 젊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情熱, 넘치는 意慾 그리고 강인한 推進力이 우리 도민을 이끌고 시대의 여명을 밝히는 原動力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신념과 젊음 그리고 組織과 知性으로 충만된 JC회원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 道政과 도민의 期待가 자못 큽니다.

친애하는 JC 회원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슬기를 가진 道民입니다.

우리는 또 때가 오면 분연히 일어서 그 동안의 침묵에 비례하는 강인한 決斷과 實踐力을 보여주는 忠淸人의 기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잘 살수 없는 時代, 더불어 내일을 設計하고 힘모아 오늘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召命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알찬 보람을 위해 行動하는 JC, 웅비하는 忠南을 함께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木川己未獨立萬歲運動紀念碑除幕式

1989년 6월 17일

祝 辭

오늘 己未獨立萬歲運動 根源地의 한 곳인 木川國民學校 校庭에서 獨立萬歲運動 紀念碑 除幕式을 갖게 된 것을 感懷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라와 겨레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先代의 전통적인 精神遺産에 대한 自負와 矜持가 자못 가슴 뿌듯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所重한 그 忠節의 遺産을 오늘에 되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를 고스란히 물려주고자 하는 金在鴻 木川國民學校 총동창 회장님을 비롯하신 同門여러분, 그리고 郡民여러분의 意志에 대하여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 처럼 이곳 木川땅에 우리 民族 精神의 샘터인 獨立紀念館이 우람하게 터를 잡은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風景이 아름다워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장이 겨레의 自強을 부르짖고 民族의 獨立을 宣言하고 主權의 回復을 세계에 宣布한 己未獨立萬歲運動의 永遠한 歷史 遺蹟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찬기운이 가시지 않은 3월의 하늘에 獨立萬歲의 우렁찬 함성과 깃발을 높이 세웠던 이 校庭!

여기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喊聲이 저 푸른 녹음과 함께 우리의 귀청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속에 푸르게 돋아 나고 있습니다.

木川 己未獨立萬歲運動 紀念碑를 세워주신 建立推進 委員여러분!

그리고 天原郡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구김살 없이 뛰어노는 이 國民學校 運動場에 紀念碑를 세우는 취지를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紀念碑가 과거의 歷史에 대한 단순한 象徵物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와 미래의 主人公들에 대한 敎訓的인 象徵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세대가 先進 韓國의 成就, 그리고 祖国의 平和統一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깃발이요 里程表로 삼자는 提議로 오늘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第6回 보이·걸스카우트 큰잔치

1989년 6월 18일

激 勵 辭

자랑스러운 스카우트 隊員 여러분!

그리고 指導敎師와 學父母 여러분!

오늘 우리 겨레의 영원한 象徵이요, 民族精神의 샘터인 이곳 獨立紀念館에서 스카우트 큰 잔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금년으로 여섯번째를 거듭한 이번 스카우트 큰 잔치는 大田直轄市의 두 스카우트가 분리되고 난 다음 새로운 意志와 信念으로 새 出發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意味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한 자리에 모여 實質的인 工夫를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共同社會의 價値와 秩序를 깨우치면서 서로 友情을 나누고 協同心을 배우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의 人格이 完成되는데 필요한 自立精神과 率先 垂範, 그리고 남을 생각하고 돕는 것을 經驗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또 이러한 經驗과 함께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스스로 자기 目標를 세우고 實踐하며 반성할 때 더좋은 結果를 얻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우고 익히는 스카우트 隊員 여러분!

일찍이 한 青少年 運動家는 "少年들이여 野望을 가져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곧 자기 目標와 信念을 갖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

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모여 스카우트의 큰 잔치를 벌이는 主題가, 獨立精神과 더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 바친 분들의 精神을 繼承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의 만남에도 목적이 있듯이 어린 青少年 여러분에게는 하루의 目標 일주일의 生活 計劃, 한달, 1년, 그리고 여러분 人生에도 뚜렷한 目標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目的地를 가는 과정에서 가로막히는 일도 자주 있고 失望을 주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여러분이 주저 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勇氣, 가로막은 벽을 뛰어넘고 돌아가는 信念과 知慧가 여러분의 장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움에서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克服해 나갈 수 있는 忍耐와 克服 그리고 成就의 보람과 協同의 基礎를 배우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평소 여러분은 家庭과 學校 生活을 반복 했지만 오늘 修鍊大會에서는 새로운 것을 한껏 배우고 익히는 보람을 찾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스카우트 큰 잔치를 준비하고 指導해 주시는 안세영 大會長님, 윤정자 걸스카우트 忠南聯盟會長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에게 致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第36回 反共의날 紀念式

1989년 6월 19일

激 勵 辭

친애하는 自由의 勇士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른 여섯번째로 맞는 反共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가슴속에 永遠히 샘솟는 自由에 대한 信念과 마주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이신 反共 愛國同志 여러분이 36년전 바로 오늘 自由 아니면 주검을 달라고 외쳤던 그 결연한 意志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찌기 태어날 때 부터 우리 人間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自由와 民主主義는 우리의 生命이 存在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國家와 民族의 이름이 永遠할수록 지키고 가꾸어야 할 절대적인 召命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人間답게 살아갈 수 있는 自由 民主主義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냉엄한 事實을 일찍이 體驗하였습니다.

며칠 후면 北韓 共産集團이 일으킨 뼈아픈 6·25의 제39주년이 됩니다만, 그 당시 우리는 분명히 自由와 民主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平和와 安定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것을 지키고 누릴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저들로 부터 그 고통과 불행을 당했습니다.

自由를 목숨으로 지킨 勇士 여러분!

우리는 北韓 共産主義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 革命의 手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目的을 위해서는 人間을 思想의 道具로 삼고 부모와 형제, 道德과 人倫을 진흙같이 짓밟아 버리는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自由의 勇士 여러분이 民主 大韓이냐 아니면 北韓 共産集團이냐 하는 선택의 岐路에 서 있을 때 共産主義者들은 어떻게 흉계를 꾸몄습니까?

갖은 術策으로 反共愛國 同志들을 구슬렸지만 끝까지 信念을 굽히지 않은 여러분은 오늘날 이 따뜻한 自由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으로 다시 끌려간 사람들은 오늘 어떠한 生活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反共勇士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다시 自由에 대한 價値와 信念의 높은 깃발을 높이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社會의 구석 구석에는 左翼勢力이 지금 고개를 쳐 들고 있습니다. 共産主義者들에 의한 뼈아픈 상처가 채 아물기도 前, 이 땅에 다시 左翼의 싹이 튼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그 現實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좌익세력의 잎새가 무성해지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내야만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左翼과 함께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 소리 없는 싸움에서 저들에게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연한 宣言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寄生하기 시작한 共産主義, 北韓 共産主義와 한치도 차이가 없는 左翼勢力을 깨끗히 몰아내자는 굳센 다짐으로 오늘 激勵의 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忠淸南道 女性大會

1989년 6월 20일

激 勵 辭

친애하는 女性 指導者 여러분!

짙은 綠陰이 우거진 이 6월에, 도내 100만 女性을 대표하신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時代와 社會가 要請하는 참된 女性의 役割에 대하여 진지한 討議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먼저 家庭에서는 賢明한 아내로서, 知慧있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사회의 건강한 構成員으로써 家庭과 地域社會의 先進化에 貢獻을 하고 계신 任令中 女性團體協議會長님을 비롯하신 女性 指導者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80년대 後半은 그동안 물량적 成長과 所得의 增大라는 하나의 目標아래 抑制되었던 모든 慾求와 葛藤이 한꺼번에 噴出되는 時點으로써 不安하고 걱정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現像은 하나의 과도기적인 表出이며 곧 理性과 秩序를 回復하여 차분한 安定과 成長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社會秩序와 國家發展의 正常化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앉아 있어도 저절로 된다는 뜻은 아니며 하루빨리 자기 위치를 되찾고자 하는 反省, 서로의 忠告와 助言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課題입니다.

현명하신 女性 指導者 여러분!

본인은 오늘날 우리 社會에 만연되고 있는 民主化의 熱氣와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각계각층의 主張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韓國이라는 나라는 國土의 分斷과 두개의 體制로 나뉘어진 民族이 40년 가까운 歲月을 서로 헤어져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30여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時間을 아끼면서 피땀으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主導하고 나서 先進化의 문턱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과일에 비한다면 여름내 땀흘려 가꾼 한알의 사과가 바로 成熟하려는 풋과일의 位置라고 할 것입니다.

완전히 익지도 않은 그 과일을 만일 누가 따 먹으려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벌인다면 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나무랄 것입니다.

그러나 女性 指導者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韓國社會의 적나라한 實情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産業現場의 勤勞者와 大學生, 知識人 등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주신다면 우리의 일시적인 어려움은 보다 앞당겨 克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女性大會에서는 올바른 家庭과 社會에 대한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이 어려운 難局을 헤쳐가는 牽引車 役割을 賢明한 우리 女性들이 맡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運輸團體長과 懇談会

1989년 6월 21일

人　　事

진작에 運輸團體長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 이렇게 늦게서야 뵙게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大田市가 직할시로 분리되고 새로 團體가 組織되어 선출되신 각 조합 이사장님과 지부장님을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또 道政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도정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또는 내부의 고충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建議하시고 그러한 사항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서로 檢討하였으면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忠南道가 대전 직할시를 분리시킴에 따라 저희도세가 적게는 30% 많게는 70%가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만 보더라도 우리 忠清南道 만큼 발전의 여건이 잘 갖춘 지역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서울, 京仁地域의 포화상태라든지 훌륭한 우리 충남공업 입지 여건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내걸고 있는 서해안 종합개발 계획등을 볼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오히려 대전직할시가 분리되기전의 大田市 發展 상황속에서 他地域 發展을 安易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을 떨쳐 버리고 새롭게 더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바로 서해안 종합 개발계획을 前任 韓陽殊 知事님께서 용역을 주신것을 제가 마무리 짓고 곧 이어서 금년도에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6.7 最終報告書를 만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忠淸南道를 6개권역별로 나누어서 이제는 大田 中心의 파행적 발전으로부터 각 圈域 中心으로 해서 각 지역별 均衡開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忠南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計劃의 보고서가 나오면 도민들에게도 일일이 보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만, 이 권역별개발계획사업만 보아도 이 개발계획에 참여했던 대학교수들이 우리 충청남도 만큼 여러가지 측면에서 즉 觀光, 工業, 水産業등 1차산업 할것없이 어느 타시도 보다도 개발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충남무대접론도 나왔고 國家開發計劃에서 소외 되었다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좋은 개발의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연초에 도세회복이 3년이내에 가능하다고 道民들에게 말씀드렸읍니다만 이제는 그 約束을 오히려 훨씬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體育分野는 단기일에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경제측면에서만 본다면 3년 이내에 충분히 도세를 대전직할시 분리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도세회복도 권역별개발계획시책의 모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交通問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착수하는 사업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이며, 또는 도로 개설, 산업도로증설 등 개발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발시책은 여기에 계신 運輸業體를 代表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뒷바침해주셔야만 될것으로 봅니다.

交通의 發達은 도로의 개선은 물론이지만 바로 운수업하시는 여러분들의 業體에서 상당부분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忠南 運輸業新設과 또는 자동차 대수 증대방안 못지않게 내부 從事員과 여러분의 도 개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認知하시다시피 여러가지로 國家經濟가 여러운 측면에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大統領께 경제부처에서 하반기 경제대책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연간 물가가 목표 상승율인 5%를 훨씬 상회해서 잡힐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율도 '88 하반기에서 부터 '89 상반기까지 약 62% 인상된 것으로 봅니다. 가까운 日本이나 自由中國보다도 약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노사분규 등에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忠南勞使問題는 34건이 발생했는데, 단한건을 제외하고는 다 해결된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지역 보다도 원만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택시업체외 여러 업체의 분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運輸業界의 분규가 溫陽地域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던것은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수업체에서도 임금조정시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도 원만하게 타결될 전망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의 여건이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가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懇談会를 갖는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여러분 각 업체가 날로 繁昌하시길 빌면서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自由와 平和를 지키는 忠淸南道民大會

1989년 6월 22일

激 勵 辭

충절의 전통을 빛내는 道民여러분!

그리고 반공 애국 市民여러분!

우리 民族史에 준엄한 敎訓을 주는 6·25 제39주년을 바로 눈앞에 둔 싯점에서 自由와 平和를 지키려는 道民意志가 이처럼 하나의 큰 목소리로 結集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월이 조금 흘렀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護國 영령들의 그 수많은 犧牲과 저 6·25의 뼈아픈 참상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랜 歷史와 찬란한 民族文化遺産을 이어받은 우리가 불과 30 수년 전에 스스로 체험한 不幸을 까맣게 잊어버린듯한 오늘의 狀況에 대하여 깊은 自責과 함께 지금부터 精神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道民의 覺悟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道民 여러분!

지난날의 6·25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었습니까?

먼저 共産主義는 그들의 革命을 위해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破壞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면 生命도 앗아가고 父母 兄弟 그리고 친구도 敵 아니면 同志로 확연하게 구분하는 것이 共産主義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어제의 同志를 순식간에 背信하는 것이 共産黨의 生

理였슴을 우리 既成世代는 뼈에 사무치게 體驗하였습니다.

그 처참했던 6·25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주었습니까?

먼저 200만이 넘는 무고한 民間人의 犧牲, 그리고 彼我간에 70만의 戰死者와 150억불에 달하는 戰費의 消耗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戰爭未亡人과 고아, 가난과 疾病, 挫折과 絶望을 전쟁의 傷處로 남겼으며 지금도 1천만 離散家族이 서로 헤어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道民여러분!

이러한 6·25의 眞實을 모르는 一部 前後世代의 젊은이들 그리고 감상적 統一論理에 사로잡힌 既成世代의 분별없는 行動이 이 社會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行動은 그들 자신만의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地下에 숨어있던 左翼勢力에게 더 없이 좋은 은신처와 活動舞臺를 提供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民主化와 自由化의 물결속에 僞裝하고 寄生하던 左翼勢力은 이제 서서히 그 本性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입니다.

아마 道民여러분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큰 問題로 擴大시키고 결국에는 反體制, 反政府運動으로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저들의 目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社會의 混亂이요, 政府의 顚覆이며, 이땅을 共産主義 社會로 만들려는 凶計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忠節의 道民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걱정하면서 참고 忍耐하던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없는 다수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서 이땅의 自由民主主義를 뒤엎으려는 저 左翼勢力의 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낼 것을 굳게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天安 綜合터미널 竣工

1989년 6월 27일

祝 辭

오늘 오랜 옛날 부터 交通의 要地로 이름난 이곳 天安에서 先進交通文化 創造의 새 役割을 담당해나갈 天安 綜合터미널의 竣工을 보게 된 것을 道民과 더불어 진심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竣工式이 있기까지 어려운 與件과 긴 事業期間동안 모든 精誠과 知慧를 모아준신 (株) 아라리오産業의 金昌一 사장님을 비롯하신 任職員 여러분의 勞苦와 함께 天安市民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天安市의 시외버스 터미날은 시내 繁華街에 위치하고 있어 都市發展이나 市民 交通의 관점에서 장소의 移轉과 함께 綜合터미널의 建立이 市民 여러분은 물론 市政의 측면에서도 큰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事業의 規模가 워낙 크고 與件이 매우 어려웠던 관계로 投資에 선뜻 나서는 企業人이 없었던 것도 事實입니다.

이처럼 期待와 보람 그리고 規模가 큰 事業에 비례하여 어려움도 컸기에 지난 83年 여름 天安 綜合터미널 建設에 착수한 이래 市民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關心과 걱정 또한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難關을 克服하고 오늘 全國에서 가장 큰 規模와 最新 施設을 갖춘 本 綜合터미널이 그 門을 연 것은 단순한 시외버스의 정류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交通과 休息, 그리고 流通文化가 調和되므로써 市民 여러분과 旅行客들에게

좋은 生活 空間을 提供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先進 綜合터미널이 建立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三南의 關門으로서 天安 삼거리와 홍타령 등 驛馬에 얽힌 많은 傳說과 아름다운 鄕土史를 간직한 天安 地方의 傳統이 오늘에 다시 照明된 것이라고 봅니다.

天安이라는 地名으로 1000년이라는 歷史와 自負心을 간직한 市民 여러분은 이 綜合 터미널의 建立이 그러한 由來와 當爲性을 가지고 있슴을 자랑하면서 더욱 進取的이고 親切한 市民으로 先進 交通의 고장을 開發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우기 국가경제의 發展과 산업의 高度化 趨勢에 따라 우리 韓國이 美國, 日本, 西獨 등에 이어 90년대 후반기에는 世界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自動車 保有國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만 해도 우리가 200만대의 각종 차량을 좁은 國土 안에서 運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交通秩序의 定着과 함께 먼 앞날을 내다보는 터미널의 效率的인 運營은 매우 重要한 課題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처럼 훌륭한 綜合 施設의 機能이 100% 活用되고 또 地域社會發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만 天安市民 여러분 그리고 온 道民의 전폭적인 聲援을 기대하면서 祝賀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6월 29일

激 勵 辭

오늘 우리고장의 首部都市로 지역사회발전에 先導的 役割을 다하는 天安에서 柔道家族이 함께 모여 제4회 道知事旗와 함께 제32회 忠南道 柔道會長旗爭奪 柔道大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全國體典을 80여일 앞두고 우수 선수의 選拔戰을 겸하고 있어 柔道發展에 온 정성을 쏟는 유도인들은 물론 道民들의 관심과 기대가 자못 크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忠南 柔道는 서른 두해의 오랜 연륜을 자랑하면서 지난 해에는 全國體典에서 5위, 少年體典에서는 3위를 하여 끊임없는 發展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이 낳은 조용철 選手는 제24회 서울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므로서 柔道 忠南의 명예와 전통을 크게 빛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榮光이 있기 까지는 원로 유도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精誠과 뜨거운 訓練을 거듭한 값진 결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과 명예를 더욱 드높여 나가려는 것이 오늘 이 競技의 目的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도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忠南 體育은 大田直轄市 體育會의 分離와 함께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基本 體育施設이 不足하고 각 분야의 選手와 指導者가 부족한 우리의 實情이긴 합니다만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姿勢와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忠南의 柔道, 그리고 體育忠南은 일시적인 難關과 불리한 조건을 克服할 것으로 確信합니다.

앞으로 고장의 體育振興을 위해 體育인과 道民 모두가 분발하고 또 지혜와 힘을 倍加시켜 나가야 한다는 전제아래 먼저 다가오는 금년도 제70회 全國體典을 우리 忠南體育의 가능성을 찾는 試驗舞臺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수 임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柔道가 다른 체육 종목을 先導하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成果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柔道 大會를 통해서 選手 여러분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최대한 發揮하여 좋은 競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柔道大會의 준비에 애쓰신 윤용일 會長님과 任員 여러분 그리고 훈련에 값진 땀을 흘려오신 선수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第15回大日報勳大賞施賞式

1989년 6월 30일

祝　　辭

오늘 열 다섯해를 거듭한 大日報勳大賞 施賞式에 즈음하여 먼저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네분에게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통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좌절과 실의를 딛고 스스로 自立하시고 남을 도우며 또 地域社會에 이바지 하신 장한 功勞에 대하여 진심어린 致賀를 드리면서 고장의 모든 報勳家族에게도 慰勞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 世代의 보람찬 成就와 더불어 미래 繁榮의 벅찬 期待는 지난날 護國先烈들이 몸을 던져 나라와 겨레를 지켜주셨기에 可能했던것이 분명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國軍이 하늘과 바다와 陸地의 참호속에서 무더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前後方을 철통같이 지켜줌으로써 우리가 마음 놓고 일을 하고 잠잘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國土防衛의 前線에서 戰傷을 입은 상이勇士, 그리고 그 未亡人이 스스로 自立하고 또 똑같은 처지의 報勳家族을 돕거나 사회에 대한 奉仕를 하는 것은 무엇이 이 時代를 사는 올바른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無言의 敎訓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네분 自身이나 배우자의 戰傷이 비록 國家와 民族을 위한 의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때의 挫折이요 失意가 분명할 진대

그러한 逆境을 딛고 일어서 더없이 값진 보람과 結實을 맺은것은 하나의 빛나는 人間勝利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報勳家族들이 젊음을 國家에 바치고 또 오늘에는 마음을 社會에 바치는데 반하여 무엇이 국민된 本分이고 또 이 시대를 사는 참 價値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는 큰 警鐘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6·25를 통해서 우리는 共産主義者들의 虛構와 기만 그리고 民主와 平和에 대한 僞裝과 實體를 참으로 사무치게 體驗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民主와 人民을 金科玉條 처럼 외쳤지만 실제로 그들이 괴롭히고 약탈하고 虐殺한 良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도 40대 후반 이상의 어른 世代들은 몸서리치게 共産主義를 體驗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共産主義 集團의 우두머리, 民族史를 배반한 크나큰 罪人, 그리고 동족상잔의 悲劇을 저지른 장본인의 思想에 탐닉하고 赤化統一 路線에 同調하는 一部 젊은이들과 知識人들은 말없는 다수 국민에게 큰 衝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安定속의 成長, 우리가 성취하려는 先進社會와 民主秩序를 어지럽히는 左翼勢力들이 더 많은 混亂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자는 다짐도 오늘 이 大日報勳大賞 施賞式이 주는 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어떠한 난관이나 절망도 克服하고 이 자랑스런 功勞를 쌓으신 睦從禮 여사님·金福謙·金圭大 용사님, 그리고 金孟順 여사님의 강한 信念을 거울삼아 우리가 의로운 삶, 이 時代와 國家에 공헌하는 뚜렷한 意志를 行動으로 實踐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한번 네분의 受賞을 祝賀드리면서 이처럼 훌륭한 분들을 찾아내어 격려해 주신 徐春元 大田日報 사장님, 그리고 社友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讚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월



▲ 수해현장 시찰

1989

大川海水浴場 開場式

1989년 7월 1일

激 勵 辭

친애하는 大川市民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開場式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바다가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7月 초하루에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대천 海水浴場의 開場式과 함께 進入路 竣工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三面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 나라의 自然環境으로 볼 때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모래톱이 모두 海水浴場이지만 특히 이곳 大川은 釜山의 해운대, 그리고 함경남도 원산의 明沙十里와 함께 예로부터 3대 피서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이러한 名聲과 景觀에 걸맞게 지난 한해동안 大川海水浴場을 찾아온 이용객은 무려 51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國民 열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사람 이상이 이 바닷가에 피서여행을 왔다는 事實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市民 여러분!

우리가 이곳 大川 海邊의 風光이 이처럼 유명하다는 自負心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부심을 뒷받침하고 또 地域經濟와 고장開發의 原動力으로 삼을 수 있는 市民 여러분의 知慧와 力量 결집이 매우 소중합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다가오는 西海岸 時代를 맞아 하나의 獨立된 觀光産業과 經

濟圈으로 만들려는 忠南 開發構想의 중요한 核心地域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앞으로 大川을 中國·日本 등 동북아 國際觀光 地域의 중요 關門으로 開發해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큰 抱負이기에 西海岸 高速道路도 이곳에 최대한 가깝게 지나치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다만 開發이 있는곳에 최소한의 後遺症은 있게 마련이며 그것은 바로 自然의 훼손과 公害의 問題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누리는 터전을 한번 그르치면 그것을 回復하기가 아주 불가능하거나 또 回復이 가능하더라도 여기에 소요되는 豫算과 人力 그리고 時間은 想像을 넘어서는 정도의 엄청난 후회가 뒤따른다는 事實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는 開發에 앞서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自然 保護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自然에 대한 保存과 畏敬心을 宣揚하는 뜻에서 水神祭를 올리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바다를 守護하는 神에게 祭祀를 드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豊漁祭를 올려 왔습니다만 이러한 전통적 意識이야말로 自然을 숭배하고 環境을 지키려는 겸허한 姿勢요 슬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땅은 우리 世代만 便利하게 살면 그만이 아니라 子孫대대로 물려줄 하나 밖에 없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生活環境에 대한 깊은 關心 그리고 천혜의 海水浴場에 대한 愛着을 갖는다면 이곳을 찾아왔던 利用客들이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아름다운 피서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自然環境의 保存과 가꾸는 精誠에 더하여 친절한 案內와 명랑한 商去來秩序의 確立 또한 이름난 海水浴場을 가꾸는 原動力이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라는 생각, 또 우리가 오늘만 살고 내일에 대한 期待와 希望이 없다면 모르되 오늘 보다 내일 더욱 잘 살고 싶은 知慧로운 사람들이라면 이 지역사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주체적인 생각과 努力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大川海水浴場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즐거운 곳, 편안한

곳 그리고 안전한 곳이라는 追憶을 남기도록 6만 大川市民 여러분의 적극적 參與와 聲援을 당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泰安郡－邑面間FAX施設開通

1989년 7월 1일

메 시 지

오늘 泰安郡의 FAX施設이 開通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泰安郡은 75년만의 復郡이라는 8만 郡民의 오랜 宿願이 마침내 이루어진 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郡政 發展에 參與하고 있는것은 매우 기쁜일 입니다.

오늘 우리의 地方行政이 고도 산업 사회의 추세에 따라 情報化, 科學化, 그리고 技術化 時代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개통을 본 태안군의 FAX시설은 그러한 행정의 발전을 先導함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진실된 奉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철행 郡守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郡政에 대한 정진과 함께 郡民 여러분의 따뜻한 聲援을 期待합니다.

第1回 忠南道知事旗爭奪 市郡對抗 배드민턴 大會

1989년 7월 2일

激 勵 辭

싱그러운 7월에 이곳 唐津에서 배드민턴 가족이 한데모여 제1회 市郡對抗 배드민턴 大會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競技는 大田直轄市의 昇格에 따라 忠南體育會가 둘로 나뉘어진 후 우리 배드민턴 協會가 새로운 執行部를 구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뜻과 힘을 모은 행사라는 점에서 그 意味가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體育施設과 運動競技場, 그리고 선수와 관람객까지도 大田市에 集中되어 있던 때문에 우리 忠南體育에는 하나의 분발을 촉구하는 時點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앞에서 우리는 금년을 體育振興의 元年으로 삼아 강인한 體育 精神과 忠南 道民의 底力을 발휘해 나간다면 다시한번 忠南 體育의 矜持와 名譽를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배드민턴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배드민턴 競技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家庭과 職場에서 틈이나는 대로 즐길 수 있는 좋은 運動競技입니다.

온 道民이 참여하고 즐기고 애호하는 運動으로 그리고 體育 人口의 底邊 擴大를 위해 寄與하는 배드민턴 競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보급해야할 召命을 느낍니다.

더우기 지금 우리 韓國의 배드민턴 수준은 가히 세계의 最高水準이라는 認定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드민턴의 강국이 되기까지는 예로부터 활을 쏘고 말을 잘타며 주로 體育이 주가되는 民俗놀이를 즐기는 傳統과 더불어 활달하고 才致있는 國民性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오늘날 高度産業社會로의 급격한 變化를 겪으면서 육체적인 活動보다는 정신적인 勤勞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이에 따라 정신적인 피로와 속박감을 풀어주는 運動競技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束縛을 풀어주고 生活에 새로운 活力을 부어주는데 있어 가장 좋은 運動이 바로 배드민턴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現代人의 生活에 알맞는 체육의 普及과 發展을 위해서 오늘 이와같은 競技는 매우 보람된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합니다.

부디 그동안 땀흘려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發揮하여 좋은 成績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배드민턴 大會의 준비에 애쓰신 會長님을 비롯한 任員 여러분에게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月例朝會

1989년 7월 3일

訓　　示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7월 첫모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의 結束과 다짐을 새롭게하고 그리고 이러한 時代狀況에서 우리 公職者가 어떠한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이 難局에 對處해 나갈것이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하는 것입니다.

大統領께서 비장한 覺悟로 현시국 타개를 위해서 道知事 이하 전 公職者가 所信과 使命意識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특별한 指示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忠淸南道의 전 公務員이 어떠한 자세로 자기의 任務를 完遂해 나갈것이냐 하는것을 간곡한 당부와 함께 단호한 意志로 여러분에게 指示를 하고 우리의 자세에 대한 行動指針을 내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擴大幹部會議에서 내가 간곡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상황적인 판단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民主化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을 治癒하고 또 치유되리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見解와, 다른하나는 현재 상황이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니고 體制顚覆을 위한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計劃되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體制崩壞作戰의 狀況이라 하는 위기의식을 가진 狀況判斷에 있습니다.

만일 과도기적 상황이라면 그 의미가 갖는대로 過渡期는 짧을수록 좋은 것입

니다.

그러나 우리가 6·29宣言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도 과도기로 본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狀況 判斷입니다.

내가 작년 언젠가 우리 6共和國 政府를 과도기적 정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斷乎한 말로 "이 政府는 過渡期가 아니다. 民主主義를 實踐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大統領, 國民이 직접 選出한 大統領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民主政府이다"라고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은 기억이 나리라고 봅니다만, 政府가 그러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현 상황을 과도기적 상황으로 판단하는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류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과도기를 강조하는 세력에 의해서 표현되는 말로 나는 評價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볼때 정치적으로는 與小野大라는 특수한 상황적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말을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 동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측면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것을 충분히 보고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이냐 하는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져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여소야대의 상황을 정확히 分析, 認識하느냐 하는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수 극렬한 세력이나 經驗도 節制心도 없는 어린 學生들에 의해서 사회 모든 位階秩序가 붕괴되고 있는 그러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共同社會는 좋건 나쁘건 위계질서가 가장 기본적 요건으로 長幼有序의 질서, 上下關係의 질서, 그리고 協調關係의 질서등 위기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生存力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師道를 져버리고 선생님으로서의 權威까지도 져버리면서 소위 말하는 敎員勞組를 결성해서 학생들을 선동 하고, 학교내의 敎育秩序를 무너뜨린다면 이 사회가 현재 생존할 수 없을 뿐더러 敎育結果가 나타나는 20 — 30년뒤에 어떤나라가 될것이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국민 모

두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 大學生들이 北傀路線에 동조를 하고 나아가서는 북괴행사에 政府의 간곡한 挽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므로써 統一의 問題를 어린 자기들의 손으로 이룩할 수 있다는 妄想에 사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일국의 國會議員, 국민이 직접 뽑아준 국회의원이 北傀路線에 동조해서 北傀 金日成과 포옹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기로 몰고가려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틈타고 暴力輩가 준동하는가 하면 선량한 國民의 生活을 침해하는 家庭破壞犯이나 인신매매단이 횡행하고 그리고 다중의 생활을 위협하는 모든 秩序破壞行爲가 함께 恣行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私有財産制度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함께 조그만 성취를 쪼개 나누어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經濟發展을 붙잡아 매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難局을 自招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와 國民을 위해서 奉仕한다고 하는 소위 知識階層이나 심지어는 公務員들까지도 輸入한 양담배를 健康을 理由로, 또는 자기 權威를 위해서 피우고 떳떳하게 行動하는것을 보면서 가슴 아픈 생각이 한 두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현실이 主人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어느 企業에 勞使紛糾가 발생했는데 근로자들이 企業主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처음 시작할때 얼마로 시작했느냐? 얼마 주고 이 기업을 샀느냐? 당신이 1억을 주고 이 기업을 설립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기업을 정리해 보면 수백억 수천억이되는데 당신 혼자만 벌어서 잘 살고 우리 근로자는 죽어도 좋으냐"하는 말로 勞組를 結成하고 紛爭을 일으켜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을 벌어서 죽을때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우리 公務員도 마찬가지입니다. 道知事인 나도, 局長도, 市長도, 郡守도 일을 한 成果를 호주머니에 넣고 죽을때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일을 한 성과를 자기 몫으로 챙겨서 가지고 갈 수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 일한 성과로 地域이 發展되면 그 발전의 성과는 우리 道民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道民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것처럼 좀 더 나은 나라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홀연히 떠나는 것입니다.

經濟人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企業의 成果를 근로자들에게 적든 많든 나누어 주고 社會는 이를 원동력으로 더 발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企業에 근무하는 勤勞者가 기업성과인 利益을 자기들에게만 나누어 달라고 한다면 社會 모든 분야에 골고루 惠澤이 돌아가야 할 부분을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넣겠다는 생각으로서 설령 그렇게된다해도 그것을 죽을때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조금 더 낫고 편하게 살겠느냐, 또는 현재 내 몫을 조금 더 챙기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일에 올 수 있는 破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이를 우리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職業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天職觀이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公務員 보고, "너 왜 공무원이 되었느냐? 하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즉 이 公職은 天職으로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으로 알고 항상 나와 내 동료와 함께 우리를 희생하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奉仕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즐거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보람을 찾는 그러한 價値觀을 가지고 우리는 公務員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온 우리 젊은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大學校를 나왔거나, 高等學校를 나왔거나, 9급試驗을 보거나 또는 7급試驗을 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의 特別採用을 거쳐 公務員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젊은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배운것 처럼 확실한 價値觀을 심어주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大學生들이 옳지못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일깨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하는 狀況認識下에서 오늘

나는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하고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公務員들에게 이 時代的 狀況이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 아니라는 狀況的 認識을 바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公務員에게 두 가지 중요한 責務가 있다면 나는 첫째가 정확한 狀況判斷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狀況이냐, 즉 이 시기에 이것을 決定해야 할 것이냐, 推進해야 할 것이냐, 保留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정확한 상황판단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責務중의 하나입니다. 그 狀況判斷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희생적인 奉仕姿勢, 사명이라고 해도 좋고 신념이라고 해도 좋고 조금전에 우리가 決意한 것처럼 어떠한 것이든지 자기 희생적인 봉사의 자세, 奉仕의 精神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責務를 오늘날 公職에 奉仕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면, 이 상황이 단순히 넘어 갈수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 아니라 국가의 生存과 存立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두가지 중요한 責務를 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船上에서 말하신 것처럼 "必生則死하고 必死則生"이라고 하는 말씀을 되새깁니다. 살기를 도모하면 죽고 죽기를 맹세코 싸우면 산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인심이나 쓰고 인심이나 얻으려는 다시 말하면 요즈음 제일 중요한 것이 民主主義社會에서 人心을 얻어야 자기가 살아남는데, 나쁜 의미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혼자 살기 위해서 인심만 얻을려고 行政을 한다면 나라는 쓰러질는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인식해야하고 요즘 地方自治制가 된다고 하니까 京鄕各地에서 우후죽순처럼 政治志望生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오도하거나 주민을 선동함으로써 헛된 인심을 쓰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아 왔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나라의 장래와 地域社會의 發展, 아울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道民과 國民은 물론 우리 後孫들에게 부끄러운 나라, 主權을 잃어버릴런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라를 물려주면서까지 자기 인심과 영화를 옹호 한다면 자기자신의 파

멸과 함께 모두의 破滅을 自招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최근 어느 郡의 경우 무허가 건물의 발생 등으로 대단히 잘못한 일이 생겼는데 그 잘못한 사람을 懲戒委에 회부해서 懲戒決定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 몇 사람들이 郡守를 찾아가서 "이러한 징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하고 항의를 하고 또 협박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 수 가 있겠느냐

잘못에 대한 是認을 게을리하면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될뿐더러 남아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사람의 士氣를 떨어 뜨려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서 조직관리의 基本原則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組織을 管理하는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전까지는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함께 相議도 하는 등 엄청나게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組織 管理者가 決定한 事項에 대해서 그것이 반복되거나 또는 잘못 오도되면 조직전체가 흔들리는 것인데, 이것을 몇 사람의 市民들이나 住民들의 힘을 동원해서 깨칠려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行政權威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사람, 자기잘못을 인식하고 스스로 내가 언제 물러나야 할것이냐 하는것을 判斷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公務員으로서 資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물러나야 하는데 현재까지 남아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저지른 뒤에 결과에 대한 責任을 지지못하는 것을 용납하여서는 안되며, 사회에서도 容納하여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奉仕精神도 없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公職者가 아직도 내부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忠淸南道에 있는 公務員들이 오늘 이 시기에 진심으로 國民에게 奉仕를 해서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내는 박수갈채소리가 가슴에 와닿는 行政을 해줄때 나라의 危機는 스스로 克服이 될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일을 피하고 쉬운 方法, 편한 방법만을 택하여 자기를 희

생하지 않는채, 자기몸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일을 보지않고 오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公務員이나 行政이 있을때는 지역사회와 나라에 위기와 함께 본인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두가지 사항과 새로운 覺悟로 확실한 價値觀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내가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고 확고한 信念과 所信을 가지고 자기의 職位를 걸어서 行政 權威를 回復하는데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중에 세가지 중요한 과제를 꼭 확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시기가 아주 비상한 시기이며 위험한 시기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그러한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데에 우리 1만5천여 전공무원과 함께 생각을 모아 달라,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秩序回復에 전 행정력을 動員하여 하나씩 하나씩 우리눈으로 볼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法과 秩序의 回復에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뛰어주기 바랍니다.

둘째 行政權威를 回復하기 위해서 늘 얘기하지만 權威主義가 아닌 權威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권한과 소임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任務를 完遂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民主主義도 그렇고 生存도 그렇고 모든것이 經濟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하고자 해도 經濟가 무너지면 정치적인 民主主義, 사회적인 安定, 그리고 國民生活 福祉 등 모든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한 꿈이 되고 맙니다.

이 經濟回復을 위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企業에게는 고마운 마음으로 時間을 節約해서 그들 스스로 우리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大課題의 성취 여하는 이 시기에 危機를 克服할 수 있느냐, 없느

냐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任務를 遂行할 능력이 없고, 所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또 자기의 권한과 責務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안된 산하공무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함께 손을 잡고 일하겠다는 굳은 決意를 다져서 이 이상을 극복해 나아가는데 同參을 해 주던가 아니면, 이에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면 결연히 자리를 물러나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롯해서 幹部職公務員 여러분과 여기 앉아있는 도산하 1만5천공무원이 이러한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歷史의 敎訓을 우리는 늘 봅니다. 卑近한 例로 越南의 상황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越南얘기를 다시 새삼스럽게 끌어낼 필요도 없이 世界 어느나라든지, 세계 어느 역사든지 20대 青少年에게 나라의 장래를 맡긴 적은 없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統一問題를 20대 青少年들이 책임지고 統一을 이룩한적은 물론 없으며, 自由民主主義의 優越性이 立證된 상황에서 共産主義의 허구에 휘말려서 經濟基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한 勞使紛糾가 있는 나라나 그런 노사분규를 認定한 나라도 없습니다.

南美의 예를 보지않드라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民主主義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싸워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함께 싸워야지 젊은 青少年들에게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師道를 확립하도록 해야지 철없이 勞組를 만들도록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스승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어야지, 스스로 勤勞者를 자처하고 나설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모든 慾求를 하루아침에 解決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원망을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오늘에 살면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 주어야 될 任務라고 확신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地域社會發展을 이끌어 가면서 나의 부모형제와 고향의 先後輩를

함께 保護하고 보살필 義務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주셨고 共産主義者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낸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 주었는데, 우리代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를 무너뜨려버린 상태로 다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멍에를 지워 줄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와 신념을 발휘해 주고, 내일에 사는 우리의 青少年들에게 밝은 希望을 심어주는 일을 오늘이후부터 함께 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여러분에게 다짐을 하고, 나 스스로 그러한 決意를 굳게 다짐합니다.

輸出農産物 開發戰略에 對한 심포지움

1989년 7월 7일

人 事

오늘 우리 農村開發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學界, 農産物의 생산과 유통분야의 關係人士, 그리고 政策擔當者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輸出農産物開發 戰略에 관한 **심포지움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심포지움은** 그동안 우리의 高度成長 과정에서 다소 위축된 우리의 農村 現實에 더하여 최근 각국으로부터 農水産物의 輸入開放 壓力을 받고 있는 우리의 現實을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忠南道의 경우 전통적인 農業을 주로하는 農村地域 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自給自足을 위한 農業에서 벗어나 國內 流通과 消費의 段階는 성숙 되었으나 海外 輸出을 겨냥하는 農産物은 극히 한정된 品目에 불과한 實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農産物에 대한 각국의 輸入開放 壓力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農業이 한 단계 跳躍의 契機를 마련하려면 國內에서 생산되는 農産物이 海外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농업의 所得이나 영농의 規模, 그리고 경영의 水準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나라들의 우리에 대한 農産物 輸入開放 壓力은 不當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貿易이나 經濟關係에서 볼 때 農業이나 工業등 한 부

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총체적인 交流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기에 相對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農業임에도 오히려 開放의 壓力을 받고 있는 現實입니다.

이처럼 生産과 流通등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농업 현실과는 아랑곳 없이 農産物도 다른 工産品과 마찬가지로 貿易의 自由化 趨勢를 보이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의 方法은 輸入開放의 壓力에 대하여 門을 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소극적인 姿勢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農産物을 輸出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길을 摸索하는 것이 效果的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심포지움의 뜻인 줄 압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最善의 防禦는 最善의 攻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韓國의 農業이 무엇인가 變化하고 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認識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農産物輸出 戰略 問題는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아침에 解決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모색하고 성취해야할 중요한 課題인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오늘 全國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斯界 專門家들의 깊이 있는 主題發表와 討論을 통해서 좋은 대안이 제시 될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참석자 여러분의 훌륭한 意見 開陳과 傾聽이 있기를 바라면서 主題發表, 그리고 討論 人士 여러분, 이 뜻 있는 심포지움을 準備해 주신 심재성 배재대학 새마을 研究所長님과 研究陣에게 깊은 謝意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禮山버스터미날起工式

1989년 7월 11일

祝 辭

오늘 우리 고장 交通의 要地인 이곳 禮山에 현대적인 施設과 綜合機能을 갖춘 버스터미날의 起工式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忠南의 西部海岸地方은 鐵路가 없는 관계로 모든 交通量을 陸上運送이 擔當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특히 旅客의 運送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忠南交通이 우리고장 西部地域 交通의 主役으로서 그 公益的인 所任을 다해왔으며, 이곳 禮山이 버스運送과 鐵路運送 사이에서 橋梁的 役割을 다해왔다고 봅니다.

이제 기대 부푼 西海岸時代의 開幕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는 人的, 物的交通量의 보다 원활한 疏通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터미날의 역할과 함께 旅客에 대한 수준높은 써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現實的인 交通需要와 미래를 대비하여 보다많은 旅客을 創出하면서 고객에 대한 奉仕의 質을 높이려는 朴璿鵬 忠南交通社長님을 비롯하신 任職員 여러분의 努力, 그리고 郡民 여러분의 聲援은 時宜適切한 知慧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의 禮山버스터미날은 복잡한 시내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 시가지 交通難 加重과 함께 都市發展의 측면에서도 市外버스터미날의 移轉은 忠南交通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의 큰 宿願事業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버스터미날의 移轉 起工式과 함께 郡民여러분은 地域社會 開發에 더 많은 關心과 愛情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미 잘 아신는 것처럼 이곳 禮山은 다른 地方에 비하여 發展의 速度가 그동안 느렸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開發이 조금 앞섰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며, 조금 늦었다고 해서 아쉽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開發되는 과정에서 公害問題라던가 歷史遺蹟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큰 後悔를 남긴 地域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파괴된 歷史遺蹟이나 生活環境은 그 復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原狀回復이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豫算과 人力, 그리고 時間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이제 西海岸에 工業地域이 들어서면 이 곳 禮山은 그 背後都市로서 高級休息空間의 제공과 함께 無公害 尖端産業을 誘致할 수 있는 유리한 與件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훨씬 앞서나갈 希望과 郡民여러분의 和合 團結속에 본인은 後悔를 남기지 않는 忠節과 文化의 고장 禮山建設을 기대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이곳 버스터미날 起工式을 祝賀드리면서 순조로운 사업의 추진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7월 11일

致 辭

오늘 禮山郡民 여러분의 격조높은 鄕土文化와 함께 뜨거운 鄕土愛를 상징하는 詩碑의 除幕式을 갖게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곳 禮山地方은 우리 東洋의 書藝史에 不滅의 金字塔을 이룩한 秋史 金正喜선생을 낳았을 뿐더러 오늘날 새마을 운동의 先驅的 理念이 되고 있는 尹奉吉先生의 農民讀本이 創作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現代文學에 貢獻을 하신 方仁根선생과 최근에 그 文學的 力量이 發掘된 李海文先生,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藝術의 본고장 프랑스에 우리 東洋畵의 神祕를 떨치고 얼마전에 作故한 李應魯화백 또한 이 고장 출신이라고 볼 때 이곳 禮山은 분명히 藝鄕이라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긍지위에 오늘 鄕土詩碑가 세워지는 것은 그러한 地域文化의 기름진 토양위에 참신하고 독특한 禮山文化를 創造하려는 郡民 여러분의 叡智로 생각되어 이에 아낌없는 激勵와 讚辭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래 하나의 훌륭한 詩나 文學作品은 그 시를 쓰고 작품을 창작한 詩人이나 作家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좋은 시와 작품이 創作될 수 있는 시대적인 背景과 역사적인 土壤, 그리고 그 시대의 價値觀과 삶의 方法을 제공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愛誦되고 膾炙되는 훌륭한 詩와 文學作品은 그 시대 전체의 소유라

고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익스피어"를 낳은 英國사람들은 한때 그들의 식민지였던 印度를 내놓아도 "세익스피어"는 내놓을 수 없다는 말로 自國의 文豪에 대한 自負心을 온 세계에 과시하였읍니다.

이처럼 한사람의 위대한 文學家나 藝術家가 한민족이나 國家에 미치는 影響은 실로 크나큰 領域이라고 하겠습니다.

累千年의 역사와 문화위에 榮辱을 누려온 우리民族은 늘 詩와 文學속에 진솔한 生活을 하면서 情緖와 餘裕, 그리고 깊이 있는 諧謔과 哲學을 담아 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고된 근로를 하면서도 韻律이 있는 農謠를 불렀고 自己信念의 表現과 節制에도 詩를 읊어 왔습니다.

오늘 이곳 禮山邑의 한복판에 애틋한 鄕愁를 불러 일으키는 詩碑를 세움으로써 그러한 民族文學의 傳統을 계승하면서 어른들은 물론, 자라나는 青少年들에게 맑고 고운 詩心과 함께 사물에 대한 考察과 思惟의 좋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처럼 詩文學의 선양을 통한 도민의 情緖涵養과 鄕土文化 振興에 애쓰시는 韓相珏 韓國文人協會 忠南支部長님과 한경구 禮山文學會 會長님, 그리고 좋은 詩를 써주신 성기조 선생님, 윤웅로 禮山 JC會長님을 비롯하신 군민여러분의 聲援에 대하여 致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7월 20일

歡 迎 辭

오늘 고장의 이름난 휴양지인 이곳 道高에서 忠南大 經營經濟研究所와 우리 忠淸南道가 함께 주최한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學界와 言論界,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오늘의 主題가 되는 地方自治와 그에 따른 財政分野에 관한 깊은 연구와 學術 活動을 쌓아오신 權威있는 人士여러분이 본 세미나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인데도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자료의 검토와 준비에 정성을 쏟아주신 여러분과 또 基調演說을 해주시는 地方行政 研究院長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地方化時代, 그리고 地方自治라는 말을 무수히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住民의 기대와 욕구가 膨湃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期待와 慾求는 지난 50년대와 60년대 初에 잠깐 실시되었다가 成功을 보지못한 지방자치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오늘날 민주화의 熱望이 上昇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습니다.

곧 실현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의 학술적 論告가 있겠으나 그동안 획일적인 中央政府의 統制와 調整의 그늘에서 우리 地方 行政이 의존적인 開發과

成長을 하던 時代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분적인 自治와 이에 따른 財政의 自體調達 그리고 효율적인 投資와 成果에 대한 權限과 責任이 함께 주어지는 시대를 의미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自治時代의 環境 造成과 근본적 土臺의 마련은 무엇보다도 地方 財政의 確保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地方自治란 지방의회 議員이나 自治 團體長의 지역 주민에 대한 選出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地域發展과 住民 福祉를 위해서 住民들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실질적인 自治力量의 意味가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앞으로 地方 財政의 확보여부가 곧 地方自治의 성패와 直結 될 것이며 오늘날 國家 財政運營 위주로 되어 있는 財政의 體制가 地方政府의 財源 確保에도 자율성을 주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급속한 成長을 目標로하는 産業과 經濟政策을 펴오는 과정에서 파생된 都市와 農漁村 그리고 지역간의 産業 偏重과 **經濟圈** 形成에 따른 오늘의 현실은 앞으로 地方 財源의 調達에 있어서도 큰 隔差와 問題點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地方自治의 원칙에 따른다면 한 지역에서 과징된 稅收는 그 지역에 다시 100%投資되는 것이 이치이지만 國家 發展과 國民 福祉의 균점에서 볼때에는 이 또한 問題點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地方自治는 地方 政府에게 최대한의 自治權을 부여하되 한편으로는 地域間, 서로 다른 産業에 從事하는 職業間, 그리고 노사간의 복지와 소득의 均配를 염두에둔 합리성의 追求와 주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地方財政 運營과 연계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斯界의 權威있는 人士 여러분이 서로 다른 主題別로 오후 늦게까지 깊이 있는 研究의 發表와 진지한 討論을 통해서 우리의 「自治」와 「財政運用」에 대한 명쾌한 診斷과 代案이 제시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지만 경청해 주시고 高見과 더불어 지희 道政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忠告를 기대하면서 歡迎의 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4分期 道政 評價團 会議

1989년 7월 21일

人　　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참석을 해주신 評價委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忠淸南道의 도정이 금년에 들어와서 여러가지로 많은 여건의 변화, 그리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와 추진을 해오고 있읍니다만 특히 제가 부임한 이래 도정의 실무는 道知事와 도의 행정 공무원들이 맡아서 수행하고 그 뒤에는 우리 도민들께서 직접 도정에 참여해 주시고 그 평가결과를 다시 도정에 반영시키는 방안으로 이러한 評價團会議를 운영해오고 있읍니다. 도민여러분의 도정 참여는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정 모니터를 활용해서 도정 전반에 걸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분기마다 약 100명 내외의 評價委員님들을 모시고 한 분기동안 추진해온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들이 그 다음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것이 평가단제도의 의의입니다.

도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최근 우리 국내의 여러가지 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6. 29선언 이후 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政府의 의지를 왜곡시키고 악용해서 일부 좌경세력들이 극렬한 행동을 전개해 오고 있고 또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민주화를 앞세워 나라의 체제를 전복, 또는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음모들을 하고 있는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상황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현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것을 깊이 느끼고 민주화를 앞세워 공산화를 획책하거나 나라를 파국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盧泰愚 大統領께서 직접 표명하시는 한편 행정부의 면모를 일신하기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함께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법질서의 확립문제는 민생치안의 측면에서 中央政府와 地方 行政官署가 혼연 일체가 되어 인신 매매단, 가정파괴범 또는 사회 안녕질서를 저해하는 폭력범의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國家의 經濟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는 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고 있으며 물가의 안정인 인플레의 조짐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제부흥을 새롭게 이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함께 해오는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몫을 차지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키워왔지만 전체의 몫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민주시민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國家의 장래를 좀먹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인간적인 측면을 배제시키는 교원노조의 결성 문제등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師道를 저버리고 근로자를 자처하면서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교원노조야 말로 오늘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백년 뒤의 이 나라 문제로 악의 뿌리를 심는 결과를 가져 올것이기 때문에 文敎 當局을 비롯해서 지방행정관서에서도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政府의 노력과 地方行政 그리고 國民 모두가 한결같은 노력이 뒷바침 되어야 해결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忠南道政도 지역관리에 있어서 소수의 이익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또 우리 고향인 忠南전체의 발전적 차원에서 조정해나가고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지방행정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評價委員 여러분께서 이러한 도정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기탄없는 평가와 지도편달을 함께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된 도정수행으로 도민 모두에게 성과품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 드립니다.

모쪼록 도산하 만5천 전공무원은 2백만 도민의 민생안정과 먼 장래를 내다 본 도정의 수행 그리고 당면한 여러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을 우리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끝으로 저희 산하 전공무원들은 알찬 도정을 수행해 나갈것을 여러분앞에 굳게 다짐을 하면서 오늘 評價会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7월 22일

激 勵 辭

歷史는 生命이라고 합니다.

먼저 起源이 있고 뿌리와 줄기와 성장, 흐름과 발자취가 있으며 오늘 살아 있는가 消滅했는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民族 文化의 큰 뿌리가 된 百濟 文化는 그 문화 스스로의 성쇠도 중요하거니와 바다 건너 다른 民族에게 끼친 영향이 더욱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牧園 大學의 학생들이 百濟 文化의 흐름을 쫓아 日本의 여러 지방을 답사하게 된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곧 先代와 오늘의 世代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살아 있는 對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젊은 知性人들의 의욕적인 사업을 통해 百濟의 얼굴을 다시 찾으려는 우리 道民들의 노력에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9년 7월 22일

歡 迎 辭

오늘 이름난 溫泉 休養地인 이곳 溫陽에서 현재 韓國文壇을 이끌어 주시는 전국의 文人協會支部長여러분이 뜻 깊은 會議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歡迎합니다.

존경하는 趙炳華 韓國文協 理事長님을 비롯하신 元老文人 여러분이 오늘 찾아주신 溫陽은 우리 忠南道에서 文協 忠南支部와 鳥致院, 天安에 이어 네번째로 文協을 구성하므로써 文學熱이 매우 높은 地方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文人여러분이 금년도 會議를 이곳에서 開催해주신 것도 創立이 일천한 韓國文協 溫陽支部를 격려해 주시고 또 꾸준하게 활동해온 地域文學의 결정체인 雪華文學을 이끌어주시는 뜻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원로 문인여러분이 늘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오랜 歷史와 文化傳統을 지닌 우리 民族은 항시 깊고 넓은 文學的 삶의 터전에서 생활을 누리고 歷史를 이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우수한 人材를 등용시키는 科擧試驗도 詩를 잘 쓰고 모든 **思想을** 哲學的으로 論하는 사람들이 時代를 이끌고 고을을 다스리는 指導者가 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의 선인들이 얼마나 文學的인 價値와 德目을 崇尙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높은 벼슬로 富貴榮華를 누리다가도 자기의 理想에 격리되거나 老父母를 공양해야 할 경우 하루 아침에 官職을 버리고 귀거래사를 읊었던 선인

들의 그 餘裕와 浪漫도 우리의 전통적 삶에 대한 文學性의 優位였다고 봅니다.

또 오랜 옛날부터 궁벽한 산간 벽촌에도 노래가 있고 時調가 있고 아름다운 傳說과 풍자넘치는 해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고유의 文學장르인 時調도 자랑스럽거니와 판소리는 그 唱 자체가 詩와 戲曲이요 小說이며 또한 音樂이면서 演劇인 독특한 文學을 모든 백성이 즐겨왔다는 사실은 우리 韓國인이 곧 文學民族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고장은 現代文學의 泰斗 韓龍雲선생을 비롯하신 尹昆江. 沈薰. 金冠植 詩人등 많은 文學의 선구자를 배출하고 또 많은 현역 文人들이 있는 선비의 고장임에 대하여 도민들은 큰 自負와 矜持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회의에 이어 사흘 후 가까운 도시 天安에서 百濟時代의 농요인 山有花歌 發表會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전 우리 조상의 노래속에서 自然과 人間, 그리고 現實을 깊게 조화시킨 운율과 情緖 生活의 價値와 和合의 슬기에 대하여 감탄을 갖습니다.

이제 회의와 함께 趙炳華 理事長님의 좋은 강연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元老 文人들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傳統文化와 文學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의 鄕土文化에 활력을 주시는 指導와 創作이 계시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끝으로 金東稙 文協 溫陽支部長님은 저와 함께 忠南道政에 몸담아 존경받던 行政家였습니다.

이제 文人으로써 변신하신 金支部長께 全國 文人여러분의 뜨거운 聲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살기運動 促進決意大會

1989년 7월 27일

致 辭

친애하는 바르게 살기 運動 協會會員 여러분!

오늘 우리 지역사회의 올바른 時代觀 그리고 生活姿勢 定立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바르게 살기 運動促進大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 결연한 意志는 지난 80년대 초부터 밝고 올바른 社會建設을 위한 社會淨化運動에 앞장서 지역 安定과 國家發展에 기여하신 協議會員 여러분의 오랜 經驗과 꾸준한 實踐力을 토대로한 것이기에 그 期待가 자못 큽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끈기 있게 추진해 주시고 또 道民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신 社會淨化運動은 오늘 우리가 이 만큼의 成長과 發展을 이룩하고 先進社會 到達의 문턱에 오기까지 地域社會를 이끌어온 精神運動의 原動力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正直을 목표로 하는 社會運動은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왔던 이른바 바가지 商去來의 改善과 함께 物價의 한자리 숫자 安定에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秩序運動은 우리도 一等國民이 되자는 共感아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있어 결정적인 役割을 하고 또한 창조의 활기찬 의욕은 이제 국민소득 5,000불 時代를 눈앞에 두고 2000년대 世界歷史의 主人公으로 등장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장의 바르게 살기 運動 協議會員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의 業績을 土臺로 하여 우리의 淨化運動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새로운 國民 精神運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앞장서 주신 精神運動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歷史의 地平을 열어주는 民主化時代의 開幕을 보았습니다만 그 現實은 어떻습니까!

6.29선언 이후 새로운 民族自尊의 時代와 함께 보통사람들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되는 국민적 共感과 和解가 제창된지 2년이 되었지만 오늘의 **社會像은** 자못 걱정스럽고 경악과 충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大學街와 일부 산업의 勤勞現場에 고개를 내 밀었던 左翼勢力이 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國會와 宗敎, 文化界 등을 거쳐 農村社會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社會指導層과 富裕層의 사치와 過消費 風潮, 그리고 사람을 물건과 같이 팔고 사는 人身賣買와 家庭破壞를 일삼는 등 暴力輩의 범람이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不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실 指導者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民主化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역행하는 反社會的이고 反國家的인 趨勢를 우리는 절대로 傍觀하고 있을 수 만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社會運動의 旗手 여러분! 眞實. 秩序. 和合의 三代理念을 根本으로 하여 誠實하고 正直하게 사는 사람, 勤勉하고 儉素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和合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成就되도록 의연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모두 不義와 非理를 追放하고 順理와 道德을 앞세워 健康한 社會秩序와 規範이 엄중히 지켜지는 고장을 만들 것을 正義의 指導者 여러분과 함께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7월 28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忠南道의 模範職場民防衛隊인 韓國담배 人蔘公社 高麗人蔘廠에서 전국단위 職場防護示範 訓練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시범훈련을 參觀하기 위해 저희 고장을 찾아주신 전국 각 지역의 模範民防衛隊員과 關係 公務員 여러분을 진심으로 歡迎하면서 평소 民防衛 業務와 敎育訓練의 指導에 勞苦가 많으신 民防衛本部 關係官 여러분에게도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民防衛隊가 創設된지 이제 만 1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民防衛隊는 그동안 전국의 4백 26만의 地域과 職場民防衛隊員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組織管理와 敎育訓練에 흔쾌히 참여하여 일단 유사시 주민의 生命과 財産은 물론 國家主要施設의 保護와 신속한 地域安保 活動, 그리고 평소 地域社會發展에도 큰 몫을 하는 막강한 힘과 能力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실제적이고 직장의 특수성에 適應하는 防護능력과 인접한 地域民防衛隊와의 유기적인 協力姿勢는 바로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꾸준한 敎育訓練의 뒷받침으로 생각되어 隊員여러분의 勞苦를 慰勞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민방위대의 育成에 心血을 기울이고 또 적극參與해 주

급기야는 쓰라린 同族相殘의 깊은 傷處와 함께 국토의 分斷이라는 무거운 짐을 오늘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목격하고 체험하신 世代가 아직도 건재한데 現實을 망각한 일부 社會主義에 대한 幻想主義者들은 이제 공공연히 北韓 金日成의 體制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左翼勢力과 함께 우리 自由民主體制에 대한 심각한 威脅이 되고 있습니다.

忠節의 고장 韓青 代議員 여러분!

이제 左翼勢力은 大學街와 産業, 宗教界는 물론 國民이 직접 뽑은 國會 議政壇上까지 손을 뻗치고 이 여름에는 일부 불순한 學生들에 의해 이른바 奉仕活動이라는 이름아래 농촌사회까지 意識化 시키려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커다란 衝擊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現實임에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傍觀者가 되어야 합니까?

그 解答은 하나 分明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이루어낸 오늘의 成長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우리의 未來와 希望을 저들에게 순순히 내어 주던가 아니면 분연히 일어서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쓸모없는 퇴물이 된 階級 革命論에 사로잡힌 일부 젊은이들을 説得하는 한편, 사회의 秩序와 國紀를 바로잡는 일에 우리 青年指導者들이 힘차게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우리는 여기 2000년대 社會와 國家를 主導할 젊은 知性人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自由民主體制의 定着에도 넘치는 意慾, 團結된 힘을 期待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7월 29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百濟文化의 보배로 찬연하게 빛나는 山有花歌 發表會를 이곳 天安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릇 時代는 가도 歷史는 남듯이, 사람은 가도 자취를 남기는 것이 古今東西의 鐵則입니다.

우리 民族文化의 원류가 된 百濟文化는 곧 고장의 先人들이 남긴 더없이 소중한 文化의 자취이며 이를 갈고 닦을 主人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들 스스로입니다.

民族統一의 競爭에서 비록 불운을 당한 百濟였지만 그 文化만큼은 高句麗나 新羅보다 월등했던 百濟의 모든 歷史와 文化遺蹟이 거의 땅속에 묻히고 記憶속에 消滅되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옛 祖上들이 가꾸어 놓은 有形, 無形의 훌륭한 文化遺産을 찾고 保存하는 일은 우리 世代에게 주어진 값진 召命입니다.

오늘 이곳 天安 市民會館에 1300여년 전 사비강 流域에 메아리쳤던 百濟의 농요가 되살아남은 곧 우리의 가슴에 祖上의 숨결을 간직함입니다.

山有化, 大自然에 피고지는 모든 꽃들처럼 우리네 人間事를 대입하여 노래한 깊은 삶의 哲學과 韻致와 勸農의 폭 넓은 意味를 오늘 우리 祖上들의 슬기와 함께 깊이 吟味하고자 합니다.

老齡임에도 우리 山有花歌를 간직하시고 또 널리 普及해 주시는 이병호 山有花歌 保存會長님을 비롯하신 會員여러분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8 월



▲ 복지회관 개관식참석 주민격려

1989

月例朝會

1989년 8월 1일

訓　　示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련, 특히 국가적 시련을 안겨주었던 7월에 또다시 全南, 光州, 釜山지역의 엄청난 水害와 颱風의 패해를 겪으면서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情을 전해 드리고, 아울러 '87년 忠南地域에서 있었던 水害를 연상하면서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 태풍의 피해를 막아준 하느님께 感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7월중에 일부 水害가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道民 개인의 재산적 피해가 극소했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 사람도 人命被害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災害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새롭게 강조해 둘 사항은 설령 재해를 당해서 財産의 일부 피해가 발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하한 경우든 우리는 道民의 生命을 지키고 死傷者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준 전 公務員들, 특히 밤을 새워서 상황을 전해준 災害對策本部 요원들과 市·郡·邑·面·洞의 職員들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월에는 이러한 엄청난 자연적 災害외에도 우리를 놀라게 했던 많은 일들과 우울하게 만들었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左翼勢力이 우리 體制를 否定하는 사건들, 특히 문익환 목사, 서경원, 임수경, 문규환 신부의 事件등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몇일전에는 태풍 주

디호의 피해와 함께 우리를 놀라게 했던 KAL機 墜落사건이나 鬱陵島의 헬기추락 사건들이 모두 우리에게 일층 더 절망감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앞에서도 그대로 주저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危機의 實體를 몇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다가오는 8월은 물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이냐를 새삼 챙겨보고자 합니다.

첫째, 經濟의 危機입니다.

즉 우리의 民主化를 가능케 했던 經濟發展이 최근 무분별한 勞使紛糾와 세계 經濟潮流의 변화에 따라서 鈍化되고 있어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러한 현실적, 경제적 실체적 危機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미래적 危機가 더 큰 위기이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는 敎育의 위기와 宗敎界의 위기입니다.

敎育은 우리의 백년대계를 지켜나아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체 내부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않는 우리의 사도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은 家庭敎育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家庭敎育의 부재를 論했던 우리들이 이젠 그 나마 命脈을 유지했던 學校敎育 차원에서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먼 앞날에도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危機라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宗敎의 위기입니다. 종교를 갖지않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信仰은 신앙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고 宗敎, 그 자체가 국가의 政治社會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현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않됩니다.

越南敗亡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宗敎의 정치적 타락에서 오는 결과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최근의 宗敎 내부에서 일고 있는 무분별하고 환상적인 사회참여나 정치적참여를 대단히 나는 우려스럽게 생각하면서 커다란 危機라고 評價합니다.

특히 宗敎가 인간의 靈的 生活을 지배한다고 볼때 이 支配力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정치적, 사회적 불안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우리 국민 또는 우리나라 전체에 미칠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危機의 原因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나는 그 原因을 두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합니다.

첫째, 무지에서 오는 원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무지와 "이 社會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져야 하며 政治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經濟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회적인 무지에서 오는 위기가 최근 위기의 原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무지는 자기자신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논리적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6·25를 겪은 世帶로서 그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는 北侵이라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야기 할때 아무도 나서서 그들을 선도하거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社會, 이러한 自信感의 喪失, 이것이 곧 오늘날 위기의 실체이며 위기의 원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北韓에 대해서 많은 자료, 많은 정보를 國民들에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反省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北傀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平壤의 일부 거리를 보면서 北韓 전체를 본것처럼 떠들거나,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階級鬪爭論을 우리가 자신있게 反駁하지 못하는 무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상적 危機를 자초하고 있는 원인 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의 원인은 방관에서 오는 絶望의 危機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떠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떠한 報復을 받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우리 모두가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회피할려고 하는 방관자세, 그리고 "아무렇게 해 보아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절망과 좌절감, 이것이 오늘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報復을 당할까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社會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滅亡시키고 자기의 주위를 亡하게 하는 가장 나쁜 傍觀的 姿勢로서 오늘날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우리가 읽은 책중에는 여러분도 기억이 나는 글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내일 망한다해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노라」

이런 생각이 오늘날 가장 진실한 글귀로서 우리의 가슴속에 큰 파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비록 오늘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세상을 떠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오늘 이 危機를 克服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人生을 생각하더라도 멀리보는 이상과 크게 보는 抱負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挑戰과 試鍊 克服의 노력이 없다면 절대로 발전이나 이 사회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될 때라고 물론 나라전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國法秩序의 확립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대한 공직자 나름대로의 對應能力을 갖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忠南 公務員들은 忠南公務員으로서 또 해야될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하면서 우리나름대로 우리의 일을 하나씩 찾아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전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합시다. 公安政局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統一問題論議도 많이 있으며, 아울러 敎員勞組와 政治의 여러가지 狀況들을 보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대처해 나가는 분야와 그것을 직접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방적으로 수행해야될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나는 첫째로 우리 忠南은 충남대로 우리 모

두가 연초에 함께 計劃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完決해 나가면서 地域社會 전체의 安定을 이룩하여 우리 道民 모두에게 希望을 심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危機의 原因을 방관적 자세나 절망에서 찾는다면 우리 忠南만이라도 우리 道民 모두에게 새로운 希望을 심어주는 일이 가장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西海岸 高速道路 路線이 어디로 가든지 또 100대 有望中小企業을 유치하는 것이 되든지 안되든지, 지역간 均衡開發이 이루어지든지 안이루어지든지, 그것은 吾不關焉이라고 생각을 하고, "危機, 危機"하면서 右往左往하면 나라의 위기도 극복하지 못할뿐더러 우리 道民들에게 새로운 希望을 심어줌으로해서 생길 수 있는 큰 힘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할일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며 또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社會를 누가 '責任질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회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아니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公職者 모두가 함께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光復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亡하게 했던 우리 先祖들의 행동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라를 망하게 했느냐" 그리고 "그 망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망한 나라를 만들어 냈던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하직했겠느냐?"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망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獨立를 위해 鬪爭을 하고 祖國의 光復을 위해서 山野에서 이름없이 쓰러져 갔던 많은 先輩들이 있습니다.

그 애국선열들의 忠節때문에 오늘 우리 大韓民國은 그래도 세계 10大 經濟大國으로서 불과 20여 개국 밖에 되지않는 올림픽을 치룬 나라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취할 길이 獨立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독립된 나라를 물려 받아서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온 이 경제적인 富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發展시켜 나아가야될 責任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관적 자세로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公務員 모두는 이제 그러한 傍觀的 姿勢로 안주하고 있는 다수를 이끌고 새로운 노력으로 이 나라의 危機를 克服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세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最善을 다해야 될 世代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해봅니다.

어느 역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主導勢力과 主體勢力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光復의 世代도 있었고, 6·25페허속에서 나라를 새롭게 일구어 낸 世代도 있었습니다. 또 60년대와 70년대를 이루어 오면서 經濟計劃을 수립해서 주도를 해나온 主體勢力도 있습니다. 어느 역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時代를 이끌어 가는 主導勢力이 60년대와 70년대에는 公務員엘리트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危機克服을 주도해 나아가는 主導勢力 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自任하지 않으면 아무도 맡아 나갈 그룹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될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60~70년대 公務員 엘리트로서 했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時代, 자랑스러운 歷史를 물려줄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제 대단히 어려운 任務들이 우리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90년에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지방의원들을 선거해야 하고 91년에는 總選을 해야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地方自治團體長을 선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92년에는 大統領選擧를 해야되는 때이며 이러한 중요한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民主化의 理念속에서 우리사회의 정치적 불안과 위기가 점점 가중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가 전국적으로 있었던 水害속에서도 단 한사람의 희생도 없이 忠南의

水害對策이 완벽하게 수행되었던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 정말로 큰 운이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없지도 않지만 하늘은 절대로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것이지 두손을 펴고 내 할일을 피하여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복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힘, 그러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울여 다가올 국가적인 어려움은 우리 忠南地域에서는 한가지라도 빠뜨리지 말고 完璧하게 處理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향인 忠南의 發展을 위해서 最善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忠南의 未來像을 제시하고 우리 道民들에게 새로운 希望을 심어주는 일, 이것이 根本的으로 제시되고 우리 道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 이것이 근본적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洞察을 해보면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분발과 우리 忠南 전 공무원들의 危機管理 能力에 대한 당부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거듭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한사람이 자기맡은 소임을 最善을 다해서 완수해 주기를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地域經濟. 建設局 幹部 懇談会

1989년 8월 3일

訓 示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對話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곤혹스런 문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법규 해석을 여러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법적인 판단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세회복을 위한 工業化 施策 얘기를 하는것은 졸속행정을 하고자 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원인들의 얘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公務員 각자가 우리 도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느냐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하고자하는 절실한 의욕, 이것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清白吏로써 가장 추앙을 받았던 황 희 정승께서 방안에 비가 새니까 우산을 들고 앉아서 우산도 없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백성을 걱정하던 말씀이 청백리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行政의 한단면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정승이 자기집의 지붕하나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살면서 백성들을 잘살게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수 있었겠느냐?

깨끗한 행정을 펴는것과 소극적이고 자기방어적인 행정을 펴는것과는 다르다고 나는 명백하게 이야기 합니다.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사는 사회가 아니예요. 거지에서 부터 재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친구가 없어 가지고는 사고가 절대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없습니다. 여러사람 여러계층의 얘기를 들을수 있어야만 판단도 정확해지고 자기 생각도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 公務員들은 대체로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職員들하고만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한 동기나 동창이 아니면 안만나는 사람, 고향사람이나 혈연만을 찾는사람등 여러계층이 있읍니다만 어느 특정 계층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도청 공무원은 전부 기획능력을 가추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道政은 집행보다 기획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을 하는 공무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자기가 밥사줄수 없지 않은가, 밥 얻어먹을 경우도 있고 밥얻어 먹고 술얻어 먹었다고 해서 업무에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술을 한잔 얻어 먹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되도록 해준다던지,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독점시켜 준다든지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不條理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결정은 현재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존립하는 한 영원히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의 결정이 현재 자기가 있을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나한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느냐 하는데 너무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간혹 이러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前任者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임자가 이것도 못하고 떠났느냐, 이사람이 이런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를 받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내 전임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때 잘못된것입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역겨운 생각이 들어요. 자기 후임자에 대해 책임질 생각은 전혀 않고 전임자가 잘못한것만 가지고 내가 곤란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닌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절대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잘못을 입밖에 내서도 안되고 가슴속에 간직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判斷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잘못을 시정해 나가야지 그걸 怨望하거나 전임자를 비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잘못을 들추어내는 사람을 자기 책임자에게 비난과 똑같은 원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풍조가 계속되면 공직사회는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社会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덮어 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責任을 전가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하는 사람의 판단은 적어도 우산을 들고 방안에 앉아서 우산도 없는 사람을 걱정하는 식의 행정이 되서는 안됩니다.

우산을 던지고 지붕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고치는 노력을 하거나 그 돈이 없으면 옆에 사람한테 꾸어서라도 지붕을 고치는 그런 노력을 해주어야 行政이 적극적으로 풀려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의 일선 市郡이나 도공무원들에게 내가 기대를 하고 있는것이 바로 이런 노력입니다.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데 이건 안되는 사항입니다에 그치지 말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大田市長으로 재직할 당시 소재동에 철도관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철도官舍가 아마 국회의원 선거때 철도관사를 아파트로 바꾸어 가지고 건설을 해 주기로 공약했던 모양인데 내가 가서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民怨을 일으켰어요. 와서 데모하고, 탄원을 해왔는데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고 하니까 기본평수가 100평이 있어야 하는데 90평뿐이 없어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그럼 10평을 사서 넣어 주면 않되느냐고 하니까 예산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생각이 여기 밖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지역을 어떻게 해결해 주었느냐 하면 바로 鐵道庁長을 찾아가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철도부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해 주고 준공식에 갔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를 붙잡고 내 집에서 죽게 돼서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100평이 필요한데 90평뿐이 안되면 10평을 보태 주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법규해석도 마찬가지에요. 절대로 안되는 지역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안되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

하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면 10평을 사서 넣거나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國有財産을 개인이 살 수 없으면 시에서 시비로 사서 그곳에 임대를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재벌기업가 같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三星建設이 瑞山에 공단건설을 하려할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배후지역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를 여러분들이 보아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가서 보고 온 후 극비리에 관재계장을 보내서 그 지역의 토취장을 어디에 해 주어야만 돈을 벌 수 있겠느냐,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자 하고 그런 지역을 물색해 보니까 마침 그 지역에 국유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國有地 확보를 위해 山林庁 등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흙팔아 먹고 남은 땅 팔아 먹고 돈 버는 일만 남았다고 아주 호뭇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三星은 벌써 기획단계에서 연고권을 사놓은 상태더란 말입니다.

行政이 기업정신을 도입하자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企業精神을 도입하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만 돌려주면 엄청나게 도의 행정이 발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 해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직위가 낮고 하다는 취약성이 있는 점도 압니다.

조직의 개편, 인력의 보강에 관해 전반적으로 계속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가 각시도에 전파되어 타시도에서도 지금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중앙집권적인 우리의 행정체제상 각시군의 課. 係를 늘리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에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변명이 안됩니다. 내가 엊그제 돌아보니까 밤을 새워서 일하는 부서가 있어요. 밤을 새워서 일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道政이 發展되어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희생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발전 시킬 수 없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충남 푸대접 충남무대접 하는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중앙부처에가서 한시간 두시간씩 長官들을 설득하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받아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도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책임을 도의 공무원들이 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방자치 지방화 시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地方自治團体長 선거나 議会議員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출 되었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고 地方議会가 있다고 해서 권한이 더 강화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道庁의 여건은 오히려 지금이 더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공주시의 예를 들어 한가지 이야기를 해 보지요. 공단을 건설하려하는데 한 사람의 반대자 때문에 어렵다는거예요. 공단을 꼭 건설해야겠다면 동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議政府市에 있을때 물론 전임자가 해놓은 것이지만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체비지가20%, 과도면적이 80%이더군요. 체비지가 60%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획정리를 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소규모 집들이 꽉 들어서 체비지를 뗄 수 없는 필지가 많은데 구획정리를 시작했어요. 구획정리를 해서는 않되는 지역으로, 재개발하든지 했어야 할 지역인데 구획정리를 해 놓고 영세민들에게 과도필지를 주고 과도대금을 내라고 하니 과도대금을 낼 이가 있겠읍니까? 도저히 안되는 것이지. 다음날 약 200명이 몰려 왔어요. 예를 들자면 평당 만원씩 과도대금을 받고 보상을 2만원씩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내가 열두번이나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연구해서 또 오겠다며 똑같은 답변을 열두번이나 했습니다. 열두번째 가니까 자기들끼리도 당신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니 이젠 그만 하라고 하더군요.

정성을 다하여 대하면 방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가능동의 체비지 환지계획을 확정하고 전부 다 처리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한번 해보고 안된다고 집어 던지면 되겠읍니까? 꼭해야 될 일이라고 판

단이 되면 열번, 스무번이라도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하면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의 질의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외로 법규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미숙해요. 법규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또 中央部処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내용을 파악하려 하지 않아요.

오늘 건설국과 지역 경제국 직원만 불러서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 경제국과 건설국이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의 동향, 법규의 변화등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하고 있는 행정내용을 능동적으로 파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것도 공부가 되는것인데 그 자체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부족한 행정능력을 높이겠느냐는 연구가 부족해요.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 첩경 아닙니까, 그 노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우리도의 공무원은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공무원들인데 일선市郡 邑面으로 가면 자포자기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인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인사의 틀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기때문에 하루 이틀에는 조정이 않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면직원이든지 군직원이든지 도의 직원이든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公職을 맡고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교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課長이나 局長이 市郡에 나갔을때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이 찾아보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저히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서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지사가 판단해서 지역적으로나 법규 해석상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실무자들이 감사를 받거나 책임을 질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내싸인 하나로 문제를 해결해 줄테니까 가지고와요. 실질적으로 지금껏 행정을 해오면서 그러한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요. 大田市에서 있다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少年体典 끝난뒤에 대전시에 징계받은 사람이 있나 알아봐요. 지사가 경고 받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돈을 걷는 문제에 대해서는 知事가 전 책임을 졌어요.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10원이나 100원이나 간에 불급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은 실무책임이니까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어라. 돈을 걷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시장이 시킨것이니까 市長이 책임을 진다해서 내가 責任을 지고 경고 받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또 人事를 자주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지방 행정이 인사를 자주 하게된 요인이 기구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이라든지 교육을 차출한다든지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1년정도 되니까 어디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청탁이라고 해서 어디로 갈려고 하는데, 자기가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 다른 자리로 옮겨줘도 일을 잘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자신을 믿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인생은 자기밖에 못사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든지 윗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또한 도의 행정이 知事의 생각이 市郡까지 파급이 못되는 것은 우리 행정내부의 결속문제입니다.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이것은 지사가 局長을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실국장이 課長에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 실국장을 중심으로 각실국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장은 係長, 계장은 계원에 까지 생각이 하나로 움직이게 될때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달체계가 잘안되고 있는것은 어디서 漏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장선에서 차단이 됐는지 과장선에서 차단이 됐는지 아니면 계장선에서 차단이 됐는지 市長郡守가 차단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해야하고 다시 기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심사분석하고 다시 기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심사분석하고, 이것이 반복이 안되면 행정의 질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내가 企劃管理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획과 심사분석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전 道政을 조정을 해 주지 못하면은 실국이 제 마음대로 돌아 다닙니다.

그러므로 管理室長은 업무가 과중해도 이것 챙겨줘 이것 챙겨줘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市郡의 행정을 누가 해주는냐 하면 도의 실.국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經濟局. 建設局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챙기고 조정해 주고 中央에 建議해주고 市郡에 내려주고 이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책임질 일은 도에다 전부 미룬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시. 군에다 미룬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市長. 郡守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면서도 本人이 도에 오면 책임질까 무서워서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못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속성을 버리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개발의 量과 개발의 質 개발의 速度, 이것은 우리가 도전과 개발에 조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行政目標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어야 하는가? 하나 하나를 실지로 일하고 있는 係長들이 싸인하면 전부다 끝납니다. 나는 지금 우리 局長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슨 지시를 하고 나서 중간보고가 없어 다시 물어보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知事가 바쁘다는 얘기만 하는데 이 시간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고를 안하면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의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몇천억씩 투자를 한 사람은 하루만 지연을 해도 몇천만원씩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주는데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보상을 안해도 그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地域經濟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아침에 내가 8시에 당신이 나와 주세요. 나한테 7시에 나와 주세요. 8시에 와주세요. 또는 저녁 10시에 나 이런 보고가 있으니 報告하게 해주세요 하는 公務員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7시에 나오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가지고 가거나 내가 나와서 한적은 있었지만 이것은 지사와 계장 과장 여러분과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안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를 느끼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나를 책을 해주기 바랍니다. 知事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여주고, 또 내가 쓰러져 눕기전에는 그런 정도는 받아주는데 절대로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保存과 開發, 어느 쪽에 역점을 둘 시기냐하면 忠南은 개발에 역점을 둘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보존에 역점을 둘 시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현상유지만을 급급해 온것이 우리의 보존개념인데 보존개념은 그런개념이 아니라 현재 개발을 유보하는것도 개발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주면 보존과 개발의 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보존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유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개발아니냐, 寶文山 公園을 개발 않는다고 하는데 보문산 공원 산길을 내지 않고 놔두는 것도 개발이라고 한바가 있습니다. 시민들 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섯불리 손대는 것보다는 안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西海岸 高速道路를 돈이 없어서 중앙으로 낼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그냥 돈 없으니까 중간에서 끝나고 놔두면 다음 사람이 돈이 생길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개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의 양과 질과 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知事의 책임이겠읍니다만 道政에서는 係長 선에서 또는 課長선에서 局長線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知事가 어디서 어떻게 조정을 해 줄것입니까?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信念과 確信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수행하느냐 하는것은 그 확신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만 맞으면 해줄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都市計劃을 하는데 도시계획 공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노선으로 도로가 나는데 거기에다 어느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당연히 집을 짓도록 허락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우리가 언제 해 놨는데 공고가 안되어 도시 계획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면을 내놓고 바로 이 도로가 이렇게 나가게 되

었는데 여기다 집을 지으며는 몇년뒤에 당신과 국가가 다 손해보는데 집을 꼭 지어야 하느냐고 납득을 시켜가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가조정 구역으로 묶지 않았어도 행정이 市街調整 區域으로 묶인것 이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確信합니다. 실지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규정만 맞으면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方式은 절대 버려야 됩니다. 규정에 맞아도 국가 전체로 볼때 안될 경우에 또는 道 全体를 보아서 안될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설득을 시키면 説得이 됩니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格言처럼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도록 설득능력, 그리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西海岸 고속도로가 서해안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개인적 이해는 버려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옳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옳지 않다고 하고 이리로와야 된다고 하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누가 조정을 해주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공무원이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조정하면서 욕도 먹고 죽일놈 소리를 듣지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 욕을 안먹으면 좋겠지만은 일하다가 욕먹는데 어떻게 할것입니까? 신념을 갖고 확신이 있어야 설득능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추진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모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地域에 찾아오는,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企業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 행정의 판단 또 추진절차 이 모든것을, 어떤 기업이 우리 지역에 바람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해주고, 어떤 방법이라도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어서 그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욕을 불어 넣어주고 고맙게 생각하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두번째로는 開發 行政을 수행하면서 어느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에게 개발이익이 독점되게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개발이익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쓰여지도록 스스로

開発利益을 내놓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을 할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確信과 信念을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윗사람이 무슨 소리해도 안되는 겁니다. 이건 윗사람이 무슨 소리해도 되는 겁니다."라는 신념과 확신으로 윗사람 눈치보고 옆에 사람 눈치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얘기를 한 우리職員이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中央部處에 가서 일을 하면은 안그런데 地方에서 하면은 일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全北에 가서 일을 하는데 또는 釜山에 가서 일을 했는데 全南에 가서 일을 했는데, 다른 市道에서는 일을 하는데 잘되고 知事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 줄려고 하는데 忠南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또 전부다 안되는 쪽으로 한다면서 그만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忠南道 공무원의 질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옳지 않다고 판단의 얘기를 들을때 결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中央部処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수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반드시 우리보다 우수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市道에서도 내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도 공무원들의 質이 다른 시도 공무원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왜 기업하는 社長들이 와서 다른데는 잘 해준다는데 우리 忠南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발전이 되질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만 열이 나서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간곡하게 얘기하는것은 비교의 대상을 내부의 경쟁 대상에서 찾지말고 다른 市道와도 비교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충남 도정은 중앙부처의 어느 에리트 공무원보다도 우수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내가 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상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건의를 하는것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질이 낮은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낮다고 해도 기분이 나쁜데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 행정이 뒤떨어진다고 하면 얘기가 되느냐 말입니다. 특히 地域經濟局 建設局에서 필요하면 계속 타시도도 다니고 중앙부처도 다니는 그런 열성을 갖는데 내가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예요. 얼마든지 선진지 견학하고 他市道도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보고 中央部処의 업무내용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황하게 얘기 했습니다만 먼저 말한 세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획기적인 생각을 바꿔주고 일을 하는 절실한 생각을 가져주십시요. 그런 절실한 생각이 없으면 일의 능률도 아니 오르고 일의 추진도 정말 잘 될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무슨일을 하나 결정해서 딱잡으면 철저히 해나간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밤낮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메모를 하고 또 얘기를 들으며 그 듣는 얘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메모해 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수첩을 보면 수첩이 까맣게 적혀 있습니다. 차타고 다니다가도 생각나면 쓰고 밤에 밥먹고 나서 앉아서 신문을 보다가도 신문에 뭐가 나오면 그걸 써놓고 잊어 버리면 다시 新聞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業務를 하는것은 그렇게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런지 모릅니다. 수십년씩 주어지는것이 아니며, 우리가 지금까지 公務員을 해온 기간보다 앞으로 그만 둘 기간이 훨씬 빠를 수도 있으니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남겨두고 그리고 지나간 공무원 생활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떳떳하고 그리고 보람있는 생활이었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回顧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人生이 아닙니까?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꼭 道知事가 되어야 성공한 공무원이고 書記로 끝났다고 해서 불행한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퇴직한 공무원 예를들어 雇傭職員으로 정년퇴직한 공무원 집에가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다리를 절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信仰生活을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은 사람을 나는 많이 봅니다. 있는 동안에 제

대로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하면서 산 인생은 지위 高下를 막론하고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고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고 간절한 얘기를 한 그 뜻을 좀 받아 주시고 市郡 업무에 대한 指導. 시군 公務員에 대한 指導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健全消費風土造成에 대한

1989년 8월 5일

公 翰

폭염이 쏟아지는 성하에 댁내 平安하심을 기원합니다.

평소 道政과 地域開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정의 다대한 여건변화 이후 우리 道民이 知慧와 힘을 모아 道勢의 조기회복과 대망의 西海岸時代를 가꾸어 나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期待와 努力과는 달리 사회의 일부에서 사치성 過消費風潮와 함께 法秩序를 문란케 하는 경향은 이제 사회적인 우려의 정도를 넘어 국가적인 問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서 世界로부터 先進國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認定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처럼 바람직 하지 못한 社會의 일부 현상은 우리의 先進化에 하나의 걸림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과소비와 퇴폐 향락풍조는 현재 여기에 물든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건전한 價値에 道德生活을 하는 사람들에게 날이 갈수록 번져가는 害毒과 폐해가 크기에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享樂業所, 고가의 물품만을 선호하는 사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겉치레의 誇示性 消費風潮에 더하여 우리의 傳統食品인 간장, 고추장, 된장에 이르기까지 外製를 選好하는 오늘의 기이한 현상을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追放할때 떳떳한 韓國人의 참모습을 定立할 것입니다.

세계의 先進國家 국민들은 비록 자기나라 商品의 질이 좀 낮고 쓰기가 불편해도 자기 나라의 것을 愛用하는 國民經濟의 저력을 바탕으로 지금 宇宙開發, 深海探索, 遺傳工學등 21세기 첨단 산업개발과 경쟁력 구축에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미한 成長과 發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와 나의 이웃, 그리고 나라의 형편을 깊이 살펴보며 오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다음 世代에게 繁榮된 내일을 안겨 줄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民主繁榮의 時代"를 앞두고 「나하나 쯤이야」 하는 個人主義를 떨치고 「우선 나부터」라고 하는 主人意識과 참여를 바탕으로 率先과 啓導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올바른 社會指導와 地域發展에 대한 貢獻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幸運과 成就가 있기를 빕니다.

1989년 8월 5일

祝 刊 辭

天安 JC창립 20주년과 더불어 그동안의 業績과 발자취를 한데 묶은 20년사의 책자를 發刊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天安 JC 20年!

그것은 바로 젊음과 知性, 奉仕와 獻身으로 수놓은 地域社會 젊은이들의 값진 보람이요 矜持임이 분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天安에서 시작된 JC의 活躍은 바람직한 青年運動의 表象으로 뿌리 깊은 忠清人의 傳統繼承運動으로 그리고 고장 開發의 참신한 旗手로서 그 善導와 役割에 있어 큰 족적을 남겼다고 봅니다.

이제 한 싯점을 結實하고 나서 지나날의 成果와 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새로운 意慾과 使命으로 더욱 活氣차고 效用있는 JC의 活動이 기대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여러분에 대한 期待이며 또한 소명입니다.

그러한 기대중에서 또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 地域社會는 물론 國家的으로 큰 希望을 갖고 있는 西海岸 時代의 展開와 함께 그 西海岸 時代를 주도할 主體勢力의 役割이라고 봅니다.

우리 고장이 앞으로 아무리 각광을 받고 國家發展의 核心地域으로 開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主人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演劇舞臺를 빌려 주고 구경하는 觀客에 머물고 말것입니다.

앞으로 天安 JC會員 여러분은 고장의 젊은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力量을 結集하여 고장의 開發에 參與하면서 우리 地域社會에서 이루어지는 모든일에 대하여 참된 主役이 될 수 있도록 智慧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當付합니다.

天安 JC 20年史의 發刊을 다시한번 祝賀하면서 김종호 會長님을 비롯한 會員 여러분에게 幸運과 發展을 祈願합니다.

洪城龜項 農工地區 起工式

1989년 8월 10일

致 辭

오늘 洪城 地域社會 發展에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龜項 農工地區 開發事業이 郡民 여러분과 有志, 그리고 入住企業體의 任職員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起工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郡民 여러분이 큰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바와같이 이곳 洪城은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만 특히 이번에 5만평에 가까운 龜項 農工地區를 개발하므로써 地域經濟 活性化와 고장 發展을 促進하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地域開發 事業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날 넓은 고을을 다스린 洪州牧의 옛 榮華를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오늘의 社會發展 速度가 너무나 빠르기에 傳統文化의 遺産위에 所得과 福祉를 함께 안겨주는 생산적 農村社會가 필요한 때문입니다.

우리 道는 그동안 産業 構造面에서 2次産業이 전국의 平均値을 밑돌고 農業의 比重이 큰 地域인 데다 금년 초 大田直轄市의 昇格으로 1次産業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 반면에 2次産業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적지않게 道勢가 약화되었습니다.

더욱이 도내 전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의 農外 所得이 미약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農外 所得源 開發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成就해 나가는 道勢의 조속한 挽回는 이 農工團地와

같은 농촌의 生産施設의 擴充으로 농어민을 위한 農外 所得源의 획기적인 開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道는 首都圈에서 이전되는 産業體를 유치하는데 있어 매우 有利한 與件일 뿐만아니라 다가오는 西海岸 時代의 핵심지역으로 工業開發과 地域開發에 떠오르는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곳 西部地域 發展에 결정적인 役割을 할 수 있는 西海岸 高速道路가 洪城을 경유 瑞山, 唐津을 거치도록 우리 道가 최선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努力이 所望대로 이루어 질 때 이미 그 사업이 진행중인 瑞山地方의 大山 第1·2·3工團과 鳥致院 纖維工團, 그리고 天安 第 2工團과 牙山. 長項産業基地 등 도내 모든 지역에서 産業化가 活氣차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道의 工業化施策은 20여개 農工地區의 개발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農工地區 開發과 有望 中小企業의 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어 사업이 計劃대로 成就되면 우리 道는 앞으로 3-4年 안에 약화된 道勢를 회복하는 한편, 先進産業의 고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우리 道의 工業化 추진이 成就되는 날, 農村을 등졌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所得이 있고 쾌적한 生活環境이 보장되는 農漁村으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의 老後를 便安하게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곳 龜項 農工地區와 함께 도내 곳곳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여러 工業團地와 農工地區 造成事業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것은 바로 洪城郡民 여러분을 비롯한 道民들의 적극적인 參與와 뜨거운 聲援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 된다는 것을 本人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洪城郡에서는 특히 龜項 農工地區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農工地區 開發事業이 또 추진되는 만큼 郡民 여러분은 農工團地의 조성에서 入住 企業이 商品을 생산할 때까지 모든 것을 聲援하고 協調해 주셔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推進되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본 農工地區開發의 起工式에 즈음하여 郡民 여러분과 함께 다시한번 내일에 대한 希望과 기쁨을 나누면서 순조로운 事業의 推進, 그리고 郡民여러분의 家庭에

幸運과 多福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光復 第44周年 紀念 忠淸地域 獨立運動 세미나

1989년 8월 17일

祝 辭

오늘 겨레의 自尊과 國權의 回復에 몸바치신 愛國先烈을 수 없이 배출한 이곳 忠節의 고장에서 우리 선인들의 獨立運動을 再照明하는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道民과 더불어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이 소중한 세미나의 자리에서 저는 먼저 學界, 言論界 등에서 고장의 獨立運動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여러분과 함께 護國先烈의 冥福을 빌면서 그 위대한 業績을 삼가 追慕합니다.

오늘 이와같이 學術活動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世代에게 주어진 고귀한 先烈의 後孫이라는 名譽와 忠節의 고장이라는 矜持를 土臺로 忠節의 고장에 뿌리를 두었던 獨立運動의 발자취를 찾고 宣揚하려는 그 첫 시발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향토의 獨立運動史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歷史의 編纂事業이나 학자의 硏究結果에 전부 의존하는데 그쳤습니다만, 오늘 이처럼 後孫들이 나서 先代의 國權回復運動을 더욱 소중히 밝히려는 것은 바로 우리가 歷史의 참主人이 되려는 努力입니다.

더우기 오늘의 세미나는 우리 忠淸人들의 순수한 自覺과 意志를 結集해 주신 향토의 언론 中都日報社와 光復會 大田·忠南北支會의 精誠, 그리고 鄕土企業이 삼위일체가 되어 準備하였다는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큰 矜持와 自負를

갖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忠節의 땅에서 배출된 수 많은 獨立運動家와 護國烈士를 한분 한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이시고, 또 찬연하게 빛나는 그 분들의 獨立運動에 대한 功勳입니다.

그러하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아시아 大陸과 海外 곳곳에서 줄기차게 벌여온 獨立運動을 永遠히 승화하려는 獨立紀念館이 다른 고장이 아닌 바로 우리고장에 세워진 意味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미나가 목적하는 바와 같이 왜 우리 民族이 다른 民族의 질곡에 억눌려야 했던가, 그리고 그 질곡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했던가를 歷史의 敎訓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歷史의 거울을 통해 지금 우리 世代의 課業을 알차게 成就하고 祖国의 未來를 밝히는 方向舵로 삼는 것이 옳을 줄압니다.

오늘 光復 第44周年을 기념하는 이 세미나도 그러한 정신의 繼承이라고 생각되며, 지금 우리 道가 적극 추진하는 百濟의 얼 되찾기 운동과 더불어 道民精神을 확립하는데 있어 좋은 同伴的 役割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세미나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고장의 獨立運動의 實體를 밝히는 活潑한 學術活動이 擴散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뜻있는 行事를 준비해 주신 林喆圭 中都日報社長님을 비롯하신 社友여러분, 光復會 會員 여러분, 後援을 베풀어 주신 鷄龍建設, 그리고 主題 發表와 討論에 참여해 주실 여러 人士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國家·社會的 現實과 關聯, 道政모니터에게 보내는

1989년 8월 24일

書 翰

성하의 계절에 귀 모니터의 家庭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우리 忠淸南道는 道政모니터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忠南發展의 元年"을 힘차게 成就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난 8월4일에는 金泰鎬 內務部長官께서 다른 시도에 앞서 우리 忠南道를 제일 먼저 訪問, 우리 道政의 의욕적인 모습에 흡족해 하시면서 도 산하 公職者와 道政協力 人士들에게 致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면서 忠南은 떠오르는 "아침해와 같은 미래의 고장"이라고 피력한 바있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든 道政을 뒤돌아보는 契機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번 폭우와 태풍 "쥬디"호로 전국에서 많은 人命과 財産被害가 있었으나 우리 道에서는 한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고 약간의 災害는 온 도민의 성원속에 應急復舊를 마쳐 다행입니다.

이처럼 숨가쁜 課題를 안고 있는 오늘날임에도 우리 社會와 國家가 처한 상황은 우리에게 심각한 걱정과 우려를 넘어 危機狀況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民主化의 뜻을 잘못 인식한 일부에서는 저마다 자기 몫챙기기에만 급급해 있는가 하면, 勞使紛糾, 不動産投機 등이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法과 秩序를 무시한 집단행동, 그리고 人倫과 道德을 무너뜨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의 敎育과 미래를 책임진 선생님들까지 勤勞者로 자처 勞組의 결성을 기도하고, 일부 宗敎指導者 들이 北韓에 밀입북, 그들의 주장에 同調하는 등 우리 세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社會와 國家發展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것은 이와같은 現實을 올바로 認識하지 못하고 이에 편승하거나 그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의 傍觀的 態度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위기는 指導層의 責任과 社會構造의 모순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現實은 그 責任을 나 아닌 어느 누구에게 돌리고 방관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深刻하다는 것을 함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危機는 몇몇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課題이며,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克服하지 못한다면 이나라의 存立과 將來, 그리고 우리 後孫에게도 큰 不幸을 물려 줄 수 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상황은 公職者와 社會指導層은 물론 국민모두가 합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共同責任의 인식아래 고장의 指導的 役割을 하시는 모니터 여러분의 계도가 한층 더 중요하고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道政에 대하여 보다 유익한 批判과 충고는 물론 주위에서 항시 건전한 輿論의 形成과 바람직한 社會 氣風의 造成을 위해 배전의 關心과 努力을 기울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귀 모니터의 家庭에 가득한 幸運과 發展 있으시기를 빕니다.

새마을 婦女会 附設 主婦大學

1989년 8월 29일

特 講

바쁘신 가운데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主婦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자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 주부님들이 하시는 일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읽은 책중에서 기억이 나는것이 있는데 전 숭전대학교 총장 안병욱박사가 말씀 하시기를 "사람이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만큼 배움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배움을 잊어버리게 되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의미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 主婦 大學에서의 강의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배우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배움속에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삼스럽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기의 人生을 設計하고 자기의 인생을 연출하고 그리고 스스로 배우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자기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날 낳아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읍니다만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면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애로우신 보모님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도 대신 그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자신만이 자기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것은 自作

自演의 연극이다,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연출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출연하는 연극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모두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관을 설정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인 배움을 계속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시는 자랑스런 주부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내 얘기를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것이 훨씬 더 道知事로써의 유익한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한시간동안 말씀을 먼저 나눈뒤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이 되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두서없이 한번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主婦大學에 특별이 나와달라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을 듣고 아주 기쁜마음으로 이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知事의 직책도 수행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핑계같이 되었습니다만 인간의 가장 큰 잘못중의 하나인 게으름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란서의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 다른 생물보다도 가장 나쁜게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게으름병이고 다른 하나는 잔인함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건강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다못해 달리기를 못하드래도 速步라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누워잘때에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문산에 갔다와야지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또 출근시간 바쁘게 뛰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깹니다. 매일 매일 그러면서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것은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것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것 이런 핑계일뿐이지 그 안에 있는것은 게으름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1년도에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 5천년 역사상에 가장

推仰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운동이 된것은 그 첫번째 목표가 勤勉이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인 게으름을 추방하는 운동, 이것이 새마을운동 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의 힘으로 추방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추방하고자 하는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自助라는것은 스스로돕는 운동 자기스스로 해결하는 운동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가면서 잘살기운동을 전개하는 그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基本精神입니다. 또 새마을운동은 잔인함을 몰아내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냐, 링위에서 권투선수들이 상대방을 때리고 코피를 터트리면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즐기는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싸우더라도 상대방이 꽁무니를 빼고 항복을 하면은 절대로 다시 가서 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개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싸움을 하다 상대방을 찔러서 죽이고 또다시 죽은것을 확인하고 하는 잔인함을 보여 줍니다. 목을 졸려서 죽을때까지 손가락의 힘을 빼지 않는것은 오직 동물중에 사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잔인함을 몰아낸 운동 그것이 바로 協同의 정신을 일깨운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양보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리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때 협동의 정신은 밝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마을운동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악 가장 큰 나쁜점인 게으름과 잔인함을 몰아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大韓民國의 새마을운동이 아니고 世界의 새마을運動으로 發展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주부 여러분이나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또는 우리 농촌과 도시의 새마을 일꾼 여러분들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표시 하곤 합니다. 우리가 80년도에 들어와서 아주 활기있게 전개하지 못하고 오늘날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침체해 빠져 있거나 또는 새마을운동의 본질이 변질되어 운영되었거나 하는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반성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5共和國때 새마을운동은 대단히 활발이 전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본질이었던 근면, 자조, 협동 기본정신외에 새마을운

동의 본질에서 벗어난 외형적 활성화 운동이 80년초부터 87년말경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외형에 치중한 새마을운동이었기 때문에 6共和國에 들어와서 새마을運動 본부에 일부 비리가 밝혀지면서 대단히 급전직하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켜야겠다고 하는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이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을 치유할 수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외형적으로 치우쳐 흘렀던 그러한 새마을운동을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되살리는 운동을 전개 해야 되겠고 그것이 오늘날 社会実相에도 대단히 맞는 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道知事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대단히 긴장해서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시간이 굉장히 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이 졸린 시간에 졸지않으려고 노력하시는것은 새마을운동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는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졸리신분은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면은 제가 생각할때 내가 얼마나 얘기를 재미있게하고, 잘하면은 저렇게 눈을 감고 감상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착각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참지마시고 본능대로 이렇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의 실상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의 実相을 검토하기전에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71년도서부터 오늘날까지 새마을운동에 직접 참여해오신 그런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민운동으로 사랑받고 또 그렇게 인정받기까지에 우리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指導者 여러분들이나 또 새마을운동을 추진 해왔던 政府와 國民 모두의 생각은 어떠했던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우리 주부로써 이러한 사회적인 문

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줘야 하겠느냐 하는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런쪽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이 그 동안의 功過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은 69년도에 농어촌 소득증대 특별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가난을 몰아내자, 특히 農村의 가난을 몰아내자 하는 운동으로 政府가 주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농어촌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분명히 논두렁에 콩을 심어서 우리 농촌에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려주고 강가에 널려 있는 자갈을 주어서 마을의 소득을 올리고 마을안길을 포장하고 하는 그런것으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잘살기 운동이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시작 했던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80년도에 넘어 오면서 새마을운동은 民間主導型으로 이루어져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 새마을운동이란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83년인가, 82년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지 않습니다만 제가 忠南大學校에 가서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질문을 하는데 제일 첫번째 질문이 지금도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새마을운동이 政府主導型이어야 바람직합니까?, 민간주도형이어야 바람직합니까? 정부주도형 새마을운동과 민간주도형 새마을운동 어느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에 대해여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계시다고해요. 또 형제들도 있죠? 형제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가 주도 해가는 가정입니까? 어머니가 주도해 가는 가정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예요.

우리집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이끌어가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맘대로 끌고가는 가정이 바람직합니까? 어머니 맘대로 끌고가는 가정이 바람직 합니까? 아니면은 가족 전체가 함께 화합해서 가정의 행복을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바로 정부가 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될 운동이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한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을 道知事가 끌고나가는 운동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새마을운동을 指導者만이 열심히 뛰어서 이룩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닙니다.
도지사와 지도자와 우리모두 함께 새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내야만 새마을운동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社会相은 어떠냐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政府가 主導하고 또 指導者가 이끌어가고하는 그러한 어느 특정계층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아니고 민주주의 탈을 쓰고 이 사회에 안정을 깨치고 민주주의를 할 수 없도록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계층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사회를 危機의 社会다 이렇게 하는말을 공감있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위기의 사회라면 그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냐? 나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위기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위기의 실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현재의 위기는 政治, 經濟, 社会 모든분야에 있어서 위기의 실체도 있지만은 현실적 위기는 무엇이 위기냐, 경제적 위기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기다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쓰고 사실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방식, 소수의 큰 목소리를 가지고 경제를 뒤집어 엎거나 이끌어 가고자 했던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의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輸出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부진했고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의 6,5% 밖에 안되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대우조선의 근로자와 회사의 분규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울산 전 지역이 이 노사분규 때문에 몇개월 동안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옆에서 봤습니다. 금일 우리의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위기의 상황중에서 가장 내가 우려하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보는것은 경제적인 위기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분명히 국산품인데

국산품에 외제상표를 붙여서 십만원짜리 의자를 백만원짜리로 붙여놓으면 사가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 이렇게 나빠진 이유는 노사분규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허영심과 그런 옛날 우리가 잘못살던 시절의 생각을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위기는 현실적 위기보다는 장래적 위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노조의 문제, 여러분께서도 모두 학부모일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教育은 国家의 百年을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K.B.S.TV인줄로 기억됩니다만, 심야토론시간에 참교육이란 무엇인가? 참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원노조의 여수중학교인가요? 그 선생님이 나와서 참교육이란 인간된 교육, 민주화 교육, 통일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변을 많이했어요. 그럼 좋다, 우리의 교원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교육자 스스로가 근로자를 자처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외 차이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줄 用意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교육의 문제점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간화교육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거기 토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모골이 송연해진적이 있는데 인간화 교육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원노조의 교육지침서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소박하고 우리민족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을 한 素月의 詩를 가장 퇴폐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비민주적인 그런 시로 매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화 교육이냐 그리고 인간화 교육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자기들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선동합니다.

두번째 민주주의 교육, 민주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민주화란 무엇이냐 다수의 합의를 존경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제가 민주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주주의 참뜻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을 했던 英國이나 불란서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佛蘭西 革命이 있었던 그 시기에 민주주의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 그런데 오늘날 최근에

불란서에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불란서 전체 대학교 총회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맞는 민주주의는 무조건적인 자유 그리고 사랑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평등 그리고 절대적인 박애주의가 아니고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이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1의 개념이었든 평등의 원리를 두고 있는 것은 절대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아니고 여러사람이 여러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한 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박애주의가 아니고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내 자신의 평화와 함께 당신의 평화도 존중할 줄 아는 평화공존을 주장했습니다. 이와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이나 불란서에서 조차도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에 민주교육을 시킨다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민주화 교육이란게 무엇이냐, 바로 도시의 잘사는 계층에 대해서 걷우어서 벽지촌에 줘야된다, 절대적으로 평등을 만드는데 그 평등은 벽지나 농촌의 생활을 향상 시키고 잘살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아니고 잘사는 사람들의 것을 걷우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바로 의식화교육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무슨 투쟁을 하느냐면 민주주의 투쟁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당사에서 평민당사나 또는 공화당사나 당사를 쫓아다니면서 데모를 하고 단식투쟁을 합니다. 절대투쟁만이 절대적인 민주주의 절대적인 자유를 획득할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統一敎育을 얘기합니다. 통일 대단히 좋은 것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듣고 최근에 문익환목사라든지 또는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부님들도 그 실체를 충분히 알고 계시겠읍니다만 통일교육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統一의 場에 상대가 함께 나오는것을 나오도록 유도하는것이 통일교육입니다. 그것이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의 통일정책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향

해서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북에 갖다온 우리전교조 학생 누군줄 아시죠? 누구죠? 임수경양이 갖다 왔는데 임수경양이 하는 텔레비젼에 저기를 보셨을것 입니다. 그 이북에가서 우리가 우리 대학생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아울러 이북에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왜? 88올림픽때 우리가 그렇게도 단일팀구성을 희망을 했고 북한팀의 참석을 마지막까지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들은 한사람도 안왔읍니까 하는 얘기 해보지 못했읍니다.

그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며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딸이구나 이렇게 느꼈을텐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는 여기에 통일을 위해서 여기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굴복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항복되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괴는 하나도 변한것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북괴는 공산주의 화합방식의 통일을 그대로 자기들의 기본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후에 韓半島 국가와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서 자신있게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당때에 우리의 반공은 국시였습니다. 국가의 기본정책 기본방향은 반공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후에 계속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발전되어 오면서 우리의 정책은 굉장히 많이 변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은 북괴를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가서 먼저 숙이고 김일성 만세를 외친다며는 어떤식의 통일을 원하는것이냐하면 바로 김일성 방식의 통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방식의 통일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이 아니고 항복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산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통일 교육이라고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원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어느 젊은 대학생의 하나가 또는 몇몇의 계층들이 이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훨씬 더 많은 삶을 영위해오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온,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년 계층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원로들의 얘기라든지 중년계층과 지도층의 얘기를 전혀 도외시하고 소박한 생각, 단순한생

각, 어린생각으로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떠드는 그러한것이 통일이 되여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전교조가 활동하도록 그대로 국가가 묵인해 준다면은 인간화교육도, 민주화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교육을 받은 계층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때에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는것 때문에 우리는 전교조는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장래에 오는 위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당장 나타나는 위기가 아니고 10년 뒤에 우리의 어린 아들 딸들이 나라를 이끌어 갈때에 그런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나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전교조 문제를 여러가지로 부채질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떤분이 그런말씀을 하십디다. 신부님 말씀을 하면서 저도 카토릭신자 입니다. 카토릭신자인데 여기 우리 카토릭 교우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것이 이 신부가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 하고 신부님을 아주 매도를 합니다. 그래 저는 그때마다 그 신부님은 신부님이지만은 신부님이기 이전에 그 분도 한분의 人間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도 바로 神으로 생각하는것은 잘못이 아니냐 인간으로써 저지를 수 있는 오류 판단의 착오도 있을 수 있다하고 변명을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단에서 있는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것이 아니고 (father good father)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라 이렇게 생각을하기 때문에 신부님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문규현 신부님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사회에는 현재에 나타나는 위기와 내일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이냐, 저는 참 이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를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70년대에 우리가 불살랐던 그리고 祖国에 대해서 보여줬던 愛情을 전국민이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나서줘야 된다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獨立된 나라, 이 독립은 現代에 살고 있는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대, 우리 할아버지대에서 쟁취 해진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5천년의 역사와 운명을 우리에게 물려준 先祖들이 계십니다. 이땅을 오늘에 살고있는 우리들이 지키고 가꿔지지 못하면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또 다시 오욕된 역사를 남겨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나라를 잃었지만은 아들 딸들을 잘 가르치고 자신들이 정신을 새롭게 찾아서 독립된 나라를, 삼십년만에 독립된 나라를 자기의 손자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되찾아 준 독립의 나라를 발전시켜서 50년도에 우리가 6.25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때의 50년도, 60년도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열개를 손 꼽으면 大韓民國이 당연히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를 불과30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열개를 꼽으라 하면은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라로 가꾸고 얻은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룩해논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오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철부지들이 날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고 그것은 내 손해가 아니다, 나에게 떨어진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고 그냥 보아 넘기면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시 잊어버린 나라를 물려주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일이 많은 보통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내이익이 아니냐는 것을 따질줄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잊어버린 길을 찾는것에 앞장 서줘야 되겠다, 그중에서도 여기 앉아 계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부녀 여러분들 가정주부 여러분께서 그 일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정신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난 확신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리고 요란스럽게 몸을 흔들고 또는 고고장 같은데 들어 앉아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잊어 버린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잊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는 노력,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제일 방법이다, 또 절대로 이것은 열정이나 싸움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똑바로 보고 내가 해야될 길을 찾기위해서 잊어버린 길을 찾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나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첫째로 經濟危機의 克服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의 댓가를 받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 이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능력에 맞는 댓가를 받도록 해주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5공화국때 지향했던 正義社会, 이 정의 사회를 얘기하면 5공청산은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지향했던 목표가 나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를 추진 해왔던 사람중에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것이 아니냐, 자기가 자기의 능력에 맞게 맞추어서 자기의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도록 하는것이 민주주의다, 무슨 소리냐, 지금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받고 살지 않느냐, 그것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상 민주주의 이상은 능력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특정 집단이나 정부나 또는 민간인만이 주도하여서 이룩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 그러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만 되는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또 우리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다함께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제일의 기본은 능력과 노력의 댓가를 제대로 받도록 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엊그제 T.V에 나와서도 "診斷忠南時代"라고 하는 그 대담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가 도지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 지역에서 투기를 막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경제를 좀 먹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노력의 댓가가 아닌 투기의

댓가로써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천원짜리 땅을 샀는데 갑자기 만원짜리 땅이 됐으니까 그만 나머지 구천원이 불노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함부로 쓰는데 이 경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정부가 막을 수 있느냐, 政府가 막을수 없습니다. 道知事가 막을 수 있느냐, 도지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땅을 못된 투기꾼들이 사서 다시 불려서 튀기지 못하도록 해주는것은 우리 모두 책임이다, 다만 그 책임을 이행할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정책을 수행하는것이 도지사다, 그래서 도지사가 있는한 투기를 막겠다, 그리고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소득이 정상적인 노력의 댓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그돈의 귀중함을 모르니까 천만원짜리 소파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또 미안한 감정도 없이 사게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외제 블라우스나 뭐 이런것들 입으신분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블라우스를 국산품, 틀림없이 국산으로 거의 다 국산입니다. 양복지도 외제상표가 붙어 있는것 전부 가짜 입니다. 국산에 찌들려서 외제 마크를 붙이는데 대한민국 국민 상인들처럼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에 없다고 하는데 이태원에 가보시면 별게 다 있습니다. 로렉스시계서 부터 전부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붙인것입니다. 이런 이태원에서는 외국제가 아닌것을 확실히 알고 천원, 이천원에 살 수 있는것을 백화점에 갖다 놓으면 백만원 이백만원 붙었어도 아!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부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소비 그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것 이것이 위기 극복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두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제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어떻게 社会危機를 克服해 나갈것이냐 하는것입니다. 먼저 교육얘기를 아까 했으니 교육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敎育은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學父母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은 가정의 책임입니다.

교육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2개를 우리 주부님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아들 딸을 가르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원하는것은 부모님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였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내 아들을 잘못 가르치는데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념뒤에 망한 나라를 우리 아들 딸들이 갖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 行政 또는 國家가 책임져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그 책임져야할 부분들을 다 말씀 못드리겠읍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내일의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정책을 교육의 기본으로 하는 시책들을 저는 우리국가가 충분히 개발해 교원노조 선생님들중의 말씀에 옳은 얘기를 받아 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維新때 어떻게 했고 自由黨때 어떻게 했고 5共때 어떻게 했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할얘기 입니다. 정치인들은 5共清算을 얘기합니다. 그럼 역사가 어떻게 청산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저도 5공화국때 공무원 생활을 했고 6공화국때 다시 공무원생활을 합니다. 시대목표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목표에 맞추어서 가야될 행동과 공무원이 해야될 책무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것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산할것은 자기마음속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찾아서 전진해나가는 것이 청산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 한사람을 죽이는것이 청산이 아니라 하물며 敎育에서는 과거를 빙자해서 오늘날 잘못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앞을보고 전진하는것이 교육의 목표이지, 과거의 잘못을 규탄하는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전교조의 문제, 교육의 위기 문제를 主婦여러분께서 충분히 시정하고 가꾸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부여러분은 세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남자 보다도

훨씬 더 인정받는 女性, 제가 여성앞에 나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하면 저는 여자 역활을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와이프를 볼때 남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에 나와서 道知事의 임무를 수행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남자가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와이프가 아침에 나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또 우리는 늘 지금도 그럽니다. 출근할때는 한번 안아주고 출근합니다. 그것을 안해주고 나오면은 아내가 뭐 어제 잘못했나 또 아침에 종일나와서 그생각을 하다가 내일도 못하고 그냥 퇴근하게 됩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자신있게 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일을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고, 내 건강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냐, 가정주부로써의 임무이다, 아내로써 어머니로써 또는 며느리로써 사랑의 実体로써의 役割, 이것이 家庭主婦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주부님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줘야만 공무원 남편은 공직에 나가서 자기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남편은 직장에가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있고 학생인 아들은 학교에 가서 아! 어머니, 어머니 사랑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내가 데모를 해선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人生을 設計하고 꾸며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이것을 가정의 주부로써의 역할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두번째 역할은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입니다.

사회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소비의 주체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市場에 나가서 쇼핑하는것을 보셨읍니까? 별로 없죠, 백화점에 가서도 전부 다 여자들이실겁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가도 전부 다 여자입니다.

여성들은 돈을 쓰는 消費主体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家計簿를 써가면서 아주 절약하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잘 될려

면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적게해야 나라 경제가 잘 될 수 있는데 그 나라의 경제를 잘 될 수 있게 하는 주체는 여성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사하는 친구애기가 여성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서 제품을 개발하면은 재벌도 쉽게된다고 애기합니다. 이 나라의 화장품회사가 망한것을 보셨읍니까? 화장품회사 망한 회사 없습니다. 태평양화학, 뭐 쥬단학인가 뭐 그런거 있죠?

그래서 여성 주부님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경제소비의 주체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이 소비의 주체가 제대로 판단하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물가가 안정되고 또는 절대로 경제의 파탄이 올 수가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저축을 많이하고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것이 여성주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역할은 安定의 主体라고 난 생각합니다.

사회의 안정, 국가의 안정 모든 안정의 주체입니다. 가정의 안정도 여러분이 지켜주실것입니다. 어머니가 학교등교길에 기를 들고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정리하는 건널목에서 그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다른 쪽으로 교통질서를 위반해서 건너가는 학생은 없을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쉽게 조정할수 있는것이 여성입니다. 아무리 떠들고 뛰어나가고 싶어 하더라도 아내가 어머니가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끌어 줄때 그 남자가 뛰쳐나가는 남자는 없을 것이라고 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 세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의 사랑의 주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 그리고 사회, 국가 안정의 주체라고 그렇게 난 확신 하면서 우리주부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때 우리의 안정이 이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忠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1월1일 대전직할시가 승격 분리되고 그리고 지난 7월5일 우리 충남 계룡산 밑의 신도안에 3군 본부가 이전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도민 여러분께 그런 약속을 드린적 있습니다. 작년 년말에 대전직할시가 분리해서 잃은 우리 도세를 빠르면 3년이내 늦어도 5년이내 회복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담을 하고 約束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부분에서 서해안 개발계획 그리고 우리 도 각지역내 개발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쾌적

하고 그리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主婦 여러분께서 평가해 보시기에는 도정수행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고향을 어느 지역보다도 사랑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것은 이러한 도정 수행에 우리 주부님들의 성원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道政이 더 활기있게 추진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서없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행운과 번창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道政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5분 질문을 해주시면은 고맙고 질문이 없으시면 제 강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주부님들 가운데에 평소에 도지사가 이런것, 이런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개인적인 모든 것도 좋습니다.

질문이나 제게 제안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勞動福祉會館 開館式

1989년 8월 30일

式 辭

오늘 오랫동안 地域社會 勤勞者와 우리 모두의 기대를 모아왔던 忠淸南道 勤勞福祉會館의 開館式을 보게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自祝하는 바입니다.

本 勞動福祉會館은 우리 고장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福祉와 權益保護를 위해 기존 건물을 헐고 新築에 착수한 지난 1년 동안 國費의 支援과 道 財政으로 순조로운 사업의 진척을 보인 끝에 마침내 開館의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勤勞者의 福祉會館이 완성되기까지 적극적인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뒷바침을 해주신 勞動團體長 여러분, 그리고 有關機關 機關長님과 여러 社會團體의 관심에 대하여서도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의 16만 근로자 여러분은 본 福祉會館이 갖추고 있는 여러가지 便益施設을 십분 활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국민적인 合意속에 우리 모두의 力量을 힘껏 발휘해 나가야 할 先進社會, 先進國家 建設에 대하여 최선의 기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안습니다.

친애하는 勤勞者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國家發展의 앞날을 내다볼 때에도 매우 위기적인 狀況을 맞고 있슴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危機를 사실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고 "어떻게 잘 되겠지"하고 생각하는 무감각적인 姿勢와 地域社會나 國家의 장래야 어떻든 나에게 아무런 일만 없으면 그만이라는 방관적인 態度가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報道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중 우리나라는 8년만에 최저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인당 國民所得도 國民總生産도 뚝 떨어져 근로자 여러분은 물론 國民 모두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國民經濟生活은 家計支出이 급속히 늘어나고 奢侈와 分에 넘치는 休息을 전제로 한 過消費 現狀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더욱 걱정됩니다.

오늘의 보람을 창조하신 勤勞者여러분!

우리의 國家經濟가 成長擴大의 외길로 치달을 수만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아는 常識입니다.

국내외의 여건에 따라 成長도 있고 沈滯도 있는 것이 선진화의 정상적인 過程이요 자연스러운 理致입니다.

다만 경제의 沈滯 동향이 있으면 消費가 줄어들고 오히려 貯蓄이 늘어나는 방어적인 姿勢가 오늘까지 先進國民의 의식이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國家經濟 動向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姿勢는 하루빨리 고쳐야할 國民精神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고장의 勤勞者들은 그동안 땀흘려 일하면서 貯蓄하고 또 공부해온 또순이 같은 勤勞精神을 더욱 발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이 自己分數와 그리고 社會와 國家가 당면한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敎訓을 주고, 또 地域社會의 신선한 새바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면한 努力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치루고 세계 10대 貿易國家로 발돋움 한 만큼 이제 우리는 어떠한 難關이라도 헤치고 先進國의 成就를 앞당겨야 할 召命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勞動福祉會館이 門을 여는 것을 계기로 하여 여러분의 참신한 勤勞價値 確立과 함께 社會와 國家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투철한 認識을 당부드리며 16만 근로자 여러분의 幸運과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 월



▲ 새마을 부녀회원 격려

1989

1989년 9월 1일

基 調 人 事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멀리 각 市郡으로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住民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왕림해 주신 황용주 博士님과 崔相哲 博士님!

그리고 늘 우리 忠南 發展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韓南大學校 김세열 博士님을 비롯한 여러敎授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學界의 저명한 敎授님들과 地域 代表 여러분을 모시고 "새로운 忠南 時代"의 序章을 여는 圈域別 開發計劃에 대한 公聽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忠南은 예로부터 찬란했던 百濟 文化의 古都로서 많은 偉人, 烈士를 배출하였고, 學問과 禮節을 중시하는 兩班의 고장으로 널리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이 京·釜軸에 편중되어왔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國土의 중심지에 位置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忠南의 傳統과 忠南人의 드높은 矜持는 우리들 모두의 가슴속에 면면히 이어져 西海岸 時代의 忠南 開發을 이끌어 나가는 커다란 原動力이 되고 있슴은 물론, 國家西海岸開發의 主導地域으로서 선망의 祝福받은 땅이 되고있어, 우리 모두가 執念을 갖고 땀과 슬기를 모아간다면 "새로운 忠南時代"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다고 본인은 確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적 측면에서 볼때 大田直轄市 昇格으로 지역적 中心 都市를 상실하게 되어

○ 天安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지역은 首都圈으로

○ 舒川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은 群山圈으로

○ 錦江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지역은 大田圈으로

각각 地域經濟力이 유출될 가능성도 적지않은 것으로 分析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忠南時代의 기본적 課題는 지역적 응집력을 어떻게 강화하면서 약화된 道勢를 조기에 回復하고 國家西海岸 開發事業 推進을 계기로 어떻게 우리모두의 意志와 슬기를 모아 새로운 創造的 均衡發展을 도모해 나가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本道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을 "새로운 忠南 開發의 元年"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3大 目標와 3大力點施策을 計劃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리의 집념에 따라 한 例로 현재 86만평밖에 되지 않는 工業團地面積이 92년이면 천만평 規模로 豫想되는 등 약화된 道勢는 짧으면 3년, 길어도 5년 이내에 완전히 回復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發展이 실질적으로 道民 개개인의 福祉와 생활의 質的 向上에 寄與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道民 모두의 和合과 氣魄에 찬 精神이 發現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앞장서 이끌어 나갈 公職者들의 能力 發展과 헌신적인 使命感이 무엇보다도 주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本道는 道民 精神 涵養과 道勢 回復, 그리고 行政 刷新의 3大目標實現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忠南開發의 基本方向을 長·短期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成長潛在力이 큰 地域을 중심으로 首都圈과 大田圈의 大都市開發效果를 능동적으로 受容, 西海岸 發展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工業立地를 가급적 집중하여 開發面積을 최소화하고 保存面積을 최대화 함으로써 우리는 물론 우리 後孫들까지 길이길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快適하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

다.

이를 위해 首都圈과 인접한 우리의 지리적 與件을 최대한 활용하여 天安으로부터 牙山産業 基地와 大山 工團으로 이어지는 西北部地域에 적어도 30년이상 對外 競爭力을 갖을 수 있는 産業中, 비교적 공해가 적고 附加 價値가 높은 自動車, 電力등 裝置 産業을 선별적으로 유치하여 工業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背後都市를 적극 육성하여 首都圈의 확장을 막고, 그 開發의 효과를 內陸쪽으로 확산시켜나갈 計劃이며,

둘째로 서천을 中心으로 한 南部地域은 群山圈에 필적할만한 大都市가 없기 때문에 群·長 廣域 産業基地 開發을 계기로 이 지역에 勞動集約的 工業을 조속히 유치하고 人口 流入을 적극 도모하여 서천과 長項을 하나의 支援都市로 육성함으로서 忠南 南部 地域開發의 核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大田에 인접해 있는 錦江 流域地域은 大都市의 흡인력에 의한 기형적 성장을 극복하고 大田과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百濟文化圈과 鷄龍新都市를 중심으로 論山, 燕岐, 錦山등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자립적 地域經濟 力量을 育成해 나가되, 새로운 忠南開發의 중심적 基盤을 조속히 구축하고자 하며,

넷째, 가로림만 西部 地域과 道의 내륙지역을 清淨環境 保存地域으로 정하고 瑞山 海岸國立公園과 安眠島를 大川港과 연계하여 國際觀光地로 개발함과 동시에 青陽등 차령산맥을 비롯한 錦江 流域의 자연적 여건을 바탕으로 百濟文化圈의 역사적 遺蹟을 종합적으로 開發하여 忠南의 긍지높은 觀光産業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고장이며 삶의 휴식처인 農漁村 發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근 失意에 빠져 있는 青·壯年의 꿈과 希望을 일깨워 주는 한편 주변지역의 工業 發展 効果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西海岸高速道路와 忠南內陸 交叉高速化道路등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農工團地 無公害觀光農業등 1次産業을 현대화하여 풍요와 福祉가 깃든 농어촌으로 建設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1단계에서 얻은 개발의 여력을 內陸으로 흡수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圈域別 地域 賦存資源을 經濟資源化하고 住民所得 資源化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이 均衡되게 發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計劃입니다.

이에 따라 本道에서는 지난해의 西海岸圈 綜合開發計劃을 보다 구체화 하면서 여타 지역을 포함하여 圈域別開發計劃을 마련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開發計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理想이며 풀어야 할 課題일뿐이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恩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고장에서 태어나 젊음을 키워왔던 고향 知事로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忠南 無待接論"에 대하여 "우리가 待接을 받으려고 해도 無待接을 받았던 것인가? 아니면 待接을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가?"를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道民여러분!

우리는 하나이며 하나이기 때문에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의 發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매진해 나가자는 굳은 約束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不動産 投機가 이러한 개발의 꿈을 좌절시키게 한다는 사실을 확고히 認識하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추호도 容納될 수 없다는 도민적 운동을 함께 해 주실것을 呼訴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못된 開發을 바로 잡기 위하여는 적어도 200년의 세월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永遠히 고칠수 없는 後悔를 남길수 있다는 점을 念頭에 두면서 오늘 이 公聽會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하고도 폭넓게 討論되고 모아져, 앞으로 우리 道民 모두의 복된 미래가 實現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協助와 聲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드리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길이 간직될 수 있기를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9월 1일

特　　講

여러분 반갑습니다.

道知事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도지사를 만나기 전에는 딱딱한 사람일것이라 생각이 되었지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대단히 긴장해서 나를 맞은것 같은데 그렇게 긴장할 만큼 딱딱한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忠淸南道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젊은 만큼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큰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게 해줄것이냐 하는 뜻에서 입니다.

물론 여러분중에는 나이가 어린 열세살의 學生으로부터 스물세살난 青年까지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敎育을 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참고가 될만한 말보다는 경험을 중심으로 어떻게하면 남들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점을 고향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말로써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낳을 때부터 혼자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행한 人生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하면 남들에게 보다 더 잘 보일 수 있고 또 더 친숙해질 수 있으며 좀 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젊은이들처럼 父母님으로부터 많은것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되는 少年少女 家長들이고, 또 일부는 생활이 어려워 政府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 분들의 자녀이며,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조금도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운 얼굴과 그리고 현명한 머리를 남들못지 않게 갖추고서 태어났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몇년전 나는 육체가 보통사람과 다른 환자들만이 모여있는 再活院에 가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때에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튼튼한 팔 다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게 태어나도록 해서 저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내가 생각한것보다도 의외로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아주 지체가 부자유스런 그들이 목표를 향해서 땅을 기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는 目的이 따로 있고, 일단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目標를 향해서 前進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만 불쌍하게 보이고 불우하게 보이지,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때부터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써오던 不遇青少年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불우청소년이 아니라 希望青少年이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이

끌어가는 청소년, 부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나야될 시기에 자기 스스로 생활을 개척하고 영위해야될 그런 청소년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더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 젊고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인한 의지력을 기르고, 그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편하게 지내는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큰일을 해내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忠淸南道에서는 希望青少年이란 용어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나쁘다고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늘 불안과 불행속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행복의 조건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음과 생각속에 행복이란 두 글자를 늘 간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행복이 늘 심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옷을 주어도 늘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네로황제를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권력을 쥐고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었고 네로도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인간이었으며 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거나 엄청난 부를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속에 늘 만족하고 幸福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실때는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목표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 내가 오늘 희망을 가지시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보아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슴에 심고, 품고 하루를 시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못생겼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것부터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거울속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우리 自然學習園에 계실때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제일 첫번째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과 가장 튼튼한 육체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아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젊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일과을 시작해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단순한 마음속의 희망이 아닌 하나의 성취로 이룩할 수 있는 제일 첫걸음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입에 물고 1분 허비하게 되면 그 허비한 시간은 절대로 다시 여러분의 것이 안됩니다. 특히 젊었을때에 1분을 허비하면 나이가 들어 1년을 후회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일촌광음 불가경 (一寸光陰 不可輕)"이란 말이 있습니다.
"짧은 한순간도 절대로 가볍게 보지말라."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값진 말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보내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전자오락실에 가 보았지요?
전자오락실에서 전자오락기를 당기면서 하루를 보내기는 아주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때는 틀림없습니다.

몇년전에 우리 막내둥이를 데리고 大川으로 놀러갔는데 대천에 도착하자마자 없어졌어요. 아직 中學校도 안들어 갔던 어린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줄 알고 정신없이 찾아 다니다 보니 어느 전자오락기 앞에서 삐삐 하는것을 두드리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막내아들 이름이 우찬인데 "우찬아 재미있냐?"하니까 쳐다 보지도 않고 "예!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렵게 찾아다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예"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놈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면서 전자오락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대천에 온 목적은 부모와 함께 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바다를 즐기는 그런 목적으로 온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단은 자기 목적을 향해서 한번 자기를 던져보고 그것이 재미없을때 다른것을 찾아도 늦지 않을텐데 왜 전자오락기를 좋아했느냐? 그리고 네가 전자오락기만 가지고 있으면 네 몸도 튼튼해지지 않고 나중에는 머리가 그 쪽으로만 돌어가서 다른 일을 하기에 대단히 어려울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얘기를 가끔 해줍니다.

요즘처럼 文明이 발달된 시대에는 보고 듣고 하는건 모두가 편하고, 쉽고, 즐거운것들이 많을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젊은 시절을 보내는 學生들은 늙어서 반드시 그런 즐거운 일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이야기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전자오락기라든지 이런것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전자오락기를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일분일초를 아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뒤에 후회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것입니다.

세번째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생활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모든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들 중에는 불평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평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만과 불평스럽게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서 나에게 환영받고 그리고 환영받은 만큼 이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보람과 成功의 人生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여러분들의 이웃에 있는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침에 일어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또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대해 보십시요. 선생님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 누나, 언니, 아우 고맙다.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는 동생, 언니도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대단히 훌륭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사람들의 사회생활은 언제나 외롭고 괴로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괴롭고 외로운 것이 아니고 남까지 괴롭고 외롭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부탁 말씀은 感謝하는 生活을 하여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얼굴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하는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얼굴을 볼때 저는 "아"저친구 저학생은 나에게 진심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직업을 갖게 된다면 그때 직장에서도 동료 상사 또는 밑의 직원들에게 "아" 저친구는 감사하면서 정말로 화합을 이루는 그런 생활을 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점수로 가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俗談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더러 좌절감을 느껴본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큰 좌절감을 느끼면서 나는 왜 다른 사람들 다른 青少年들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하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좌절감이 아니고 새로운 용기와 인내심과 그리고 의지를 심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리고 과제다 하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를 좌절로 이끌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우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좌절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강인한 정신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했거나, 좌절감을 느꼈거나, 불행스럽게 느껴질때 처음에 얘기했던 거울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홍길동"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홍길동, 너는 이것으로 끝난 인생이냐" "너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냐" 하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럼 거울속의 홍길동은 자기를 보고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답변해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려운일이 생겼을때는 거울속에 자기를 쳐다보면서 물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지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내 同期同窓이나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뛰어난 좋은 환경, 뛰어나게 운이 좋은 그런 경우만을 겪었던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했고 더러는 좌절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선배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었던 거울속의 나자신을 보고 너는 이것으로 끝날 인생인가 하고 자문을 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좌절속에 묻혀있는 젊은 이는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되었을때 자기 아들 딸들에게도 좌절밖에 유산으로 남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 다음세대, 여러분의 아들 딸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인것이다 하는것을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강인한 정신을 길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 부탁드리는 말씀이 전부 孔子님 말씀같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님 말씀이 반드시 비판받거나 또는 별것 아닌 말로 들려서도 안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만큼의 특성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앞으로 公務員이 될 사람도 있고, 企業人이 될 사람도 있고, 또는 어디서 노동꾼이나 기술자가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農民이 될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던지 딱 세워야 될 한가지 목표는 1등을 하겠

다는 한가지 목표입니다.

나는 얼마전에 텔레비젼에서 삼성재벌 그룹의 이사가 된 한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신라호텔의 주방장이었던 분인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이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사람은 어려서부터 요리집에 다니면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다녔습니다. 오직 배운것은 음식을 만드는일, 짜장면을 만들고 탕수육을 만들고 그 음식만드는 법을 배운것이 유일한 자산이었는데 그 사람의 목표는 음식 만드는것 하나는 내가 1등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60이 가까워서야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는 신라호텔의 주방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주방장을 삼성그룹에서는 大學을 나와도 되기 어려운 이사라는 중역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와같이 어느 분야던지 자기가 1등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교육을 받고 안 받은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機能올림픽大会를 작년에 일곱번째 한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가는 기능공들을 양성하고 우대를 합니다.

機能工보다 더 잘 만드는 사람에게는 "기능장"을 주어서 "장인"이라는 호칭을 줍니다마는 이 "기능장"이 되면 상금도 1,500만원인가 받게되고 자기 가족과 함께 유럽여행을 갈 수 있는 티켓도 주는것을 작년에 보았습니다.

어느분야든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일등이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는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같은 사람을 태어나도록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를 했읍니다만 나는 道知事의 입장에서 여러분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향선배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남겨줄 수 있는 얘기는 경험에서 얻은 얘기와 책에서 배운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는데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부가 마차를 끌고 길을 가다가 진흙구덩이에 마차바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빌었어요. "하느님! 하느님! 이 마차를 진흙구덩이에서 꺼내주십시요"하고 기도를 했읍니다.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답변을 했겠어요? 이것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 아는사람 얘기해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말이지요. "네 어깨를 바퀴에다 대고 밀어봐라 네 힘을 다 해서 바퀴를 밀어봐라 그래도 마차바퀴가 빠져 나가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진흙 구덩이에 박혀있는 바퀴를 사람 스스로 밀어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요"하고 기도만 한다면 절대로 그 마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어깨를 마차바퀴에다 대고 힘껏 미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얼마전에 保寧郡의 청라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하나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에 내가 우리 선생님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함께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친구 자기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은사의 밤"이라는 시간에 나왔는데 그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대단히 머리속에 인상이 깊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돌아가서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도지사가 자기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스승의 날에 자기 선생님을 모시고 오도록 할줄은 몰랐다. 그리고 자기는 溫陽까지 갈 기차비가 없어서 갈 생각을 사실은 못했었다. 그런데 선생님께 그말씀을 드리니까 기차표 걱정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격려를 해주면서 자기를 데리고 온양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자랑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는데 선생님이 이 어린학생을 목마를 태워서 데리고 나와서 이 학생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작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國民學校 다니는 동생과 힘께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와서 밥을 지어 동생을 먹여

보내고 학교에 오는데 반에서 언제나 5등이내에 드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저녁에 돌아가는 때에 또 다시 선생님이 기차표를 사서 함께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선생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잠이 깜박 들었데요.
선생님께서 보령에 와서 깨워서 내릴 수가 있었다는, 그리고 내려 가지고 역전에 나오면서 부라보콘을 하나 사 주시는데 자기가 안먹고 들고가니까 너 동생때문에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를 더 사 주는 선생님의 마음에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뛰어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동생까지도 함께 中學校, 高等學校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주었는데 내가 그 편지를 보면서 아주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보령에 있는 어느 企業을 경영하시는 분과 자매결연을 맺어 주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때 까지 적어도 학비는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아버지 노릇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결연을 맺어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제가 지금 돌보지 않아도 분명히 자매결연 맺은것과 관계없이 오늘 새벽에도 신문을 들고 대천시내 곳곳을 누비며 신문배달을 한후 밥을 지어서 동생을 먹이고 학교에 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역경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딛고 일어서서 힘껏 노력하는 모습을 주위에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 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해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불행한 사람, 그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자기의 불행을 남에게 나타내 보임으로해서 다른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어려움과 자기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서 옆에 있는 자기의 이웃을 행

복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道知事가 되는것이 성공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도지사로 지금 근무를 하지만 내 목표는 내 자신이 고난과 책임을 다해서 우리도에 살고 계시는 더 많은 道民들에게 내 노력한 성과를 돌려주도록 하는 일에 더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책임과 고난하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幸福을 선사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 주기를 부탁해 마지 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늘 거울을 보면서 느껴주기를 바랍니다.

먼훗날 10년 20년뒤에 이중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많은 일꾼들이 태어나서 그때는 나는 아마 많이 늙어 있을 것입니다.

늙어서 꼬부라진 沈大平 옛知事를 생각하고 "아! 심대평씨 당신 그때 나한테 얘기해 주었던 공자님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서 오늘 내가 나 자신의 행복과 함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하고 얘기해 주는 學生이 나오기를 期待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서로 오늘 맺은 인연을 중요하게 가슴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내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989년 9월 1일

祝 賀 메 시 지

中都日報의 續刊 1周年을 道民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오랜 침묵끝에 다시 正論의 기치를 높이 든 향토의 대변지 中都日報는 지난날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예리한 시각과 넘치는 의욕으로 우리 500만 忠淸人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연한 論調를 펴 왔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활약과 독자에 대한 만족은 地域 社會의 新聞임을 자임하고나서 고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事案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하고 성취하며 결실할 것인가 하는 점을 域內의 住民들에게 소상하고 성실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모든 新聞들이 빠른 뉴스의 傳達이나 사실의 報道, 그리고 관심사에 대한 論評은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정말로 鄕土 新聞에 대한 독자의 요청은 忠淸人들이 관심을 두는 참신한 문제의 보도와 연대감을 부러일으키는 輿論의 集約, 그리고 다같이 공감하는 代案을 필요한 시기에 짚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의 재기를 통해서 歷史를 復元하고 傳統을 일깨워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향토지 中都日報는 앞으로 새로운 감각, 다양한 소재 전방위 보도로서 떠오르는 21세기 忠淸人의 기대에 찬 役割을 조명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林喆圭 社長님을 비롯하여 사우 여러분의 健筆과 행운을 빕니다.

月例朝會

1989년 9월 2일

訓　　示

먼저 오늘 자랑스러운 공무원, 그리고 監査有功공무원, 親切奉仕공무원, 산불防止有功공무원, 특히 錦山郡, 論山郡의 두 面長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름 풀베기 作業을 잘 독려해주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보다도 내일을 위해 비축하는 行政을 전개해준 공로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이 되면 지난해의 올림픽 기간동안 우리가 겪었던 환희와 영광의 그 시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88년 9월 5일 우리 道廳앞 광장에 성화를 봉안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함께 大韓民國에 태어난 자랑스러움을 그 당시처럼 가슴 뿌듯하게 느꼈던 시절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고, 텔레비젼, 신문, 라디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50억 人類가 大韓民國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아침 해의 나라" "동방의 밝은 빛이 다시 빛나는 나라"로 칭송을 할 때에 우리는 모두 韓國人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올림픽의 감격을 되새겨 보면서 다시 암담한 심정 속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지난해에 우리가 거두었던 큰 성과와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무거운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는 올림픽을 치루고 10년정도는 올림픽의 열기가 각계에서 살아숨쉬어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엄청난 發展을 持續한다고 합니다.

日本이 그러했고, 다른 先進國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올림픽사상 가장 最惡의 經營을 했다고하는 캐나다까지도 올림픽 이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世界 人類史에 일찌기 없었던 큰 성공이었다고 자찬, 타찬을 받았던 그 올림픽의 성과가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우리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심정들은 물론 전대협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하는 극히 일부분의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들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만, 반드시 일부 계층의 극렬행동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만은 아니라고 반성을 해 보면서, 지난해에 올림픽을 치루었던 그 심정으로 오늘 다시 우리가 한데 뭉쳐서 올림픽의 성공못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다짐을 같이 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있으면 韓民族 體育大會를 엽니다. 또한 올림픽을 기념하는 문화축제가 함께 열립니다. 이러한 문화축제나 올림픽을 회고해 보면, 행사는 行事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行事를 통해 전 國民이 다시 한데 뭉쳐서 새롭고 민주화된 조국을 建設하는 한편 새로운 祖國의 榮光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전에 美國을 다녀오신 충남지역 카톨릭 지도자이신 경갑룡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민들이 올림픽을 치를 때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조국일수가 없었는데 불과 1년도 못가서 다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어깨를 움츠리고 살수밖에 없는 교민들을 조국에 있는 국민들이 한번쯤 생각해준 적이 있습니까?"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들은 "韓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기회가 한번도 주어지지 못했었는데, 올림픽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영광과 환희를 맛보았는데 1년이 채 안되어 그 榮光과 歡喜가 다시 좌절로 빠져들어 전 보다 훨씬 더 큰 충격속에서 조국의 내일을 바라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오늘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만의 문제, 국내만의 問題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누고 고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 海外 同胞들에게도 다시 새로운 勇氣와 希望을 불어 넣어줄 責務를 우리 스스로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오늘과 함께 내일의 조국을 좀먹는 敎育의 問題,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나가고 있는 宗敎차원에서 야기되고 있는 몇가지문제, 철없는 어린학생들의 환상적 행동, 이러한 모든것들이 우리를 대단히 우울하게 하고 있음에도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指導層, 中産層, 책임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責任과 能力을 발휘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思考나 능동적인 行動이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적어도 우리 忠淸南道만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가야 되겠다고 여러번 강조했읍니다만, 이제 문제를 뒤로 미룰 수도 없고 남에게 떠 넘길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 물러앉아서 참아달라고도 할 수 없는 狀況,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狀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

또한 우리 經濟가 지난 8년이래 最惡의 狀態에 와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심각한 우려와 對應措置를 취하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道勢의 早期回復, 이것이 비단 忠南만의 문제이겠읍니까? 우리의 도세를 회복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經濟전체의 크건 작건 상당히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생각으로 함께 도세회복을 위해 工場을 誘致하고 農業部門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어 주며 자기가 맡은 債務는 시간을 다투어서 해결해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좌경 또는 좌익학생들, 統一의 문제 또는 民主化의 문제 등 여러가지 問題들이 심야토론이라든지 여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론적으로 대항을 할 수 없을 경우 저들은 화염병을 들고 우리에게 대항을 합니다. 우리는 열 사람이 한달을 그려야 될 변화를 운동권학생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밤을 새워 그려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켜야 할 우리들은 그들과 대항해서 얼마나 이론적인 武裝을

해왔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다투어서 자기의 전력을 투입 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民主化를 빙자하여 나라를 뒤집어 업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理論이 안 통할 경우에는 억지를 가지고 밀고 나오고 그리고 열사람을 모을 수 없을 때에는 한사람이 열사람 몫을 해내는 등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적으로 극히 일부인 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社會像을 연출해 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가야될 指導層에 있는 우리 公務員 엘리트가 나라를 建設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러한 現實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미루지말고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열정을 쏟아 문제를 해결하고 그 問題 解決은 자기가 맡은 분야의 임무에 最善을 다해서 최단 시간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첩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任務에 임해주면 한가지씩 우리사회의 위기는 퇴치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혹자는 들녘에서 풀 한줌을 베어서 퇴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위기를 막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공장유치서류의 검토를 보다 빨리, 보다 정확히 해줌으로써 우리의 經濟危機를 克服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위기의 실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認識에 대해 우리가 함께 해야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6共和國에 들어와서 認識과 發想의 大轉換을 강조해왔고 公務員 社會에 있어서도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에 대하여 여러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은 현실을 보는 시각의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認識과 發想을 大轉換 시키고자 해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듣는것,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할 때, 또 그 생각이 달라지지 못할 때에 인식이나 業務를 추진하는 발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잘못을 是正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무엇을 해야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44년동안 해온 새로운 國家建設,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발전을 指向해온 것과 같이 새로운 歷史를 創造해 가면서 역사의 잘못을 청산해 나가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公務員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고 과거의 잘못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삼제해 가나고 그 삼제된 마음속에 내일을 위해 하루를 보내는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주는 노력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과거역사의 是正과 새로운 歷史의 創造는 並行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民主化의 問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民主化, 民主化하는데 좌익들도 민주화, 우리 公務員도 민주화, 나도 민주화, 너도 민주화, 民主化라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피부로 느껴오면서 民主化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것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民主化라는 것은 오늘로 딱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늘까지 민주화가 끝나고 내일서부터는 다를것이라고 하는 狀況도 아닙니다. 인류역사상 民主主義를 향해서 前進해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전제주의 사상, 또는 독재주의의 출현 등 여러가지 기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民主主義라는 것은 다수 國民에 대한 生活의 質의 향상, 生活의 내용의 充實이란 基本原理로서 확산되어 왔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夜警國家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가장 작은 政府로서 다수 국민의 生命과 財産을 지켜주는 역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政府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福祉政策이라든지 경제발전을 위한 開發政策이라 든지 하는 것을 政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民主主義政府, 民主主義

政策과는 거리가 먼 정책일수도 있습니다.

開發政策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야 될 점도 있고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多數의 利益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에게 위임된 權限과 權威로써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民主化라는 것은 오늘로써 딱 마감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시간을 갖고 마음속으로 부터 다수의 住民, 다수의 利益을 위해서 정진을 하는것이 民主化를 향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政治權에서 먼저 논의되고 해결되고 있는 사항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우리 行政이 國家를 지탱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主役이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公務員인 우리직원 여러분들이 政治圈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방관해서는 않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敎員勞組問題에 있어 우리가 深夜討論에서 본것중에 "왜 敎員勞組를 하느냐?", "敎員勞組의 중요한 目的이 뭐냐?", "참 敎育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참 교육이 무엇이냐?" "人間化 교육과 民主化 교육과 統一교육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人間化 敎育과 民主化 敎育을 부르짖으면서 선생님들은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교단을 떠납니다.

軍人이 손에서 총을 놓으면 이미 그 군인은 죽은 군인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敎壇을 떠나 行動의 場으로 들어가면 그건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深夜討論 내용을 들었슬줄 믿습니다만은 나는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敎育勞組의 敎育指針書중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하는, 즉 우리 어렸을적 배웠던 그 아름다운 詩가 가장 퇴폐적이고 그리고 패배주의적인 詩로 매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또 그 시의 아름다움을 주장하는 선생님들과 이에 反論을 제기하는 敎員勞組의 말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프로를 보면 과연 가슴속에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는 대단히 우울

하게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民主化 敎育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民主主義의 本産이라고 할 수 있는 불란서에서도 "自由는 이제 무조건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責任을 수반하는 自由이어야 된다" "그래서 民主主義를 하기 위해서 자유에 앞서 책임이 강조되어야 되고 平等은 절대로 너와 내가 同一 하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多樣性에 더 우선을 둬야 한다" "그리고 博愛라고 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조건있는 사랑,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사회, 平和共存을 전제로한 博愛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敎育속에 바로 이러한 責任과 多樣性과 平和共存의 思想을 가르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을 우리 아들, 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론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統一敎育,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임수경양이 우리의 敎科書에서 統一이라는 말이 없어졌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텔레비젼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所願은 統一이라는 노래도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통일을 소원하지 않는 國民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한民族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어느 한편의 일방적 宣言에 의해서 이룩되는 환상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統一은 상대와 내가 함께 합의점을 찾아야 이룩될 수 있는 극히 이상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北韓學生이나 北韓住民들은 서울올림픽에 그렇게도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한민족 체전에 우리가 함께 參與해서 6천만 同胞가 손을 맞잡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자고 애원을 해도 오지않는 반면, 임수경양과 같이 통일이란 이름으로 北韓에서 행사하는 慶祝行事에 참여하여 金日成이를 찬양하고 붙잡고 우는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評價를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은 이룩되어야 하지만 통일이 항복일 수는 없습니다.

統一敎育이 항복교육이 되어서는 않되고 統一敎育이 공산주의 교육이어서는 더우기 안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것은 통일교육이라는 말 자체의 용어에 현

혹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수도 없고 밝히지도 못하는 그러한 論理에 對應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民主主義 體制를 지켜가면서 統一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 지도층에 있는 모든 國民들 한사람 한사람이 똑같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統一이 이룩된다 하더라도 民主主義가 무너지는 統一이 될수 밖에 없다는 예를 우리는 越南에서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狀況을 몇가지로 分析整理를 해서 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問題는 이것에 대처해 나가는 자세를 보다 큰 사랑과 큰 애정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愛情이 있어야만 熱情도 생길수 있고 적극성도 생길수 있으며 능동적 行動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精神을 빼놓고 物質만을 생각하면 그속에 흔히 들어 있지 않는 껍데기만을 생각하는 것이되고 물질을 생각하지 않고 정신만을 생각한다면 實體를 잡을수 없는 虛像만 보는 결과를 자져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道政의 기본방침중 도세의 회복 등 3대목표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道民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으며 손에 쥐어질 수 있는 道政을 추구해야 됩니다. 도세회복을 위한 7大 力點施策과 20大 戰略事業들은 우리 道民들에게 내일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주고 希望을 심어주어 그 실체를 안겨주는 시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 우리 忠淸南道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룩하고자 하는 기운을 복돋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道民精神을 발양하고 새로운 忠南精神을 정립하자는 뜻에서 精神的 施策을 우리가 함께 추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지도층 모두가 함께 해줘야 될 일이고 우리 道民전체가 함께 參與해주도록 해야되지만 그 참여를 誘導하는 役割을 公務員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과 소신과 사명감이 넘치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능력있는 公務員들만이 이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道民들에게 새

로운 希望과 비젼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하고 손으로 쥘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서해안 지역에 엄청난 해일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초에 태풍 주디호로부터 피해가 없었던 것은 물론 하늘의 도움이 가장 큰 要因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에 가뭄 극복대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水害 對策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재해대책반을 가동 했습니다.

7월 15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대전주변의 반포라든지 몇개 지역에서 水害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해를 겪으면서도 人命被害와 이재민이 없었으며 태풍 주디호가 왔을 때도 被害를 극소화 할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그러한 우리의 겸허하고 겸손한 노력은 하늘이 주디호에게 우리 忠南을 피해 가도록 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주디호의 태풍피해를 면하고 나자 우리 가슴속에 언젠가 모르게 "아 이제 별것아니다"라는 자만심이 들어앉아 이번 해일피해에서는 두 사람의 人命被害가 있었습니다.

颱風경보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人命被害가 났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自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다시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行政하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자만심이 생기고 "아 금년에도 9년연속 豊年이 확실히 가능합니다"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 맡은 責務를 성실히 遂行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자만하거나 내 공으로 돌리는 짓을 하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奉仕하는 자세를 견지할때에만 하늘과 우리 道民이 함께 우리 行政을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행정공무원 누구든지 자기가 잘한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러한 자랑과 자만때문에 우리 行政에 대한 信賴가 깨져왔던 과거의 전례를 잘 알고 우리가 늘 反省을 해야 됩니다. 公務員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만을 하거나 생색을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또는 회피하지말고 자기가 맡은 責務를 소신껏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위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아랫사람은 우리 住民들에게 공을 돌리고, 아랫사람은 윗 사람을 尊敬하고 뒷받침 해주면서 道政의 성과를 거두어서 道民 모두에게 돌려주는데에 자기의 責務를 다해야만 신뢰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信賴回復이야말로 바로 우리 道政의 成果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최근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또 새로운 분발을 함께 촉구해마지 안습니다.

青少年 善導를 當付하는

1989년 9월 3일

書 翰

평소 각별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道政을 聲援해 주시고 특히 青少年指導 事業에 크게 공헌하고 계신 귀하의 勞苦에 깊이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慰勞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동안 급속한 民主化의 熱氣속에 수많은 욕구들이 일시에 분출하여 한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混亂과 경제적 危機에 까지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民族의 底力은 그 어려운 고비들을 슬기롭게 수용하고, 극복하여 이제는 점차 安定과 回復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하와 같은 지역의 어른들이 앞장서 도와주신 큰 힘과 知慧의 德澤으로 알고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은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급속하게 번져가는 青少年의 非行과 犯罪가 날이 갈수록 매우 포악하고 대담하고 組織化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티없이 맑고 깨끗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 少年, 少女들이 밝은 대낮에도 暴行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 한때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귀중한 人命까지를 殺傷하는 안타까운 현실, 심지어는 파렴치한 人身賣買와 부도덕한 퇴폐행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대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비장한 마음과 決意로서 勇氣있게 對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다같은 父母의 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政府는 지금 온갖 公權力을 총 동원하여 이른바 民生治安에 역점을 두고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혼란케하는 모든 非理와 犯法者를 발본색원 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豫防과 치유를 위해서는 政府 當局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들과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한家庭의 어른으로서, 마을의 主人이요, 사회의 先輩로서, 책임있는 努力을 다할때 더욱 큰 成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青少年들이 일상 주고 받는 말씨나 行動에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는 하나 하나에 이르기 까지 더욱 세심한 關心과 注意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항상 자상하게 타일러 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회초리도 드셔야 하며 또 기특한 일은 크게 칭찬도 해주시는 꾸준한 사랑의 指導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아쉬운 지금 이라고 봅니다.

또 값비싼 물건이나 有名商標가 아니면 쓰지 않고, 입지 않고, 신지 않는 習性도 하루속히 고쳐 나가야 합니다.

내나라 내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곧 愛國의 길이요, 자기 發展을 착실하게 도모하는 길 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 일수록 항상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절제하고 근검하는 生活姿勢를 몸소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읍니다만 青少年育成事業도 결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그루의 어린 묘목을 심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꾸준하게 精誠을 쏟아 가꾸어 나가야 할 遠大한 事業입니다.

더우기 미래의 꽃인 우리의 青少年들이 더욱 밝고 구김살 없이 자라나는 일이야말로 한 家庭의 幸福은 물론 한 나라의 發展과 繁榮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忠南의 青少年만은 언제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禮節바른 어린이 가장 믿음직한 소년, 그리고 꿈과 希望이 넘친 패기 있는 젊은이로 사랑받는 青少年이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행복한 家庭, 건강한 社會, 그리고 무엇보다도 法이 살아 있는 紀綱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각별히 指導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귀하를 비롯한 家庭의 앞날에 크나큰 幸運을 빌어마지 안습니다.

舒川長項 農工地區 起工式

1989년 9월 7일

致 辭

오늘 12만 舒川郡民, 入住企業 家族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기대속에 長項農工地區 起工式을 갖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자부하시는 것처럼 이곳 舒川地方은 오랜 옛날부터 海岸交通이 활짝열린 고장으로 黃海바다 건너 中國大陸을 비롯하여 南海岸과 畿湖地方을 연결해주는 中樞地域으로 일찌기 繁榮을 누려온 고장입니다.

또한 차령산맥을 끼고 휘돌아온 아름다운 錦江이 실어나른 기름진 땅과 수로는 강안을 끼고 長項과 群山이라는 두 都市의 繁榮을 가져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20만이 넘는 강건너 群山의 成長과는 상대적으로 이곳 地域社會의 發展의 다소 沈滯되었던 것이 事實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결과는 한 때 있을수 있는 한 고장 開發의 緩急이나 屈曲의 일시적 문제일뿐 영원히 정체될 수 없다는 점에 우리의 意志와 希望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長項邑 元水里에 10만여평 규모의 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것도 내 고장을 開發하려는 군민 여러분의 意志와 감소된 道勢回復을 빠른 시일내에 挽回하려는 우리 道政과의 意氣 投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두개의 創業企業을 포함하여 여덟개의 工場이 들어서게 되면

3천여명의 여러분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各地로 떠나지 않고도 安定된 職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부모님의 슬하와 동네 어른들의 가르침속에 포근한 고향에서 職場生活을 누리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우리 農漁村 青少年들의 꿈이요 素望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道에서는 젊은이들이 이처럼 사랑과 정이담긴 고향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農工團地 造成에 박차를 가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기공되는 農工團地가 완성되어 工場이 들어서고 商品이 나오게되면 군민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벌어오는 또다른 農外所得을 토대로 보다 安定되고 여유있는 生活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 農工團地 造成과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일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道에서는 忠南을 크게 天安·溫陽을 중심으로한 北部圈, 瑞山·唐津地域을 한데 묶은 西北部 海岸圈, 洪城·禮山 등 內陸地方을 주축으로한 西部內陸圈, 舒川·保寧 大川地方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은 西南圈, 公州·扶餘가 중심이된 東南圈, 그리고 大田에 가까운 燕岐·錦山을 묶어 大田 大都市圈, 이렇게 여섯개의 권역으로 독자적인 개발과 성장의 자주성을 갖도록 開發圈을 설정 하였습니다.

특히 西南 海岸圈 중에서도 이곳 舒川을 다시 舒川 小圈으로 세분하여 舒川邑과 長項을 하나의 廣域 都市로 연결시키고 이곳에 공해가적고 노동집약적인 産業을 적극 유치하여 群山에 빨려들어가지 않는 고장의 成長과 繁榮을 성취한다는 것이 우리 道政의 야심적인 目標입니다.

아무쪼록 이처럼 遠大한 目標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郡民여러분의 格別한 參與와 聲援을 부탁드리며 그 첫 삽질이 되는 본 農工團地의 起工을 自祝합니다.

부디 군민 여러분의 슬기를 보태주시고 아울러 추석명절을 앞둔 여러분 家庭에 가득한 幸運과 多福하심을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9월 8일

激 勵 辭

結實의 가을이 성큼 다가온 오늘, 유서 깊은 고장 이곳 天安에서 우리의 민속명절인 秋夕을 앞두고 서울올림픽 1周年 紀念 忠淸南道 씨름王 選拔大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바로 1년전 오늘, 서울올림픽 聖火가 우리고장 天安을 통과한 날로써 그날의 환호와 열광, 그리고 보람과 긍지에 가득찼던 記憶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5천년 民族史에 길이 빛날 서울올림픽은 온 國民의 聲援과 세계 人類의 찬사속에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大會로써, 우리국민의 크나큰 底力에 우리 스스로도 소스라치고 世界가 더욱 놀란 올림픽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또한 서울올림픽은 그토록 넘치는 榮光과 讚辭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先進化를 促進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민족에게 더 큰 自負와 矜持를 영원히 샘솟게 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契機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토록 열광하고 환희에 가득찼던 올림픽의 熱氣가 1년이 채 못되어 언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룬 나라였든가 할 정도로 그 榮光과 보람을 잊어 버리게 된 오늘의 社會現實에 대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올림픽 1주년을 맞이하여 聖火奉送路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競技場

에서 우리가 가슴조이며 준비하고, 열광하고, 보람 가득했던 그 意志와 情熱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先進社會, 先進國家를 앞당기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召命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民俗競技를 즐기는 씨름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놀라고, 또 世界가 놀랐던 서울올림픽의 底力은 바로 韓國人 그리고 한국적인 것 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機會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고유의 民俗競技인 씨름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도 우리 韓國의 얼을 고이 간직하려는 努力입니다.

호탕한 웃음과 땅을 진동하는 힘, 그리고 한순간에 勝負를 가름짓는 그림같은 기술이 나올때 마다 우리의 먼 옛날 祖上들이 다시 돌아와 오늘 우리世代와 함께 대자연의 結實을 祝福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民俗文化를 보다 더 높은 次元으로 昇華시키기 위해 우리의 씨름은 더욱 장려되고 도민의 생활속에 活性化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選手여러분은 그동안 땀흘려 갈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發揮 하므로써 고장의 名譽를 빛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大會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金東烈 忠南씨름協會 會長님을 비롯한 體育人 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냅니다.

오늘 서울올림픽 1주년의 自祝과 함께 道民 和合을 다지는 씨름大會의 盛況을 다시한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韓國肥料 創立 25周年, 韓肥優秀賞 15周年

1989년 9월 9일

祝 辭

먼저 韓國肥料(株) 창립 제 25주년을 忠南道民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국비료는 이땅의 가난과 정체를 몰아내고자 하는 개발의 고동과 국민적 의지에 불이 붙기 시작한 60년대 중반에 創立되어 우리 韓國 農村 發展에 지대한 공헌을 쌓은 企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韓肥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우리농촌에서 사용하는 金肥의 대부분을 해외 도입에 의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당시 세계 최신 시설로 설비된 韓國肥料 工場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자 비로소 우리 農民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사용,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부흥과 食糧增産을 위해 공헌해 온 韓肥가 경영의 여유를 갖게되자 農村을 직접 돕는일에 착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韓肥 優秀農村賞 施賞制度였으며, 이 뜻있는 사업을 시작한지 올해로 15주년을 맞게 되었다하니 우리 농촌에 대한 의욕의 고취에 있어 실로 커다란 공헌의 금자탑을 쌓아 주심에 대하여 권 순 영 한국비료 사장님을 비롯하신 사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우수농촌상은 오늘까지 農民들에게 더 없이 필요한 肥料를 賞品으로 시상

하므로써 식량증산에 도움을 주고 금비만을 사용할 수 없는 농사의 근본을 좇아 퇴비증산을 간접적으로 부추긴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이 상을 받기 위해 1년 전부터 마을 會議를 갖고 마을 주민이 힘을 합쳐 공동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새로운 영농방법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 한비 優秀農村賞에 대한 농촌의 기대와 파급 효과가 매우 컸던것이 오늘의 평가입니다.

앞으로 한국비료를 비롯한 농촌관련 기업들 그리고 국내의 모든 산업체들이 우리 農村 開發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의욕을 고취시키는 도움을 준다고 할때, 우리 농촌은 새로운 활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農漁村이 여러가지 벅찬 시련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의 開發과 福祉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나, 기과단체 기업들이 적다는 점에 우리의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工業發展에 치중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겨냥한다 하더라도 농촌개발의 뒷받침이나 기름진 農村社會의 부추김 없이는 진정한 國力의 성장이나 선진사회, 선진국가의 성취를 가져올 수 없다는것이 국민적인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의 활기찬 모습과 희망에서 비롯된 韓國人의 번영과 한국의 선진화 이것이 곧 2000년대를 앞둔 우리 모두의 課題이며, 시대적 召命임이 분명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우리 성장과 노력의 원심력을 가져온 새마을 운동이 태동한 곳이 農漁村이었을 뿐더러 오천년 유구한 역사와 民族文化의 근본이 바로 농어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都市에서 고도의 산업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개는 농촌에서 태어나 農村을 그리워하고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인구의 비중과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는 산업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감소될지언정, 우리 농촌은 國家와 民族 繁榮의 근원이요, 뿌리이며 또한 귀결이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실천이 있을때 農漁村을 더욱 웃음꽃이 피는 곳으로 구가하게 할것 입니다.

한국비료 25년 그리고 우수농촌상 15개 성상의 傳統을 다시한번 祝賀드립니다.

仲秋節에즈음 道內 寺刹에 發送한

1989년 9월 12일

書 翰

造物主의 은혜와 부처님 자비 가득한 가운데 감회로운 仲秋節을 맞았습니다.

땀흘려 가꾼 오곡백과 탐스럽게 결실함을 祝福하면서 금년 첫 수확한 햅쌀을 부처님께 供養합니다.

아울러 四部大衆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 나감으로써 전통적 佛敎의 고장의 名譽를 宣揚해 주시는 住持스님을 비롯한 道場의 指導者, 信徒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民族의 名節, 秋夕에 즈음하여 조상의 隱德을 기리고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더 한층 護國佛敎의 發展과 繁榮을 祈願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작은 정성에 대한 부처님의 흔쾌한 가납을 기원하오며 뜻깊은 仲秋節을 祈願합니다.

1989년 9월 16일

祝 辭

오늘 여덟번째의 大日 寫眞 콘테스트의 입상작에 대한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신한 作品을 創作하여 영예의 상을 받으신 寫眞 作家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寫眞 藝術은 단순한 현장 기록의 의미를 넘어서 순간과 영원,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대비하고 재조명하는 3차원의 예술로서 우리의 生活 文化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自然이나 역사와 만날 수 있고 생생한 現場이나 신비한 藝術 世界와도 만날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20세기를 "影像의 時代"라 일컬어 言語와 文字를 대개로 하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文化에서 사진과 영상을 통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文化 生活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事物과 影像이 구체적으로 아늑함과 따뜻한 느낌으로 때로는 충격으로 우리에게 느낌을 주고 敎訓을 주는 것이 오늘의 寫眞 藝術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앞으로의 문맹은 카메라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바와 같이 오늘날 사진 예술은 우리의 생활 속

에 大衆 藝術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展示會를 통해서 이 고장 사진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도민의 情緖 涵養과 鄕土 藝術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하며 본 大會를 마련해주신 徐春源 大田日報 社長님과 사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第70回 全國 體育大會 參加選手團 結團式

1989년 9월 24일

致 辭

친애하는 선수와 임원여러분!

이 出陣의 자리를 격려해 주시는 각계의 人士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第70回 全國 體育大會에서 내고장 忠南의 名譽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선전분투 할 選手團의 늠름한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1천여 선수와 임원 여러분의 壯途를 축하드리면서 幸運과 勝利의 守護神, 그리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날을 이기면서 體力과 氣量, 그리고 팀웍을 꾸준히 다져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訓練해 주신만큼 이번 體典에서 좋은 成績을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忠南體育이 충남과 대전으로 兩分 됨으로써 어쩔수 없는 弱化를 가져왔습니다.

친애하는 선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 失望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선수 여러분의 技倆과 體力, 그리고 팀웍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도 全國體典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希望과 期待를 씨 뿌리면서 부지런히 땀흘리고 과학적인 訓練을 쌓아 나갈 때 忠南體育의 榮光을 다시 찾을

날은 그리 멀지 않다고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70년대 우리 忠南 體育이 중, 하위권을 맴돌면서 우리 도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記憶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79년 甲年體典을 시발로 온 도민과 체육인이 한덩어리가 되어 노력한 결과 전국체전에서 계속 上位圈을 지켜옴으로써 韓國 體育史의 한페이지를 장식할 찬란한 偉業을 이룩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을 忠南 體育의 원년으로 삼아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忠南人의 底力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戰力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은 지난날에 연연하지 말고 그동안 땀흘려 갈고 닦은 기량을 정정당당히 그리고 最善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로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의 선수와 임원 여러분!

오늘 結團式에서는 필승의 신념으로,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는 내일을 바라보는 끈질긴 忠南人의 저력과 슬기와 意志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도민들에게는 榮光의 그날이 다시 돌아 올 것임을 確信합니다.

계속되는 訓練에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날 동안 객지에서 健康한 몸으로 돌아 오실것을 期待하며 다시 한번 선수여러분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와 道政을 爲한 祈禱會

1989년 9월 25일

激 勵 辭

오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主題를 가지고 우리 忠南道 警牧 委員會 委員 여러분이 세미나를 갖게 된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있는 세미나의 開會式과 함께 地域社會의 安定과 나라發展을 위한 祈禱會를 주관해 주시는 이성순 경목 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도내의 여러 聖職者여러분에게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牧師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시점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民主化의 時代이다, 전환기의 시점이다, 혼란의 시기이다, 또는 위기의 시점이다라는 각양각색의 표현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진단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며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道民이 그리고 國民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難關과 試鍊의 時期임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사는 모든 社會生活에 있어서는 꼭 상대가 있는 법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저마다의 主張을 펴는 일방적인 외침, 애써 오늘의 成長과 基盤을 하루 이침에 무너뜨릴것 같은 일부의 몰지각한 과소비 퇴폐풍조가 그러하고, 올림픽을 치룬 나라라는 선입관때문에 世界로 부터의 거센 市場 開放 壓力이 우리에게 밀어닥쳐 불안감과 초조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도도한 대내외 시련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 대

처하는 道民, 그리고 國民 모두의 자세를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한 時代가 成長하고 發展하려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자기 몰두가 있고 그 후에는 必히 새로운 方向의 **模索과** 自己 反省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때 한사람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組織이나 團體, 그리고 國家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들의 共感帶 形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難關의 時期, 轉換期의 **試鍊期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傍觀的인 사람들의 認識과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도 社會秩序를 어지럽히고 國家의 法을 어기는 자 누구입니까?

이 모두가 바로 지난 일년전 서울 올림픽을 치루고 世界로 부터 贊辭를 한몸에 받으며 5000년 文化民族임을 자랑하던 忠南道民이요, 韓國人들 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떻게하면 地域社會를 보다 안정시킬 것인가, 그리고 시련을 이기는 이 時代의 主役들이 어떤 보람을 地域社會 안정과 나라발전을 위해 함께 나눌 것인가하는 경목회원 여러분의 세미나 成果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진지한 對話와 討論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얻으시고 그 結果를 토대로 모든 道民을 指導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結實하는 이 가을에 서른번째로 열리는 全國 民俗藝術競演大會가 가곡 가고파의 고향 馬山에서 열리게 된 것을 忠南道民과 더불어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전통 민속 예술은 문화의 뿌리이자 民族 魂의 원천으로 우리 선인들의 진실된 삶의 지혜와 애환, 그리고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50억 인류의 祝典인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독특하고 격조높은 우리 傳統 文化를 유감없이 과시하여 世界로부터 절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처럼 수준높은 우리의 文化 올림픽은 바로 오늘 선 보이는 다양하고 저력있는 民族 藝術에 힘입어 好評을 받은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화합의 한마당 잔치인 전국 민속 예술 경연 대회는 그 옛날의 傳統을 繼承하면서 고도 산업 사회에 따른 價値觀과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 잊혀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傳統文化 藝術의 원형을 찾아 再現함으로서 우리 세대 창조의 원동력과 함께 다가오는 21세기 繁榮을 다짐하는 祝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道에서는 인삼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錦山의 산간 마을에서 소박한 정서와 力動的 삶의 진솔한 民俗으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총각 대방놀이"를 선 보이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소박한 山村民들의 꾸밈없는 이 놀이를 통하여 勤勉과 協同, 흥과 멋 그리고 화합할 줄 아는 우리 先祖들의 슬기를 읽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총각 대방놀이"를 감상하면서 "忠節의 고장 忠南"을 이해하여 주시고 흥과 멋을 같이하면서 갈채를 보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忠南艦 姉妹 結緣式

1989년 9월 29일

結 緣 辭

오늘 韓國海軍의 보금자리인 이곳 鎭海灣에서 우리 200만 忠南道民과 忠南艦의 장병 여러분이 서로 참된 인연과 사랑의 結緣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여름철의 무더위, 망망 대해를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무릅쓰고 四時장철 바다의 國境을 지켜주시는 주장길 함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忠南艦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이미 두달 전에 忠南艦의 艦長님으로 부터 검푸른 바다위에 파도를 하얗게 가르며 作戰에 몰두하는 忠南艦의 사진을 寄贈받아 사무실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쳐다 볼 때마다 장병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충남함을 想像해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의 처음 만남이 꼭 오랜 因緣을 가진 사랑과 함께 반가운, 해후를 갖는 것 같은 포근함을 느낍니다.

더욱이 오늘의 인연이 지난 2년 前부터 忠南艦이란 이름으로 作戰을 개시한 軍艦의 乘船 將兵이기 때문에 갖는 단순한 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將兵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忠南道는 世界 海軍史에 不朽의 이름을 남긴 李舜臣 提督을 輩出한 고장의 道民입니다.

전통적으로 世界 海軍의 宗主國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英國, 지금도 海洋 國家

로서 그 명예와 자부심을 가진 英國 海軍의 戰術 敎本에 우리 이순신 제독의 艦隊 戰術이 실려있고 오늘날에도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시기에 모든 知慧와 力量과 身命을 다하여 民族과 나라를 구한 提督의 護國忠節을 이어 받으려는 장병 여러분과 忠節의 遺産을 엄숙하게 이어받고 있는 道民과의 만남이 바로 오늘 이 뜻깊은 結緣式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忠南艦의 장병 여러분!

우리 道에서는 얼마 전 이순신 제독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遺蹟地를 발견하였습니다.

제독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白衣從軍 할 몸으로 경상도 草溪로 내려갈 찰나에 여든 둘의 老軀로 歸鄕하던 작은 배의 船上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屍身을 안고 통곡하던 이른바 게바위를 찾은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뜻깊은 因緣의 자리에서 다시금 위대한 李舜臣 提督의 護國 忠節과 孝誠을 생각하면서 누 천년동안 바다를 삶의 원천으로 삼아 왔고 또한 떠오르는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한 우리 忠南 道民과의 만남이 영원한 因緣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디 주장길 함장님을 비롯한 海軍 將兵 여러분의 健康과 武運을 빌면서 道民의 따뜻한 慰問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忠南教育委員會 國政監査

1989년 9월 30일

人 事

평소 존경하는 鄭大哲委員長님!

그리고 國會 文公委員會 國政 監査 委員님 여러분께서 저희 忠南道敎育委員會에 친히 오셔서 地方 敎育行政 전반에 걸쳐 살펴주시고 指導해 주시게 된 것을 깊이 感謝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改善코자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의 敎育行政 與件이 매우 어렵고 가슴아팠던 일이 많았다고 생각 되어 오늘 여러위원님을 모신 이 자리가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敎育環境이 저희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難關을 오히려 2세 교육의 發展과 향상의 機會가 되도록 道政의 責任을 맡은 저로서도 최대한의 뒷받침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더욱이 忠南道 敎育委員會는 금년에 大田直轄市 敎育委員會를 分離 昇格 시키고 나서 서로 協力과 發展 그리고 補完이라는 課題도 안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말씀도 함께 期待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점은 폭넓게 指摘해주시고 잘한 점이 있으면 勇氣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第13回 常綠 文化祭

1989년 9월 30일

人 事

인사 말씀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國會文公委員會가 저희 道 敎育委員會를 감사하기 때문에 여기 나올수가 없는 입장입니다만 이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2시까지 돌아가는것을 전제로 **常綠文化祭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찬을 여러분을 모시고 하기로 했읍니다만은 제가 먼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인사만 여쭙고 **떠나겠습니다.**

방금 具章會 郡守께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던 각급 유지 여러분들과 각 기과장님 지역대표 여러분들께 제가 具郡守 말씀대로 그렇게 큰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못됩니다. 실지로 고향에 돌아와서 여러가지 일을 맡아 하면서 능력과 재질이 부족한 점을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뒷받침 해주시고 특히 이 地域出身 與·野할것없이 여·야 위원님들 또 忠淸南道에 고향으로 두고 계신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盧泰愚 大統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특별지시를 해 주셔서 지난번에 金顯煜 委員長께서 그러한 뜻을 받아서 우리 文熹甲 經濟首席을 현지에 모시고와 설명해 주시고 또 長官도 만나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희망하던 대로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 된것입니다.

저는 다만 우리 忠南 發展을 위해서 두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겠는데 하나는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이 우리공업화의 첨병으로 대조되고 있는 瑞山. 唐津지역을

지나가줘야겠다, 그래야 교통노선 확립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업체를 유치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忠南 工業化를 촉진 시키는 전기가 될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쪽은 아니지만은 평택에 건설되는 항구가 牙山港입니다.

그 아산항이 港口는 平澤쪽으로 선좌가 붙드라도 그 항구 건설의 이익은 우리 唐津쪽에서 받아야겠다, 그래서 서산, 당진쪽의 工団 造成 문제에 대해서 아산항 건설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촉진을 해오고 있읍니다만은 이러한 서해안 개발사업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反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새로운 서해안 시대 개막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어 나가고 있는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의 도움과 그리고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忠清人 모두의 合心의 結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당장 큰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사를 9년 연속 풍년농사를 지었습니다만 忠清道 전체를 보면은 작년 농사보다도 5% 가까이 增收가 됩니다. 지난번 해일 피해에서 保寧, 大川 지역에는 약 660ha에 쌀 한톨을 건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忠南 발전에는 좋은 일만 꼭 일어날 수 만 없습니다. 모진 비바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시기, 질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주민들 가운데서는 개발보다도 오히려 自然 環境 保全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한쪽으로 그러한 주민들의 보전에 관한 욕구도 충족을 시켜 가면서 다른 한쪽으로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상록문화제에 제가 꼭 참석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사는 방법은 모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잘사는 방법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와주는 정신적인 잘사는 방법, 충남의 정신은 충효의 정신으로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個人의 이익을 뒤에 생각하는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常綠樹 精神도 자신이 잘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沈薰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 이라는 詩를 오늘 낭독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만은 그 일제의 억압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시를 읊어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애국의 충절을 심어줄 수 있었던 용기, 그분은 비록 일찍 가셨지만은 정말로 잘살고 부자로 살면서 떠난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것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더 어렵고 더 무지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몸을 던져서 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잘사는길, 이걸 찾아 가면서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개발하느냐하는 얘기가 조만간에 나올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해안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도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道다 하는것을 보여 준것은 앞으로 발전과정에서도 잘 승화가 되어서 절대로 소외당하는 우리 이웃이 없도록 서로 힘을 합쳐주는 쪽으로, 정신적인 富를 확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 道政을 맡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도민들의 화합과 그리고 정신적인 결집, 이것을 통한 바탕위에서 그동안 무대접 해왔는데 政府로부터 받아낼것은 받아내고 우리가 더 노력해서 해야될 부분은 힘을 합해서 더하고 그렇게해서 忠南 時代를 열어 가자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영광이나 또는 개인의 업적을 앞에 내세우기 위한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唐津 郡民 여러분께서는 이미 13년전서부터 상록수정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常綠文化祭를 개최해 오셨읍니다.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唐津이 앞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그 내면에 깔려있은 상록수 정신을 더욱 더 高揚 시켜 주시면서 이것을 가짐으로해서 충남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 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해주신 常綠文化祭에 와서 여러분을 모시고 談笑를 나누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의 이 지역 통과를 위해서 아주 애를 쓰다가 과로로 현재 병원에 계신 開發委員長 안희장님의 쾌유를 함께 빌고 또 함께 노력해 주셨던 우리 김종문 개발위원님께서 나와 주시고 상록문화제를 주관해주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모든 어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처럼 일기 시작한 忠南時代에 더 큰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길 당부드려 마지 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상록문화 행사가 더 뜻 깊은 행사가 되고 또 郡民 모두의 和合을 다짐하면서, 나아가서는 忠淸南道 모두의 발전을 이룩하는 정신적 지주가 조성되는 그러한 文化祭로 승화되기를 빌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월



▲ 벼베기 작업 시연

1989

同胞가 하나가 되는 韓民族 體育大會를 열어 뜨거운 血肉의 情을 나누고 있습니다.

南·北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理念의 장벽에 갇혀 살던 멀리 사할린과 中央아시아, 北滿洲에 사는 우리 핏줄들이 조국의 품에 안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영혼들이시여!

祖國에 主權이 없고 힘이 없었기에 다른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고 異民族이 우리 先人들을 마음대로 붙잡아갈 때 다섯살, 세살의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났던 아버지가 50년만에 돌아와 뜨거운 相逢을 하였나이다.

나이 쉰을 넘긴 初老의 딸이 얼굴 모르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이기에 앞서 뼈에 사무친 우리 겨레의 슬픔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없도록 우리 민족의 自尊을 지켜나가기 위해 여기 굳은 각오로 香을 피워 올리나이다.

先代가 겪으신 지난날의 不運을 말끔히 씻어내는 祖國의 繁榮과 後孫들의 영광을 위해 갖가지 智慧와 力量을 다하겠나이다.

望鄕의 동산에 잠드신 영혼들이시여!

부디 이 나라와 後孫들을 위해 永遠한 守護神으로 굽어 살펴 주소서!

그리고 편히 잠드소서.

여기 忠節의 道民 이름으로 告하나이다.

訓　　示

9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웠던 9월을 되새기면서 지난 9월 한달을 회고해 봅니다.

작년 9월은 우리 5천년 역사상 처음 있었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한 民族으로서의 뿌듯한 自矜心을 한껏 부풀렸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忠南으로서는 '87년의 엄청난 水害를 딛고 8년연속 豊作을 이룩하는 등 노력의 結實을 맺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이를 되돌아보면서 금년 9월을 回想해 봅니다.

금년 9월에도 많은 일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있었던 水害, 그리고 8월말에 있었던 海溢被害, 특히 오늘 海洋警察隊 소속 김태연 警長이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그 해일피해를 겪으면서 自然災害의 엄청난 위력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고 그러한 재해속에서도 한사람의 헌신적인 公務員이 많은 人命名과 국민의 財産을 구할 수 있었다는 敎訓도 함께 갖었던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秋夕을 전후해서 있었던 2차 해일피해로 인하여 또 우리는 많은 財産被害와 함께 특히 大川防潮堤가 붕괴됨으로 해서 1년동안 땀흘려 가꾼 곡식을 한톨도 거두지 못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양차에 걸친 해일피해현장을 직접 나가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땀흘려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힘

만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9년연속 豊年을 達成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9월에 全國體典을 치루었고 그에 앞서서 國定監査를 치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밤을 새워자료를 정리하고 또 감사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應했기 때문에 大過없이 지났는데 이를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公務員들은 오늘 어떤 評價를 받느냐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이 내일 또는 먼 훗날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評價를 받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늘 느낍니다.

작년 國定監査를 치루면서 우리가 道民들에게 16년동안 보고하지 못했던 道政을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報告하고, 우리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받자는 각오로 첫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國定監査에 임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道民들에게 떳떳하게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評價받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한번의 國政監査로서 16년동안의 結果에 대한 評價를 다 받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는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놓았고 금년도에도 우리들이 정리했던 여러가지 자료를 言論機關에 그대로 제시를 해줄수 있을만큼 自信있게 道政을 펴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국정감사에 임했었는데, 結果는 여러분이나 내가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미루고 또 무엇을 기피하지 않고도 충분히 道政을 이끌어갈 수 있고 도정을 遂行해 나갈 수 있다는 自信感이 생겼으며,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議員님들로부터 여러가지 지적과 질타를 받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道民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最善을 다해서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을 뿐만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최상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또 실제로 최상의 결실을 거두어 왔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넘친 道政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다짐했던 것처럼 大田直轄市를 분리 승격시킨 뒤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이내에, 우리 道勢를 回復하고 우리 道民들에게 실망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서 도정을 이끌어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國政監査 期間에 우리가 자신있게 피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은 물론 知事와 함께 最善을 다해 일하고자 해주었던 우리 15,000여 모든 公務員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적어도 지난 9개월동안 우리의 노력이 상당한 成果, 상당한 評價를 받아 마땅하다고 자부를 합니다.

특히 이번 國政監査期間에 全公務員이 네일 내일을 가리지 않고, 所管을 따지는 점이 없이 우리의 道政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주어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忠南道의 전 조직이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떳떳하게 조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自信感을 갖도록 해준것이 더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道政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國政監査를 통해서 역사의 評價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내가 깊이 느끼고 反省하면서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상사나 부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먼훗날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200년뒤에 우리가 어떠한 評價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어 道政을 수행해 나가고 비록 현재는 큰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公職을 떠난뒤에 "아? 역시 그때 올바른 判斷과 결연한 推進力을 가지고 일을 해냈던 것이 잘한 것이다", 하는 評價를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모두에게 받을 수 있도록 道政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國政監査 기간에 道政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모두에게 받을 수 있도록 道政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國政監査 기간에 道政에 대한 평가를 받은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自慢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나는 "늘 公務員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하는 自問에 대해 내가 한일에 대해서 남에게 잘 보이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잘 보이고 흐뭇하게 생각하기 위해 公職生活을 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公務員의 評價는 외부로부터 받는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公務員의 보람은 외부 사람으로 부터 칭찬을 받거나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댓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일을 뒤돌아 보면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評價해 보면서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느낄수 있는 보람, 그 보람이 정말 公務員의 보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비롯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評價를 받지 못하거나 또 큰 댓가나 地位를 부여받지 못해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일을 해서 이런 成果를 거두어냈고 이 성과로 인해서 내 이웃과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있는 우리 道民들, 나아가서는 國家에 이러한 寄與를 했다"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우리 가슴속으로 흐뭇하게 웃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國政監査를 계기로 우리는 두가지를 꼭 생각을 합시다. 하나는, 역사도 언젠가는 틀림없는 심판을 받고 評價를 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 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훨씬 더 생각하는 그런 行政과 道政을 수행해나갑시다.

또 하나는, 남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또는 자기의 한일에 대해 댓가를 받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評價를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흐뭇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行政을 遂行해 나갑시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忠南道政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道政을 遂行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또 한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난 9월 26일부터 있었던 全國體典에서 우리 忠淸南道가 성적상으로 14위를 했습니다.

15개 시도중에서 14위, 예상했던 순위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5개

시도중에서 模範選手團 賞을 수상한 것입니다.

模範選手團 賞이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받는 상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忠淸南道 選手團이 다른 市道의 1,200~1,400명의 반밖에 않되는 720여명의 選手團밖에 못보냈습니다.

또한 選手가 없어서 出戰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적에 있어서는 당연히 下位圈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었습니다마는 적어도 選手團의 수준이 全國에서 가장 훌륭한 정신을 가진 選手團이 되어 달라 하는 부탁을 結團式에서 했습니다.

물론 스포츠가 戰爭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스포츠의 基本精神은 무엇이냐 하면 정정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不當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경우라도 부당하게 싸워서 이긴것 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포츠精神이 살아있는 고장, 그것은 당연히 兩班의 精神이자 忠孝의 精神에 차 있는 忠南道가 그 제1위라는 것을 입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우리 全國體典 選手團이 보여준 가장 훌륭한 模範選手團 賞을 수상한 것이 큰 보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금년의 성적은 14위이지만 14위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내년에는 14위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잘할수 있도록 만들것을 우리 道民들에게 約束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더 나은 성적과 더 훌륭한 매너로 전국에서 정신이 가장 투철한 선수단으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스포츠에 관계하는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우리모두 함께 성원하고 지원해서 이룩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200만 도민과 15천여 公務員, 특히 市郡 體育會長을 맡고 있는 市場, 郡守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최근 報道되고 있는 過消費問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소비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과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올림픽을 치루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것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世界는 서울로, 서울은 世界로"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평가는 100을 갖었으면서도 실제로는 120 또는 200이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치루고난 이후의 지난 1년을 回顧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계인의 평가에 들떠 있었던가 하는것을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올림픽을 치루어낸 열기를 새로운 跳躍의 轉機로 昇華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올림픽을 치루어낸 뒤에 바로 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잘아는 것처럼 이념적 葛藤, 민주화에 대한 慾求, 그리고 무분별한 개인주의적 慾求의 분출등에 휘말렸습니다.

세계인 모두가, 올림픽을 치루어낸 韓國은 5천년 歷史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文化民族이라 칭찬하였지만 그 어느 문화민족이 교통사고를 그토록 많이 냅니까? 그리고 어느 문화민족이 民主化를 앞세워 국가전체의 發展慾求를 무시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까? 또 어느 문화민족이 法과 秩序를 무너뜨리면서 民主主義를 한다고 소리를 칠수가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 評價했던 것입니다. 올림픽 기간동안에 보여줬던 우리 民族의 자랑스러움이 자기의 能力 이상의 것을 남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과시욕의 결과였다고 惡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韓國사람들은 냉수를 마시고 나오면서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나온다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속옷은 너덜너덜 떨어져 있는데 겉에는 훌륭한 도포와 갓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만 나들이를 했던 民族입니다.

건물을 지어도 안은 아무리보잘것 없는 建物인데도 밖에는 반드시 대리석이나 타일을 붙어야만 작성이 풀리는 나쁜 習性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民族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림픽의 열기만을 내세워 금방 先進國이 된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 지난해의 우리였습니다. 이를 되돌아 보고 그러한 착각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美國의 어느 新聞批評家가 말한것처럼 漢江의 기적은 신기루로 끝날 것입니다. 신기루라도 우리가 한번 본것으로 만족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漢江의 기적이 신기루가 아니고

우리가 세운 금세기의 가장 偉大한 業績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臨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新聞에 경상수지가 赤字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연간 100억불 정도의 黑字를 이룩하면서 "아 이제 우리도 債務國에서 債權國으로 돌아섰구나"하는 자신감속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民族은 이상한 習性이 있어서 꼭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단결을 하고 그리고 國難을 겪어야만 잘할려고 하는, 국난시에는 잘할려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난을 했을때 우리 民族만큼 강인한 精神力으로 뭉쳐서 국난을 克服한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歷史이래 900여회 이상의 外敵의 침입을 받았으면서도 떳떳한 獨立國家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난에 임했을때에 우리 民族이 보여준 그 團結力과 강인한 鬪爭意識이 었다고 얘기하는 學者의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좋아질려고 하면 분열되고 태만해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過大評價를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을 나쁜쪽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惡習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악습에서 벗어나야만 될때가 온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때 훨씬 더 團結하고 前進하는 저력을 발휘해야 한단계 뛰어넘어서 先進國이 되는 것인만큼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與件을 나쁜쪽으로, 分裂과 混亂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역사의 전철을 되밟으려하는 우리의 屬性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행정에 있어서나 또 사회적인 安定에 있어서나 우리가 해야될 部分, 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가 맡아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國民들을 啓導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豐饒의 계절이라고 하는 10월, 連休가 겹쳤는데 오히려 그 연휴기간 때문에 많은 물의가 야기된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道의 15천여 公務員만은 國定監査의 피로를 충분히 풀수 있었던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금년도 마지막 분기인만큼 지난 3/4분기 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을 補完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음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월이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우리 道民이 함께 다시 분발하는 기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부탁을 하면서 재삼, 재사 지난 한달 동안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致賀를 드리고 우리 함께 충분히 잘 해 나갈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한달이 되기를 빌어마지 안습니다.

第70回 全國體典 選手團 激勵에 對한

1989년 10월 5일

書 翰

무르익은 가을

고당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번 京畿道 水原 일원에서 개최된 第70回 全國體育大會에서 선전분투했던 本道 選手團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무사히 歸鄕 하였습니다.

고장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선전할 수 있도록 選手團을 뒷받침 해주신 競技団体 會長님을 비롯하신 임원, 지도자 여러분과 멀리 競技場을 찾아 뜨거운 應援을 하여주신 각급 기관장님 여러분께 慰勞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最善을 다했으나 200만 도민의 여망에 따르지 못한 점 아쉽기는 합니다만 막강했던 忠南體育이 兩分된 歸結이라고 자위하면서 이를 새로운 忠南 體育發展의 새 出発點으로 삼아 정진,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선수와 임원들이 보여준 떳떳하고 진지한 姿勢와 秩序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은 忠南人의 自矜心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기 때문에 模範賞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体力과 技倆의 연마는 물론 先進 道民으로서 스포츠 정신의 승화와 民主秩序 定着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運動競技에 있어서는 結果도 중요시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정당당히

힘과 기량을 겨루는 過程이 더욱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忠南은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도민 여러분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주심으로써 더큰 發展, 跳躍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忠南体育에 대한 따뜻한 協調와 聲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 알차게 거두시기를 빕니다.

第70回 全國体典 歡待에 대한 感謝

1989년 10월 5일

書 翰

무르익어가는 가을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結實 되시기를 빕니다.

이번 귀 고장에서 펼쳐진 第70回 全國体育大會 기간중 저희 忠南 選手團에게 베풀어 주신 聲援에 대하여 우리 200만 충남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체전은 참된마음, 참된모습, 참된화합을 目標로 그 어느체전 보다도 우리의 成長과 미래의 可能性을 보여 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88서울 올림픽을 바탕으로 韓國体育의 跳躍과 地平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처음으로 열린 韓民族 体育大會를 계기로 국내외 同胞가 뜨거운 만남을 이룬 그 자리에 앞으로 祝福과 繁榮의 밝은 내일이 기약되기를 祝願합니다.

저희 忠南選手團을 위하여 따스한 정을 베풀어 주신 京畿道民 여러분 각급 기관장님, 자매단체,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謝意를 表합니다.

여러분의 精誠과 友情,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第9回 錦山人蔘祭

1989년 10월 7일

致 辭

친애하는 錦山郡民 여러분!

군민의 한마당 잔치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結實과 풍요로 가득 채워주는 이때 지역출신 國會議員님, 鄕土人士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하신 가운데 펼쳐진 아홉번째의 錦山 人蔘祭를 道民과 더불어 경축합니다.

오늘 10만 군민 여러분의 슬기와 역량이 結集된 본 錦山 人蔘祭는 여러지방의 鄕土 文化祭를 선도하고 고장의 發展을 촉진하는 原動力으로써 200만 도민은 물론 국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人蔘文化의 자랑은 곧 竣工을 앞두고 있는 이곳 國際 人蔘市場의 개장과 번영을 통해서 인류의 건강을 다스리는 神祕의 靈藥 人蔘의 효험을 더욱 선양하게 될 것 입니다.

아울러 人蔘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地域經濟를 活性化 시키고 관련 産業을 부추기는데 있어 큰 役割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금산 군민들은 단순하게 인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錦山의 자랑, 忠南의 名譽, 그리고 韓國의 상징인 人蔘을 原料로 우리 韓國人은 물론 世界人이 찾고 소중하게 여기는 靈藥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錦山郡民 여러분!

금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큰 警鐘과 敎訓을 준 어느 未來學者의 말에 "오늘은 늦으리"란 한마디의 짤막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繁榮을 누린다 해도 내일을 생각치 않고 미래에 對備하는데 게을리 한다면 停滯와 退步를 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大望의 21世紀를 불과 9년 앞두고 있는 차제에 어제의 反省을 통해서 오늘에 充實하고 내일에 對備하는 슬기가 切實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고 단풍이 들어갑니다만, 성급한 활엽수들은 벌써 잎새가 떨어 집니다.

우리가 그 떨어진 잎자리를 눈여겨보면 나뭇가지는 벌써 내년 봄을 위하여 잎눈과 꽃눈을 마련하고 있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지능도 없이 본능대로 生長하는 하찮은 樹木도 1년 후를 對備하는데 하물며 모든것을 지배하는 人間이 어제를 잊어버리고 오늘을 認識하지 못하거나 내일을 가늠하지 못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錦山郡民 여러분이 하늘이 내려주신 神祕의 靈藥 人蔘을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文化를 啓發하고 地域經濟와 産業振興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의 智慧와 미래의 設計에 대하여 아낌없는 聲援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郡民여러분!

부디 錦山 좌도농악과 같은 加速力, 그리고 총각대방놀이와 같은 創造와 團結을 통해서 오늘의 성장에 만족하기 보다는 미래의 더 큰 福祉와 후손에 대한 榮光을 생각하는 군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成就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 幼兒園長 研修大会

1989년 10월 11일

激 勵 辭

우리 忠淸南道의 幼兒敎育을 책임맡고 계신 院長님들과 또 각시군의 담당공무원이 매년 한번씩 이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다섯번째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모임이 서로의 친교를 두텁게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유아원의 활동을 직접 보시므로써 幼兒敎育의 중요성 또는 유아교육의 方法이나 문제들을 잘 연구하고 發展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원장님이 천주교에 다니시는지 방금 서로 옆사람에게 인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엊그제 우리는 교황님이 오셔서 世界 聖體大會를 했습니다.

여의도에 약 60만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번의 주제가 "크리스도 우리의 평화"인데 聖堂에 가면 미사 마지막 즈음에 神父님이 서로 平和를 비는 人事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상호간에 서로 親交를 나누는 그런 반가운 인사 못지않게 감사의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교육분야에 대해 "세살 버릇 여든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우리 어린 幼兒들의 敎育을 責任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혹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생

깁니다.

그래도 우리 忠南의 幼兒敎育은 여러분들 책임하에 잘 추진되고 있어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하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 우리나라에서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된것이 6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쌀 農事가 너무 잘 되어서 현재 85년산 쌀을 아직도 消費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있습니다.

이제 쌀이 남아도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급한 사람들은 논을 빨리 없애고 工場으로 전향을 하든지 쌀 농사를 못짓게 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50년대 저희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때 까지만해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점심식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무그늘에 앉아서 친구들의 도시락 먹는것을 보면서 지내야 했던 學友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쌀이 남아 약 천만석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년도에 9년연속 대풍이 되어 이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참으로 잘사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속에서 생각해보면 50년대와 6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소박한 幸福,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어려움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힘을 합쳐 勤勉, 自助, 協同의 새마을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하며 잘사는 나라, 잘사는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보자고 새벽에 뛰어나왔던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렸던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社會, 대단히 어려운 사회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地獄과 天堂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지옥에 가보았더니 지옥과 천당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 그안을 들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있더랍니다.

밥 먹는데 천당에서는 똑같은 상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서로 웃으면서 밥을 먹고있고 지옥은 똑같은 상에 똑같은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는데 그곳에서는 아비규환 이더랍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살이 뻗뻗해져가지고 구부러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1m되는 젓가락을 놓고 그 젓가락만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먹을수 있게 되는데 天堂에는 음식을 집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고 앞에 있는 사람은 또 맞은편 사람에게 먹여주고 해서 서로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지내는데, 地獄은 서로 앞에있는 사람에게 먹여줄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먹을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팔이 안구부러지고 1m가 되는 젓가락으로 먹을수도 없으니까 아주 굶어서 아비규환 이더랍니다.

지옥과 천당의 차이는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천당인 것이고 남에게 줄 생각을 못하고 받을려고만 생각하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감명깊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幼兒教育, 사실은 조상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지혜를 우리가 이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자기 子孫들을 가르칠때 태교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을 原則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태교는 고사하고 幼兒園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살필것이냐 하는것 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지않은 父母들이 많습니다.

政府가 비록 힘을 다해서 교육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다 해도 교육을 맡고있는 분들이, 교육을 맡아 해야 할 분들이 참교육을 하지 못한다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제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잘살기운동을 전개하여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겪고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교육은 그 實을 잃어버리고 있었던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80년대에 우리가 내세웠던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운동, 그리고 사회정화운동이라 해서 正直, 秩序, 創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國民運動으로 전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모두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진 운동이 아니라 일부 계층에서 힘으로 국민을 끌고 나가는 운동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단히 큰 비판을 받고 있고, 다시 그 사회정화운동이 해체가 되어 바르게 살기 國民自律運動으로 전개를 하고자 하면서도 그 후유증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이나 정신운동은 이와같이 힘이나 어느계층의 노력만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歷史의 敎訓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 유아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내실을 이룰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참교육을 시켜주실 수 있는 主体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육내부의 여러가지 갈등요인이 전교라는 이름으로, 교원노조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되어서 우리敎育者들도 이제 勞動組合을 형성하고 勤勞者의 한사람으로서 權利를 주장하겠다 하면서 내세운 참교육이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나 그 참교육을 우리도 텔레비젼이라든지 또는 言論機關의 報道를 통해 여러가지를 보면서 어떤것이 참교육이냐 하는것을 뼈져리게 반성도 해보고 위로도 해보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2世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敎育을 시켜줘야 됩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責任의식을 가지고 또 自主의식을 가지고 自立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敎育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敎育이 되어주시기를 빌어마지 안습니다.

엊그제 제가 美國 사람을 만났는데 미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의 뜻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國民學校때도 별로 공부를 안하고 中學校때는 대강대강 지나가고 高等學校때에는 밤잠을 안자고 공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세시간 네시간 자면서 공부를 하고 다시 大學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안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에는 폭넓게

人性教育과 그리고 자기계발 노력의 교육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쉬워서 그렇게 밤잠도 안자면서 공부를 하지도 않지만 일단 大學에 들어가면 卒業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졸업한다해도 자기 스스로 한사람의 몫을 다하는 能力을 기르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 大學生들이 공부 안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동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히려 高等學校때 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發展할 수 있었던 原動力은 바로 그런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안하는 사람들 보다도 훨씬 더 다수를 점해왔기 때문에 그랬다"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의 밝은 내일에 대해 설명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밝은 미래, 희망찬 내일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맡아주시는 幼兒教育에서 부터 우리의 교육이 그래도 아직은 희망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적인 要素들을 더 발굴해내고 교육내부에 잠재돼 있는 비능률적인 부분, 비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있어서는 안될 부분등을 芟除해 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기울여 나갈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고 또 幸福해 질 것이라고 確信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3일동안 先進地 見學도 하시고 또 친교의 시간도 마련하시고 서로 교육에 관해 깊은 논의들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우리나라, 내일의 忠南, 적게는 한 개인의 人間으로서의 삶을 보다 값있게 해주는 그런 幼兒教育이 될 수 있는 方向, 方法을 찾아 보시기를 당부해 마지 안습니다.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忠南教育의 가장 기초적인 모태인 유아교육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새마을 幼兒園長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마지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第17回 忠南少年體育大會

1989년 10월 12일

激 勵 辭

친애하는 少年少女 선수여러분!

그리고 道民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상만큼이나 드높은 하늘아래 열 일곱 번째로 고장 새싹들의 体育祝典을 未來의 都市 天安에서 갖게된 것을 200만 道民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1년 동안 성실한 訓練과 끈기있는 참을성으로 기량을 연마해 온 선수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또한 熱과 誠을 다하여 어린 선수들을 指導하고 뒷바라지 해오신 여러 선생님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慰勞와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역사를 살펴보면 건전하고 진취적인 발전을 거듭한 民族과 國家는 반드시 체육을 숭상하고 활기찬 國民精神을 북돋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 보더라도 新羅時代 당시의 花郎들은 여러분과 같은 少年期에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스스로 나아갈 未來를 設計하고 꿈을 키웠으며 결국 이들이 힘을 모아 마침내 三國을 統一하는 偉業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아도 우리의 굳센 体力과 健康한 마음이 國家 百年大計의 근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다가오는 21世紀의 主役으로서 우리 배달겨레가 世界舞臺의 主

人이라는 자랑과 긍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튼튼한 몸과 활기찬 기상으로 競技에 最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의 꿈나무인 선수 여러분!

운동경기의 소중한 目標는 승리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規則이 준수되고 秩序가 유지되는 가운데 관중과 선수가 한마음으로 호흡하고 공감하는 열광적인 拍手가 있을 때 진정한 勝利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忠南 體育選手團은 지난 全國 体典에서 정정당당하고도 올바른 스포츠 精神으로 끝까지 잘 싸우고 秩序를 지켰습니다.

비록 大田直轄市 분리승격 이후 약화된 전력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과거 忠南体育의 榮光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15개 시도 중 유일한 模範 選手團으로 選定됨으로써 스포츠의 진정하고도 값진 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忠南人에게 전통적인 스포츠 정신과 함께 지난날의 榮光을 되찾을 수 있다는 確信을 하면서 내일의 忠南体育을 짊어질 소년소녀 여러분의 씩씩하고 당당한 氣象을 만나게 되니 더욱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비록 사흘간의 짧은 期間이지만 이번 大會를 통해서 앞날이 촉망되는 꿈나무들이 더많이 발굴되기를 온 道民과 함께 期待합니다.

부디 선수여러분은 체전 기간동안 건강한 몸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힘껏 발휘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勝利의 榮光을 안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회준비에 애쓰신 忠南道 敎育委員會 關係官, 体育指導者 여러분에게 致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소년체전이 忠南体育 再建의 디딤돌이 되는 한편 道民의 和合과 繁榮을 기약하는 한마당 祝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0월 13일

致 辭

친애하는 扶餘郡民 여러분!

그리고 百濟文化를 애호해 주시는 내빈 여러분!

오늘 永遠한 百濟의 고향 이곳 구드레 廣場에서 서른 다섯번째의 百濟文化祭가 이처럼 장중하게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경축합니다.

군민여러분의 애뜻한 사랑과 뜨거운 의지속에 精誠을 쏟아온 百濟精神의 連綿한 繼承 35年! 이것은 바로 유서깊은 韓國文化의 깊이와 넓이를 말해주는 民族文化의 현주소임을 12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 자부합니다.

그러하기에 금년도가 비록 규모를 작게하는 小祭에 해당되는 文化祭입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열망에 따라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文化祭로 昇華시킨 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 감동스러운 일은 바로 이태전 일찌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大洪水를 군민 여러분의 초인적인 信念과 忍耐로 克服하고 나서 언제 우리가 그토록 엄청났던 水害를 당했던가 하는 9년 연속 豊年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줍니다.

친애하는 扶餘郡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뜨거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너와 내가 없는 和合과 團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百濟人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섬세하고 가장 찬란한 文化를 創造했던 우리의 祖上, 명예로운 최후는 있

으되 욕된 勝利를 받아드리지 않았던 강인한 精神, 그리고 격조높은 文物을 다른 民族에게도 건네줄줄 알았던 아량, 이것이 바로 百濟의 根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13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곳 구드레를 품에 안고 白馬江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의 흐름을 우리 民族의 永遠함과 더불어 文化와 歷史의 永續性도 함께 침묵으로 말해 줍니다.

비록 우리 세대는 한정된 삶을 누리지만 조상들의 精神과 文化를 오늘에 선양하듯 우리의 후손들이 면면히 이땅을 지키고 또 繁榮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歷史와 文化의 繼承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인들이 물려 주신 遺産을 땀흘려 갈고 닦지 못하는 후손이라면 결코 祖上의 빛나는 文化를 享有하지 못할 것입니다.

百濟의 후손인 군민 여러분!

때문에 오늘의 百濟文化祭가 百濟얼을 단순한 再現에 그치지 않고 이 한마당 祝典을 통해서 地域發展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意志의 結集, 그리고 先進과 福祉를 향한 미래의 구심점으로 昇華시키는데 우리의 긍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그 무한한 슬기와 執念이 忠南道 發展을 善導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結實의 祝福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道內 全國體典 後援人士, 團體長, 加盟団体長등 에게 보내는

1989년 10월 13일

書 翰

무르익은 가을 고당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번 京畿道 水原일원에서 개최된 第70回 全國体育大會에서 선전분투했던 본도 選手團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무사히 歸鄕하였습니다.

고장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선전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뒷받침 해주신 경기단체 회장님을 비롯하신 임원, 지도자 여러분과 멀리 競技場을 찾아 뜨거운 應援을 하여주신 각급 기관장님 여러분께 慰勞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200만 도민의 여망에 따르지 못한점 아쉽기는 합니다만 막강했던 忠南體育이 兩分된 歸結이라고 자위하면서 이를 새로운 忠南体育發展의 새 출발점으로 삼아 精進 努力할 것을 다짐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선수와 임원들이 보여준 떳떳하고 진지한 姿勢와 秩序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은 忠南人의 自矜心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기 때문에 模範賞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大會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經驗을 토대로 체력과 기량의 연마는 물론 先進道民으로서 스포츠정신의 승화와 民主秩序의 定着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특히 運動競技에 있어서는 結果도 중요시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정 당당히 힘과 技倆을 겨루는 過程이 더욱 중요하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忠南은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도민 여러분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주심으로써 더 큰 發展과 跳躍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忠南体育에 대한 따뜻한 協調와 聲援에 感謝드리며 하시는 일 알차게 거두시기를 빕니다.

第70回 全國體典時 京畿道後援人士·團體에 보내는

1989년 10월 13일

書 翰

무르익어가는 가을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되시기를 빕니다.

이번 귀 고장에서 펼쳐진 第70回 全國体育大會 기간중 저희 忠南 選手團에게 베풀어 주신 성원에 대하여 우리 200만 忠南 道民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体典은 참된마음, 참된모습, 참된화합을 目標로 그 어느체전 보다도 우리의 成長과 미래의 可能性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88서울 올림픽을 바탕으로 韓國体育의 跳躍과 地平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처음으로 열린 韓民族 体育大會를 계기로 국내외 동포가 뜨거운 만남을 이룬 그 자리에 앞으로 祝福과 繁榮 밝은 내일이 기약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忠南選手團을 위하여 따스한 인정을 베풀어 주신 京畿道民 여러분, 각급 기관장님, 자매단체, 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謝意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精誠과 友情,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第28回 忠淸南道 家畜品評會

1989년 10월 13일

致 辭

오늘 금년 한햇동안 땀흘린 수고와 기대가 풍요한 結實로 무르익는 이 가을에 先進畜産을 지향하는 家畜品評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自立畜産에 대한 열망에 시련을 주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畜産環境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의 成長畜産을 성취해 주신 養畜家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致賀와 激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달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 한해가 우리 養畜家들에게 준 試練은 매우 어렵고도 무거운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중 일시에 쏟아져 내린 暴雨로 인하여 草地가 流失되고 장마로 인한 가축의 疾病과 畜産擴大에 따른 環境汚染問題 등 자연이 주는 試練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안게된 여러가지 난관은 養畜家들의 슬기와 忍耐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畜産人 여러분은 先進畜産의 傳統과 力量을 발휘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헤치면서 국민들의 信賴와 사랑을 받는 畜産物 生産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養畜技術이나 經營에 만족하거나 또한 과거의 답습에 머물 수 없을 만큼 畜産環境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外國産 畜産物의 市場開放壓力일 뿐더러 우리 國內 消費者들도 수준 높은 畜産物의 供給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畜産環境 變化는 날로 그 속도와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현실

이며 값싸고 질좋은 外國畜産物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畜産技術, 그리고 일반국민의 기호에 앞서가는 畜産物 生産이 아니면 우리의 축산은 설땅이 없다는 認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牛乳在庫의 누적도 적지않은 問題입니다만 축산물의 生産者와 加工者, 그리고 유통에 종사하는 모든 畜産人들이 풀어나가야할 宿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政府의 적극적인 施策이 앞서야 하겠지만 우리 酪農人들이 앞장서 능력이 떨어지는 소를 속히 도태하면서 濃厚飼料를 줄이고 풀사료 위주의 酪農으로 轉換하는등 經營과 所得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對策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슬기와 노력, 그리고 養畜家들의 화합과 단결이 結集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問題들을 하나씩 풀어 나갈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畜産業의 安定된 基盤構築을 위하여 내년에도 많은 投資를 計劃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養畜家들은 날로 높아지는 穀物飼料의 의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自給飼料에 의한 安定畜産을 目標로 하는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組飼料의 增産이나 飼料의 自給化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畜産人들의 開拓者的인 끈질긴 努力과 함께 내다보는 眼目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막중한 畜産課題를 안고 금년 한해도 땀흘려 優良家畜을 길러낸 功勞로 오늘 입상하신 養畜家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늘 入賞의 榮光을 안으신 養畜家 여러분, 그리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家畜을 길러주신 여러분에게도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家畜品評會를 주관하여 주신 韓昌宇 畜協中央會 忠淸道支會長님과 審査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 그리고 이 行事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第2次 國際로타리 368地區 年次大會

1989년 10월 14일

祝 辭

존경하는 朴鍾允 國際로타리 368地區 總裁님!

그리고 忠節의 고장 로타리안 여러분!

오늘 드높은 하늘 땀흘린 結實에 感謝하는 좋은 때를 골라 채희병 國際로타리 會長 代理 내외분을 모시고 열 두번째의 地區 年次大會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합니다.

더욱이 이번 大會는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해온 368地區가 忠北地域을 따로 분구시키고 나서 새로운 組織, 참신한 意慾을 앞세워 안으로는 結束, 그리고 밖으로는 奉仕의 領域을 넓히려는 그 出發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미치 우리 忠淸南道가 대도시로 성장한 大田直轄市를 昇格시키고 나서 한 수레의 두 바퀴로 忠淸圈 發展에 가속력을 더하게 된 싯점과 비슷하여 매우 깊은 뜻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 忠南道民과 大田直轄市民이 한 뿌리와 傳統을 바탕으로 손에 손을 잡고 協力과 前進을 늦추지 않듯이 로타리안 여러분도 하나의 理念, 하나의 사랑으로 地域社會에 대한 奉仕와 보람을 함께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친애하는 로타리안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世代는 지금 크게 두가지 課題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는 自律과 秩序를 目標로한 전환기의 싯점에서 새로운 民主時代의 理念과 스스로의 價値 規範을 정착시키는 일이요, 또 하나는 눈앞에 다가선 21世紀의 對備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들이 한 세기에 이룩한 成果와 結實을 그 절반도 안되는 期間에 따라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남들이 100년 걸려 성취한 물질적 成長을 불과 30년 안으로 단축시킨 意志와 經驗이 있습니다.

이제는 經濟의 奇蹟에 이어 또 하나의 精神的인 成熟도 함께 성취해야 할 能力과 當爲性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의 희망과 저력은 이미 우리 스스로 自信感을 얻었으며 또한 世界人으로 부터 認定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전 우리 스스로 參與하고 成功시킨 서울 올림픽입니다.

그러나 로타리안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환호하고 감격하고 스스로 놀랐던 서울 올림픽의 感動과 그 自負心을 많이 잊어버린 듯한 오늘이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고 나면 바로 先進國의 문턱에 한발을 올려 놓을것 같은 상냥한 미소, 깨끗한 거리, 정연한 秩序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希望과 抱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밝은 웃음, 생기 넘치는 社會, 그리고 양보와 질서가 넘치는 地域社會建設에 매진할 때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努力이 우리 고장에, 그리고 나라 전체를 가득 채울때 대망의 21세기는 韓國人을 主役으로 맞이 할 것입니다.

부디 國際로타리안 여러분의 참여와 솔선 그리고 道民에 대한 指導를 기대하면서 "즐거운 奉仕"의 무한한 영광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걷기大會를 爲한 朝餐모임

1989년 10월 14일

人 事

오늘 걷기大會 行事준비를 하여주신 南在斗 委員長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忠南道가 大田市와 분리된 후 여러 기관장님들과 조찬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여 對話를 갖는 계기가 처음인것 같습니다.
이번 걷기大會가 갖는 의미는 봉사와 화합이며 우리 忠南과 大田市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봉사란 자기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한 精神으로 자기와 같이 남을 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본 大會의 큰 의미는 바로 奉仕와 和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社會 어느 구석에서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봉사정신을 우리 200만 道民과 같이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남이 무어라 해도 자기가 옳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추진하는 그러한 信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자세로 그간 본 걷기大會를 14回나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 봅니다.

끝으로 본 걷기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라고 본 행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89년 10월 16일

激 勵 辭

우리가 바친 땀과 정성이 아름찬 결실로 맺어가는 이 가을에 앞으로 地域社會 화단을 빛내고 가꾸어 나갈 靑年 作家들의 作品 展示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今年으로 두번째가 되는 이번 展示會는 地域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하여 탄생한 忠淸文化藝術振興會에서 주관하고 그 규모를 더욱 내실있게 擴大하여 鄕土文化 暢達의 견인적 役割이 될 것으로 期待하여 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의 새로운 意識과 바람직한 가치의 추구를 통해서 참신한 藝術의 創造力을 發揮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土壤의 繼承을 통해서도 새로운 地方化, 地域 文化를 先導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요청은 비단 藝術人들 뿐만 아니라 道民 모두의 藝術에 대한 理解와 愛好가 아울러 필요한 지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展示會를 통하여 보여준 과감한 시도와 뜨거운 藝術魂을 결집시켜 오늘의 한계와 제약을 뛰어 넘고자 하는 靑年作家 여러분들의 집념은 우리世代 先進化의 전위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發展이 바로 문화와 藝術의 成熟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또 빛나는 遺産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忠淸美術 靑年 作家展이 道民 情緖 醇化에도 큰 滋養이 되고 더

나아가 民族 藝術의 발전에 좋은 寄與가 되어 줄것을 期待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전시회를 마련해 주신 忠淸文化藝術振興會 趙鍾國 理事長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感謝드리면서 作家 여러분의 끝없는 精進을 빌어마지 안습니다.

韓國美術協会 忠淸南道支部 會員展 팜플렛 掲載用

1989년 10월 19일

激 勵 辭

높아진 하늘, 결실의 성취감 가득한 이때 韓國美術協會 忠淸南道支部 會員들의 作品展을 개최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百濟 中興의 意志가 꽃피었던 웅진성에서 民族文化의 뿌리를 오늘에 再現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번영의 토양으로 삼는 第35回 百濟文化 祝典을 수놓는 미술의 향연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더욱 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創作 環境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이상과 집념으로 鄕土美術發展을 위해 땀 흘려오신 美術人 여러분의 끊임없는 創作熱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地方文化 育成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또한 이에대한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고장 藝術人들이 내 고장의 伝統과 特色을 美術에 반영하고 승화시키는 창작 의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작가들의 심혈이 충만되고 예술혼이 깃들어 있는 주옥같은 作品들이라고 믿어마지 않으며 이에 道民들의 많은 觀覽과 聲援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美協忠南支部 會員展이 예술과 선비의 고장 文化 振興을 善導하는 큰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좋은 작품을 出品해 주신 美術人 여러분과 展示會를 위해 애쓰신 강신철 지부장님을 비롯하신 회원 여러분의 勞苦와 더불어 각계의 聲援에 감사드립니다.

第35回 百濟文化祭

1989년 10월 20일

致 辭

친애하는 公州市 郡民 여러분!

고장 출신 國會議員님, 내빈, 그리고 道民 여러분!

오늘 겨레의 자부와 백제의 숨결로 흐르는 錦江의 둔덕에서 서른 다섯번째의 百濟文化 祝典이 닷새동안에 걸쳐 다채롭게 펼쳐지게 된 것을 道民과 더불어 慶祝합니다.

이 유서깊은 百濟의 향연은 가장 오랜 歷史와 傳統을 빛내는 鄕土文化의 정상일 뿐더러 고대와 현대 그리고 먼 옛날의 祖上과 오늘을 사는 後孫이 서로 만나는 韓國文化의 現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야제가 시작 되었습니다만 갖가지 民俗行事와 美術, 演劇, 文學, 學術大會 등 모든 분야가 調和되고 연계된 행사가 모두 百濟精神의 선양과 승화에 모아졌음을 祝賀드립니다.

이처럼 百濟文化의 옛 모습을 오늘에 재현하고 이를 내일을 위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는 民族文化의 발상지에 사는 17만 公州人 여러분의 역량 그리고 이를 선도하고 힘을 모아 주신 百濟文化 宣揚委員會 위원과 관계관 여러분의 숨은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公州人 여러분!

여러분이 자부하시는 것처럼 이곳 公州는 널리 알려진 敎育의 고장이요, 知性의 都市입니다.

또한 금세기 초 異民族의 侵略에 맞서 독립을 되찾기 위한 뿌리 깊은 抵抗과 함께 국민적 主體意識을 샘솟게 했던 곳도 이곳 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自主, 自立, 自强하는 精神을 바탕으로 오늘의 삶을 누리고 내일의 繁榮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社會의 일각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념적 갈등과 가치관의 혼돈등 걱정스러운 일들이나 채 익지도 않은 果實을 따먹으려는 성급한 경향은 이곳 公州市·郡民 여러분처럼 주인의식과 분별있는 깊은 사려가 뒷받침된 행동력에 의해서 先導될 수 있다고 봅니다.

個人이나 國家 급격한 변화와 속도빠른 發展을 겪을수록 자기생각을 바로 잡고 中心을 잃지 않는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道民의 和合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忠南精神의 뿌리와 実体에 대해 도내 학자들이 오랫동안 研究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소중한 것은 이러한 道民精神의 재정립 노력과 함께 다가오는 地方化 時代에 이곳을 百濟文化圈으로 설정, 문화창달과 관광자원의 開發, 그리고 關聯産業을 일으키는 경제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公州市·郡民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듯 이러한 傳統文化의 계승이나 물질적인 成長이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것은 아닐 것 입니다.

기대와 목표를 채워 줄 수 있는 도민들의 노력과 그 團結된 힘을 結集할 수 있는 하나의 廣場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百濟文化 祝典이야말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우나 한번 세워진 목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百濟精神의 昇華이며 200만 도민 화합의 廣場임을 강조하려 합니다.

부디 오래 전부터 짜임새 있게 준비된 이 다양한 行事가 소기의 成果를 거두므로써 公州의 발전은 물론 忠南道 發展의 活火山이 될 것을 確信하면서 이 행사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17만 市·郡民의 가정에 幸運과 이 가을의 祝福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0월 23일

激 勵 辭

친애하는 舒川郡民 여러분!

고장 출신 李肯珪議員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신비스런 傳說과 함께 누천년 동안 계승된 韓山 모시의 名聲과 郡民 여러분의 力量을 과시하는 첫번째의 苧山 文化祝典이 성대히 베풀어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합니다.

地域마다 鄕土를 사랑하고 固有文化를 아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특히 이곳 舒川 郡民 여러분의 愛鄕心과 地域發展에 대한 熱望이 남다른 데가 있슴을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장이 낳은 역사적 인물들의 정신을 연면히 이어받는 傳統,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기름지게 가꾸고 대대로 繁榮을 누려온 마음의 여유와 풍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탕 때문인지 처음으로 개최된 苧山文化 祝典이 오래 전부터 계속된 다른 地方의 鄕土文化 祝典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行事와 알찬 內容임을 祝賀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서천 郡民 여러분!

본인은 이태 전 歷史에도 그 記錄이 없는 이곳 서천지방의 大 洪水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기억은 지난날의 아픔을 다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처절했던 試鍊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郡民 여러분의 슬기와 忍耐에 대한 놀라운 저력 때문입니다.

참으로 장하고 경이로운 克服이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努力이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의 예기치 못한 해일에도 굴하지 않고 이처럼 10만 군민 여러분의 和合되고 團結된 힘을 보여주신것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苧山文化 祝典이 잦은 난관을 극복한 지난날의 소담한 열매일 뿐더러 고장의 發展과 무궁한 繁榮을 위한 미래의 힘찬 첫 걸음임을 특히 강조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西海岸 時代는 바야흐로 꿈이 아닌 現實로 서서히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西海岸時代의 核心地域은 이곳 서천이요 主人은 다른사람 아닌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

희망을 가꾸시는 郡民 여러분!

우리의 꿈이 아무리 크고 떠오르는 햇살을 받는다해도 좋은 기회와 능력을 살리지 못한다면 결코 아무런 結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敎訓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웃과 地域社會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奉仕하고 獻身하는 姿勢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地域發展을 위한 좋은 事業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惠澤을 받게 되는 반면에 한 두사람은 不利益이 따르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만난 사람을 위로해 주고 또 양보하여 地域의 開發과 繁榮에 同參해 나가는 슬기,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世代의 姿勢입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試鍊도 서천의 未來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군민 여러분의 意志와 努力에 하늘의 도움을 기원하면서 이 뜻깊은 苧山文化祝典을 준비해 주신 推進委員 여러분 그리고 郡民 여러분에게 幸運과 풍요한 收穫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大韓建築士協會 忠淸南道支部 定期總會

1989년 10월 24일

致 辭

오늘 보람의 결실과 반성의 이 가을에 大韓建築士協會 忠淸南道支部 會員 여러분이 스물 네번째의 定期總會를 개최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定期總會는 우리 忠南建築士協會에서 大田直轄市協會를 분리 승격시켜준 후 처음으로 갖는 總會로서 새로운 出發과 再起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회원 여러분이 고장의 建築文化 發展과 地域社會 開發을 위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고 또한 道政을 위해서도 助言과 協調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하여 본인은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創作으로 고장에 세워진 建築物은 우리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造形藝術이며, 우리 도민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便利하고 安樂한 生活을 누리고 나서 다시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財産이라고 생각합니다.

建築家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누천년동안 保存되고, 사랑을 받아온 값진 文化財들은 모두 그 시대를 앞서간 建築家들의 창작과 노고에 의해 얻어진 造形物입니다.

많은 분야의 藝術品이나 創作物이 짧은 生命을 갖는것과는 달리 建築藝術 作品은 몇백년 아니면 수천년의 歷史性을 갖는 것이 그 特徵입니다.

아울러 建築藝術이 뛰어났던 民族이 다른 분야에 뒤떨어진 경우가 없다는 것이 斯界전문가들의 評價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이 훌륭한 建築文化를 創造했기에 오늘날 우리 민족이 文化民族이었음을 證明해 주는 좋은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게는 반 만년 동안 갈고 닦여진 傳統建築文化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신한 建築藝術을 創造하면서 또한 옛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완성되면 누대의 생명을 누리고 때로는 몇 백년을 두고 평가되는 것이 바로 建築物입니다.

우리 세대는 후손들에게 建築藝術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資源과 資本이 매우 빈약한 처지를 극복하고 세계의 先進社會, 先進國家를 建設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한 보람을 遺産으로 남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忠南은 국가발전의 中心地域으로서 또한 서해안시대의 核心地域으로 새로운 開發이 급진적으로 展開되는 만큼 이에따라 建築의 需要가 더욱 커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과 기대에 찬 希望을 보람으로 가꾸기위해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建築人, 그리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建築家의 眼目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신적인 취향이 다양해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늘어감에 따라 建築에 대한 需要도 이에 비례한다고 볼때 우리 세대의 모든 産業과 經濟活動 그리고 안락한 家庭生活을 누릴 수 있는 住居와 生活環境의 造成 이것이 바로 建築家 여러분의 소중한 役割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오늘 건축에 대하여 나날이 높아지는 理想과 함께 現實이 調和되는 生活空間 確保에 대한 도민들의 큰기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정기총회가 이고장 건축예술인들의 和合과 團結, 그리고 建築文化創造에 대한 의욕을 통해서 여러분의 큰 發展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0월 24일

人 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가을날씨가 광장히 맑습니다만 좀 쌀쌀한 편인데 지방에서 이렇게 일찍 참석해 주신 評価団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난 87년도에 엄청난 水害를 겪고 작년도에도 豊作을 이루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7월에 두 차례에 걸친 폭우 피해가 있었고, 또 8월에 해일 피해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친 해일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피해로 인해서 3백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와 4명의 인명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우리 道民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9년 연속 豊年 農事를 지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道 전체로서는 추수 실적이 약 91%정도 되었지만 그동안 도민들께서 風水害도 이기면서 이런 풍년 농사를 지어서 들녘에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어제께는 제가 舒川 地域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그 지역도 현재 거의 추수가 끝나서 아주 農民들이 웃는 얼굴로 文化財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서천지역은 지난번 해일 피해가 상당히 극심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그러한 自然災害를 克服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새로운 문화재 행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忠清南道 道民 모두의 저력과 끈질김에 대해서 다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각 市, 郡別로 文化財行事를 개최하면서 느낀것은 문화재 행사가 하나의 文化 祝典으로서 뿐만아니고 시, 군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저희 道가 天安市에서 道民体典을 개최합니다.

도민체전을 끝으로 忠清南道의 금년도 문화축제, 문화축전이 마무리가 될 걸로 봅니다만 道民和合의 場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개발 계획의 추진에 이어 전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저희들이 国会 5개 常任委員會가 도에 직접 나오셔서 도정 전반에 걸친 國政監査를 실시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6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그동안 行政이 추진해 온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보고 드리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그를 시정해 나가면서 우리 忠南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大田直轄市 분리 이후에 忠清南道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道勢回復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도정수행도 비교적 평가 할 만하다는 수준에 와 있다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한결 용기를 더 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받는 자세도 지난해 수준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진지하고 또 사실 그대로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도정 수행의 眞面을 道民들과 全國民들께 보고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떳떳한 자세로 도민들에게 숨김없이 보여드리는 그러한 行政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욱 크게 다짐을 했고 저희 모두가 국정감사에서 큰 지적없이 또 대과없이 道政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評価를 받았다는 부분을 여러 평가단원 평가위원님들께 보고를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全國体典에 참가 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15개 시, 도중에서 14위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한편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문은 전국 15개 시,도 선수단 중에서 우리 忠南選手団이 가장 模範的인 選手団으로 評価를 받아서 모범선수단상을 受賞했다는 것입니다.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에 저희 충남교육감님이 체육회 부회장에 계십니다만 체육회의 부회장 충남교육감과 저희 會長団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 전국체전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앞으로 忠南體育이 발전 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논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충남이 도세 측면에서보면 역시 全國의 최하위를 면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앞으로 메달을 따는 측면에서 올림픽방식의 채점 기준이 변화 된다면 매달 획득수에서는 적어도 中位圈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體育을 發展시켜 나가자, 또 하나는 그동안은 學校體育이 학생들로 구성된 체육선수를 위한 체육이 아니고 체육선수도 학생을 기점으로 하는 그런 학교 체육을 운영 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수학생이 아니고 學生選手를 育成해서 전국에서 어떤 시도도 선수를 양성하는데에만 전력하지 학생을 염두해 둔 선수양성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일부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말자.

앞으로는 忠南은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이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비록 체전의 성적은 혹시 뒤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모범적인 學生選手를 育成하는 道로서 이렇게 體育을 發展시켜 나가자 하는 의견들을 나누었는데 이번에 그 첫해의 성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다소나마 成果가 있었다 하는 점에서 여러가지 위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道民體典이 끝나면 저희들이 전국체전 성과에 의한 분석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금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민들에게 道民들의 士氣를 높여주고 그러한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 나가고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西海岸開發計劃이 거의 마무리, 최종 確定段階에 와 있습니다. 이 서해안개발계획은 앞으로 2001년까지 126개 사업에 약 22조원 정도가 투입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忠南圈에 투자되는 돈이 약 21% 정도입니다. 4조7천3백억원정도 투자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해안 개발 계획 수립을 하는 中央政府와 협의를 한 내용중에서 거의 전부 반영이 되고 몇개 사항만이 반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최종 확정 단계까지 계속 노력해서 추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西海岸 高速道路 路線이 확정되면 또 충남 권역의 개발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비교적 저희들 希望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 서해안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의 期待를 다시 불려봅니다.

저희 이 道政評價団은 제가 부임한 이후에 분기마다 한번씩 이렇게 각 계층에 계신 委員님들을 모시고 評價団會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오늘분 까지 해서 여섯번째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道民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여러가지 道政에 대한 意見을 이러한 평가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도정 수행의 내용을 우리 도민 모두에게 보고드리는 마음 가짐으로 매 분기마다 會議를 운영하면서 회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는 내용 측면에서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런 도정 수행상의 여러가지 필요와 또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見解 意見들을 수렴하는 하나의 場으로서 우리 평가단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단 오늘 뿐만 아니고 회의가 끝나서 여러분댁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지역사회 의견과 도정의 수행 내용에 地域社會에 대한 傳達설명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런 評價団의 운영 또 道政모니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면서 民主 道政이 정착되고 더 발전되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거듭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바쁘신 일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모두 參席을 해 주셔서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第41回 道民體育大會

1989년 10월 26일

大 會 辭

친애하는 選手와 임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오늘 우리 200만 도민의 힘찬 氣象과 새로운 忠南時代의 꿈을 펼치게 될 第41回 道民 體育大會가 사흘동안 이곳 天安에서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道民体典은 대전직할시를 분리 승격시키고 난후 첫번째의 도민체전으로써 우리 忠南 体育이 힘찬 의욕과 화합을 바탕으로 体育 元年을 다지는 한편 地域 發展의 원동력을 결집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忠南道民은 전통적으로 충절과 예절의 고장이면서 또한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끈기와 저력넘치는 道民 精神을 끊임없이 분출해 왔다고 自負합니다.

과거 우리가 이룩했던 자랑스런 충남 체육의 발자취에는 도민의 슬기와 智慧 그리고 그 힘찬 기백과 저력이 넘쳐흘렀습니다.

지난번 水原에서 개최된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단은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열심히 뛰고 정정당당하게 最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난날 忠南 体育의 榮光에 비한다면 매우 아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의 結果에 대하여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反省하고 새로운 집념과 재기의 삽질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진했던 이번 성적에 대하여 失望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우리의 無限한 潛在力을 일깨울 수 있는 분발과 충남인의 전통적 끈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충남체육을 다시 일으켜세워 땀흘려 가꾸므로써 道勢 回復과 함께 우리 충남인의 긍지와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다짐과 出發의 싯점이 바로 第41回 道民体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이번 체전이 忠南体育의 再起를 다짐하고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화합된 모습, 넘치는 友情의 体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규칙이 준수되고 秩序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년 전국체전에서 模範賞을 받은 忠南 선수단의 名譽를 한껏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아무쪼록 선수 여러분은 그동안 연마해 온 技倆을 유감없이 發揮하여 고장의 名譽를 빛내 주시고 도민 여러분은 열띤 응원과 勝利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体育人,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天安市民 여러분, 대회를 빛내주신 내빈, 그리고 道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 땀흘리는 노력을 倍加하므로써 忠南体育의 신기원을 약속하면서 다시한번 선수 여러분의 선전분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忠義會創立6周年記念式

1989년 10월 26일

祝　　辭

오늘 우리고장의 전통적 정신이 되고 있는 忠節의 遺産을 더욱 빛내고 國家安保意識을 북돋아온 명실공히 우리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과 精神을 가지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굳건하게 활동해온 忠義會가 創立된지도 오늘로써 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박선규 會長님을 비롯하신 임원과 會員 여러분은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의 生存과 繁榮을 지탱해 주는 反共과 安保의 일선에서 고생한 분들을 찾아내어 따뜻히 激勵해 오셨습니다.

이 뜻깊은 記念式에서 상을 받게 되신 忠南道敎育委員會 임상린 奬學士를 비롯한 수상자 네분에게 먼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忠義會 박회장님을 비롯하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위에 우뚝 솟아있는 나무를 바라 볼때 사람들은 대개 地表에서 부터 굵어진 나무의 밑둥과 줄기를 보고 가지를 보고 잎을 보면서 한그루의 나무를 관상합니다.

그 나무의 樹勢는 어떠하며 이 다음에 무슨 材木으로 적당할 것인가를 評價하면서도 나무가 그만큼 자라도록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양을 섭취하여 나무를 키우고 비바람과 폭풍을 견디어 오는데 결정적인 役割을 다해온 뿌리에 대하여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강인한 生命力을 보여주는 우리 民族의 穀食 보리가 그 키만큼 뿌리를 내리듯이 모든 나무들은 나무의 높이에 비례하여 깊고 넓게 뿌리를 뻗어 내린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눈부신 成長을 거듭하여 先進社會의 문턱에 다가서고 民主社會의 成熟을 기대하게 된 것은 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항시 음지에서 反共安保分野에서 밤낮없이 일해오신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마치 祖國의 統一이 눈앞에 온 것처럼 착각하고 國家安保와 反共에 관한 제도 법률이 統一을 가로막는 장애이거나 國民을 괴롭히는 악법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땅위로 솟아있는 나무의 줄기와 잎새만 보고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그루의 거목을 지탱하는 뿌리를 제거하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쓰러질 나무와 같이 오늘 우리 세대가 國家安保를 배척하고 돌보지 않을 때 이 社會와 國家의 運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깊은 哲學으로 우리 自由民主主義社會와 國家繁榮의 뿌리에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는, 忠義會의 숨은 뜻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忠義會의 뿌리도 깊어졌습니다.

아울러 忠節의 고장 地域安保의 뿌리와 理念도 튼튼해졌습니다.

앞으로 忠義會라는 나무가 거목으로 成長할수록 고장의 安定과 繁榮은 물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여 나라를 갈등으로 몰고 갔던 일부 인사들도 忠節과 忠義의 올바른 애국의 길로 되돌아 올 것을 확신합니다.

忠義會 創立 6周年을 祝賀드립니다.

感謝합니다

第3回 天安삼거리 흥타령文化祭

1989년 10월 27일

致 辭

우리고장 天安의 鄕土文化를 하나로 융해하여 세번째의 흥타령 文化祭를 오늘 이처럼 성대히 마련하게 된 것을 市民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慶祝하는 바입니다.

우리 民族의 노래 흥타령은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예로부터 嶺南과 湖南 三南의 길목인 이곳 天安을 지나는 길손들에게서 비롯된 흥겨운 이야기요 민요였으며 당대 都市文化의 상징이었습니다.

交通의 요지이며 仁厚조정의 왕업지였던 우리 천안은 이제는 충남 제일가는 首部都市로서 고장 發展을 主導하고 또 바람직한 道民文化의 模範을 먼저 보여야 할 막중한 役割과 責任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로의 발돋움과 市政의 발전은 天安이라는 都市 自体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都市속에 살고있는 市民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본인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市民 여러분!

이제 우리 天安은 忠南만의 天安이 아니라 世界속에 개성을 가진 韓國의 代表都市로서 그 都市의 원대한 理想과 成長力을 보여 줄 때가 되었습니다.

首都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이 앞으로 더 크게 發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러한 서울의 異常 肥大化를 가까운 도시에서 강한 吸引力을 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는 都市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天安은 首都圈에서 이전되는 유망한 産業과 人力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天安市의 發展을 꾀한다면 우리 天安市는 모든 忠南의 發展도 매우 빨라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物質的 成長을 가져오려면 우리는 먼저 市民意識의 向上과 함께 물질을 담을 수 있는 정신적 그릇인 文化의 啓發과 成熟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홍타령 文化祭가 도시의 급속한 成長에 앞서 먼저 차원높은 市民文化의 啓發을 위한 先行指数이기 때문에 200만 道民의 期待와 視線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홍타령 文化祭는 祭41回 道民體典과 함께 서로 調和되고 다양하게 어울어져 傳統文化와 선비의 고장에서 펼쳐진 갖가지 鄕土文化祭를 이곳 天安에서 結實하고 마무리 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天安市民 여러분!

어제 개막된 前夜祭로 부터 固有 民俗놀이와 音樂, 美術, 文學 등 모든 文化와 藝術行事가 절정을 이루어 시민 여러분의 力量 그리고 天安市의 未來像과 잠재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문화 축제가 끝까지 秩序와 품위가 넘치는 가운데 그 옛날의 傳統과 오늘의 참신한 創造力 그리고 희망찬 내일의 潛在力이 어울어지는 한마당 市民잔치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日本熊本縣知事에게 보내는

1989년 10월 27일

書 翰

풍요한 결실의 계절에 먼저 細川 護熙 知事님께 안부드립니다.

이곳 忠淸南道民들은 그간 땀 흘려 가꾼 곡식들을 수확하면서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文化祝典을 통해 9년 연속 豊年의 금년 가을을 祝福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熊本에서 있었던 熊本女子大學과 祥明女子大學校간의 姉妹結緣은 兩 道·縣의 友好增進에 있어 또 하나의 結束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양 大學의 뜻깊은 交流는 본도와의 友好增進에 대한 귀현의 깊은 理解와 적극적인 협력의 結果라고 생각되어 깊은 感謝를 드리며, 앞으로도 양 대학간에 긴밀한 관계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支援을 다짐합니다.

두 大學의 姉妹結緣이 지난 4월 본인의 熊本 방문시 양 道·縣간 交流擴大를 위한 7가지 합의사항 중 하나의 結實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나머지 合議事項들이 더욱 순조롭게 實踐되어 忠淸南道와 熊本縣 사이에 더욱 우호관계가 성숙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知事님의 安寧과 貴縣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第3回 文化의달 記念 藝術人大會

1989년 10월 28일

激 勵 辭

오늘 대자연과 인간이 함께 성숙하는 가을에 고장의 文化 藝術人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세번째의 藝術人 大會를 갖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예술인의 만남은 평소 創作과 藝術活動에 대한 가벼운 대화를 넘어서 환경 변화에 따른 地域 文化의 활로 모색과 같이 깊이 있는 講演이 있어 그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술인 여러분!

오늘 예술인의 모임이 더없이 기쁘고 자부심을 주는 이유는 바로 고장의 文化 藝術에 대한 전통적인 토양과 유산,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화예술인과 본인이 마주서 있는 이곳 扶餘 유스호텔에서 구드레廣場이 굽어 보입니다만, 白馬江이 굽이치는 구드레주변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하는 百濟文化의 근원지입니다.

며칠전에 이 扶餘 일원에서 서른 다섯번째의 百濟文化祭가 성대히 開催된 바 있습니다.

백제문화의 축전은 본래 扶餘와 公州에서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치뤄지고 이곳 扶餘에서는 금년이 小祭에 해당되었지만 실제로는 예년의 큰 행사에 버금가는 군민의 축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소이는 그토록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發祥地로서 그리고 이곳에 사는 백제의 자랑스런 후예로서 주민의 자부심과 긍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예술인 여러분!

우리는 결코 조상들의 위대한 文化 아쉬운 歷史를 자랑하고 回想하는데 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유산을 바탕으로 오늘의 文化를 創造하고 내일의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곧 문화 예술인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 모두에게 주어진 召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장의 예술인 여러분이 鄕土藝術에 대한 진실한 對話에 더하여 현실적인 主題를 가진 講演도 전통적 문화예술에 대한 토양을 바탕으로 오늘의 韓國 文化를 살찌우고 더불어 내일의 이 나라 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忠淸藝術의 의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이 문화와 예술의 先進地域으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향토 예술인 여러분의 차원 높은 創作과 執念, 그리고 이를 이해하고 성원해 주는 忠淸人 모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 忠南道는 그 어느 市道보다도 먼저 地方 文藝振興基金을 조성,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장 예술인에 대한 支援事業을 더욱 擴大해 나갈 計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 예술인 여러분!

그러나 수준 높은 藝術活動을 주도해 나가는 主役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도민의 이해 그리고 文化藝術에 대한 行政支援이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초월하여 그옛날 百濟文化가 이 민족의 문화를 이끌었듯이 고장의 예술인 우리世代의 文芸를 선도하도록 예술인 여러분의 정진과 분발을 당부합니다.

평소 고장 예술인 여러분의 창작분위기 조성과 함께 화합과 이끌어 주신 趙鍾國 芸總支部長님, 주제발표를 해주신 송하섭 교수님에게도 사의를 표하면서 예술인 여러분의 앞날에 幸運과 榮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0월 28일

閉 會 辭

도민체전을 빛내주신 선수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난 사흘동안 열띤 競技와 함께 뜨거운 友情을 나눈 道民体典의 聖火를 내리고 이제 아쉬운 작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선전분투하여 고장의 名譽를 빛내주신 각 시군의 선수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열띤 應援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선수와 도민 여러분이 競技場에서 그리고 應援席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을 나눈것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이처럼 秩序와 友情속에 막을 내리는 第41回 道民体典은 우리 忠南体育 元年의 기치를 드높이고 그리고 西海岸 時代를 열어 나가는 활기찬 도민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天安市 選手團 여러분, 그리고 준우승과 3위의 영예를 안은 禮山郡, 瑞山市 選手團 여러분 祝賀를 드립니다.

아울러 나머지 市郡 選手團에게도 위로와 분발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忠南 体育이 다시 跳躍의 우렁찬 깃발을 높이 세운 만큼 앞으로 충남 체육의 힘찬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고장의 선수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이 석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바로 내일의 충남체육을 이끌어 갈 主役이요, 지난날의 영광을 再現 할 指導者입니다.

부디 忠南人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꾸는 데 熱과 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 사흘동안 여러분 정말 잘 싸우고 열심히 應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찬 前進과 함께 再會를 期約합니다.

道民体典을 위해 오랫동안 精誠을 바치고 親切하게 손님을 맞아주신 天安市民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 다시 公州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1989년 10월 28일

激 勵 辭

땀흘린 노력에 대한 결실과 서정의 이 가을에 아홉 번째의 忠南寫眞 團體會員 展示會와 더불어 作品集을 發刊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날 처럼 복잡하고 세분화된 高度 産業社會에서 寫眞 藝術은 정서와 여유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자아를 反省하게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心性과 진실에 대한 작은 충격도 안겨 줍니다.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만나는 事物과 現場에 대한 물음을 통해 가치의 판단과 再發見의 機會를 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문제와 만나고 또 共感帶를 일깨워 주게 됩니다.

현장의 사진을 위해서 오랫동안 구상하고 그 대상을 찾아 무한대, 탐색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寫眞 藝術人들의 노고에 대하여 讚辭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寫眞展示會에 대한 道民들의 따뜻한 呼應과 激勵를 기대하면서 좋은 작품집의 출간도 함께 치하드립니다.

中都日報 續刊1周年記念 統一問題세미나

1989년 10월 30일

祝 辭

오늘 우리고장 향토의 언론 中都日報에서 속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조국통일에 대한 地域社會의 소망을 집약하는 統一問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술 단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우리민족의 平和的 統一이나 현실 진단에 대한 세미나는 종종있어 왔지만, 이처럼 지역사회 言論이 직접 나서서 통일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여과없이 결집하고 아울러 직접 討論會를 갖게 된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林喆圭 中都日報 社長님을 비롯하신 사우여러분, 그리고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인사와 본 세미나를 위해 바쁜일정을 미루시고 대전에 와주신 金顯煜 國會 外務統一分科 委員長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國土가 兩斷되고 우리 민족이 마주서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對立해 온지가 벌써 44년이 되었습니다.

이 겨레의 분단과 비극의 세월을 우리가 일제의 억압과 질곡속에 살아온 36년의 歲月을 넘어서 또 10여년에 가까운 가슴아픈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러한 비감을 잊고 살아 온것은 아니지만 지난 초가을 韓民族体育大會에서 이산 민족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토록 절실하고 안타까운 祖國의 統一은 왜 이룩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주 요원한 것이 이 나라의 통일이 아닌가 하는 조급한 마음과 한스러운 생각도 없지 않은것이 지금 우리의 心情입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둘도 없는 至上課題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모든 것을 克服할 수 있는 與件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赤化統一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북한 당국은 순수한 民族의 平和統一 보다는 共産主義 體制로의 対南 吸収 統一 戰略에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로는 오늘 세미나에서 하나의 주제가되고 있는 南北間에 점점 더 깊어지고 멀어지는 異質化의 問題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오랫동안 단절되어 온 생활이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언어, 생활, 풍습 사회의 가치와 도덕까지도 많이 굴절되고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분야를 研究한 專門家들의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결과에서 빚어진 相互不信의 壁일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의 벽을 터놓지 않고 진정한 親交를 가질 수 없듯이 어느만큼 고착되어진 南과 北이 서로 신뢰를 쌓지 않는다면 祖國의 統一을 앞에 두고 쌍방은 한발자국도 다가서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現實을 인식한 우리 政府에서는 지난해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特別 宣言과 우리 盧泰愚大統領의 유엔 演說을 통한 남북 동반자 관계의 提案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光復節 慶祝辭에서 우리의 大統領은 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 自主, 平和, 民主의 점진적인 統一 3大原則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의 이 간곡한 제의를 외면하는 北韓當局이 오늘날 통일을 향한 먼길의 벽이되고 있지만 끝까지 그리고 지칠줄 모르는 집념이 바로 우리의 統一에 대한 올바른 姿勢라고 믿습니다.

오늘 뜻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제시되고 진지하게 討論되므로써 우리의 祖國 統一에 대한 忠清人의 力量이 크게 기여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0월 30일

發 刊 辭

해가 바뀔수록 우리 地方 行政統計가 國家 政策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統計는 행정의 추진이나 모든 정책수립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基礎資料이며,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가늠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좋은 指標입니다.

올해는 大田直轄市가 본도에서 分離 昇格해 나간 관계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금년을 "새로운 忠南時代"의 元年으로 삼는 도민의 의지를 한데모아 스믈아홉번째의 統計 年報를 펴냅니다.

이 연보는 忠淸南道의 道勢를 비롯하여 지난 1년간 우리 고장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성장과 변모되어가는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계수로 整理하여 收錄하였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발전되고 또 다기화 됨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統計가 요구됨으로써 가능한한 폭넓은 資料를 수록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補完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이 年報 發刊을 위하여 귀중한 資料를 提供하여 주신 관계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 謝意를 표합니다.

第26回 貯蓄의날

1989년 10월 31일

記 念 辭

땀흘려 수고한 사람만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 가을에 스물여섯번째 貯蓄의 날 記念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고장의 貯蓄運動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므로써 貯蓄優秀道로 오랜 전통과 명예를 빛내 주신 忠南道 貯蓄推進委員 여러분, 金融界 人士와 關係公務員, 그리고 道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알뜰히 貯蓄하여 내일의 希望을 가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 貯蓄 有功 受賞者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처럼 勤儉節約을 강조하고 일상생활 속에 貯蓄을 體質化 할 것을 다짐하는 것은 貯蓄이 바로 오늘까지 애써 노력한 생활의 보람이며 밝고 健康한 내일을 約束해 주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보다 진보된 앞날을 目標로 하면서도 땀흘려 일하고 받은 보수를 그때 그때 다 써버리고 내일을 위해 한푼도 節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節約과 貯蓄의 문제는 꼭 물질적인 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신과 물질 모든면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현실에 적응하고 앞날에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크고 遠

大한 未來를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자기 運命에 끌려다니거나 예기치 못한 난관에 좌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처럼 貯蓄과 安定된 生活 그리고 미래에 관한 設計와 希望은 한 個人이나 國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천년동안 찌들었던 가난을 물리치고 國民所得 5,000불을 눈앞에 두고 90년대 중반 1인당 소득 1만불의 달성과 함께 先進國의 到達에 自信感을 가진것도 따지고 보면 勤勉節約과 貯蓄으로 온 국민이 한데 뭉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社會의 일각에서 이처럼 소비에 대한 절제와 자기분수를 잃어버린 過消費 現像과 浪費風潮가 고개를 들고 있음은 우리 국민의 公敵이요, 경계의 對象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 마음대로 쓰고 먹고 놀아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부유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 國家와 時代가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동반적 차원에서 볼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姿勢라고 하겠습니다.

근면하고 검소한 生活姿勢, 그리고 나와 우리 家族, 더 나아가 地域社會와 國家를 위한 貯蓄은 어느 한 시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소중한 德目으로 가꾸어져야 하고 자손만대에 물려 주어야할 精神遺産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貯蓄의 날을 계기로 우리 忠淸道民이 사려깊은 智慧와 끈질긴 實踐力을 토대로 貯蓄의 나라, 韓國을 이룩하는 기수가 될 것을 이자리에 계신 貯蓄關係者 여러분과 함께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公設運動場 竣工및 第2回 公州市民 體育大會

1989년 10월 31일

激 勵 辭

친애하는 公州市民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公設運動場이 마침내 竣工되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가을을 축복하고 화합을 다지는 두번째의 市民 體育大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자축합니다.

본인은 먼저 이 공설운동장의 준공이 있기까지 땀흘리고 정성을 쏟아주신 工事參與者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심양면으로 聲援을 베풀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이곳 公州 公設運動場은 지난 84년에 시공의 첫 삽질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비로소 오늘 우람한 모습을 시민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공 테이프를 자르면서 더많은 욕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만큼의 훌륭한 施設을 갖춘 運動場은 우리 忠南道內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좋은 競技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忠南은 大田直轄市 분리 이후 전반적으로 선수의 부족을 비롯해서 競技力 水準은 물론 시설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초가을 全國遞傳 결과 우리忠南이 14위라는 成績이 말해 주듯이 우리 道民에게 분발과 재기의 활기찬 意慾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公州市 公設運動場의 준공은 둘로 나뉘어진 忠南 體育의 再起와 지난날

영광의 만회에 큰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이처럼 넓은 運動場은 비단 운동경기 뿐만 아니라 6만 시민 여러분의 만남의 광장으로서 시민의 단결과 市政 發展의 원동력을 결집하는 시민의 廣場이라는 점에 더욱 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장에서 忠南體育, 그리고 韓國體育을 빛내줄 훌륭한 선수가 배출되고 아울러서 百濟文化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는 市民文化의 샘터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친애하는 선수 여러분! 그리고 公州 市民 여러분!

운동경기는 단순한 체력과 기량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마음의 벽을 헐고 이상과 뜻을 합치며 鄕土愛를 나누는 廣場이며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람찬 내일을 창조하려는 地域社會의 團合된 힘의 과시입니다.

오늘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응원하는 가운데 先進 公州市民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바로 이곳에서 道民 體育大會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울어지는 이 체육대회는 곧 내년도 道民遞傳을 위한 準備라는 점에서 더 큰 참여와 호응이 요청됩니다.

지난번 第35回 百濟文化祭에서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성숙한 모습이 본 體育大會에서 알차게 결실될 것으로 믿어마지 안습니다.

친애하는 公州 市民 여러분!

아무쪼록 뜨거운 愛鄕心으로 뭉쳐진 이 한마당 잔치를 고장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 오늘을 값지게 結實하고 내일의 希望찬 씨를 뿌리는 밝은 모습에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월



▲ 자연보호 활동

1989

1989년 11월 2일

訓　　示

벌써 10월달이 지나가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풍성한 가을을 수확한 기쁨속에 새로운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일하는 좋은 季節입니다.

1년간 땀흘려서 일한 結實을 거두면서 스스로 지난날의 노력에 대한 가슴 뿌듯함을 느끼는 農民들과 같이, 우리도 지난 1년동안 道政遂行 結果를 되돌아 보면서 反省해보고 새로운 覺悟를 다짐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중에서 지난날을 回顧하고 反省할줄 아는것은 오직 萬物의 靈長인 사람만이 할수있는 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적으로 볼때 작년 10월에 이어서 두번째로 盧泰愚 大統領께서 美國을 訪問하셔서 上·下兩院 合同會議에서 우리의 입장을 演說을 통해서 발표하시면서 南北關係와 韓美關係 그리고 世界史에 우리가 기여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共感을 얻고 돌아오셨으며 또 南北韓間 國會會談, 體育會談등이 활발이 전개되어서 南北交流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더욱 부풀게 하기도 했습니다.

忠南道로서는 大田直轄市 분리이후 처음으로 道民體育大會를 天安에서 개최하여 우리 忠南道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道民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고, 과거의 百濟文化祭가 한낱 지방단위의 행사나 놀이에 그쳤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단위행사로 승격시켜 개최하므로서 百濟文化의 再現에 새로운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많은 地方에서 文化 體育行事를 통해서 道民들의 士氣를 높이고 우

리의 現住所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엊그제 30일에는 출신 國會議員들에게 道政을 보고해 與·野 할것없이 합심해서 지역발전에 協力할것을 다짐하는 모임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 한달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권역별 開發計劃의 지역별 公聽會 개최입니다.

그간 開發計劃은 행정이나 官이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이번 권역별 開發計劃은 道에서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公聽會를 가진 후에 권역별로 4개 都市를 巡廻하면서 400-500명정도 주민참석하에 地域 公聽會를 개최하고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協調와 參與를 당부하므로서 많은 道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行政에 대한 信賴를 높이는 成果를 거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長期計劃의 樹立은 그 중요성을 차치하고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道民들의 參與를 구하여 協調를 받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1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몇가지 우리가 생각해야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만이 과거를 회고하고 자기의 잘못과 공과를 반성하는 特權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지난날을 回顧하는것은 비단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만 회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시정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자 反省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 1년의 道政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잘했던 부분과 잘못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아 보는 것은 11월 한달동안 우리가 해야될 일중 중요한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을 되돌아 보는것은 비단 연말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달 두달의 여유를 가지고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計劃과 目標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우리 忠南 道政은 大田直轄市가 분리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忠南이 그동안 開發에서 소외되었다고 하여 "늘 우리는 무대접을

받는 道다", "湖南은 푸대접이고 忠南은 무대접이다"라는 自嘲섞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무대접론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부임한 뒤에 우리 道民과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대접을 못받은것이냐 아니면 대접받고자 노력한것도 없으면서 소극적인 자조적 무대접론을 들고 나온것이냐 自問自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반성속에서 지난 10개월동안 우리가 땀흘려 노력한 결과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생각이 이제 우리는 그러한 무대접론에 집착할 만큼 "忠南이 소외된 지역은 아니다"하는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발표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전체 22조원이 투자되는 國家西海岸開發計劃중 우리 忠南은 21%에 달하는 약 4조7천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면 현상황은 修正과 補完이 이루어져 보다 많은 사업이 새로운 忠南發展에 投資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초부터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 나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온 결과가 우리 주변에서 무대접론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낳게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道政의 3大 目標로 설정하고 추진하여왔던 精神, 物量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道勢回復施策은 우리 道民들에게 큰 共感을 불러 일으켰고 그 성과도 可視的으로 道民들에게 손에쥐어 질수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을 뿐만아니라 發展指標로 볼수 있는 工業化 施策 같은것은 우리가 目標했던 당초 목표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이러한것은 우리 行政公務員들이 스스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을 뿐만아니라 내일과 미래에 대한 豫測과 展望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정진하는 지혜와 슬기를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지난 道政의 成果를 되돌아 보면서 그렇게 만족하거나 또 그 결과에 안주할 정도만은 아니었으며 여러가지로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난해 11월달은 여러분들에게 두가지 당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중하나는 우리 公務員 社會에서 가장 필요한것이 信念과 勇氣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가 올림픽을 끝내고 國定監査를 마친뒤에 公職社會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信念과 勇氣를 가진 公務員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를 豫測하고 새로운 目標를 設定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수 있는 자기 啓發努力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한기억이 납니다.

특히 내가 그때 여러분에게 신념과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것은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 오면서 國家發展의 주역이었으며 조금도 변함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忠南 發展을 이끌어가는 主役으로서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1년을 지난뒤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公務員들이 가져야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슨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던져서 일을 할 수 있는 勇氣가 필요합니다.

물론 公務員들이 현재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어떤 경우에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현실문제에 억매여서 내일을 設計하는데 게을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면 發展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향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行政風土를 보다 발전시켜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면서 가난을 물리치고 배고픈 國民들에게 배고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했고 올림픽을 치루어오면서 民主化를 이룩해 낼수 있는 土壤을 닦아서 우리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이지만 그 힘을 합칠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선배들의 땀과 피가 배어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림픽을 치러낸 矜持와 底力을 바탕으로 또 다시 民主主義를 꽃피워서 선진된 조국의 모습을 國民들에게 보여 줘야 되며 더나아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물론 우리 後孫들에게 까지도 보다 發展된 조국의 모습을 안겨줄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公職者로서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것도 社會·經濟·政治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아직 定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長官님께서 부임하시면서, "長官職을 걸고 治安 確保는 물론 國法秩序를 確立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년말까지 우리가 長官의 공약을 뒤받침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내가 道政을 수행하면서 信念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上下組織이 위사람은 아랫사람을 믿을수 있고 아랫사람은 위사람을 믿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組織이 살아서 움직일수가 있습니다.

內務 行政組織은 특히 長官을 정점으로 해서 이러한 上下 信賴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責任과 權限을 확실하게 행사할때에 행정의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주변에서 보면서 나는 다시한번 이러한 內務行政의 상하 信賴를 더욱 더 공고히 다질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새로운 忠南時代를 創出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1년동안 노력해온 바탕위에 90년도의 設計를 해야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중순 이전에 내가 여러 幹部職員들을 함께 모아서 내년도 事業계획을 報告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90년 우리 道政은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道勢回復시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道民들에게 可視的으로 보여줘야 되는 課題와 함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국가적인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발을 해야될 연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90년에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11월 중순 이전에 새로운 道政의 方向과 計劃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90년 道政遂行의 指標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 이러한 道政開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 안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두달이 남았습니다.

12월에 가면 우리가 해야될 일을 챙기기 전에 한해가 넘어가는 속도가 더욱 加速化 되서 우리앞에 다가옵니다. 일할수 있는 시간이 이제 겨우 금년은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問題 解決에 너무 급급해서 단기적인 行政을 수행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는 예지와 함께 미래를 지향하는 자기 발전 노력, 자기 계발의 노력을 기울여 줌으로써 우리 道政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일에 대한 目標의 設定은, 어렵고 외로운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前進할수 있는 方向으로 모색되어 지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오늘과 같은 긍정적인 道政評價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남은 금년 두달 동안에 最善을 다해서 道政을 마무리짓고 '90년에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큰힘이 비축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협심 노력할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합니다.

綜合土地稅 施行에 따른 市長郡守·邑面洞長에게 보내는

1989년 11월 3일

書 翰

한해 동안 땀흘려 일한 結果를 收穫하고 지난일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귀직을 비롯한 산하 公務員들의 보람과 幸運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 忠南 道政에 많은 변화와 분발을 촉구한 해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信念과 勇氣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귀직을 비롯한 일선 市長, 郡守, 邑, 面, 洞長등 전체 공무원이 힘을 한데 모아 人本行政과 道勢 回復에 저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忠南 時代의 元年을 알차게 장식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政府에서는 지금 땀흘리지 않은 소득으로 過消費와 향락 분위기를 助長하므로써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갈등의 한 要因이 되고 있는 不動産 投機對策의 일환으로 綜合土地 稅制의 시행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綜合土地稅制는 地方自治를 앞두고 우리 地方財政의 自主財源 確保 차원에서도 매우 소중한 과제인 만큼, 기초자료의 충분한 뒷바침과 주도면밀한 計劃 아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公務員들이 熱과 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業務와 企業 活動에 비해 필요이상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과다한 土地의 保有는 곧 생산이나 경제활동에 관계없이 地價 上昇만을 노리는 不動産 投機의 目的이 다분하며 노력한 대로 성과를 기대하는 民主社會의 理念이나 社會正義 實現의 차원에서 볼때, 토지의 편중된 소유는 地域開發이나 住宅普及, 産業施設 誘致등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와 지역의 均衡開發,그리고 福祉 均霑이라는 목표를 두고 第 6共和國이 들어선후 일대 稅制改革의 次元에서 실시하는 본 綜合土地稅制가 국민적인 공감과 협조속에 큰 成功을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의 關心과 努力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綜合土地稅의 成功은 완벽한 地押調査와 정확한 電算入力資料 作成, 그리고 추진일정 엄수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方法을 강구 시행하되 본 업무 추진상의 問題點이나 隘路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해결하여 관계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業務에 임 하도록 할 것을 당부합니다.

앞으로 남은 두달동안 미진된 사업을 재 점검하고 道勢回復을 위한 第 2次年度 計劃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귀직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奮發과 精進 그리고 健康과 가정의 多福을 기원합니다.

熊本懸知事에 對한

1989년 11월 4일

書 翰

국화향기 그윽한 晩秋, 먼저 知事님께 안부 드립니다.

최근들어 忠淸南道와 熊本縣의 활발한 交流에 기대와 보람을 느낍니다. 더우기 農協中央會 忠淸南道支會에서 熊本縣 農協中央會와의 姉妹結緣을 통해 양 道·縣 농협간의 友好增進과 農協交流에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元喆喜 農協中央會忠淸南道支會長이 熊本縣 農協中央會長과 상호 교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知事님께 향후의 支援과 協力을 요청하기 위하여 귀 縣을 訪問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7년을 맞는 忠淸南道와 熊本縣의 友好交流는 이제 완전한 성숙단계로 접어 들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양 道·縣 農協間 姉妹結緣은 우리의 우호증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양 농협간 건설적인 意見交換이 오간 다음 姉妹結緣 締結이라는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知事님의 각별하신 配慮와 支援을 희망합니다.

앞으로 忠淸南道와 熊本縣간의 友情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하면서 熊本縣政의 발전과 知事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第4回 忠淸南道知事 盃 골프大會

1989년 11월 5일

致 辭

풍요한 결실과 思惟의 가을에 우리 忠南의 골프家族이 한데 모여 第4回 忠淸南道知事 盃 골프大會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대회가 그동안 골프인의 저변 확대와 優秀選手의 育成에 기여 한바 큰데 대하여 골프가족 여러분과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大田의 直轄市 분리 승격이후 행하여 지는 첫 행사로써 새로운 출발과 忠南 골프의 跳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골프 競技는 이제 대중스포츠로써 定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평소 복잡한 都市 生活에서 벗어나 자연과 접하면서 스포츠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政府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골프 人口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순수한 스포츠로 育成하기 위해 골프에 대한 제반 업무를 體育部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골프는 우리 地域社會의 和合은 물론 건전한 대중 스포츠로 토착되어 國民體力 向上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고장의 골프家族 여러분!

이번 第70回 全國體典에서 우리 忠南 選手團은 전력면에서는 큰 기대를 갖지않고 출전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선수단은 정정 당당하고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여 模範 選手團 賞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忠南 體育은 어린 꿈나무 선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망 끊임없는 訓練, 따뜻한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는 道民의 精誠을 한데모아 머지 않은 장래에 忠南 體育의 名譽를 기필코 되찾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경기를 계기로 보다 많은 우수한 선수가 발굴되고 우리 忠南골프의 水準이 한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우리 忠南人의 禮節 바른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忠南 골프 再跳躍의 元年을 알차게 장식할 것을 다짐합니다.

골프 大會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송도영 충남 골프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選手 여러분의 善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第41回 道民 體育大會를 마치고 各界에 보내는

1989년 11월 6일

書 翰

만추의 11월에 고당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항시 本道 體育發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天安市에서 개최되었던 第41回 道民 體育大會는 忠南 體育의 兩分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라는 의미와 충남 체육의 재기를 다짐하고 道民和合을 보다 슬기롭게 창출하는데 커다란 成果를 거둔 體典이었습니다.

고장의 명예를 위하여 끝까지 선전분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을 뒷받침해 주시고 뜨거운 應援과 激勵를 아끼지 않으신 것 우선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흘간의 대회 기간중 경기에 임했던 선수와 임원들의 진지하고도 힘찬 氣象은 우리 道民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긍지를 심어 주었으며, 도민 여러분의 질서있고 뜨거운 응원은 우리 忠南人의 더욱 단결된 모습과 전통적인 底力을 다시 確認할 수 있었던 것이 가슴 뿌듯합니다.

이제 우리 체육인과 도민 모두는 스포츠는 물론, 道政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내일의 忠南時代를 위한 도민의 智慧와 힘을 모으는데 精誠을 다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정겨운 응원과 함께 베풀어주신 온정은 榮光의 忠南體育 再建에 밑거름이 되고 活力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저희 충남체육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격의없는 助言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感謝드리면서, 하시는 일에 더 없는 행운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第6代 새마을 運動 忠淸南道支部會長 就任

1989년 11월 7일

祝 辭

오늘 우리 고장의 새마을 運動을 이끌어 주시고 뒷받침 해주실 吳長燮 새마을 運動 忠淸南道支部 會長님의 뜻깊은 就任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곳 天安에 와주신 金壽鶴 새마을운동 中央協議會 會長님과 여러 기관장님, 사회 단체장님, 그리고 地域社會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에게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고 저력있는 모습을 간직한 우리 忠南道 새마을 運動을 이끌어 주실 신임 吳會長님은 평소 전형적이고 진취적인 忠淸人이라고 느껴왔습니다.

일찌기 鄕土企業에 투신하여 地域經濟에 이바지하고 道民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유수한 기업으로 키우신 의지와 더불어 地域社會와 韓國 JC運動을 주도해 오신 吳會長님의 力量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道民體育의 참신한 指導者로서 한 때 조정의 불모지였던 忠南體育에 뜻을 두고 오랫동안 指導力과 精誠을 쏟아주신 결과 이번 全國 體典에서 조정 忠南의 名譽를 드높인 것도 오회장님의 숨은 공로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 걸쳐 고장 발전에 앞정서 주시는 오회장님의 力量이 앞으로 우리 새마을 運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忠南道에서는 지난

1년동안 道義 새마을 運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개하여 道民의 큰 호응과 함께 뜻있는 사람들의 注目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70년대 우리의 새마을 운동이 보리고개를 없애려는 가난 몰아내기 운동이었다면 80년대의 새마을은 너무 經濟成長에 치우치고 몰두한 점에 대하여 反省하고 精神과 物質의 調和에 힘을 쏟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90년대를 불과두달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난날을 回顧하고 點檢하는 한편 새마을 運動의 먼 장래를 생각해 보는 일이 매우 소중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고장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指導者를 맞는 자리에서 본인은 90년대 우리의 정신적 成熟을 目標로 하는 문화적 새마을 운동, 다시 말해서 道德的 새마을 運動의 활기찬 전개를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禮節과 孝道, 그리고 忠節의 전통적 遺産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 고장에서 씨뿌려진 이 精神새마을 運動이 지역사회의 繁榮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가 있기를 祈願하면서 오늘의 뜻깊은 새마을運動 忠南道支部 會長님의 취임식을 다시 한번 祝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第7回 道知事旗타기 태권도 選手權大會

1989년 11월 8일

激 勵 辭

친애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忠南 태권도의 도약과 성숙을 목표로 한 第7回 道知事旗 타기 태권도 大會가 이처럼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다른 경기와 달리 技倆과 體力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禮義와 함께 競技規則을 준수하는 것이 엄격한 우리 고유의 傳統武術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우리 전통 체육인 태권도가 세계 70여개국에 우리 韓國과 韓國人의 矜持를 드높이는 민간 외교사절로 國威 宣揚에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더욱이 가까운 장래에는 올림픽 競技의 正式 種目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태권도 宗主國으로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기량을 연마하는데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忠南 태권도는 지난번 서울에서 개최된 世界 태권도 選手權 大會의 밴텀급에서 女子 選手가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금년 제70회 전국체전에서도 많은 메달을 차지하여 태권도 忠南의 名譽를 과시 하였습니다.

우리 태권도도 다른 체육종목과 마찬가지로 大田直轄市 體育會의 분리 승격에 따라 많은 선수와 후원 인사들이 둘로 나뉘어진 만큼 새로 시작한다는 信念과 勇氣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장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가 지난 全國体典에서 다소 아쉬운 成績을 가져왔습니다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충남인 특유의 저력과 투혼의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忠南의 태권도가 다른 体育種目 보다도 재빠르게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다음 강한 집념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점을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회에 출전한 여러 선수들의 자신에 찬 모습에서도 그러한 忠南 태권도의 앞날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優秀 選手를 더 많이 발굴하고 競技規則이 훌륭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이 돋보이는 모범적인 大會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선수 여러분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힘껏 발휘하여 勝利의 기쁨과 함께 고장의 名譽를 한껏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고장의 태권도 競技力을 決算하는 본 대회를 준비하시기에 애쓰신 태권도 協會 이종승 會長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선수 여러분의 선전분투를 기원합니다.

1989년 11월 9일

大 會 辭

오늘 우리道民에게 노래를 통해서 밝은 웃음과 차분한 정서를 제공해주는 금년도 合唱競演大會가 이처럼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평소 바쁜 생활 가운데도 틈을 내어 이웃과 고장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하고 정을 나누어줌으로써 地域社會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신 合唱團員, 후원인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처럼 人類의 起源과 더불어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고 순화시키는 노래가 있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 때로는 억제할 수 없는 고뇌와 마음속의 갈등을 가라앉힐수도 있고 내일을 향한 더 큰 의욕과 힘을 샘솟게 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노래의 매력 더 크게 말해서 音樂의 效果와 影響力은 오늘날 우리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건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共感하는 일입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임을 느끼는 것은 먼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자신을 초월하는 協同과 調和의 精神입니다.

다른사람보다 더 높거나 낮은 음정을 내서도 안되고 더 길거나 짧은 박자를

내서도 안되는 일체감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 마을, 한 職場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한뜻으로 노래를 부르는 所屬感입니다.

오늘 여러 합창단이 이 合唱競演大會에 나오시기까지에는 연습을 하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근본적인 바탕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남에게 기쁨을 준다는 結束의 所産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노래를 合唱하는 순간 스스로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울적한 마음일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마음의 평정을 되찾습니다.

너무 기쁠때 노래를 불러도 격정을 가라 앉힐 수 있습니다. 또 슬플때 조용히 노래를 부르면 시름을 거둘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아름다운 노래 밝고 건전한 선율만이 우리의 마음을 순화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바쁜 생활의 여가를 틈내어 갈고 닦은 合唱團 여러분의 가창력과 화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第16回 大日飛虎大賞施賞式

1989년 11월 10일

祝 辭

오늘 우리 忠淸人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감동을 주고 있는 大日飛虎大賞이 그 열 여섯번째의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웃과 지역을 위해 조용히 奉仕하고 보람을 쌓으신 다섯분 受賞者에게 진심으로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施賞式에는 각급 機關長님과 각계의 人士, 그리고 受賞者 여러분의 가족친지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이제 大日飛虎大賞은 고장개발과 地域社會 文化發展에 있어 밝은 빛을 주고 소망을 밝혀 주는 하나의 燈臺가 되고 있습니다.

社會奉仕를 비롯한 여러부문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사르어 이 시대를 밝혀 가는 진실한 일꾼들을 발굴, 표창해온 大日飛虎의 발자취 16년, 그것은 우리 세대 참 人生의 證人이요 오늘을 떠받치고 希望의 未來를 여는 主人公들이 진실된 奉仕를 보여주신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다섯분이나 지난날 賞을 받으신 분들 모두 남에게 보여주고 認定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奉仕하는 것이 참으로 價値있는 이시대의 보람임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찬사를 드리는 것도 受賞에 대한 단순한 祝賀의 뜻이라기 보다는 상을 타시기까지 숨겨진 노고와 공로를 생각함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奉仕와 獻身은 더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잎을 피우고 무성한

가지를 키워 보다 성숙한 奉仕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분들의 그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남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奉仕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參與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社會 곳곳에는 자기만 잘 살고 이익을 보려는 利己主義, 남이야 어떻든 나만 무사하면 그만이라는 個人主義,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과제를 외면한 사치와 浪費風潮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위기적 狀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危機를 危機라고 외칠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므로 급박한 위기를 맞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智慧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社會의 그늘에서 웃음을 잃은 이웃에 대한 봉사와 함께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 대한 奉仕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의 價値와 德目을 외면한 채 아무리 所得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를 쌓아 올린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福祉와 繁榮, 그리고 先進化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함께 마음도 富者인 社會의 建設을 위해 앞으로 훌륭한 受賞者가 끊임없이 배출될 것을 기원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施賞式을 주관해주신 徐春源 社長님을 비롯하신 大田日報 社友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1월 10일

祝 辭

평소 존경하는 姜錫圭總長님!

그리고 채경석地域開發 研究所長님을 비롯하신 湖西大學校 家族여러분!

오늘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각계 著名人士를 모시고 第2回 地域發展 學術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우기 본도가 大田直轄市 분리 이후, 약화된 道勢回復에 200만 道民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주신 학교측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忠南은 예로부터 찬란했던 百濟文化의 古都가 있는 곳으로써 많은 偉人烈士 碩學을 輩出하여 學問과 禮節을 중시하는 양반과 선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忠南은 지리적으로 國土의 中心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開發이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의 傳統과 드높은 矜持는 우리들 모두의 가슴속에 면면히 이어져 西海岸時代의 忠南開發을 이끌어 나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이러한 도민의 輿望에 조금이라도 副應하고자 西海岸圈綜合開發計劃과 이를 실천적으로 推進할 수 있는 圈域別開發計劃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23일 이 地域 牙山郡廳에서 地域公聽會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政府에서 발표한 國家西海岸 開發事業에는 그러한 도의 開發

計劃이 우리 地域出身 國會議員님들과 200만 도민 모두의 아낌없는 聲援과 적극적인 支援으로 대폭 수용되어 2001년까지 30개사업에 4조3천755억원을 投資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執念을 갖고 땀과 슬기를 모아간다면 "새로운 忠南時代"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공간적 측면에서 볼때 大田直轄市 昇格으로 地域的 中心都市는 喪失하게 되어

○ 天安을 中心으로 한 서북부지역은 首都圈으로

○ 舒川을 中心으로 한 남부지역은 群山圈으로

○ 錦江을 中心으로 한 동남부지역은 大田圈으로

각각 地域經濟力이 유출될 가능성도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忠南時代"의 기본적 과제는 지역적 응집력을 어떻게 强化 하면서 약화된 道勢를 조기에 回復하고 國家西海岸 開發事業 추진을 계기로, 우리 모두의 意志와 슬기를 모아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본도에서는 금년을 "새로운 忠南 開發의 元年"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3大目標와 3大力点施策을 계획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80만평의 工業團地 面積을 92년이면 천만평 규모로 확장하는 등 약화된 도세를 기간으로 보아 짧으면 3년, 길어도 5년 이내에 완전히 回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움의 主題가 되고 있는 "西海岸開發과 忠南西北部 地域의 未來"는 더욱 밝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西海岸時代의 가장 큰 배경이 되어왔던 中國의 經濟 開放改革政策과 지난 5月 천안문사태 이후 다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최근 경제발전과 복지의 꿈은 최근 中國 國民가슴속에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으며 널리 퍼져있는 發展과 福祉의 욕구를 감안할때 일시적 政治問題는 될지언정 開放의 물결은 지속될 것으로 展望되며 더우기 유럽공동체에 대응할 만한 西太平洋 經濟圈이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어 소련등 東歐圈의 變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역은 더욱 擴大될 것으로 서해안시대를 追求하는 우리 道의 開發은 매우 樂觀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일뿐이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恩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挑戰하는 진취적인 民族만이 영광된 歷史를 創造할 수 있었다는 토인비의 學說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밖의 나무들이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할때 땅속의 뿌리는 이미 다음해의 새싹과 꽃을 피울 準備를 한다는 평범한 眞理를 항상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심포지움이 우리는 물론 우리 後孫들이 길이 살아갈 이땅의 새싹과 꽃을 피우기 위한 뜻깊은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와 같은 忠南開發의 好機를 어떠한 青寫眞과 投資基調를 갖고 環境을 保存하면서 發展의 값진열매를 맺어나갈 것인가하는 좋은 고견들이 오늘 이자리에서 開陳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開發이라는 것은 우리가 先代로부터 물려 받은 이 자연과 입지적 여건을 變化시키고 바꾸는것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大自然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保存 하면서 꼭 필요한 것만을 활용하는 智慧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심포지움은 더욱 뜻깊다 하겠습니다.

더우기 開發은 한번 그르치면 그것을 바로잡기위해 적어도 100년 200년의 세월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永遠히 고칠 수 없는 後悔를 남긴다는 점도 우리는 念頭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심포지움이 우리 地域 發展의 방향을 찾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개교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심포지움을 개최해주신 湖西家族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 찬란한 우리의 꿈과 이상, 우리의 미래를 역사적 현실로 創造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主人이 되어 힘차게 매진하자고 提言드리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第3回 忠淸南道 産業美術大展

1989년 11월 11일

激 勵 辭

겸허한 사유를 권유하는 이 가을에 세번째의 忠淸南道 美術大展이 이처럼 내실있게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産業美術은 일상생활에 친숙히 쓰여지는 생활용품이나 주위환경을 예술의 차원에서 실용화하고 가꾸는, 말하자면 生活의 藝術化 運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또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은 오늘날 그 실용성과 내구성에 더하여 消費者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디자인과 포장도 賞品價値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쓰면서 또 감상할 수 있는 상품, 이것이 바로 점점 높아가는 소비자들의 취향이고 생활과 예술, 그리고 産業의 藝術的 욕구가 점점 높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고장에서 産業美術 公募展을 갖게된 것이 매우 일천합니다만 傳統文化와 예술의 토양이 기름진 지역의 특성으로 볼때 머지않아 이곳 忠淸地域이 가장 앞서가는 산업미술의 先進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産業과 藝術의 調和, 그리고 공존속에 복잡한 産業 社會를 보다 여유있고 운치있는 사회로 가꿀수 있다고 믿으며, 본 實用美術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예년보다 향상된 공모의 열기 속에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受賞者 여러분에게 祝賀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많은 창작의 열정과 産業美術의 發展을 기원합니다.

산업미술 공모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韓國藝總大田忠南道支會의 藝術人 여러분, 심사를 맞아주신 심사위원, 그리고 각계의 聲援에 대하여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百濟의 얼 象徵塔 除幕 登山大会

1989년 11월 11일

致 辭

百濟의 옛터를 찾아오신 巡禮者 여러분!

그리고 燕岐郡民 여러분!

국화향기 그윽한 이 늦가을의 주말에 유서깊은 雲住山城에서 우리 祖上을 생각하고 百濟의 후예임을 자랑하는 登山大會를 갖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후의 한사람까지 강인한 百濟精神를 보여준 抵抗의 史蹟地를 이처럼 잘 保存하고 또 오늘의 百濟의 얼 象徵塔을 세울만큼 선대의 유산을 가꿀 줄 아는 고장의 鄕土史家와 郡民 여러분의 역사 의식에 대하여 경의를 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雲住山城은 그토록 찬란했던 7백년 百濟歷史, 안타까웠던 百濟 최후의 復興運動 그리고 일천삼백여년 동안의 神祕와 恨을 간직한채 말없이 살아있는 百濟의 자취요 엄숙한 歷史의 現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5千年의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祖國光復 이후 격동을 거듭한 시대의 난국을 헤치면서 우리 선인들이 남기신 유형무형의 遺産을 소중히 가꿀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오늘을 反省하면서 우리의 선대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未來를 가늠할 시점에 이른만큼 이러한 歷史와 文化의 現場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이러한 歷史意識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선대의 소중한 遺産들을 아주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른나라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日本의 경우 자기 고장의 鄕土史와 그 現場을 가꾸고 保存하는데 힘을 쏟는 주민들의 모임이 무려 3천여개의 組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의 기원이나 民族文化의 양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볼때 그들과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한 우리가 오늘 보여 줄 것이 과연 무엇인지 郡民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봅니다.

친애하는 燕岐 郡民여러분!

우리 周邊에는 이곳 雲住山城 말고도 군민여러분이 가꾸어야할 歷史遺蹟은 얼마던지 있습니다. 이 모든 遺産을 우리가 하루 아침에 찾고 가꾸고 또 정리 할 수는 없지만 평소 깨어진 기왓장 한 조각 이끼 푸른 한덩이 돌에도 우리 祖上의 체취를 헤아리고 歷史의 눈으로 바라보는 슬기와 애정이 있어야 옳을 줄 압니다.

이처럼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장 먼저 보여 주시고 또 활기찬 意慾과 實踐을 과시하는 오늘의 행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郡民여러분에 의해서 소중히 가꾸어 지는 모든 역사의 현장이 百濟精神을 계승하는 우리 道民을 善導하고 먼 훗날 우리 後孫들에게 값진 遺産으로 물려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在 서울 忠南出身 公務員에게 보내는

1989년 11월 13일

書 翰

고향들녘에 국화꽃 향기 그윽하고 오색단풍이 한해의 땀을 축복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健勝하시고 댁내 두루 平安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고향을 아끼고 지원하여 주시는 덕분으로 이 고장에 살아가고 있는 200만 道民들은 希望과 勇氣를 잃지 않고 大田분리이후 약화된 道勢回復에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忠南發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도민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서울에서 두번째로 가졌던 "고향을 생각하고 發展을 祈願하는 忠南人의 밤" 행사는 간곡하신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으로써 金庸來 總務處長官님, 李揆成 財務部長官님등 입법,행정,사법부에 근무하시는 650여 鄕友님께서 참석하시어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信念과 勇氣를 갖고 道政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땅위의 나무가 겨울을 맞이할 때, 땅속의 뿌리는 明年의 새싹과 꽃을 피울 準備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또한 진취적인 사람만이 영광된 歷史를 創造할 수 있을뿐, 나태한 사람에게는 오로지 停滯와 落後의 역사적 업보만이 남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의 고향이 국난시에는 憂國烈士가 다수 輩出되었고 태평시에는 양반의 성품으로 기개와 學禮를 중시하던 고장이라는 自矜心이 면면히 가슴속 깊이 내재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는 먼훗날 후손들에게 까지도 그 자랑스웠던 傳統이 이어져 希望과 祝福의 땅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責務를 게을리함이 없이 온 精誠과 땀을 다 쏟을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忠南이 더욱 發展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激勵와 支援을 아끼지 말아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사 당일의 道政報告書와 手帖을 동봉하여 드리오니 미흡하나마 뜻있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4回 公山教育賞施賞式

1989년 11월 15일

祝 辭

오늘 우리 고장 敎育界에 소망과 보람을 안겨 주는 네번째의 公山 敎育賞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의 2세교육에 모든 智慧와 精誠을 다 바치신 공로로 公山敎育賞의 大賞을 받으신 徐光壁 校長선생님을 비롯하신 여섯분 선생님의 크신 業績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선생님, 그리고 내빈여러분이 모두 學窓時節을 거치고 성인이 되어 자녀를 기르고 계시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敎育者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귀중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일입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는 學科修業에서 시작하여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숱한 눈길이 쏟아지는 스승의 길은 차라리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애써 가르치는 弟子가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일때, 좀 더 잘 가르치고 訓育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는 敎育的 環境과 社會的 與件은 우리 선생님들만이 책임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무거운 宿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거운 짐만이 우리 선생님들의 몫은 아니며, 期待 이상으로 자라나는 弟子들의 成長過程과 함께 어린이들이 때로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스승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感謝할 때 선생님들은 뿌듯한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에게도 아직까지 모시는 어린날의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지난 봄 스승의 날에 溫陽에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도 결국 師弟間의 情은 永遠한 것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非 敎育的인 環境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敎育者들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나 待遇에 대하여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선생님들을 보다 우대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과제는 國家百年 大計를 내다보는 신념아래 우리의 전통적인 敎育德目을 존중해 나갈 때 우리의 2세교육은 더욱 밝은 내일을 기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地域社會의 敎育者 여러분과 學父母님들 그리고 오늘의 기성 세대들의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내일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賞을 받으신 여섯분 선생님도 그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와 보람 속에 어린 학생들을 한 사람씩의 人格體로 完成시켜 나가는데 밤과 낮을 잊으셨음을 道民과 더불어 致賀드립니다.

오늘 公山敎育賞을 받으신 선생님들의 제자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먼 훗날 선생님들의 노고를 보답하고 큰 기쁨을 드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敎育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 주시고 師道를 위로해 주시는 崔元碩 公山學園 理事長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忠節의 敎育家族 여러분에게 더많은 교육의 보람과 幸運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1월 15일

祝 辭

韓國에너지 研究所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 原子力이 도입된지 이제 한 세대의 시점에 이른 것은 모든 분야의 國家發展과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일수록 고도의 기술과 두뇌에 의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없다면 국가경제의 원천이 되는 산업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기원이후 부싯돌에서 얻은 섬광을 제1의 불이라 한다면 에디슨의 전기를 제2의 불 그리고 原子力의 發見은 제3의 불이라하여 人類의 繁榮과 産業文明을 가름짓는 분수령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옛 성현의 한 말씀에 소에게 뿔을 주었으나 강한 이빨을 주지 않았고 말에게 물을 수 있는 이빨을 주었으나 받아 넘기는 뿔을 주지 않았듯이 造物主가 우리나라의 땅 위에는 뚜렷한 4계절과 함께 錦繡江山을 주었으나 땅밑에 풍부한 地下資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지혜와 노력, 그리고 근검절약에서 우리의 生存과 繁榮을 創造할 수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원자력 30년은 곧 이러한 賦存資源의 여건을 극복하려는 피나는 努力과 克服의 기간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원자력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하니 참으로 깊은 감회와

더불어 國民的 自負心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중수로 핵연료의 국내 자급은 물론 경수로의 국내공급과 함께 원자력의 平和利用에 대한 國內技術이 완전 自立段階에 와있음은 가슴뿌듯한 기쁨입니다.

앞으로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의 차원을 넘어서 의학과 생명공학, 해양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모든 産業과 科學의 연관 기술로 하여 원자력 에너지와 應用技術이 곧 한 나라의 科學技術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너지 연구소가 그러한 국가기술 축척의 先導的 役割을 다하고 民間企業에 고도의 技術을 提供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에너지 연구소는 韓國의 테크노폴리스인 大德研究團地의 핵심두뇌 집단으로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 中部圈發展에도 많은 貢獻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장년의 연륜과 전통, 그리고 첨단기술을 축적한 韓國에너지 研究所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성취가 있기를 바라마지 안습니다.

아울러 한필순 所長님을 비롯한 研究陣, 그리고 직원여러분 모두에게 幸運과 榮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歸順勇士와의 朝餐

1989년 11월 16일

人 事

귀순용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로만 듣던 발전된 韓國의 모습 잘 보고 느끼셨을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억눌려 살던 北韓의 모습과도 적나라하게 비교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올림픽을 주도할 수 있는 세계의 선진 그룹에 올라 섰습니다. 그동안 南韓은 세계에서 16번째로 올림픽을 치루어 낸 큰 힘을 길러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선배들이 물려 준 土臺위에서 우리 세대가 서로 손 잡고 이룩한 귀중한 열매입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들은 피와 땀으로 가꾸어진 오늘의 현실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世代들에게 옛날의 어려웠던 일을 되살려서 일깨워 주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実證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훨씬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귀중한 行動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教育시키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젊음과 목숨을 바쳐서 쟁취한 자유를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서로 손 잡고 마음을 털어 놓고 지켜 가야 할 自由이고 祖國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쟁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쉽게 지켜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여러분들의 나섬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의미에서 致賀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극복 할 수 있는 힘을 비축 해 왔기때문에 조금도 서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자만에 빠지거나 오만에 빠지면 우리가 비축해 온 힘이 하나둘씩 빠져 나갔을때 오는 여러 가지 問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이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하나 씩 하나 씩 착실하게 고쳐나가면서 비축된 힘을 더욱 더 크게 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盧泰愚 大統領께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6共和國 政府의 가장 큰 노력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고, 政府에 몸을 담고 道政을 이끌어 가는 知事로서도 忠淸南道의 그러한 힘을 비축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너무 서둘러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 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大韓民國, 조국의 품에 안겨서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킬 각오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젊음과 목숨을 받쳐서 祖國을 위해 헌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보다 높은 이상을 위해 현실을 한 발짝, 한 발짝 씩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거듭해서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큰 勇氣를 가지고 祖國을 위해서 自由를 쟁취하기 위해서 좋은 여러분들의 체험을 들려 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自由와 民主를 위해서 진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에서의 生活이 더욱 더 幸福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모두의 소망하는 바가 成就되기를 빌어 마지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萬海 韓龍雲 禪師 語錄碑除幕式

1989년 11월 19일

祝 辭

오늘 우리 민족 정기의 샘터인 이곳 獨立紀念館에서 萬海 韓龍雲 禪師의 語錄碑除幕式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선사의 깊은 佛心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사상을 계승하시는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이처럼 소중한 萬海 선사의 語錄碑를 세우신데 대하여 충절의 도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처럼 萬海 禪師는 조국이 고통을 받고 시대가 격랑을 거듭하던 1870년대말 우리고장 洪城에서 태어나 한시대를 풍미한 근세의 한 思想家요 大禪師이며 文學家인 동시에 먼 앞날을 내다 본 改革者 이셨습니다.

禪師의 獨立意志가 집약된 朝鮮 獨立의 書, 그리고 己未獨立宣言文은 한때 좌절하고 체념으로 움츠렸던 우리 민족의 정수박이에 새로운 의욕과 독립정신의 찬물줄기를 부어주셨으며, 간악했던 日帝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禪師께서 말문을 열면 그 모두가 심오한 佛敎의 이론이요 사상이요 개혁이며 강한 신념을 내세운 실천이었습니다.

일찍이 일곱살에 大學이며 論語를 통달한 神童의 경지에서 부터 莊子의 註釋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글귀를 먹으로 지우신 강한 개성의 表出은 이미 무엇인가를 해낼것 같은 신념의 시작이요 암시의 성장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사는 또 맑은 聰氣와 思慮에 그치는 靜的인 學問에 그치지 않고 깊이 생각한 것을 꼭 實踐에 옮기고 주변에게 전파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行動家 이셨음을 追慕합니다.

萬海 禪師가 열 일곱살의 홍안으로 동학혁명에 가담할 만큼 어려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 의식을 내세운 것을 시발로 하여 속세와 인연을 끊고 홀연히 출가한 決斷力 그리고 끈기 있는 自己修鍊과 깊은 학문을 통해서 얻은 思想의 集大成, 이를 文學과 著書를 통해서 세상에 갈파하신 생애는 한시도 휴식과 침체가 없는 끊임없는 추구와 격동의 생애 그것이 었습니다.

禪師는 이러한 당신의 사상과 신념을 실제 사회 개혁에 반영하기 위해 독립운동과 연루된 獄苦에서 풀려나자마자 新幹會에 관여하고 결집력이 약했던 조선 불교 청년회를 青年同盟으로 활성화 시켜 정체와 나태에 빠졌던 韓國佛敎 改革에 情熱을 다 바치셨습니다.

오늘 제막을 본 語錄碑에 새겨진 것처럼 (自由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터럭처럼 여기라)는 禪師의 말씀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곧고 강직한 思想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곧 아직 분단된 조국과 함께 離散의 아픈 세월을 종식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에게 큰 교훈임을 깨달으면서, 김용원 회장님을 비롯하신 대한불교청년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민족의 自尊과 繁榮을 향한 同參과 분발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金庫聯合會 大田·忠南道支部會館起工式

1989년 11월 20일

祝 辭

오늘 우리 새마을 運動과 함께 地域金融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새마을金庫聯合會大田市·忠南道支部의 會館 起工式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起工式을 위해 大田에 오신 李圭貳 새마을 金庫 聯合會長님을 비롯하신 각계의 인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17년전 서로 돕고 사는 우리의 전통적 隣保精神을 바탕으로 시작한 새마을 貯蓄運動이 이제는 국민 경제생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金融組織으로, 그리고 새마을運動의 先導團體로서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치하드립니다.

오늘날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새마을金庫가 있기까지는 주민들이 貯蓄을 生活化할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새마을金庫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社會의 金融機關들이 돈을 맡기고 빌어 쓰는 극히 사무적이고 딱딱한 인간 관계와 단순한 去來로써 문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마을金庫는 금융거래의 이전에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음이 오가는 人間關係가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빠른 成長과 오늘의 소담한 結實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새마을 金庫가 더욱더 발전하고 차원높은 새마을 운동을 펴나가

면서 地域 經濟의 原動力으로 定着되려면 보다 완벽한 信用을 지킴으로써 우리 道民들이 이웃집에 오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맡길 수 있는 信賴性의 구축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地域社會의 住民, 그리고 우리 農漁村의 住民들이 함께 공감하고 보람을 나눌수 있는 金庫의 運營과 수익사업의 성공이 매우 소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을 金庫의 운영은 회원 모두가 參與하고 호응하는 가운데 추진되므로써 새마을 金庫가 단지 개인의 저축 활동과 與, 受信 업무를 넘어서 한 마을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忠淸圈의 發展에도 없어서는 안된다 하는 인정감의 획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民主化 社會는 한사람의 영웅적인 지도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끌어질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時代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문에 한사람의 특출한 能力이나 指導力 보다는 열사람 백사람의 意見과 智慧를 모으고 여기에서 결집된 중지를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우리 마을金庫의 발전도 이처럼 다양한 의견,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經營을 調和시켜 나갈때 더욱 친숙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새마을 金庫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오늘 다른 고장 보다도 모범적인 우리 忠淸圈 새마을金庫 聯合會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만 이 회관이 앞으로 우리 고장의 새마을金庫 育成을 위해 빈틈없고 원활한 운영을 지도하는 총 指揮所가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70-80년대 새마을運動은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信念과 함께 찌든 가난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 自立하는데 큰 成功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성숙한 90년대의 새마을運動, 그리고 2000년대의 先進社會를 바라보면서 精神과 物質을 調和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사는 원숙한 福祉社會를 위해 우리 새마을 貯蓄 運動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소망하던 忠南道 새마을金庫 會館의 起工式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姜錫朋 會長님을 비롯하신 고장의 30만 金庫 家族 여러분에게 무한한 幸運과 成就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保寧周浦 農工地區 起工式

1989년 11월 22일

致 辭

친애하는 保寧郡民 여러분!

희망찬 미래의 고장 保寧郡에서 군민 여러분과 入住業體 임직원, 그리고 金 龍煥 議員님을 비롯한 귀빈이 자리를 같이하신 가운데 周浦 農工地區 起工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지난 여름 뜻밖의 해일피해 등 많은 난관을 郡民 여러분의 슬기와 團結된 힘으로 9년 연속 풍년을 가꾸신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5만여평의 넓은 대지에 農工地區 開發事業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郡民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을 熱望하신 노력에 대한 하나의 結實이며 앞으로 保寧郡의 發展을 향한 加速力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곳 保寧의 발전은 2차 산업인 광업에 거의 의존해 왔습니다만 그 鑛業은 地域開發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 볼 수 있는 成長産業의 誘致가 필요한 실정 이었습니다.

특히나 희망찬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곳 保寧地方은 西海岸高速道路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그리고 對 中國 交易의 核心地域으로서 개발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혜의 港灣과 水資産源등 산업의 좋은 이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西海岸綜合開發計劃과 함께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소망과 의욕에 따라 더 많은 사업의 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우리 道에서는 지난 13일 盧泰愚 大統領을 모시고 瑞山의 大山工團에서 極東精油의 竣工式과 함께 三星綜合化學 起工式을 가진바 있었습니다만 西海岸高速道路의 노선확정과 더불어 天安에서 瑞山, 保寧, 長項이 하나의 큰 工業벨트를 형성하면서 忠南發展과 함께 道勢回復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기찬 개발속도는 200만 도민의 강한 신념과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80년대를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대망의 90년대 내고장 발전의 성숙을 期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忠淸道 無待接論을 거론할 만큼 지역개발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待接을 받으려고 努力했는가를 돌이켜 보면서 그러한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전국 어느곳 보다도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그야말로, 希望찬 來日이 可視化되는 榮光의 새 忠南時代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 周浦 農工地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열 여섯개의 工場이 들어서면 1,500여명의 여러분 자녀들이 고향에서 職場을 갖고 보다 윤택한 生活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保寧郡에는 이곳 周浦 農工地區를 시발로 30여만평의 또다른 農工地區가 여러곳에 개발되고 가까운 곳에 대규모의 群長工業團地, 대천항개발 등 갖가지 개발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 될 것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곳은 西海岸時代를 主導하는 육지와 바다의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군민 여러분!

이러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聲援과 參與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만큼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협조하면서 때로는 아량과 인내를 보여주는 군민여러분의 슬기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 農工地區 起工式에 즈음하여 郡民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周浦農工地區 開發事業의 순조로운 추진과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加護와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1월 23일

激 勵 辭

오늘 이곳 天安에서 우리 겨레의 정서와 호흡을 담은 "韓國의 꽃 가꾸기"에 대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오랜 歷史와 傳統속에 이어내려온 우리 고유의 文化라든가 民俗의 繼承運動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와같은 문화와 전통의 復元이나 繼承運動은 곧 한때 우리 조상들이 누천년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값진 유산에 대한 소홀을 반성하고 外來의 文物을 선호했던 일시적인 흐름에서 다시 우리의 본 얼굴을 찾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일상생활의 文化와 藝術뿐만 아니라 꽃을 가꾸고 정서를 찾는 화훼의 재배나 수목을 키우는 분야에서도 우리 固有 樹木이나 꽃을 찾기보다는 原産地가 다른 나라인 꽃과 나무가 마치 韓國에서 自生된 것처럼 널리 사랑을 받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남의 나라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것만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문제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이 땅에 누천년을 두고 自生되어온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가꾸는 일이나 傳統文化와 精神을 이어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뿌리깊은 우리의 것을 튼튼하게 가꾸고 꽃피운 토양위에 남의 나라 文物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자극제로 삼아 이를 우리의 것으로 土着化 시키는 것이 역사와

전통있는 國民의 姿勢와 順理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韓國의 꽃 가꾸기에 대한 세미나는 남의 나라 꽃이면 조건없이 선호하는 그릇된 관념, 또 그러한 생각이 우리 고유의 꽃, 우리 고유의 정신, 우리 고유의 花卉文化를 그르쳐온 추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할미꽃이나 도라지꽃 그리고 어린시절 童心과 함께 어울렸던 들꽃들을 보면 잃어버린 얼굴을 다시 찾은것 같은 기쁨을 느끼고 고향사람을 만난것 처럼 포근함을 느낍니다.

특히 복잡한 都市生活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韓國의 土俗的인 꽃과 만날 때의 느낌은 자못 감회롭습니다.

오늘 본 세미나에서 韓國의 꽃에 대한 특징과 함께 가정에서 가꿀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압니다만 野生花에 대한 關心은 우리 情緖生活에 신선한 충격을 줄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일년전 서울올림픽을 치루면서 서울 시가지의 노변에 우리의 傳統的 韓國의 꽃을 선 보임으로써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물론 우리 내국인들에게도 새로운 감동을 불러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토속적인 정취는 비단 韓國의 꽃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까운 한 都市처럼 감나무를 街路樹로 가꿈으로써 늦가을 붉게 익은 열매를 보는 感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을 다시 찾는 韓國의 꽃 가꾸기에 대한 좋은 硏究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좋은 호응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주제에 대한 發表者 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1월 23일

人　　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국 각지에서 韓國의 꽃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일찍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유의 꽃을 가꾸는 모임에 참석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우리의 각오도 함께 다지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만 大田에서 부득이한 모임이 있어서 늦게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조촐한 자리입니다만 全國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忠南에 계신 한국의 꽃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시작하였던 經濟發展計劃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경제적인 발전, 富의 추구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 오면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60년대 우리는 가난을 물리치는데 전력 투구했었고, 70년대 우리는 우리의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로 내보내면서 世界속에 韓國을 외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분명히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치루워내는 國力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먹고, 입고, 자고하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삶에 대한 自信을 갖게 된 지금에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인 부의 추구가 인생의 전부 일 수는 없다고 하는것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經濟發展과 함께 정신적인 啓發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회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욕구의 분출현상이라든지 이념적 갈등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며는 경제적 물질적인 삶의 추구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생활의 期待現像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고유의 것을 찾고, 우리가 어려서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자연속에서 浩然之氣를 기르고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던 그때 그 時節의 것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의 天安에 젊은 시장인 鄭夏容 市長이 일찌기 燕岐郡의 郡守때부터 우리 公務員중에서는 유일무일하게 무궁화 보급운동을 전개하였고 그것이 단순히 꽃 한송이를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愛國心의 고취와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 고유의 것을 간직시켜 주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鄭市長이 다시 天安市에 와서 산야에 널려있는 우리의 꽃이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되살리는 운동이 바로 白衣民族, 배달민족의 얼을 되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지난 봄부터 야생화를 우리시민 모두에게 가꾸어 보여주면서 그 결과를 여러번에 걸쳐서 저를 비롯한 우리 忠南道의 많은 관계 여러분에게 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보고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가 더 큰 힘으로 정시장의 일을 뒷받침하지 못한점을 오히려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각지에서 오신 公務員, 또는 한국의 꽃을 사랑하는 敎授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天安에서 지난 1년동안 우리의 꽃을 가꾸느라고 얼굴이 그을리신 우리 부녀회장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내일을 대단히 밝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고유 것을 찾고, 지키고, 더욱 더 선양해서 世界속에 韓國이라는것이 바로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부터 새롭게 인식하고 다짐을 해 주시는 계기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全國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20만 市民과 함께 天安市長이 지방에서 해온 이 韓國의 꽃 선양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빌어 맞으면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찬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서로 정담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紀念 國民生活館 起工式

1989년 11월 24일

激 勵 辭

오늘 충절의 역사 유적과 함께 休養의 都市로 이름난 이곳 溫陽에서 서울올림픽 國民生活館의 起工式을 갖게 된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국민생활관을 이곳에 건립하도록 배려해 주신 金 集 体育部 長官님을 비롯하신 관계 인사 여러분, 적극적인 성원을 베풀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기공식을 축하해 주시는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울올림픽 記念 國民生活館 建立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영원히 기념하고 후대에 길이 물려준다는 의미와 함께 올림픽 운영의 잔여 예산을 성원해 주신 國民에게 다시 환원해 드리는 報答의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과 관련하여 투자된 시설의 대부분이 서울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이러한 아쉬움에서 벗어나 다 함께 서울올림픽의 主役 이였음을 자부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봅니다.

이곳 溫陽은 국민생활관의 건립지로서 매우 좋은 입지적 여건과 함께 國民 觀光地로서 그 홍보와 참여도가 매우 클 것이기에 市民 体育과 文化 藝術活動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50억의 세계인에게 보여주었던 그 높은 理想과 人類平和 실현에 대한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는 우리 5천년 역사에 찬연한 금자탑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精誠을 다했고 국민 모두 이를 成功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데 뭉치고 하나의 불꽃으로 타올랐던 올림픽은 끝났지만 미래를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民族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올림픽 기간중 우리 忠南 大田에서는 축구예선 경기와 함께 340여km의 감동적인 聖火奉送과 天安의 스포츠 科學 學術大会등 올림픽을 직접 치룬 주역의 도민으로서 그 영광과 환희와 감격의 순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올림픽의 榮光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는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은 물론 국민 누구나가 참여하고 즐길수 있는 國民 生活体育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싯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위해서 올림픽 記念 國民生活館과 같은 좋은 体育施設이 보다 많이 建立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와같이 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여가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과 文化空間의 확보, 그리고 참신한 프로그램의 보급과 함께 도민 모두의 체력 증진, 여가선용 확대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삽을 뜨는 國民 生活館이 서울올림픽에 정성을 다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한 기념물이 되고 鄕土 文化 藝術의 훌륭한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차가운 날씨임에도 이처럼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溫陽市民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내년도에 그 웅장한 모습을 보여줄 올림픽 記念 國民生活館의 起工을 다시 한번 祝賀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 기공식에 자리를 같이하신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幸運과 健康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大田高 31回 追加卒業狀 授與式

1989년 11월 26일

書 翰

선배님의 뜻깊은 卒業狀 授與式을 진심으로 祝賀 올립니다.

뒤늦은 절차가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동족상잔의 시련기에 10대의 홍안으로 戰線에 바친 선배님의 젊음이셨기에 더욱 感懷롭습니다.

오늘의 졸업장이 저희 후배들에게는 학업보다 소중했던 선배님들의 애국충정, 母校를 빛낸 名譽와 함께 이제 國家와 地域社會를 위해 큰 일을 하시는 오늘의 공헌이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母校의 빛나는 이름과 함께 선배님 내외분께 더 큰 幸運과 榮光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조촐한 夫婦 찻잔에 38회 후배의 작은 精誠을 올립니다.

名譽消防官에 對한

1989년 11월 28일

書 翰

친애하는 명예 소방관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과 보람의 가을이 다하고 초겨울을 재촉하는 이때 귀댁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평소 생업의 바쁘신 중에도 道政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헌신적인 火災豫防 活動과 각종 재해방지와 법질서 확립등 地域社会 安定에 기여하신 名譽消防官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이제부터 월동기를 맞이하여 각종 화기취급의 증가와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예소방관 여러분은 지역의 自律消防官으로서 그 임무는 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통, 반 책임자로서, 消防教育은 물론 弘報와 啓導를 담당하는 막중한 역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재예방은 消防 官署나 消防官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民과 官이 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상식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역 소방 활동으로 주민의 生命과 財産을 화마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안습니다.

우리 忠南道內의 火災 發生 狀況을 살펴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모두 23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7명의 인명손실(사망 22, 부상 15명)과 1억1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 약 10%가 增加한 추세입니다. 그 原因을 보면 50.4%가 전기사용상 부주의이며 42.4%(101건)가 주택에서 발생된 화재로서 그 원인으로는 평소의 不注意와 화기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난 화재가 90%이상으로 이는 사람들이 화재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名譽消防官 여러분은 특히 이점을 유의하도록 각 가정의 전기, 유류, 가스등의 각종 화기 취급시설에 대한 點檢과 안전 취급요령의 敎育과 함께 한 가정에 최소한 소화기 1대씩이라도 갖추어 만일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啓導하시는 한편 이웃이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119로 申告할 수 있는 진화체계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이웃과 鄕土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名譽消防官님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절기에 건강과 가정의 다복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第33回 忠淸南道 文化賞 施賞

1989년 11월 28일

式 辭

격동의 80년대를 마무리하는 戊辰年 연말에 접어들면서 서른 세번째의 忠淸南道 文化賞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탐구와 인내로 學問과 藝術, 그리고 지역사회 體育發展을 위해 쌓으신 큰 공로로 道民이 드리는 文化賞을 받으신 세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도 문회상이 33년의 연륜과 함께 좋은 전통을 이어받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機關長님, 文化藝術界 人士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時代의 評價를 위해서는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야 비로서 客觀性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견해에서 볼때 오늘의 地域社會 文化를 우리 스스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명망있는 社會團體와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늘 상을 받으신 세분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知性이요 精神文化,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의 지도적 貢獻者이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분 受賞者께서는 오랫동안 후진의 양성과 함께 韓國의 傳統 美術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체계를 세우심으로써 民族文化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시고, 일찌기 文壇活動을 하시면서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난 우리 忠淸의 詩文學을 아름답게 가꾸고 創作하신 공로가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鄕土企業을 이끌면서도 10여년 동안 고장體育 發展에 갖은 정성을 다해오신 貢獻은 90년대 시작과 더불어 대망의 서해안 시대에 우리 道民精神의 힘찬 의욕으로 승화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뜻있는 道 文化賞 施賞式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러한 文化藝術이나 地域社會의 開發이 모두 우리의 主人的인 價値와 德目,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시작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0年代의 마무리가 바로 금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는 외래문물의 범람을 절실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세분 모두가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는 學問과 藝術, 그리고 主人精神에 대한 공헌의 금자탑입니다만, 외래의 文物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야지 우리 고유의 文化가 설 땅을 차지한다면 이것은 마치 주객이 뒤바뀌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며칠전 天安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韓國의 꽃 가꾸기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지나온 韓國의 얼굴, 잃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되찾은 것은 바로 누천년 동안 이 땅에 自生하면서 우리 겨레와 함께 살아온 民族의 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단 꽃과 나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의식, 學問과 藝術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전통을 가꾸고 보다 나은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道 文化賞이 우리의 바람직한 전통과 함께 참신한 鄕土文化 創造에 큰 기폭제가 되고 일곱개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受賞者가 誕生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1월 29일

人 事

여러 委員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차갑고, 또 연말이 가까와 오고 해서 공사간 매우 다망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道政 諮問委員會는 지난 1월1일 大田直轄市가 분리된 이후 지난 7월에 改編이 됐습니다.

총 62분 중에서 39분이 새로 위촉이 되어서 모시게 됐습니다만, 그동안 자연적인 재해와 국정감사 그리고 여러가지 일들이 겹쳐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여러 委員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지나온 저희들 道政을 보며는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라서 도세가 대단히 약화 되었고 특히 교육, 문화분야는 道勢 半이상이 大田市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道民들 모두가 직할시 분리에 따라서 대단히 위축감을 갖는 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는 도정의 가장 중점을 道勢早期回復에 두고 中央政府의 지원과 道民 여러분의 성원에 힘 입어서 착실한 도세 회복을 이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적인 예를 들면 工業団地 면적을 보면 제가 대전직할시 분리 이전에는 96만평 정도 밖에 안 됐던 공업단지가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된 工団規模가 1,200만평으로 늘어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과 京畿地方의 공장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저희 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며는 道가 적극적으로 工團을 유치하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忠南 쪽으로 工場立地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같은 도세회복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11월 6일자로 실시됐던 人口調査에서 과거 67년 이래로 매년 2-3만명씩 저희 도민의 수가 줄어 왔읍니다만은 금년에 처음으로 道民의 수가 약 4천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세 회복의 단적인 증거로 볼 수 있고 비록 숫자가 4천명 정도에 불과 했습니다만 줄어드는 道民의 数가, 다시 늘어나는 数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도가 앞으로 대단히 희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우 획기적인 전환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道勢回復의 성과는 여기앉아 계신 여러 委員님들의 지도편달이 가장 큰 힘이 되었기에 이루어진 성과로 보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도가 이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내년 90년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정말 지난 2년동안 일을 해오면서 한편으론 民主化를 추진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침체를 막아 가면서 올림픽도 치러 내고 世界 先進國들이 우리에게 가해오는 무역 압력을 줄여 가면서 이렇게 國政을 슬기롭게 이끌어 오고 있고, 특히 盧泰愚 大統領께서 美國 갔다 오신 이후에 현재 구라파 5개국을 다니시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과 우리의 외교적 位相을 높이는 적극적인 대외 外交活動을 전개하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80년대를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연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民主化를 조속히 成就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인 여러가지 어려움을 더 활발히 해결해 나가길 원하는 한해가 내년도 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연대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며는 우리가 先進國으로 進入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전기가 되기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道勢回復의 可視化를 가장 잘 나타낼수 있는 시기가 내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세회복 1차년도를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西海岸 高速道路 노선이라든지, 또는 工業化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우리 道民들에게 가시적으로 도세회복의 모습을 손에 쥐어 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90년도를 그러한 도세회복의 가시화를 위한 큰 轉機를 마련하려는 해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대내적인 安定을 확고히 다지고 그리고 道民들에게 希望과 勇氣를 심어줄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려고 하며는 여기 계신 여러 諮問委員님들의 경륜과 지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전공무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연대, 새로운 세대를 맞는 그러한 각오를 더욱 다지면서 모든 道政의 計劃과 推進을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企劃管理室長이 우리 도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께 報告를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겠읍니다만,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기탄없이 評價를 해 주시고 더 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道政이 나가야 할 方向을 올바르게 잡아주시고 더 많은 成果를 거두어서 우리 道民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聲援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거듭 오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委員님께 感謝를 드립니다.

1989년 11월 30일

激 勵 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忠南道의 농어민지도자를 대표한 農漁民後繼者 여러분과함께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을 회고 하고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해의 우리 農漁村發展을 위해서 자신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는 보람스런 자리에 격려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도의 이종웅 회장과 여러후계자들 외에도 중앙협의회 이경해 회장님 그리고 농협 원철희 지회장님, 배재대학교 심재성 교수님 그리고 도의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과장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여러분과 기탄없는 對話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우리의 새로운 農漁村을 위해서 해야될 일들 또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주어야 될 여러가지 문제들을 함께 논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바쁘신 중에 내려와 주신 중앙협의회 이경해 회장님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만난 분들은 더러 있읍니다만 이렇게 우리 忠南에 4,914명의 농어민후계자가 계시지만 농어민후계자를 대표한 각 市郡의 農漁民後繼者 代表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금년이 처음인것 같습니다.

지난번 唐津에서 개최한 농어민후계자 간담회에 참석한바 있고 公州郡 후계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나눈 기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면 늘 생각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農漁村의 問題는 어떻게 여러분

의 손으로 해결해나가야될것이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하는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해의 農事를 지어보면 천재지변도 있고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땅의 地力이 튼튼하고 여러분과 같은 기술이 뛰어난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 늘 豊年農事를 지을 수 있다고 나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과거와는 달리 9년연속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政府에서 수리안전 시설을 잘 해주고 경지정리를 잘해서 땅의 지력을 높이고 또 비료와 농약이 발달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나 營農技術이 과거와는 달라 옛날엔 6월 하순이 되어야 모를 내개 되었는데 지금은 5월 초순에 모두 모를 내게되는 그러한 새로운 科學營農을 하므로써 9년 연속 풍년농사를 가능하게 한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수준 향상은 과거부터 농사를 지었던 연세가 많으신 농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분과 같은 새로운 營農 先覺者들이 농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룩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이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을 지키는 人材育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육성의 책임은 政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地方行政이 그 책임이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만나면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농어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을 잘사는 곳으로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인재육성이 政府의 노력만으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는 항상 우리 지방행정이 도와야 할 부분은 바로 農漁村을 이끌어갈 人材育成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하고 우리 公務員에게도 해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60년대 초까지 草根木皮라는 말을 면하지 못하고 늘 보리고개라는 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가을 농사를 지면 벼가 익기도 전에, 벼알에 허연 뜬물같은 물이생기기 시작하면 벌써 이것을 베어다가 솥에 찌어서 찐쌀을 만들어 먹던것이 불과 20여년전의 일이라 기억됩니다.

그러한 나라의 經濟를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復興을 시키고 그리고 올림픽을 치러 내면서 세계 160여개국으로부터 찬탄의 소리를 듣고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大統領이 美國議會에서 양원합동 회의를 하는 의회내에서 미국국회의원들에게 자신있게 우리의 외교노선 또 우리의 입장을 연설을 해주고 그리고 현재는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東歐圈 國家의 하나인 헝거리 의회에 가서 우리의 北方外交 統一意志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던 그러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뒷받침이, 오늘날 우리의 국력이 뒷받침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력을 이끌어낸 주역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잘 교육을 받고 근면하고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같은 나라를 건설해 왔다고 세계 학자들이나 우리 스스로나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일은 국가전체에 國力의 增進을 이룩한 우리 인재들의 힘, 그힘을 다시 국내적으로 보면 都市地域과 農村地域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해결하는데 쏟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모두의 바램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낙후되어 있는 農漁村을 부흥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볼때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人力難이라고 합니다. 농촌을 지키고 가꾸어야 될 인재들은 都市로 흘러 나가고 그리고 農村에 남아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노인층이거나 부녀층이어서 과거 답습형의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중에서 우리 忠淸南道의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5천여명의 農漁民後繼者들에게 거는 농어민 모두의 기대와 政府나 地方行政의 기대가 얼마나 클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농어민후계자 각시군 代表 한분씩을 選拔해서 日本에 見學을 보내고 선진농업기술, 선진영농방법등을 보고 오도록 도에서 조치를 했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교육기회를 부여받아야 하고 우리 지방행정이 그런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인력난은 앞으로 機械化 營農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과학영농기술 방식을 배워서 인력을 최소화 하면서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생산해 내는 공업의 제품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농업부문에도 속력화 營農 高級化 製品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것으로 봅니다.

농어민 후계자 여러분들은 우리 도의 각 부락에 한두분씩은 다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이 아주 뛰어난 영농을 해서 경영적, 수익적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그 영농 방법은 바로 옆으로 옆으로 번져 나가게 되고 그것이 農漁村 問題를 解決해 나가는 捷徑이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농어촌의 문제는 역시 流通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팔고 제때에 팔고 신선한 물품을 需要者에게 전달시켜 주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농촌 생산제품을 消費者에게 직접 거래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H회원이 만들은 생산품을 도에 조그마한 코너를 열어서 하루 판매하도록 했읍니다만은 그것은 하루 판매해서 1만여점의 生産品을 소비자에게 팔고 13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大田에 살고있는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流通의 秩序를 잡아주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유통문제를 각 부락단위로 해결해나가는데 指導的 役割을 함께 담당해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青壯年 들이시기 때문에 生産技術에 대한 공부와 함께 유통개선 이라든지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공부를 하는 農民像을 심어주는 지도적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農水産物 輸入 自由化에 대한 우리 농촌의 대응방안이 어떤것이 있겠느냐,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입을 막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농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하면 농민 모두가 죽는다고 일부 영농단체나 또는 농민단체에서 말씀을 하는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해 오면서 우리의 제품을 외국에 팔은 수익과 輸出을 가지고 나라의 經濟를 復興시켰듯이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제품을 우리나라에 팔고자 할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팔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政府힘으로 輸入을 禁止시키는 방안은 현명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日本같은 나라는 아무리 수입을 해와도 국민들이 먹지않기 때문에 輸入業者들이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전에 우리의 農産物을 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輸入開放에 대응할 수 있는 方法은 두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수입을 해와도 그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國民運動展開와 다른 하나는 수입해 오는 대신 우리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질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제품을 生産하여 값싸게 供給하는 그두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道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農産物輸出 相談室을 설치 했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배재대학교 심재성 교수님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책을 연구하는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고 이에 따른 도단위 輸出相談室을 만들어 運營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른 외국에서 우리 농산물을 수입해 가고자 해도 그들이 원하는 규격의 제품을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품목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5천명 農漁民 後繼者들이 解決해 주는데 앞장 서 주어야 하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5

천명이 한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농산물을 더 먹을 수 있도록 좋은 商品과 값싼 農産物을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품을 수출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農水産物이 많이 생산되어 價格이 下落하면 政府의 責任으로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가 많이 생산되어 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사주어야 하고 쌀이 많이 생산되어 값이 떨어지면 政府가 사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정부의 예산이 몇조원정도를 農漁村에 직접 投資를 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몇년간 계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과잉 생산된 제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주기만 하면 누가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돈을 누가 낼것이냐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사준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해 낼것입니까? 결국에는 國民의 負擔이요 농어민 뿐만아니라 都市 勤勞者에게 까지 많은 세금을 負擔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市場經濟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추곡수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추곡수매 물량을 어느정도 하는것이 시장 기능을 가장 정상화 할 수 있는 길이냐 하는 것을 검토 해주는 것이 政府와 國會의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쌀값은 8만5천원, 8만7천원하고 정부 수매가격이 9만8천원 한다고 한다면 정부수매가 끝났을 경우 더 많은 물량을 팔아야 될 농민들이 8만5천원에 팔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사줘라 사서 어디에다 貯藏할것이며 그 산 물량을 어떻게 折夷할것이냐하는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1년은 보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流通과 관련된(유통이라는것은 얼마를 生産해서 얼마의 값을 받는 것이 큰 所得을 낼 수 있느냐)것을 생각하는 것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政府가 최근에 農工団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忠南은 작년 년말까지 약 70만평 정도밖에 안되던 공업단지를 금년에 들어와서 추진하거나 확정한 工業団地가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약 12백만평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증가이며 다른 市道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공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업단지를 만드니까 정부가 우리 地域에 工場을 建設해 봐야 공해만 먹고살지 뭐가 떨어지겠느냐 라는 걱정의 말씀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농민들이 지금 연세가 많고 노동력이 없기때문에 취업을 못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이 그 지역에서 여자, 남자 근로자가 함께 企業에 從事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지역에 定着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겸업으로 영위할수 있는 그런길도 나는 충분히 열리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專業農 위주로 농촌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문제가 지금처럼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것이지 전업농이 점차 줄고 兼業農이 된다고 한다면 농촌문제 해결은 훨씬 더 쉬어지리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忠青南道의 내일의 農村은 훨씬 더 밝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앞으로 우리 忠南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人材育成에 전력을 투구할 생각입니다.

젊은 농어민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4H會員들에게 자기고향의 땅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4H회원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당신들이 이끌어가는 農漁村은 우리 세대가 맡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농어촌이 될것이다 하는 希望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농어민후계자가 될것이고 농어민후계자가 나아가 農村指導者가 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농촌의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면 나는 도시지역 보다는 훨씬 더 밝은 未來를 農漁村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環境改善과 所得增大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만드는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연초에

제가 우리 道民들에게 90년도 業務報告를 드리는 기회에 할 생각으로 아직 아껴 놓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 4H회원 그리고 농민 지도자들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문제 그리고 농어촌의 生産技術 向上, 流通改善을 위한 지원방안등을 9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확실하게 비젼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經濟가 발전이 되고 또 科學文明이 발전이 되고 物質文明이 발전이 되니까 살기는 편해졌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때 생각했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물질문명의 발전이 정신적인 나약함을 초래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해야될 農漁村의 發展을 위해서 다시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또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나가자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忠南 産業의 약49%가 1차 산업이지만 앞으로 이 産業構造는 금년 년말, 내년 년말에 가면은 엄청나게 뒤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의 그러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都市地域 못지않은 잘사는 農漁村으로 바뀌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신념에 찬 지원과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천여 農漁民後繼者 여러분께 거듭 當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전체를 위한 제언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마지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월



▲ 시설아동 위문

1989

月例朝會

1989년 12월 1일

訓　　示

벌써 금년한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한해를 반성를 하고 지난날의 성과와 과오을 함께 평가를 해봅니다.

금년이 우리 忠淸南道로서는 다른해와 유난히 차이가 많았던 한해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忠淸南道 역사상 100만의 大都市를 誕生시켜 直轄市로 분리해 낸 뒤, 200만 道民과 1만5천여 公務員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道勢를 조기에 回復시키자는 約束을 했고 그러한 약속을 착실히 추진해오면서 道民과 公務員 모두가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새로운 忠南의 時代를 열어 왔던 보람찬 한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勳·褒章과 表彰을 받은 公務員들에게 먼저 치하를 드리고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表彰을 받았던 많은 산하公務員과 아울러 묵묵히 자기 맡은 임무를 충실히 다해왔던 1만5천여 전 公務員들에게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 안습니다.

우리는 한해를 보내면서 매년 생각을 가다듬어 보곤합니다. 과연 지난 1년간 우리가 하고자 했던일을 얼마나 달성하였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에 얼마나 가깝게 근접했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봅니다.

어떤 때는 가슴가득히 성취의 보람을 느껴 보기도 하고 어떤 부문에서는 후회와

반성으로 점철된 지나날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來日로 設計해 보기도 합니다.

무슨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1일 月例朝會時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얘기들을 기억해 봅니다.

88년은 우리에게 큰 보람과 함께 많은 후회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치루어낸 엄청난 勞苦뒤에 바로 화염병이 난무하고 사회 각처해서 法과 秩序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우기 大統領께서 「학생이 스승의 머리를 깎는 아픔을 안겨 주었다」고 談話를 發表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모두 忠節의 고장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깊이 反省을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새로운 한해는 이러한 일들을 떨져 버리고 우리 사회에 民主主義 定着시키면서 道民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忠南時代를 여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자"고 다짐을 했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지난 1년이 되돌아 봅니다.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成果를 거두어 왔다고 自負합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하나의 結晶體가 되어 道民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고 누가 보아도 새로운 忠南時代의 開幕이 이루어 졌다고 느낄수 있게된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서도 다시 많은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동안의 성과, 또는 지난 한달동안의 成果를 대내외적으로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盧泰愚 大統領께서 유럽 5個國의 巡訪길에 오르셨고, 지금도 프랑스에 계시면서 國威를 宣揚함은 물론 民主主義와 平和를 지향하는 우리의 政策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북방외교의 떳떳함을 東歐圈 國家의 헝가리 議會에서 처음으로 연설했던 國家元首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經濟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E.C 統合을 전제로한 유럽제국과의 經濟協力 强化문제를 논의하시고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심어주면서 北韓의 開放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지향하고 있는 大統領의 노력과는 달리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한예로 우리는 牛脂波動을 들수가 있습니다. 라면파동이라고도 합니다만, 食品文化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는 評價를 받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시기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누가 어느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功·過가 있게 마련입니다만,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오늘 받는것 보다는 먼훗날 받는것이 더 아플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느낄수 있었습니다. 좀더 잘할수 있었는데, 좀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그리고 南北韓間의 離散家族을 한자리에 만나게 해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北韓측의 성의없는 태도로 인해 霧散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큰 아픔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5共清算과 연계되어 우리 議會 역사상 처음으로 國會豫算案이 회기내에 통과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모두의 바람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큰 아픔이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밖으로 보이는 나라의 모습과 안에서 비추어 지는 우리의 모습에 큰 차이와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 道 로서도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나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는 道勢回復의 可視化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道勢回復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했다고 확신하며 특히 우리 道民의 數, 人口가 지난 67년 이래 매년 2만내지 3만명씩 줄어왔는데 금년을 계기로 하여 드디어 人口의 增加를 실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력의 향상과 우리 경제의 내일에 대한 밝은 未來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大田直轄市가 분리되어 忠清南道의 人口는 더 많은 폭으로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3천여명에 지나지 않지만 금년도 人口가 다시 늘어나 2백만을 넘게 된것은 우리 忠清南道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工業化의 추진에 있어서도 大田直轄市 분리에 따라 90만평 남짓하던 우리의 工業團地面積이 1200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진중에 있거나 확정된 工業團地 면적이 1200만평이라는 것은 우리 忠淸南道 史上 상상할 없었던 엄청난 工業化의 進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100大 有望中小企業을 유치하고자 했던 목표도 이미 10월에 초과달성을 했고 금년도 우리 지역내에 工場이 약 6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많은 부문에서 可視的으로 道勢의 擴張이 나타났고, 특히 내가 아주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내일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로의 확장, 특히 高速道路 路線이 西海岸 쪽으로 確定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발전과 함께 우리가 추구했던 내면적 발전, 특히 忠南精神의 계발과 道義 社會의 實現, 그리고 우리 忠南만이 할 수 있는 지역간 안정을 해소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安定基盤을 우리 忠南地域에서 먼저 이룩하자 했던 목표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그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점도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금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성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직내부 대다수 公職者의 結束을 바탕으로 責任과 使命感이 고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 있었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으로 받아 들여졌고, 특히 나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여러분과 함께 반성을 하고 나 스스로 不德함을 탓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外華內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道政遂行은 外華內貧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한 구석에 큰 悔恨이 남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忠南의 名譽를 같이 지키지 못했다하는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民主主義를 하다보면 과거 우리의 行政이 독선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관되어 왔던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역내의 많은 문제, 특히 集團民願의 發生등을 보면서 우리는 좀더 쉽게 업무를 처리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분명히 그러한 지난날의 行政行態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보람있는 행정의 새로운 형태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對話를 통해 문제를 解決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사람을 중히 여기는 人本行政의 기본이라고 볼때에 민주주의 행정행태의 새로운 정착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동안 추진해왔던 많은 행정부분의 성과와 함께 잘못되고 고쳐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남은 1개월동안 고칠것은 고치고 다듬을 것은 다듬으면서 더 많은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개월동안 이러한 發展의 基盤을 착실히 다지면서 새로운 연대의 시작인 90년도의 道政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990년은 새로운 한해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年代의 始作이고 우리 국가가 民主主義를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가름이 나는 한해라고 봅니다. 90년도의 도정 여건을 보면 국가적으로는 北方外交의 지속적인 擴大와 함께 經濟難局을 조기에 打開해 나가야 하며 특히 法과 秩序를 확립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民主化를 위해서 地方自治를 실시해 나가야하는 그런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忠南道로서는 국가의 中心道 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면서 도세회복 2차년도를 맞아 이제 우리 道民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을 정도로 道勢回復의 모습을 확실하게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工業化에 따라서 야기되기 쉬운 環境의 侵害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開發과 保存을 조화시키는 행정 능력을 발휘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與件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國家와 道의 기본적인 與件을 바탕으로한 내년도의 基本方向은 먼저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忠南精神의 發現과 價値觀을 再定立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道勢의 回復을 위한 可視化 努力을 더욱 더 촉진시키고 특히 國家計劃과 우리 道民의 욕구를 調和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도 企業精神을 행정에 導入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념과 용기의 새로운 公職人像을 定立하는 확실한 한해가 되도록 道政을 遂行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맡아하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는 신념과 새로운 忠南時代의 發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 맡은 責務와 權限을 행사하는 용기있는 公職像과 公職風土를 확립하므로써 더 큰 목표를 두도록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忠淸南道의 工業化 추진에 따라서 오히려 더 소외되기 쉬운 農漁村 問題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忠南의 問題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2년 동안에 道勢 回復이 가시화되면 可視化될수록, 또 가속화되면 加速化될수록 農漁村에 그만큼 많은 精誠과 사랑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農漁村 問題에 대한 대처와 함께 내년도에 야기될 수 있는 法과 秩序의 解弛現狀, 勞使問題 提起, 또 우리 忠南의 名譽를 새로 되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분발과 협조 그리고 뒷받침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가 해온 일들에 대해 여러분 한분 한분이 다시 反省과 回顧를 해보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미진했던 부문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동안 完璧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로운 年代의 始作을 맞을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안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致賀를 드리고 다시 신념과 용기로 한데 뭉쳐서 90년대에는 확실히 우리 忠南의 年代가 될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西部地域 運轉免許試驗場 開廳式

1989년 12월 1일

致 辭

오늘 이곳 禮山郡 吾可面에 우리 忠南道 警察局 산하 運転免許 試験場을 설치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고장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宿願事業이 마침내 結実을 보도록 여러가지로 애써주신 警察官,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일년동안 수고하신 공사관계자 여러분, 새로운 免許 試験場의 開設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免許人口가 벌써 7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運転免許 獲得者의 급격한 增加,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 여섯사람 중 한명이 자동차운전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수치는 차량운전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2천년대 초에 들어서면 성인이 되면 누구나 운전을 할수있는 자동차운전의 常識化 時代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허 인구증가의 예측과 함께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는 면허 시험장이 大田의 한곳에 한정됨으로 해서 이곳 禮山地域을 중심으로한 西部地方 住民들에게 不便을 주어왔음도 사실입니다.

오늘 西部면허시험장이 처음으로 업무를 개시하면서 이곳 住民들에게 奉仕하는 道政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보람이 매우 큽니다.

다만 본 면허시험장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道民에게 奉仕하는 우리 경찰공무원과 면허를 얻고자 하는 도민들이 다 함께 인식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交通文化의 定着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것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交通秩序를 바르게 지키는 자세의 올바른 定立과 完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秩序를 무시하고 자동차만 다룰줄 아는 기능의 자격에 그친다면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의 便利한 資格이 아니라 난폭한 범법자의 무원칙한 자격부여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그럴때에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요 國民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交通文化의 先進國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關係 公務員, 그리고 道民 모두가 이처럼 소중한 우리시대의 과제를 한번더 깊이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새로운 奉仕와 秩序의 啓導라는 소중한 行政과 함께 公務員 여러분에게 행운과 보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論山 工業高等學校 體育科 强化訓練 發團式

1989년 12월 1일

激 勵 辭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오늘 우리는 격동의 80년대를 마감하는 한편 내일의 忠南体育 振興을 새롭게 다짐하고 재기의 깃발을 힘차게 세우는 論山 工業 高等學校 体育科의 설치와 더불어 90학년도 입학 예정자의 뜻깊은 强化訓練 發団式을 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오늘의 발단식을 갖도록 배려해 주신 白 承 鐸 敎育監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정성을 기울여 오신 교육위원회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忠南은 금년도 대전 직할시의 분리 승격 이후 체육을 비롯한 道政의 모든 분야에서 약화된 道勢 回復을 위해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하나하나 우리의 눈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지난 가을 水原에서 개최된 全國 体育大会에서 선전분투 하였음에도 약화된 경기력을 극복하지 못해 최하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体育施設까지도 大田市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던 안타까운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이 너무 촉박하고 열악하였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80년대 초 忠南体育의 상위권 도약을 위하여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쏟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처럼 거도적인 노력으로 쌓아올린 우리 충남체육이 일시적인 약화와 여건변화에 위축될 수 없다는 것이 道民 모두의 생각이며 또한 自尊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싯점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한사람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選手와 指導者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땀과 訓練, 그리고 投資가 필요한 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경기의 승리에 있어 결코 우연이 있을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에 살고 있는 한, 忠南体育의 씨를 정성으로 뿌리고 피땀으로 가꾸어야 할 責任과 召命이 있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굳은 신념, 지도자 여러분의 정성,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충남체육은 지난날의 名譽와 榮光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겨울철 훈련에 임하는 학생여러분의 다부진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싣고 출범하는 論山 工業 高等學校 体育科가 충남 체육발전의 요람으로써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훈련에 임하는 학생 여러분은 바로 내가 내일의 忠南体育을 짊어진 主役임을 자부하면서 나 자신은 물론 고장의 명예를 위하여 기량연마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차가운 날씨임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충남체육발전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내빈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忠南体育 再建에 기름진 밑거름이 되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마지 안습니다.

우리 論山 工高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大田 극동放送局 開局 祝賀宴

1989년 12월 1일

祝 辭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초하루, 우리 忠淸圈 일원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파에 실려보낼 大田 極東放送局의 개국과 함께 본 축하연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放送 宣敎事業을 시작하고 또 주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福音 放送局을 개국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주신 李炳益 理事長님을 비롯하신 관계인사 여러분, 金章煥局長님, 문공부 당국의 배려와 聖徒 여러분의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볼때 放送 福音化 事業은 지금으로 부터 35년전 6.25라는 불행한 동족상쟁이 끝난 직후 허탈감과 실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希望과 勇氣를 부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봅니다.

전쟁을 치루고난 폐허 위에 남은 것은 가난과 불신, 그리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人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사회의 그늘 위에 사랑을 다시금 부어 주고 화해와 용서의 본 얼굴을 찾는데 기여한 基督敎의 獻身, 그리고 방송을 통한 선교사업은 우리가 성취한 오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랜 전통과 역량을 쌓은 福音 放送은 이제 인간성을 억제 당하는 共産主義 社會, 그리고 핏줄의 정을 그리워하는 이역의 우리 同胞들에게 고국의 따

스한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함께 때때로 주시는 시련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망으로 보느냐 아니면 희망으로 보느냐 하는 인식의 차이와 어느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냐 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우리의 人生, 우리의 社會가 좋아질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大田 極東放送局의 開局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는 슬기로운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希望을 갖는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和解할 줄 아는 사람을 이 社會에 더 많이 확보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實踐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처음으로 전파를 타고 나가는 信念의 우리 時代, 진실한 사랑과 眞理와 希望이 눈앞에 다가온 90년대의 여명을 밝히고 더 나아가 2000년대 우리 민족의 和合과 統一로 가는 하나의 引導者가 될 것을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한번 大田 極東放送局의 開局과 함께 방송국 가족,그리고 聖徒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第21回 國民教育 憲章 宣布 記念式

1989년 12월 5일

祝 辭

오늘 우리 고장 교육계의 원로이신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하신 가운데 스물 한번째의 國民 敎育憲章 宣布 記念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른 세대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비중을 두는 2세 교육에 헌신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敎育 公務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가장 올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고 공로를 쌓으심으로써 오늘의 敎育憲章 宣布 記念日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受賞者 여러분에게도 祝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처럼 國民 敎育憲章은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民族 敎育과 역사에 대한 召命意識을 일깨우는 한편 저마다의 개성을 존중하는 人間敎育 그리고 敎育의 機會均等과 함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포괄적으로 천명한 우리 시대의 소중한 敎育 德目입니다.

오늘날 사계의 전문가들에 의한 敎育의 方法論이 무성하지만 하나의 人格을 完成하고 올바른 인간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敎育에 王道는 없다고 봅니다.

오직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민족의 앞날을 책임질 어린 學生들은 내 자식 처럼 사랑과 진실로 가르쳐야하며 또 배우는 子女 世代는 선생님의 말씀을

하늘보다도 더 높이 받드는 敎育 環境의 造成과 師道의 權威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가정과 스승 사이를 오가던 農耕 社會의 단순한 敎育的 環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에 오늘날 가르침에 대한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學校에 머무는 時間은 불과 몇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 子女들이 눈으로 직접보고 듣고 배우는 학교 이외의 生活 空間과 時間은 무궁무진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비추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 子女들에게는 모두 스승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수성이 무척 예민한 나이 어린 學生들은 때로는 큰 感動으로 때로는 어른을 흉내내는 호기심으로 그들의 머리에 박히고 잠재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맡으신 學校 敎育과 부모님의 家庭敎育,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함께 共同으로 책임진 社會 敎育의 중요성을 일깨운 國民 敎育憲章이 항상 우리의 가슴에 와 닿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번씩 國民 敎育憲章 宣布에 대한 記念式을 갖고 그 본뜻을 되새깁니다만 우리는 그 헌장이 뜻하는 내용을 오늘 하루만 음미할 것이 아니라 365일을 하루같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實踐하는 姿勢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오늘의 우리 교육이 각박한 생존 경쟁에 대한 勝利의 敎育이라기 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인도 해주는 眞實한 敎育에 우리 모두 힘을 함께 모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세밑 우리 忠南 敎育 家族 여러분에게 幸運과 萬福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韓國自由總聯盟 忠南道支會 会長 就任式

1989년 12월 5일

祝 辭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12월에 들어서 韓國自由總聯盟 忠南道支會 申弘湜會長님의 취임식을 갖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한편, 左翼 暴力 勢力의 분쇄에 앞장서 오신 自由總聯盟 指導者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4년11월 韓國反共聯盟 忠南道支會가 결성된이래 지난 25년동안 고장의 反共指導者 여러분은 깊은 유대와 결속, 그리고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地域社會 安定과 國家安保에 크나큰 공헌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부하시는 것처럼 오랜역사와 전통을 쌓아온 우리고장의 反共安保 組織은 지난 4월10일을 계기로 새로운 이름, 보다 강력한 조직, 활기찬 의욕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大田直轄市支會가 분리 독립함에 따라 오늘 申弘湜會長님이 새로 취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새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地域安保活動이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韓國自由總聯盟 忠南道支會를 이끌어 가실 申會長님은 우리 고장출신으로 오랫동안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폭넓게 활동해 오신 역량있는 指導者 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회장님은 일찍이 젊음 하나로 일으킨 기업을 통해서도 항상 공익과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며, 忠南體育 發展과 고장의 새마을 運動을 오랫동안 이끌어오신 공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自由總聯盟에는 이미 3년 전부터 적극 참여해 오셨기에 오늘 이 就任式이 어쩌면 당연한 추대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일은 새로운 회장님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反共安保役軍들이 일치 단결하여 그동안의 업적을 토대로 새로운 과업을 위해 줄기찬 活動을 倍加해 나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安保與件은 매우 유동적이고 복잡 긴박하며 확고한 理念과 實踐에 대한 무장이 없다면 결코 自由와 平和를 지키지 못할 危機의 時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左翼容共勢力들이 민주화의 과정이라는 기회를 틈타서 混亂을 造成하고 秩序를 무너뜨려 급기야는 國家體制를 전복하려는 음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망설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地域安保指導者를 중심으로 좌익세력의 분쇄에는 단호한 힘과 조직력을 과시하고 自由民主主義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智慧와 力量을 모아나갈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가오는 연말 申弘湜會長님을 비롯하신 지역안보지도자 여러분에게 幸運과 榮光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忠南職業訓練院의 寄宿舍 및 実習棟 竣工式

1989년 12월 8일

激 勵 辭

오늘 우리고장 기능인 양성의 산실인 忠南職業訓練院이 우리 훈련생들을 위한 寄宿舍 및 實習棟의 竣工式을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직업훈련원은 오랫동안 우리 忠南道에서 농어촌 청소년의 職業敎育을 실시하여 오다가 지난 1987년 7월부터 보다 전문적인 기능 훈련을 위해 韓國職業訓練管理工團의 職業 訓練機關으로 개편된바 있습니다.

오늘 준공을 보는 寄宿舍 및 實習棟 등 1,200여평은 기존 건물규모보다 훨씬 클뿐만 아니라 訓練生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편히 쉬며 생활할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어 가르치는 선생님, 기술 연마에 땀흘리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訓練生 여러분!

그러나 좋은 실습실과 안락한 기숙사가 마련되었다고해서 여러분의 技能이 저절로 向上되고 또 바람직한 社會人으로 成長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좋은 敎育 環境이 조성됨을 계기로해서 더욱 굳은 신념과 의지로 훌륭한 職業人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생 여러분이 평소에 피부로 느끼셨을 줄 압니다만 오늘의 사회는 이제 형식적인 학벌을 원하는 社會가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할수있는 技能과 技術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기능과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실질적인 能力과 高級 技術人을 요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땀흘려 기능을 익힌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곳 職業訓練院의 정문을 나섬과 동시에 각자 전공과목대로 職業을 갖고 보람된 生活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은 訓練生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졌다해도 이를 사회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開拓하고 그리고 社會와 國家를 위해 기여하는 소박한 技能과 技術에 미치지못할 것입니다.

부디 훈련생 여러분은 슬기와 노력,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이시대 最高의 技能人이 되어주기를 당부하는바 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기능 훈련시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金漢瑞 忠南職業訓練院長님을 비롯한 교직원여러분, 깊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韓國職業訓練管理工團 關係官님, 각계 인사의 성원에 대하여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훈련원의 施設擴張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2월 9일

人 事

저희 道政을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道政모니터 여러분께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년반전 여러분들을 모시고 道政모니터 要員에 대한 委囑式을 가지면서 한분 한분 손을 잡고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忠淸南道가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개발의 속도가 대단히 늦었고 그리고 도민들중에 많은 분들이 개발에서 우리도가 소외되고 있는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갖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을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에 많은 역할과 협조를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서 1년반 지난후 오늘에서야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좀더 일찍 여러분들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지난 8월에서 부터 여러번 있었던 연이은 海溢被害로 차일피일 하다가 농번기가 겹치고 해서 모시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나오기 전에 모니터가 무슨 뜻인가를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모니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략적인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찾아 보았더니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에 독자로써 그 감상과 비평을 보내와서 프로편성이나 기사작성에 참고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新聞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하는 독자나 청취자중에서 그 프로를 제작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데 좀더 나은 기사와 프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독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道政모니터는 우리 도민들중에서 우리 忠淸南道에 行政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비판하고 본인이 생각했던바를 道政에 反映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하시는 도민이 바로 "도정 모니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강요한다고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오실리도 없고 또 간곡한 부탁을 해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 분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시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道政모니터 여러분중에는 사회 각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업도 다양합니다.

農事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事業을 하고 계신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學生도 있습니다.

연령도 20대부터 60대까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더 나은 道政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쉬운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하기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1년 반동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提報사항은 저희들이 충실히 받아서 도정에 반영을 시켜 왔다고 보고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이후에 여러분께서 약500 여건의 건의 또는 지방사정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및 협조와 성원덕분에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 저희 15,000여 공무원들은 우리도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도정발전 특히 道勢回復을 제1의 목표로 삼아서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도민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감을 갖지않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성과를 1년이 지난 지금에와 평가를 해

보면 과거 어느때보다 道政에 많은 發展이 있었고 특히 도세회복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금년초 도민들에게 유망중소기업 100개정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지난 10월에 이미 100개를 넘어서 지금은 150개 이상 아주 유수한 企業을 유치했습니다.

大田直轄市 분리에 따라서 우리 忠淸南道에 공업단지 면적이 60만평정도에 불과했던것이 지금은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이 확정되었거나 공사를하고 있는 공단면적이 1,200만평에 달합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때에도 갖지 못했던 고향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것은 여기 계신 모니터 여러분 중에서 반정도는 輿論을 적극수렴하여 보내주시고 반정도는 한건도 저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론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지 않고 간에 地域社會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이나 직접 기여하시는 마음은 한가지 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금년도 도정에 대해서 단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스라이드라든지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더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서해안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政府에, 서해안 개발 계획에 우리道의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 忠淸南道에 배분되는 부분을 좀더 크게 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서해안 고속도로 路線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유망한 企業을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도가 의도한데로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地域均衡開發 企劃団 같은 곳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배분되는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배분을 받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0년대는 저희가 해야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특히 道勢回復부분중에서 可視的으로 물량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금년도처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내년 90년도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민정신의 발현 忠南精神具現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90년은 새로운 연대의 시작입니다.

90년대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2000년대 21세기를 준비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도로써는 도세회복을 위한 목표를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른 道勢弱化를 回復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1년을 보내면서 다져놓은 기반위에서 내년도에는 하나씩 하나씩 도민의 손에 쥐어지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좀 더 뛰고 땀을 흘려야할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90년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것이라고 展望하면서 특히 욕구분출에 따른 주민들에 각계각층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있게 수렴해 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화 시책에 따라서 우리 忠淸南道를 아름다운 環境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保存하면서 도세를 회복하느냐 하는 兩大 目標를 가지고 도정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민들 스스로가 도정에 참여하고 도민들 스스로가 도정에 관심을 갖고 道政을 評價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정 수행에 반영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道政모니터 여러분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忠淸南道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적 측면으로는 선비精神과 양반의 정신을 밑바탕으로 한 道義 精神의 구현 그리고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충남시대의 개막을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道勢發展을 위해서 道政모니터들에게 여러선생님들의 여론 수렴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면서 도민의 여망을 결집하고 道民輿望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도정수행을 위해서 우리 200만 도민과 道政모니터 여러분의 조화있는 목소리를 기대해 마지 안습니다.

모쪼록 모니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機能인 여론의 수렴기능, 도정의 비판기능,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조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행운이 함께 하시고 우리 忠淸南道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忠南時代의 開發이 말로 이루어 지는 개발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새마을 幼兒園 美術公募 施賞式

1989년 12월 11일

激 勵 辭

오늘 우리 道內幼兒園 어린이들의 그림작품 展示會와 함께 뜻있는 施賞式을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어린이들의 그림잔치를 베풀고 올 한해동안 우리고장 幼兒敎育의 成果를 뒤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태선 道 幼兒園協議會 회장님을 비롯하신 교사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展示會에 出品된 우리 어린이들의 티없이 맑고 고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童心의 世界로 돌아 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은 마치 첫눈과 같이 희고 순결합니다.

티끌하나도 묻지 않은 마음은 그 초롱초롱한 눈에 비추어지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色이 칠해지고 心性과 性格, 그리고 人格으로 굳어갑니다.

한 어린이가 밝고 명랑한 環境, 그리고 사랑의 울타리안에서 자란다면 그 어린이가 그리는 그림도 밝고 명랑한 內容과 色彩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어린이가 슬프거나 외롭고 어두운 환경이라면 그 어린이가 그리는 그림도 그늘지고 쓸쓸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어린이 美術作品 展示會는 미술에 대한 소질과 재능을 조기 발견하고 그러한 어린이의 能力을 키워주는데도 뜻이 있지만,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세상에 대한 認識과 希望 또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어린이들의 美術敎育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곱게 다듬어 주고 꿈을 키워줄 수 있다는 귀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밝은 世界를 그리게 하고 희망의 彩色을 指導하며, 그늘진 구석을 따스한 빛깔로 인도할때 어린이는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들 作品의 公募展이기 때문에 賞을 받는 어린이도 있고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모든 어린에게 다 賞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그림은 그 우열의 차이라는 것이 專門家가 아니면 구별할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차이가 앞으로 어린이들의 成長과 發展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오늘날 어떤 先進國에는 學業成績에 대한 施賞制度가 없다는 얘기를 감동적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다만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 주는 善行賞만 있다고 합니다.

저마다 태어난 환경과 지능이 다르고 꿈이 다른 어린이들을 하나의 기준을 정하여 우열을 가린다는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나라 先進意識의 結論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어린이를 포근히 감싸주고 인정감을 주었을 때 그 어린이가 자라서 훌륭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에디슨이 그러하고 大學試驗에 몇번이나 실패했던 뉴-턴, 그리고 한석봉과 西浦 김만중에 대한 韓國 어머니의 사랑,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미술 잔치에 참가한 2,500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고장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祝福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行政同友會 會員에 對한

1989년 12월 13일

書 翰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고당의 행운과 다복하심을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가 우리 忠南에게는 격동과 보람, 그리고 시련도 함께 준 벅찬 한해였다고 회고 됩니다.

먼저 금년 1월1일자로 그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大田이 直轄市로 분리 승격함으로써 大田市民에게는 오랜 소망에 대한 충족감을 안겨 주었지만 道民들은 모든 면에서 표준을 유지하던 우리의 도세가 일시적이나마 약화된 것을 못내 아쉬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道政의 여건 변화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 모든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촌 공업화의 가속화, 그리고 기대 부푼 서해안 시대에 발맞춰 나가되 모든 計劃과 施行, 그리고 그 結果 등 모두를 도민 위주로 추진하는 人本行政에 토대를 두어 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신념과 용기의 道政 推進은 바로 선배 공무원들께서 지난날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물려주시고 또 오늘날에도 후진들을 위해 정분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덕택에 힘입은바 큰 것이기에 한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庚午年은 대망의 9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이면서 우리 도정에 있어서는 단순한 도세 만회의 차원을 넘어 跳躍의 基盤을 다지는 새 忠南時代의

第2次年度라는 뜻이 주어집니다.

또한 세계정세의 격랑 속에 출범한 第6共和國이 그동안 만난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위에 서울올림픽이라는 찬연한 금자탑을 세운 저력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民主秩序를 定着시키고 선진경제의 틀을 잡아나갈 제3차년도라는 의미도 매우 큽니다.

이처럼 소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지만 내년에도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희망찬 새해, 아무쪼록 저희 후배 공무원들이 도민의 여망을 결집하여 고장 發展을 加速化하고 도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道政에 專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연말 건강하신 가운데 모든 일 알차게 맺으시고 새해에도 고당에 가득찬 幸運과 萬福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밑 이웃돕기 運動에 즈음한

1989년 12월 15일

談 話 文

친애하는 道民여러분!

격동과 보람의 己巳年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忠南時代의 元年을 위해 땀흘려 일해주신 道民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따뜻한 慰勞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해를 돌이켜보고 내일을 설계하는 바쁜 세밑이지만 웃음을 잃고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것 또한 아름다운 美風良俗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父母의 사랑을 모르는채 고사리 손으로 가정을 꾸리는 少年少女家長, 쓸쓸한 老人,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수 없는 障碍者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따스한 人情을 베풀어 보람된 한해 훈훈한 년말을 함께 보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幸運과 洪福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H会員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15일

書 翰

저무는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먼저 4H會員 여러분이 땀흘려 일한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忠淸南道는 올해에 도정의 역사이래 가장 큰 변화와 기쁨을 안겨준 大田市, 瑞山市, 泰安郡의 분리 승격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한편 감소된 도세의 만회를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결집 새忠南 時代의 元年을 장식한 보람이 큽니다.

여기에는 넘치는 의욕과 단결된 힘으로 우리 農村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4H의 힘이 크게 보태졌음을 함께 자부합니다.

특히 우리고장 4만여 회원들이 科學營農을 앞세워 9년연속 豊年 農事를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했으며 지난 4H 中央競進大會에서 끈질기고 단결된 忠南會員들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成績을 거두었음은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금년에 우리 4H의 보람있는 행사가 많았지만 지난5월 靑少年의 달 행사와 예산 충의사에서 가졌던 4H회원 여러분과 우리 農村 開發을 위한 다짐이 아직도 본인의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때 약속했던대로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4H 活動과 농촌사랑운동을 열심히 해주신 결과 오늘 한해를 보내고 대망의 庚午年을 맞는 순간에 후회없는 어제를 토대로 벅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4H 後援基金도 신설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군이 당초 목표한 금액 5천만원을 확보한 한편, 도단위 4H후원기금을 내년도 도정예산에 계상하여 총10억원으로 增額되므로써 여러분의 여러가지 敎育과 活動에 뒷받침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4H회원 여러분은 앞으로 이 농촌을 이끌어갈 오늘의 일꾼이요 미래의 主人입니다.

우리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욱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가 바라는 福祉農村은 앞당겨 질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고향을 위해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 나갈때 그것이 바로 福祉農村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사명을 인식하면서 한 사람의 지혜와 역량 보다는 여러분 모두의 슬기와 의욕,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헤아려보면서 아름다운 우리농촌의 美風良俗과 崇祖敬老의 정신유산을 더욱 계승하는 것도 우리 4H회원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의 4H 활동과 경험을 거울삼아 참신한 科學營農 技術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창조하면서 農村에 대한 뜨거운 愛情을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기와 단결된 힘에 따라 누 천년동안 갈고 다듬어진 우리 흙의 文化 그리고 살기좋은 복지 농촌이 앞당겨질 것을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새해에는 4H 會員 여러분에게 가득한 幸運과 크나큰 成就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2월 18일

激 勵 辭

먼저 오늘 우리 도 산하 20개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각 山林組合 組合長님과 대전직할시의 산림조합장님, 또 도의 지부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신 가운데 이와같은 懇談會를 갖게 된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조합이 생긴지 30여년이 된뒤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民選인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장님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신것은 더 의의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빠른 시일내에 여러분을 모시고 相見禮의 자리를 갖고자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뒤늦게 연말이 되서야 이렇게 모시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연말 아주 바쁜일정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山林面積이 전국토의 66%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忠淸南道에도 산지가 경지면적보다도 약 3배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山林資源이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전체로보면 地球面積의 약 25%가 山地 면적인것이 최근에 와서 20%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감소추세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산림자원의 農地転用 또 경제 발전을 위한 工場 敷地로의 活用 이런 측면에서 산지자원이 점점 減少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류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것이 산림입니다. 산림을 통해서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해서 공급 받을수 있고 또 산림에서 나오는 많은 産物중에 우리가 食用으로 쓸수 있는 부산물도 있고 藥用이나 特作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산림자원을 保護保存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이러한 싯점에서 특히 산림조합장님들을 민선한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山主의 權益保護에 대단히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산림자원 보존이 개인의 재산권 보존측면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필요한 시기에 개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워서 산림자원이 보존될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리인을 山林契員 또는 山主들이 함께 선출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도에는 도민의 12%가 산림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계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輿論을 대변해주고 우리 산지자원을 더욱 경제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경영적인 측면에서 管理해주시는 組合長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일은 아주 태산같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民主化 時代에 맞추어서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장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뽑아주신 주민의 편에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아주깊은 철학적인 뜻을 가지시고 국가시책과 함께 발맞추어서 山林業務를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모쪽록 여러분들이 새롭게 탄생이된 산림조합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 우리 忠淸南道 산림자원의 開發과 保存이 더욱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저희 行政과 山林組合과의 유대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재정적으로 山林組合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시장으로 있을 동안도 대전시의 산림조합 운영상황을 보면서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을 이끌어 가고 계신것을 보았습니다만 점점더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民間部門이 커지면 커질수록 등짐도 더욱 가중이 되고 組合의 運營도 어려움이 더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民間部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도의행정과 知事외에 公務員들도 여러분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생각입니다.

함께 노력해 나가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克服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 나와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우리 忠淸南道의 山林組合의 운영과 산림행정이 더욱더 發展되는 한 해가 되기를 빌어마지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藝術人들에 對한

1989년 12월18일

書 翰

한햇동안 땀흘려 일한 성과에 대한 보람과 함께 때로는 아쉬움도 안겨준 己巳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장의 文化와 鄕土藝術振興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하여 찬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도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忠南發展의 元年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민 모두의 공감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도세 회복을 위해 후회없이 일했습니다만, 그러한 도민의 의욕과 정신문화의 승화는 바로 고장의 文化藝術에 의하여 이끌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란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정신과 물질생활을 주도하고 삶의 價値와 德目을 가늠하는 기본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동안 급속하게 성장해온 물질문화에 걸맞는 精神文化가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던져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격동을 거듭한 80년대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아쉬웠던 점을 반성하고 불과 몇주 앞으로 다가온 90년대를 준비해야 할 싯점입니다.

더우기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전통적인 선비의 고장과 민족文化의 발상지라는 명예를 선양할 수 있는 우리의 분발이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르는 道民의 意慾이 앞으로 참신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결집될 수 있도록 더 많은 指導와 創作活動을 기대합니다.

우리시대의 여유있는 정서와 함께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藝術, 그리고 다음 세대와 먼 후손에게 떳떳한 유산을 물려주려는 우리의 課題를 몸소 創造하고 實現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庚午年에는 우리 忠南의 文化 藝術이 한층 더 윤택하고 기름진 토양 위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세밑에는 건강하시고 다복하신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庚午 새해에는 고당에 平安과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9 새마을 指導者大會

1989년 12월 19일

祝 辭

친애하는 새마을指導者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금년 한해가 아쉽게 저물어가는 이 세모의 길목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우리 새마을 運動의 희망찬 내일을 다시 가다듬는 새마을指導者 大會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보다 어려워진 새마을 運動의 여건을 극복하면서 마을과 地域社會를 이끌어주신 指導者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앙과 같은 신념과 인내 하나로 새마을 運動에 獻身奉仕하여 오늘 표창을 받은신 受賞者 여러분에게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뒷 받침 해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호응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道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올 한해, 그리고 이제 열흘 후면 마감하는 80년대가 우리에게 준 感懷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금년, 그리고 어렵게 헤쳐나온 지난 10년은 너무나도 큰 격동을 안겨주었고 그 激動을 감내한 만큼의 보람과 함께 敎訓도 얻은 소중한 體驗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겪은 뼈아픈 經驗은 지난 80년대초 모든것이 한꺼번에 무너

질 것 같던 그 混亂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써 가꾸어 놓은 成長과 發展도 우리가 조금 방심한다거나 서로 和合하지 못하고 團結하지 못할때 일시에 허물어 질수 있다는 사실도 經驗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새마을指導者 여러분!

우리는 또 지난날의 經驗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現實的인 課題는 지난날의 낡은 생각, 낡은 옷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하고 감쌀수 없다는 事實도 發見하게 됩니다.

이제 격동과 喜悲로 점철된 80년대의 대단원을 마감하면서 오늘까지 勤勉·自助·協同으로 第1의 跳躍을 이룩한 우리의 새마을 運動을 다시금 點檢하고 새로운 方向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날의 새마을 運動이 우리도 하면된다는 意慾과 自信感의 고취, 그리고 가난을 몰아내자는 運動이었다면 앞으로 90년대의 새마을 運動은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精神的 새마을 運動이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새마을 運動이 잘 살기 運動인 것만은 변함이 없으나 특히 오늘날에는 사람이 귀한 줄을 아는 人本主義社會, 서로 존중하는 道德과 秩序의 社會, 더불어 잘사는 진정한 福祉社會를 앞당기는 새마을 運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장의 새마을 指導者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忠南道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道義 새마을 運動을 추진하여 200만 道民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忠孝와 禮節의 뿌리깊은 傳統을 힘차게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이든 정신이든 우리 사람의 마음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또 그러한 마음은 道德과 倫理가 정착되므로써 이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수 있다는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차원높은 道義 새마을 運動을 통해서 90년대, 보다 성숙되고 선진화된 내 고장의 건설과 국가발전에 대한 貢獻을 새마을 家族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밝아오는 庚午年, 指導者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祝福과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北韓社會開放促求決意大會

1989년 12월 19일

激 勵 辭

친애하는 安保役軍 여러분!

그리고 道民여러분!

오늘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이곳 洪城에서 北韓社會의 開放을 촉구하는 道民促求大會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보조직과 역량을 새롭게 정비한 韓國自由總聯盟忠南道支會 會員여러분이 금년도 우리의 지역안보 사업을 결산하면서 오늘날 南北對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北韓의 두터운 폐쇄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道民의 뜨거운 목소리를 결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 世界에 건재하던 共産主義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共産主義만이 인류를 모두 잘살게 하고 평등하게 할 수 있다던 理念과 體制가 더이상 버틸수 없는 限界点에 이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反共安保의 역군들이 이처럼 한데모여 北韓開放에 대한 道民의 힘찬 호소를 대변하게 된것을 北韓에 대한 이념적인 勝利의 우월감이라기 보다는 같은 民族으로서 和解와 同質性 회복의 첫발을 디디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조국의 平和統一을 앞당기려는데 그 目的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안보의 기수여러분!

오늘 이 促求大會가 주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內部의 問題입니다. 지금 지난 수십년 동안 싫증이 나도록 共産主義를 해본 나라들이 모두 이를 마다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만이 철없는 일부 사람들이 어찌하여 左翼에 기우는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들에게 하루빨리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민족의 살길이요, 역사의 부름인 民主和合의 廣場으로 合流하기를 기대하는 도민의 외침이 바로 그뜻이라고 봅니다.

한해가 저물고 또 80년대가 역사속으로 영원히 접혀지는 이순간에 北韓의 경직된 社會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아쉬움을 갖습니다.

엊그제 까지도 南北으로 갈라진채 지난 40여년 동안 생사의 안부조차 모르던 離散家族의 만남을 주선하던 북한당국이 갑자기 對話를 中斷하였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故鄕訪問을 위한 對話는 대내외의 宣傳用 이었을 뿐이지 결코 진정한 만남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음을 알게됩니다.

이미 홍수와 같이 도도히 터져나온 저 민주화의 세계적 물결은 반드시 北韓의 障壁을 무너뜨릴것이 분명합니다.

머지 않은날에 베르린의 장벽을 무너뜨린 게르만 민족이 저토록 뜨겁게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休戰線을 녹힐수 있는 기회가 올것입니다.

그러나 안보역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것이 있습니다. 저 東西獨의 만남과 和解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민주와 단결로 뭉친 西獨國民들의 힘과 經濟力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北韓에 대한 장벽의 開放을 促求하면서, 저 서독국민들처럼 北韓同胞들을 따뜻이 맞을수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오늘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北韓社會의 開放을 촉구하는 우리道民의 힘찬 목소리를 다시한번 치하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 安保指導者 여러분 그리고 온 道民의 家庭에 幸運과 홍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接見人士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 19일

書 翰

한해와 80년대가 함께 저무는 이때 모든일 소망대로 이루시기를 빕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우리 90여년 道政史에 크나큰 변화와 보람을 안겨준 결실의 한해였습니다.

금년 초 1월 1일자로 大田市가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고 瑞山市와 泰安郡의 탄생으로 인한 획기적인 행정개편은 온 도민의 충족감을 안겨줌으로써 가히 역사적인 쾌거와 함께 忠淸圈 發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세의 많은 부분이 감소됨에 따른 아쉬움과 이에 대한 분발은 忠南時代 創造의 元年이라는 기대와 소망의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어느때 보다도 고장발전에 대한 도민의 의욕과 기대가 충만한 가운데 지역의 均衡開發과 農村工業化를 가속화하게 되었으며 西海岸時代의 開發이 현실로 다가서면서 미래의 설계와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그 결실을 함께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道民和合의 계기는 지역의 安定과 發展을 위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법을 결론짓는데 앞장서 주신 존하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컸음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庚午년은 번영의 9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이면서 또한 대망의 2000년대를 준비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忠南道政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새 충남시대의 2차년도로서 지난 한

해동안 땀흘려 뿌린 씨앗이 싹트고 잎을 피움으로써 모든 사업이 可視化 되기를 기대하고 또 여기에 대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公務員 모두가 도민에 대한 봉사의 참뜻을 가다듬어 어제보다는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設計와 집념어린 實踐속에 꿈과 희망을 현실로 가꾸는 슬기를 다짐합니다.

바쁘신 연말에 건강하신 가운데 모든일 알차게 맺으시고 새해에도 高堂에 가득한 幸運과 多福하심을 기원합니다.

道政모니터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20일

書 翰

저물어가는 己巳年과 함께 격동의 80년대가 저물어 가는 이때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도정여건의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忠南의 元年을 열기위해 도정과 도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한 보람이 큽니다.

특히 감소된 도세를 조기에 회복하려는 공업화시책 등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西海岸 時代를 主導하기 위해 그 준비를 착실히 함으로써 이제 희망과 자신을 갖고 다가오는 9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희망과 자신감은 평소 우리 道政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론의 수렴과 충고는 물론 적극적인 參與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모니터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에 힘입은 바 컷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모니터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단 한가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처리하고자 最善의 努力을 다했습니다만 기대에 못미치고 성의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지난 12.9 道政모니터 敎育과 함께 市·郡別로 가진 오찬에서 피력하신 여러분의 좋은 의견은 새해 道政에 反映될 숙제로 알고 이를 십분 수렴할 것을 約束드립니다.

이 수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도에서 추진해보지 못한 추진하지 않았던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보람과 함께 또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다는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을 하면서 금년 1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른 道勢 약화와 또 도민들의 허탈감이라든지 좌절감없이 우리 도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뿐만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는것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64년 이래로 우리 忠淸南道의 인구가 大田市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매년 2만명내지, 3만명씩 줄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를 분리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市郡의 인구만 가지고도 약 4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人口가 增加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의 도세가 획기적으로 발전해왔다는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 연말에 우리 도의 공업단지 면적이 불과 60여만평 이던것이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앞으로 우리도에 유치되는 공단면적만도 1천2백만평으로 늘어나는것을 보아도 쉽게 道勢발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공업화의 추진 그것만이 도정발전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시행들이 도정 발전을 객관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입증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것은 도민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현재 살고있는 도민들의 生活의 質을 높이는데 주안점이 주어지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들 딸 세대에서는 보다 복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계획적인 도정을 수행하는데 큰 역점을 두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¹들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것은 사람 위주로 행정을 수행하자 하는 人本主義의 행정에 바탕을 두어서 추진해왔고, 그 저변에는 새로운 충남정신, 도민정신을 구현하는 시책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天安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이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도 정신 분야의 개발이 오히려 물질분야의 발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道義 새마을 運動이 바로 그러한 精神開發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새마을 中央會 會長도 대단히 높이 평가해 주신바 있습니다.

새로운 연대를 맞이하게 되는 90년에는 이러한 금년도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한해가 되리라고 믿고 그것이 믿거름이 되어서 90년대의 忠淸南道는 지난 80년대까지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느껴왔던 개발에서의 소외지역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고 바로 충청남도가 開發의 主役이고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역, 그리고 국가의 중핵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고 만들어나가는 그러한 연대가 되리라고 확신 합니다. 이것은 이곳에 앉아계신 우리 道政評價団 委員님들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것에 크게 힘입은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도정평가단 운영의 내실을 더욱 기하면서 200만 도민 모두가 도정의 참여와 도정의 성원을 더욱 더 크게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정발전과 고향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마다 않고 참여해 주신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90년대, 다가오는 새해,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것을 저희 간부 또 1만 7천여 공무원 모두가 함께 여러분께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地方自治制가 실시 되도록 지방자치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또 여러가지 새롭게 추진해야될 行政들을 우리 평가단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忠南의 發展이 더욱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실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評價団委員님들 가정에 더 큰 행운과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모두 큰 성취를

이룩할수 있도록 빌어마지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邑·面·洞長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21일

書 翰

한 해가 아쉽게 저무는 이 세밑에 먼저 귀직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속으로 접혀지는 己巳년은 우리 90년 道政史에 큰 획을 그으면서 보람과 敎訓을 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연초에는 우리도에서 관할하던 大田市가 하나의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고 瑞山市와 泰安郡이 한꺼번에 탄생하는 획기적인 행정개편으로 도민에게는 더없는 만족감을 안겨주고 忠淸圈의 發展에 새로운 궤도를 설정한 감회가 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세의 많은 감소를 가져와 아쉬움도 없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동안 대도시 행정의 짐을 벗고 도내 모든 지역의 균형된 개발을 촉진하면서 새 忠南時代 創造의 기틀을 잡은 보람을 얻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도민의 뜻대로 확정된 西海岸 高速道路 노선의 확정과 農村工業化의 가속, 道勢의 도약을 위한 7대역점 시책의 순조로운 추진등 忠南時代의 元年 장식이라는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같은 成果는 도정의 최일선에서 끊임없는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地域社會의 여론을 탄력적으로 수렴하고 벅차게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오히려 地域開發의 순수한 의욕과 애향심으로 승화시키는데 앞장서 주신 邑·面·洞長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庚午년은 번영의 90년대를 시작하는 첫해이면서 또한 대망의

2000년대를 내다보며 힘찬 첫발을 내딛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욱 새로운 民主化時代를 개막한 6共和國이 국가발전의 가속력을 갖는 출범 3차년도인 한편, 우리 忠南道政은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져야하는 새 충남시대의 2차년도 입니다만 내년도의 국내외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전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道民에 대한 奉仕의 姿勢를 가다듬어 올해보다 더욱 큰 보람과 영광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도록 一線 公務員을 귀직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연말에 건강한 가운데 모든 일 알차게 맺으시고 새해에도 幸運과 萬福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農漁民後繼者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21일

書 翰

한해가 아쉽게 저무는 길목에서 신념과 피땀어린 노력으로 시종 일관하신 귀 後繼者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저물어가는 己巳년은 세계인류를 불행으로 빠뜨린 共産主義가 스스로 몰락하면서 自由와 民主의 가치가 한결 돋보인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는 같아도 국가 이익을 둘러싼 경쟁에는 한치의 양보가 없고 나라의 크고 작음이나 先進國과 後進國의 区別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적 과제인 농산물 개방압력은 우리 農民들로 하여금 세계 무역경쟁의 최일선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면과제의 극복과 미래의 農村復興을 위해 우리 農漁民들과 도정 그리고 政府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느끼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다수확 일변도의 農事보다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가격이 보장되는 品質爲主의 農事가 요청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언제나 외국농산물의 輸入開放 壓力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산물도 海外로 輸出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여러곳에서 태동되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도 수출되는 농수산물이 많지만 앞으로 海外市場을 적극 開拓한다면 우리

농어촌도 국제화시대의 先進 農漁民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려면 무엇보다도 科學營農의 추구와 선진영농기술, 그리고 農村의 現代化가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대망의 90년대를 맞아 우리 農漁村의 主役들은 어떠한 난관이나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바탕으로 내일의 福祉農村 建設에 최선의 실천력을 모을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항상 귀 後繼者에 거는 마을과 지역사회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젊음과 지혜가 함께 어울어지는 前進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庚午새해 귀 後繼者의 가정에 幸運과 萬福을 기원합니다.

勞動組合長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 21일

書 翰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쉽게 저무는 세모에 모든일 보람으로 맺으시기를 빕니다.

이제 역사속으로 저물어가는 己巳년을 돌이켜볼 때 격동과 시련극복에 대한 깊은 감회와 함께 결실과 보람에 대한 자부도 큽니다.

더우기 이 한해에는 공산주의를 철칙으로 신봉하던 나라들이 그 이념과 운용에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自由와 民主의 價値를 실토하는가 하면, 자유 경쟁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世界 情勢의 밝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蘇聯의 改革과 베르린 장벽의 무너짐이며 공산주의 대표적 아성이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의 붕괴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共産主義의 퇴조는 누구의 강요나 제3자의 무력에 의해서도 아니요, 오로지 그들 자각에 의한 인간 심성의 발로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속에서도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국가 이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무역경쟁과 이해대립은 첨예하여, 앞으로 국가간의 분쟁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바로 実利의 싸움이 될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 세계의 주목을 받는 10대 貿易國家로 성장한 것은, 모든 국민 노력의 소산이지만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로현장에서 땀흘려 일한 勤勞者들의 공헌이 바로 근본이었슴을 생각하면서, 그 노고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곧 先進 産業國家로 도약할듯 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 다소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올해의 경우 자만에 빠진 사회 일각의 과소비와 향락경향, 그리고 국가나 사회 여건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일부 계층과 좌익세력의 준동등으로 인한 국내 사정이 세계각국의 開放壓力을 슬기롭게 이기는데 짐이된 아쉬움도 있습니다.

특히 가격의 인상과 생산조건의 불리한 여건으로 賞品競爭力을 잃은 우리의 여러수출품이, 貿易市場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일이 예삿일이 아닌듯 합니다.

새해에는 올 한해의 경험과 세계 정세의 추이를 잘 분석하여, 우리 商品이 다시 競爭力을 찾고 무역수지를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각 분야의 우리 근로자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사회를 계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봅니다.

과소비의 추이를 보였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勤勉과 알뜰한 貯蓄을 보고 배우려는 반성의 기미는 있지만, 귀 指導者는 이점을 유의 地域社會를 위해 啓導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또한 중요한 것은 産業平和로서, 지난날과 같은 일부 과격한 노동운동은 국가와 國民經濟를 파탄으로 몰아 갈수있다는 점을 모든 勤勞者들에게 주지시켜 주시면서 우리근로자와 使用者, 그리고 消費者인 國民이 다함께 화합하고 번영할 수 있는 슬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庚午 새해에는 귀 指導者와 우리 勤勞者들에게 幸運이 거듭되고 가정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糧穀 加工 搗精業者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 21일

書 翰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고당의 행운과 다복하심을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가 우리 忠南에게는 격동과 보람, 그리고 시련도 함께 준 벅찬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먼저 금년 1월1일자로 그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大田이 直轄市로 분리 승격함으로써 대전시민에게는 오랜 소망에 대한 충족감을 안겨주었지만 도민들은 모든 면에서 표준을 유지하던 우리의 道勢가 일시적이나마 弱化된 것을 못내 아쉬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道政의 與件 變化를 오히려 새로운 跳躍의 轉機로 삼아 모든 지역의 균형 개발과 농촌 공업화의 가속화, 그리고 기대 부푼 서해안시대에 발맞춰 나가되 모든 계획과 시행, 그리고 그 결과등 모두를 도민 위주로 추진하는 人本 行政에 토대를 두어 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신념과 용기의 도정 추진은 바로 귀하께서 전반적인 道政은 물론 糧政에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덕택에 힘 입은바 큰 것이기에 한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庚午年은 대망의 90년대를 시작하는 첫해이면서 우리 도정에 있어서는 단순한 도세 만회의 차원을 넘어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새 忠南時代의 제2차년도라는 뜻이 주어집니다.

또한 세계 정세의 격랑속에 출범한 第6共和國이 그동안 만난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위에 서울올림픽이라는 찬연한 금자탑을 세운 저력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民主秩序를 정착시키고 先進經濟의 틀을 잡아나갈 제3차년도라는 의미도 매우 큽니다.

이처럼 소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지만 내년에도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모든 環境과 與件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희망찬 새해, 아무쪼록 우리 道政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연말 健康하신 가운데 모든 일 알차게 맺으시고, 새해에도 고당에 가득한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出鄕人士의 고향쌀 사주기 運動에 즈음한

1989년 12월 21일

書 翰

성취의 보람과 아쉬움도 함께 안겨주는 己巳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때 모든일 소망대로 이루시길 빕니다.

항상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덕택에 힘입어 고향 忠南의 發展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희망에 부풀어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얼마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西海岸 綜合開發計劃에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량과 예산 비율은 온 도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당초 주민의 뜻대로 西海岸高速道路의 路線이 確定되어 도내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이제 대전시라는 대도시 행정의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農漁村의 開發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고향 발전의 시책에 대한 도민의 호응은 물론 出鄕人士 여러분의 성원에 필요함을 실감합니다.

더우기 지금 고향 농촌의 農民들은 지난 일년동안 애써 쌀농사를 지어놓고 이를 팔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벼의 收買量을 늘리고 收買價格을 인상하는등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한곳에 치중할수 없는 국가재정 형편상 농민들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계성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우리는 이번에 出鄕 人士들에 대한 고향쌀 사주기運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출향 인사들 중에서 쌀의 다량 소비를 알선하실수 있는 분들이 소박한 愛鄕心을 바탕으로 고향 農民들을 도와주신다면 그 양에 관계없이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새로운 勇氣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하의 따뜻한 손길이 고향 발전의 큰 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세밑, 幸運과 多福하심을 기원합니다.

里·統長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 23일

書 翰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바쁜 세모에 먼저 里·統長님의 행운을 빌면서 모든일 알차게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볼 때 저무는 己巳年은 한 해의 의미를 넘어서 80년대의 마무리라는 시각에서 모든 일이 돌이켜집니다.

금년초에는 1월 1일자로 우리도의 한 도시이던 大田市가 直轄市로 승격 분리되고 瑞山市와 泰安郡이 승격되는 획기적인 도정의 결실에 대하여 도민의 보람과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던 감회가 깊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도세의 많은 부분이 약화됨에 따른 아쉬움과 함께 도세 만회를 위한 도민의 열망을 토대로 새로운 忠南跳躍의 元年을 뜻깊게 장식한 한해였음을 회고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道政의 目標와 重點 施策으로는 도내 모든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촌공업화의 가속을 위한 農工団地 조성은 물론 政府의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에 우리忠南道와 연관된 사업의 집중적인 반영, 西海岸 高速道路의 해안지역 접선등은 실로 200만 도민의 벅찬 希望과 期待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道政의 最一線에서 행정조직을 100% 가동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여건에 알맞게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수렴하고 열과 성으로 보살펴 주신 里·統長님들의 勞苦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궂은일 좋은일을 가리지 않고 道政遂行에 밤낮이 없으신 里·統長님들에 대한 報答이 이에 따르지 못한점을 항상 안타깝게 여기면서 처우개선 대책을 중앙에 끊임없이 건의한 보람이 있어 오는 90년도부터는 이·통장 수당과 상여금의 상당액이 인상과 함께, 里·統長 子女奬學金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里·統長 敎育을 민방위교육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里·統長님들의 見聞을 더욱 넓혀드리기 위해 2박 3일 정도의 先進地見學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등 모든면에서 사기를 높여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里·統長님들의 수고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분리 이후 더욱 어려워진 우리도의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改善해 나갈 計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밝아오는 庚午年은 번영의 9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이면서 우리 도민에게는 고장의 도약을 可視化시키는 새 忠南時代의 2차년도입니다만, 내년에도 국가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展望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과 道民에 대한 봉사의 참뜻을 가다듬어 올해보다 더욱 큰 보람과 영광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도록 里·統長님들이 앞장서 마을마다 꿈과 希望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면서, 바쁘신 세밑 健康하신 가운데 모든일 차분하게 좋은 결실 맺으시고 새해에도 家庭에 幸運과 洪福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9下半期停年退任式

1989년 12월 27일

致 辭

오늘 한 해가 아쉽게 저무는 세모에 우리는 고락을 같이해 온 公務員 同志 일곱분과 함께 惜別의 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로 제2의 인생을 축복하는 뜻인지 지난밤에도 瑞雪이 하얗게 내렸습니다만, 먼저 영예로운 정년을 맞으신 先輩님들에게 남아 있는 後輩들을 대신해서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大植 補佐官님, 宋祐錫 種畜場長님, 姜信珏, 朴勝敎 研究士님, 그리고 李春浩, 金西童, 金興德 技士님, 떠나시는 분들의 성함을 한분씩 읊조려 보면서 너무나 친숙하고 그리고, 깊은 정을 나누었던 감회로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떠나보내 드린다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이것은 한 公職社會의 조직 운용과 제도에 따른 형식상의 헤어짐일뿐, 우리는 어차피 일생을 통해 서로의 安否가 그립고 情이 그리운, 한 길을 걸어온 平生의 同志라고 생각합니다.

길게는 45년, 그리고 짧게는 18년 동안 일곱분이 道政을 위해서, 그리고 道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오신 功勞는 우리 忠南 道政史와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늘의 발전과 내일에 대한 기대만을 생각하고, 지난날의 고난과 함께 그 역경을 극복했던 과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榮譽로운 停年을 맞으신 先輩님들이 박봉과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犧牲에 가까운 公務員의 길을 걸어 오셨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시련을 이겨냈던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이 있기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個人이나 組織 社會나 國家나 다 마찬가지로 과거라는 歷史의 거울로 오늘을 비춰보지 못한다면 오늘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며, 오늘을 슬기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런한 생각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公職을 떠나는 일곱분이 쌓아오신 道政에 대한 貢獻, 그리고 後輩들에 대한 가르침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金大植 補佐官을 비롯한 退任 公務員 모두가 전문 분야의 오직 한길을 걸어오신 것을 注目합니다.

산림 행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金 補佐官님이나, 외곬으로 축산진흥에 모든 공직 생활을 바친 宋種畜場長님, 과학영농 기술연구에 밤낮이 없었던 두분 研究士님, 그리고 치산 녹화와 농산물 개량, 축산 진흥을 위해 음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세분 技士님에게 우리는 더 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業績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받고 發展시켜서 우리 後輩 公務員들에 물려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비록 공직에서는 떠나시더라도 항시 道政과 後進을 위해 聲援을 베풀어 주시고 질긴 인연의 끈을 두텁게 이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停年 退任까지 항상 보살펴주신 가족과 친지 여러분의 공헌에 대하여도 致賀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일곱분의 앞날에 무한한 幸運과 健康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년 12월 30일

式 辭

이제 만 하루하고 몇시간이 더 지나면 己巳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마감되게 됩니다.

그토록 喜悲가 함께했던 '80년대를 역사의 뒷장으로 돌려 보내면서 지난 1년은 물론 80년대 동안 國家와 國民 그리고 道와 道民을 위해서 獻身 奉仕해온 16,000여 公務員 家族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된 公務員들과 16,000여 公務員를 대표해서 포창을 받은 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終務式이라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 종무식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옷깃을 여미는 새로운 마음 가짐을 갖게 됩니다. 원래 마감과 시작은 따로 떼어 있는것이 아니라 연속돼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31일 24시와 한해를 시작하는 1월1일 0시는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時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한해를 마감하는 終務式을 갖고 또 새해를 맞는 始務式을 갖는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바쁜 일정에만 쫓기다보면 反省의 機會를 갖지 못합니다.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새로운 발전도 있을수가 없습니다. 원래 行政을 하는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 한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하는 것을 評價합니다.

특히 計劃과 推進過程에서 잘한것과 잘못한것을 評價하여 새로운 계획수립에 反映하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해를 마감하는 終務式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종무식은 '80년대의 10년을 마감하는 終務式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0년과 '90년대의 시작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1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볼때 지난 1년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고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념적으로 볼때 베를린 장벽의 開放이 상징하고 있듯이 東歐圈의 共産政權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 역사속에서 共産主義 理念이 금년처럼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엊그제 靑瓦臺 會議때 大統領께서 "88년도에 가졌던 서울 올림픽이 東西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촉매의 役割을 했고 우리가 추구했던 平和의 올림픽, 和解의 올림픽이 東西의 이념적 葛藤을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세계인들의 評價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단히 큰 自負心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民主主義를 定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것 들으면서, 실제로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볼때 그 어느때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理念的 큰 變化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국제 정치적으로도 美蘇의 몰타頂上會談이 이러한 冷戰을 종식시키는 역할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경제적으로 볼때는 EC의 統合과 保護貿易主義의 擴散이 새로운 國際 經濟秩序의 定着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5共淸算으로 일컬어지는 舊時代에 대한 終止符를 찍기 위해서 대타협의 정치적 결단이 '90년대에는 새로운 民主秩序를 정착시켜서 統一을 지향하는 국가적 發展이 이룩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國民에게 심어 줄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頂上外交를 통한 北方外交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계 보두가 共産主義 理念이 무너져 民主主義의 새로운 국제정치 秩序가 定着돼 가고 있는 가운데 유독히 우리나라만은 일부 세력의 무분별한 行動으로 국가내부의 理念的 葛藤이 심화된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문익환 목사사건이라든지, 임수경양 사건이라든지, 서경원의원사건과 같은 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큰 상처를 심어준 일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노사분규, 교원노조, 농민대회 등도 우리 모두에게 우울했던 記憶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기 몫찾기로 야기된 經濟的 危機는 우리 大韓民國을 아시아의 4마리의 龍中에 하나라고 評價했던 사람들에게 韓國이 아시아의 龍이 아니라 아시아의 지렁이로 轉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國民들로 하여금 대단히 큰 좌절감속에서 연말을 맞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겪게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폭력이 난무하고 民生治安이 크게 위협받는 어려움 속에서 지난 1년동안 그래도 地方行政을 맡아온 우리 모두가 公權力의 回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왔고 그 결과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조용한 연말을 맞을 수 있게 된것은 큰 다행이며 그러한 狀況的 變化때문에 90년대의 밝은 미래를 國民들에게 그래도 깊이갖도록 해 준것은 우리 地方行政公務員들의 큰 役割이었다고 評價를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 道를 회고해 보면, 금년 1년은 대단히 큰 변화속에서 道政의 發展에 획기적인 한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道政의 目標를 設定 해서 提示를 했습니다.

첫째, 정신적인 측면에서 百濟精神으로 일컬어졌던 화합과 기백의 忠南精神을 되살리자.

둘째, 물량적인 측면에 大田直轄市 분리에 따른 道勢의 弱化를 조기에 回復하는 道政을 展開해 나가자.

셋째, 이러한 도정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사회에 企業精神을 導入하고 공무원 모두의 가슴속에 엘리트 의식을 심어줘 우리가 충분히 해낼수 있다는 信念과 自信感을 갖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3가지 측면을 回顧를 해 볼때, 나는 대단히

큰 成果를 거두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노력해준 결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忠南精神을 되살리는 많은 運動들을 전개 했고 여러 부분에서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道義 새마을 運動의 전개, 鄕約의 實踐 그리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忠南精神의 實體를 찾는 노력을 성과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市道에도 없었던 地域的 安定을 이룩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瑞山地方의 KZ事業추진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지역은 도민 모두의 協助와 聲援에 힘입어 安定을 저해받지 않고 지난 1년을 보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道民行政의 發現을 위한 우리의 정신적 노력이 주요했던것으로 나는 評價를 하면서 이를 대단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道勢의 조기 回復에 있어서도 7大 力點施策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 우리 忠南地域에는 지난해 말 6만평정도에 불과했던 工業團地 面積이 약1,200만평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거나 完工이 됐거나 또는 計劃이 確定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 결과 67년이래 道民의 數가 처음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京畿道와 慶南에 이어서 전국에서 3번째로,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봅니다. 人口가 減少하는 것이 常識化되어 있는 道政史에서 이십수년만에 다시 道民의 數가 늘었났다는 것은 道政遂行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단적인 표현이다고 評價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겠지만 연초에 우리가 道民들에게 약속했던 道勢 回復의 可視化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당초 計劃했던것 보다도 훨씬 더 큰 成果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企劃을 담당했던 企劃管理室, 그리고 실제로 業務를 추진해온 各室局, 또 市郡 擔當公務員의 노력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금년도 道政중에서 특히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路線이 忠南案으로 確定,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생각치 못했던 開發利益의 還收 특히 이제 우리가 韓電과 협정식을 가졌지만 1,200억원 이상의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된 事例, 農産物 輸出相談所를 설립해서 우리 農民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行政을 폈던 일들은 모두 기억에 남는 보람들 입니다. 더우기 政府의 서해안 개발계획에 우리

忠南의 사업이 道의 구상대로 거의 반영된 것들은, 모두 여기 앉아있는 幹部職員들, 특히 室局長들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回顧를 해 보면, 우리 公務員들에게 여러번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信念과 勇氣있는 공무원이 되자는 것으로서 우리 忠淸南道의 公職者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자기일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있는, 使命感이 넘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전력투구하는 公務員이 되달라는 것으로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기 몫을 해낼뿐만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서 고향의 발전과 道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公職者가 되달라는 경제의식을 가지고, 특히 企業家 精神을 몸에 배도록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요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名譽를 소중히 여겨 자기자신의 명예를 지키는것이 바로 道政의 名譽를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公職生活을 해 줄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당부와 노력이 지난 1년동안 道政의 成功的 遂行의 밑거름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한번 致賀를 드리면서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忠南 무대접을 늘 얘기해 왔던 우리의 타성을 뛰어넘는 일 들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忠淸南道의 200만 道民과 16,000여 公務員 모두는 누구도 忠南 무대접이란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무대접이 아니라, 우리가 待接받고자 노력하면 노력한 이상이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1년이었습니다. 이것은 道政史에 참으로 벅찬 結實이며 보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 '89년은 '90년 道政史에 새로운 里程表를 그은 획기적인 1년으로 記憶될 것입니다.

정부의 西海岸 時代에 맞추어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는 主役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開發에 전심전력을 쏟아왔고 道民과 함께 더불어 하는 與民 行政에 역점을 두어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성원을 받았던 1년 이었으며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行政風土를 定着시키는 1년이었습니다.

이러한 道政 成果에 대한 評價는 우리 道民들과 먼 훗날 歷史家들이 함께 해 주겠지만 16,000여 여러 公務員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評價할 수 있었던 일일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 참으로 가슴아팠던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道政史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볼때도 公務員 生活하면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본의 아니게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맛봐야했던 1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覺悟와 새로운 發展을 기약하는 한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후회속에서 1년을 살면 1년을 허송하게 되는것이고, 후회속에서 10년을 살면 자기 一生을 허송하는 것이라 합니다. 希望과 勇氣속에서 1년을 보내면 10년을 發展시킬수 있고, 10년을 하루같이 自己 啓發과 새로운 희망·용기로 設計하고 추진해 나가면 자기일생과 地域社會의 發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80년대를 마감하는 終務式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년과 1년을 回顧를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90년대, 특히 새로운 忠南時代의 연대를 希望속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여러분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자리에 앉아있는 幹部는 물론 職員 여러분의 協調와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는 元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수 있었던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우리 15,000여 公務員 家族 여러분에게 더 큰 幸運과 成就가 함께 하시고 家庭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리시길 빌어마지 안습니다.

1989년 12월 31일

祝 刊 辭

격동의 진폭만큼 시련과 보람을 안겨준 80년대가 저물고 기대와 설레임속에 90년대 그리고 21世紀의 첫장을 여는 庚午年의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고장 발전에 대한 소망과 의욕이 넘치는 여명의 시기에 우리 忠淸人의 기치를 높이 세운 "차령"이 創刊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時代는 모든것이 획일적이고 단순하던 社會意識과 構造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가치와 행태가 수용되는 自律과 開放의 時代인만큼 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주민의 의욕이 한곳에 결집되려면 그러한 의식과 지혜를 收容하고 共感帶를 形成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막 創刊을 본 "차령"이 바로 우리 忠淸人의 뿌리와 傳統을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의식과 역사의 소명을 일깨우는 구심적 役割과 方向陀의 所任을 자원하고 나섰으며 그 몫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 忠淸땅은 先史 文明이 정착한 여명의 삶터이고, 그 이름도 찬연한 文化를 창조한 百濟의 얼이 서려있는 곳이기에 이러한 遺産과 傳統을 바탕으로 忠孝와 禮節 그리고 선비의 고장이라는 명예가 자랑스럽습니다.

더우기 단절과 굴곡의 시대를 청산하는 세계 정세의 새로운 기류는 世界 文明의 한 기둥을 차지한 中原 大陸과 太平洋으로 크게 트인 황해 바다가 새로운 西海岸 時代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200萬 道民에게 보내는

1989년 12월31 일

送 年 辭

친애하는 道民여러분!

다사다난했던 己巳年과 함께 격동의 시대, 80년대를 歷史의 뒷장으로 영원히 넘겨보내면서 道民여러분께 送年의 人事를 드립니다.

돌이켜 볼때 지난한해는 世界史的으로나 國家的으로나 變革의 年代를 마감하고 새로운 年代를 準備하는 큰 진통속에 좌절과 성취, 소망과 보람을 함께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忠南은 大田直轄市 분리에 따른 행정구역의 改編과 함께 새로운 忠南時代의 元年을 도민 모두의 의지와 땀을 모아 슬기롭게 장식했던 1년이었습니다. 道勢의 早期回復, 道義새마을 運動을 통한 忠南精神의 發揚, 西海岸時代의 主役을 自任하고 나선 道民의 결연한 의지와 자부심, 이 모두가 지난 한햇동안 우리가 함께 가꾸어온 보람과 긍지입니다.

도민여러분!

지난 한햇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庚午年ㅣ 새해에는 더욱 잘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다시한번 道民여러분의 가정에 平安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좋은 기회에 우리 忠淸人의 役割 또한 부풀어 있음을 상기하면서, 짙은 향기와 정서 그리고 무게를 지닌 忠淸 文化의 創出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곳 忠淸을 향한 모든 흐름과 지향을 다 받아 들이되 필요한 文物의 씨앗은 精誠으로 가꾸고 이롭지 못한 것은 땅속깊이 묻어두는 智慧와 選別의 능력을 키우는데 있어 이 "차령"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忠淸人을 위한 敎養誌 "차령"의 出刊을 祝賀합니다.

1 월



▲ 신년 교례회

1990년 1월 1일

新 年 辭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기대와 소망가득한 庚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祝福의 순간에 먼저 道民여러분의 가정에 밝은 웃음과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새아침은 한 해의 시작인 동시에 대망의 90년대를 활짝여는 힘찬 첫발입니다.

이제 우리는 격동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싯점에서 先進國家의 成就와 복된 내고장 建設에 지혜를 모으고 두손을 마주잡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의 기쁨을 열 사람의 기쁨으로 昇華시키고 이웃의 어려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과 和合의 한길로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이 새아침의 굳은 다짐이 새로운 忠南時代 跳躍의 原動力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祝福과 榮光이 일년내내 充滿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始 務 式

1990년 1월 3일

式 辭

16,000여 우리 忠南 公務員 家族여러분!

이제 庚午年의 밝은 새아침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3일전에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89년 한해와 함께 80년대를 마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년 첫 始務式을 맞아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연대를 시작하는 기쁨과 希望속에서 진심으로 祝福받은 한해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우리 係長級 이상 幹部들과 모두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나는 손과 손을 마주 잡으면서 여러분 한분 한분의 多福을 祈願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분 한분의 개인적인 축복과 함께 幸福이 모여서 눈사람처럼 커지면 우리 忠南道廳과 200萬道民 모두의 幸福도 더 크게 이룩할 수 있다는 기원에서 그런뜻의 인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참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우리는 큰 보람과 榮光속에서 또 갈등과 질시, 배타속에서 서로를 信賴치 못하는 연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반목과 갈등을 떨쳐버리고 和解와 和合, 團結로써 새로운 歷史를 創造해야 될 90년대를 맞았습니다. 이 90년대의 의미는 여러번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한 年代를 여는 元年인 동시에 한 世紀를 열어야 될 준

비의 첫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1世紀를 준비하는 1990년대, 또 20세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1990년대를 희망과 기대속에서 大望의 90年代를 장식하기 위한 첫걸음을 오늘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忠南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충남이 아닌 새로운 忠南時代, 국가가 지향하고 西海岸時代의 주역으로써, 그리고 우리 國運이 더욱 융성해서 統一을 이룩하게 될 2000年代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 나갈 主役으로써 忠南이 해야될 역할을 확실하게 다지는 年代가 되어야 되고 또 될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1990年代입니다.

또, 6共和國으로 볼때에도 새로운 和解와 平和의 祖國을 이끌어 가야될 가장 중요한 한해가 금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90년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새해 첫 業務를 始作하면서 금년도의 중요한 道政方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道政 目標는 지난해 3가지의 과제를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는 忠南精神을 發揚을 시켜서 民主秩序를 定着시키고,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道勢의 發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서 道民 모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道勢를 創出해 내며, 행정적으로는 公職社會의 새로운 氣風을 定着시켜 '90년대를 선도해 나갈 公職者의 姿勢를 確立하는 목표를 가지고 도민의 輿望을 결집시켜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創出해 나가도록 道政의 方向을 정했습니다.

특히 우리 道政이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目標로 삼고 있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忠南精神 發揚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兩班道로써의 이미지를 回復하고 확고한 地域安定과 秩序를 확립하는데 目標를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道義 새마을 運動과 道德規範의 確立을 통해서 우리 忠南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無秩序나 道德的 頹廢가 창궐치 못하도록 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신적·도덕적으로 우리 祖國의 가장 핵심적인 道로써의 役割을 확실히 다져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공직인으로서 勇氣와 信念을 가지고 공직내부에 企業精神을 도입을 해서 忠南 公職人의 表

象이 되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좀더 구체화시켜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찌기 에머슨이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남겼는데, 知識과 勇氣, 이 두가지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용기와 신념, 대단히 중요한 德目을 우리는 지난해에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公職者 누구도 새로운 忠南時代를 여는 信念을 흐트려 트린적이 없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는 그런 용기와 신념을 바탕으로해서 보다 한단계 높은 知識이 요구됩니다.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道民 모두의 생각을 한데 결집해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創出해 낼수 있는 마음의 소양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용기와 신념을 바탕으로해서 새로운 公職知識을 더욱 연마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음으로 誠實하게 모든일을 행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성실이 무엇이냐, 참되고 精誠되고 거짓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至誠"은 하늘에까지도 통한다고 합니다.

우리 忠南 公職人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素養을 닦고 마음속에 남아 있는 회의와 불신을 떨쳐버린다면 금년 한해는 우리 충남의 時代가 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衡平의 原理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어느 계층도 疏外階層이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특히 내가 지난해부터 강조해 왔던 農漁村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精誠을 함께 쏟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西海岸 時代에 맞추어 工業化를 급격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업화 시책은 道勢의 조기回復에 대단히 큰 成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뒤에 과거 우리는 많은 소외계층이 있었음을 실제로 경험해 왔고 보아 왔습니다.

'90년대에 우리 忠南開發은 어느 한곳도 소외계층이 없는 개발, 衡平의 原理를

지키고 서로를 되돌아 보면서 疏外당한 이웃이 없도록 하는 노력, 그 노력이 있을때 우리 사회는 和解와 平和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道政目標를 수행해 나가는 全 公職者는 가깝게는 자기同僚 상하관계에서, 또 자기 이웃간의 삶에서 우리 地域의 開發을 추진하는 公務를 遂行하면서 어느 한쪽이든지 치우치거나 偏愛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마음으로부터 균형과 형평을 생각하는 公務를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저는 忠誠을 다시 다지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民主主義 사회에서 충성의 의미는 組織에의 忠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분한분의 손을 잡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욱 多福하십시오"하고 빌은 것은 여러분 한분한분의 복이 눈사람처럼 커져서 忠南의 福이 되고 나라의 福이 되길 기원하는 뜻도 함께 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忠誠은 조직전체에 대한 충성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인식하는 忠誠을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 忠南地域은 忠孝를 가장 중요한 德目으로 삼는 道입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 忠南地域에서 뿐만 아니고 韓國社會에서는 忠과 孝를 따질때 忠을 앞세웁니다만 실제로는 忠誠보다 孝를 더 생각하는 쪽으로 敎育을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孝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思考와 德目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忠은 전체로서의 思考와 전체로서의 德目를 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늘 '우리'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우리'라는 말속에는 '내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전체로서의 '우리'라는 뜻을 항상 저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것'이라는, '우리 忠南'이라는 생각이 앞서 있을때 忠南時代의 밝은 未來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모든것을 자기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立場에 서서 생각해 보는 슬기가 필요하고 이러한 評價가 道德性을 바탕으로 이루어질때 남을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3가지, 특히 조직에의 忠誠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忠南道의 16,000여 公職者 모두에게 한사람 한사람의 能力 啓發을 기대하지만, 저는 한사람의 天才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못한 能力을 가진 100명의 힘을 한데 합치고 마음과 마음을 뭉치면은 못해나갈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끓는 뜨거운 정열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조직전체를 위한 노력, 개인의 명예와 함께 組織의 名譽를 중히 여기는 公職生活을 할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새해가 새해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 '80년대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만 불과 하루 이틀사이에 우리는 다시 새해를 다짐하는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다짐한다는 뜻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묵은 마음으로, 묵은 눈으로, 묵은 생각으로 오늘을 맞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時間이 새해 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가 새로운 해가 되고 大望의 90年代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한해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분명히 다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6,000여 公務員과 200만 道民 모두가 함께 가슴을 활짝펴 두 주먹을 불끈쥐고 勇氣와 信念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연마함으로써 우리 忠南의 榮光을 위한 90년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분발과 參與와 協助를 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큰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새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당부를 겸한 人事를 드립니다.

新年交禮會

1990년 1월 3일

人　　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오랜만에 새해 첫날 瑞雪이 온 누리를 하얗게 덮은뒤 밝은 햇살이 우리 머리위에 뻗쳐서 300만 忠淸人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큰복을 비는것 같습니다.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新年人事會에 참석하신 지역 원로 유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고장출신 국회의원님 각급 기관장님 사회단체장님 여러분께 壇上에 나와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자리를 마련해주신 徐春源 大田日報社 社長님 그리고 大田商工會議所 李鍾完 會長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己巳年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런가운데서도 저희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는 지난 己巳年 新年賀禮때 여러분께 약속드린대로 李鳳學 直轄市長님과 제가 함께 쌍두마차를 이끌어 오면서 새로운 충남시대의 원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노사문제라든지 교원노조 문제, 농민문제등 각종 어려움이 국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만 저의 충청지역에서는 兩班의 道답게 큰 문제없이 한해를 보내고 또한 한해를 넘어 80년대를 마무리 짓고 대망의 90년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정신적으로는 새로운 忠南精神을 발양시키고 물질적으로는 도세를

조기에 회복시켜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리고 공직사회에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는 봉사 행정을 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더 큰 의미를 갖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특히 90년은 새로운 年代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연대의 첫해 입니다. 참 화해와 서로의 화합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先進國을 향해서 지속적인 전진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연대로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저의 17,000여 공무원 모두에게 첫째는 용기와 신념, 더해서 미래를 보는 눈을 갖는 지식을 연마해서 위대한 일을 창출해 낼수 있도록 계속 정진을 하자. 그리고 참되고 정돈되고 거짓없이 정직하게 봉사를 하므로써 旧時代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의 행복은 이발소에 가면 구할수 있고 한달의 행복은 자기가 탈말을 사면 된다고 합니다. 일생의 행복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꾸밈없이 사는것이 일생의 행복을 갖출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를 정성들여 참된 자세로 도민들에게 보답하고 봉사한다면 그 속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참 화해와 民主秩序를 정착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衡平行政을 수행해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工業化를 추진해 나가면서도 農漁村에 새로운 삶의 복된 터전을 마련해 주자하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를 이끌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새마음을 다져야만 된다고 합니다. 과거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만 있는것이고 시간을 소비 하거나 退嬰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묵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忠淸人 모두가 가슴을 활짝펴고 두주먹을 불끈 쥐고 統一의 世紀 그리고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써 힘찬 전진을 할것을 다시한번 다짐하십시다.

여기계신 기관장님, 유지여러분 말띠해를 맞아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 이 雙頭馬車를 화합속에 잘 이끌어서 우리 충청인의 가슴속에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월 4일

祝 刊 辭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 扶餘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소부리 消息의 出刊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율과 개방의 새로운 民主 時代를 맞아 많은 책자가 발간되고 인쇄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부리 消息과 같이 한 고장의 오붓한 정을 엮으면서 무엇이 지역 주민의 당면한 과제이며 어떻게 슬기와 힘을 모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鄕土 消息誌는 드물다고 봅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扶餘에 모여사는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 땀흘려 일했는가를 뒤 돌아보고 그 중에서 아쉬웠던 점과 더욱 노력할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왔다고 봅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일은 700년 百濟 歷史의 융성기의 도읍지로서 그 精神과 遺産을 이어 받고자 하는 文化財 保護에 대한 意志는 소부리의 성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扶餘 郡民 여러분은 이 책자에 실린 현실 診斷과 문제의 提起 그리고 사실의 傳播에 대한 認識을 토대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은 물론 地域 社會의 일에 있어서도 항시 부족함을 느끼고 보다 나은 전진을 꾀하는 과정에서 發展이 있고 歷史의 蓄積이 있어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어제를 토대로 하여 오늘이 있고, 오늘이 바로 내일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마음을 쓰기 보다는 앞날을 대비하는 전향적인 姿勢가 重要할 것입니다.

부디 소부리 消息을 통해서 역사의 고장 扶餘의 오늘을 정확하게 診斷하는 가운데 希望찬 내일의 繁榮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소부리의 出刊을 祝賀드리면서 새해 扶餘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幸運과 洪福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瑞山 文化會館 開館式

1990년 1월 6일

致 辭

오늘 눈부시게 밝아온 庚午年의 새 아침에 이곳 瑞山地域 住民의 오랜 숙원이었던 瑞山 文化會館이 마침내 竣工을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慶祝합니다.

아울러서 이 소중한 시민의 전당이 준공되기까지 여러모로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고장 文化藝術人 여러분의 聲援에 대하여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道에서 이곳에 제일 먼저 文化 會館이 建立 되도록 힘써주신 지역 출신 朴泰權 議員님, 柳根桓 委員長님을 비롯하신 여러 정당 사회 단체와 각계의 후원에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어 謝意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瑞山市가 道民의 기대와 축복속에 開廳을 본지도 이제 한 돌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일년동안 市政의 基盤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희망찬 西海岸 時代의 主人이 되기위해서 밤낮없이 땀흘려 일해오신 시민 여러분에게 致賀와 함께 따뜻한 慰勞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처럼 지난 1년 동안 이곳 瑞山 地方은 地域 開發의 힘찬 망치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우선 몇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盧泰愚 大統領께서 직접 살펴주신 大山 工團의 建設과 시민 여러분의 뜻대로 노선이 확정된 西海岸 高速道路, 앞으로 민간

여객기의 空港으로도 이용될 海美 飛行場의 建設 그리고 海岸國立公園의 개발 계획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瑞山 地方의 급격한 開發은 곧 세계가 주목하고 국력이 도약하는 2000년대 西海岸 時代의 開幕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瑞山 市民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물량적 개발이 지역 발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인은 내고장의 진정한 발전은 이러한 工團의 建設과 産業의 誘致는 물론 쾌적한 生活 環境의 保全, 그리고 鄕土 文化의 振興이 더욱 소중 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와 편리한 시설을 갖춘 文化 會館의 開館도 일찌기 물량적 개발보다 精神 文化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瑞山 市民 여러분의 슬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 보시는 시민 여러분!

이제 市民의 廣場으로 문을 활짝연 이 會館에서 시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질 향상을 위한 情緖의 空間으로 화합과 단결을 과시하는 祝典의 廣場으로 그리고 수준높은 文藝 活動의 空間으로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곳 瑞山 地方이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불교 사찰과 함께 百濟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마애삼존불을 비롯한 文化 遺蹟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문화의 유적과 함께 근세 초 천주교 전래의 가까운 성지는 이곳 瑞山 地方이 바로 海外 文化 交流의 通路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화 회관을 준공하면서 오후에는 머지않은 地谷面 花川里에서 安堅 先生의 紀念碑 除幕式을 갖게 됩니다.

이제 격동의 80년대를 마감하고 90년대의 여명을 밝힌 이 새아침에 값진 芸術의 길을 걸으신 옛 선인의 유적을 가꾸고 또 오늘의 문화를 가꾸는 文化 会館을 세우는 이곳 瑞山 市民과 瑞山 郡民의 슬기와 역량에 대하여 본인은 큰 기대를

갖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瑞山市와 瑞山郡 그리고 泰安郡의 지역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和合하면서 내고장 發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지역의 개발과 문화를 가꾸는 여러분의 의지가 바로 새로운 忠南 時代의 2차년도를 맞은 우리 200만 도민을 선도하고 道勢의 早期 回複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瑞山 文化 會館의 竣工을 경축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의 祝福과 幸運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월 6일

致 辭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기대와 소망 가득한 庚午年의 새 아침에 이곳 瑞山郡 地谷面에서 安堅先生 紀念碑 除幕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紀念碑의 제막에 앞서 瑞山 文化 會館의 竣工式을 마치고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道政 業務를 새로운 개발과 번영과 기대로 가득한 瑞山 地方에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西海岸 時代의 核心 地域으로 주목 받는 이 지역 사회에서 오늘 도정의 첫 시발이 어떠한 개발사업의 기공이나 준공이 아니라 이 고장이 낳은 위대한 藝術家를 追慕하고 그 藝術魂을 이어 받고자하는 군민 여러분의 수준 높은 文化意識에 注目합니다.

우리 道政의 基本 方向에 있어서도 크게 세가지로 집약됩니다만, 먼저 정신적으로 忠南 精神의 發揚이며, 그 다음에 물량적으로는 200만 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道勢의 早期 挽回, 그리고 위와 같은 두가지 도정목표를 집념과 용기로 추진할 수 있는 우리 公務員들과 道民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적극적인 姿勢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물질 양면을 모두 좌우할 수 있는 자부와 긍지로써 곧 忠南 精神의 確立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瑞山 郡民 여러분!

오늘 安堅先生 紀念碑의 除幕이야 말로 우리가 忠南人임을 자랑하고 그러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새 忠南 創造의 2차년도를 활기차게 열어 나가면서 精神이 모든 開發과 경제적인 繁榮을 主導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오늘 이러한 文化 遺蹟 가꾸기 事業이 우연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머지 않은 地谷面 大要里에는 鄭忠臣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瑞山·泰安地方에는 유독히 사찰이 많고 보원사지 해미읍성과 같은 歷史文化 遺蹟地가 많습니다.

또한 20여년 전부터 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藝術人 協會가 결성되어 鄕土文化 暢達에 진력하고 있는 이 地域 文化 藝術人들의 활동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地方 文學 活動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흙빛 文學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도내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고장의 文藝 活動은 모두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과 激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새 시대의 주역이될 군민 여러분!

저 유명한 夢遊桃園圖를 그린 우리의 위대한 安堅先生을 추모하고 제2의 안견선생을 고대하는 군민 여러분의 염원도 바로 여러분의 문화 예술에 대한 愛好와 後援 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지와 정성을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시는 상서로운 고장의 군민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幸運과 祝福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燕岐郡 体操팀 創団式

1990년 1월 8일

致 辞

오늘 참으로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0년대는 격동과 돌풍속에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시련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보람을 안겨 주었던 年代였었습니다. 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韓國의 位相을 세계속에 심을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 고유의 傳統文化와 함께 体育 活性化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80년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올림픽의 영광뒤에 왔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 속에서 80년대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연대 90년대를 맞아서 그 첫행사를 燕岐郡에서 갖게 되었고 그것도 우리 忠南體育의 진흥 뿐만 아니라 새로운 國家体育의 저변을 확대하는 행사로 장식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슴속에 이 庚午年 한해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부푼 가운데 맞아졌겠지만 저는 더욱더 그러한 희망속에서 경오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大田直轄市를 분리시키면서 도세의 약화를 조기에 회복시켜서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득채워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해를 200만 도민과 만오천여 공무원 모두의 힘을 합쳐서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道勢의 回復이 우리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88년에 대전직할시가 분리되기 이전에 忠淸南道의 豫算規模가 8,000억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9년도 당초의 예산이 7천억원대로 예산규모가 적었습니다.

지난1년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세의 회복을 기한 결과 금년도 첫 예산규모가 1조 1,3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 90년 역사상 처음으로 규모가 1조원이 넘은 그런 것입니다.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른 도세의 약화가 1년여만에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대전직할시가 있을때 이전 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忠淸南道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우리는 全國体典을 치르면서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14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14위의 성적이 우리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을 뿐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오히려 도민 모두는 知事이하 체육관계 인사모두들에게 보다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어서 오늘 燕岐郡廳에 이러한 体操팀을 創団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는데 도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또 확실히 협력하고 있다는 그러한 조짐으로 또 그러한 나타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體育을 통해서 도민의 사기를 높여 드린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사항이지만 반드시 체육의 성공만을 가지고 국민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수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기량을 통해서 국민모두에게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 또 도민 모두에게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은 선수 개개인을 길러 내는 도민들의 성원과 그리고 선수들의 매너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모아서 아마 전국의 군단위에서 이런 選手団이 만들

어진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청이나 광양시청이 체조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燕岐郡은 전국에서 최초로 군단위에서 이런 선수단을 만들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姜熙福 郡守이하 전 군민들의 그와 같은 **확산된**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군단위에서 생성된 体操팀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選手団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 体育會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창단된 이 체조팀은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겠읍니다만은 체조가 갖는 특별한 일 때문에 기초 체육에 대하여 몇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陸上을 생각할수 있고 그다음에 水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体操를 하나의 基礎 体育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체조는 힘과 技와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운동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실수가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1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체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개개인의 마음가짐 그리고 선수를 지도육성하는 지도자의 정성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후원자들의 후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技와 힘과 美를 창출해 내는 체조팀이 우리연기군청·鳥致院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중요하고 대단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오늘 忠南体育의 밝은 미래를 보는것 같아서 특히 기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88서울올림픽때 박종인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해서 우리체조가 세계속에서도 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엄기훈, 엄기자 선수 그리고 김명기 선수 권순성, 황예진 선수 이훈철선수 이 모두가 앞으로 세계속에 가능성을 보여줄 韓國体操를 이끌어갈 대들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90년대를 희망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슴속에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가슴벅차게 충만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全國 体育大會 성과가 아니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더욱큰 成果를 거두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명예와 함께 고장의 명예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쏟은 땀이 바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미 選手 生活을 통해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분발을 거듭 촉급하게 기대를 합니다.

모쪼록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創団된 우리 燕岐郡 体操팀이 연기군의 명예와 충남의 명예, 그리고 200만 도민의 사기를 진작 시켜 줄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기를 빌어 마지 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과의 큰 기대와 희망을 걸겠습니다.

오늘 특히 겨울날씨에 고르지 못한 일기에 함께 참석해 주신 각급 기관장님 체조협회 정호용님과 관계인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200만 도민 모두와 함께 燕岐郡 體操팀의 創団을 祝賀를 하고 악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체조팀에 건투를 기원하고 앞으로의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거듭 姜熙福 郡守이하 군민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월 8일

特 講

자기네가 생산해낸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수 있는 制度도 마련해서 추진해봤습니다.

또 農漁民들이 생산해낸 제품을 都市民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연결 루트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4H회원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도 상무관에 가지고와서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직접판매를 할수 있는 기회, 또 都市의 소비자와 農村의 생산자를 직결할수 있는 商業營農쪽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농어촌의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농어촌에 農工団地라든지 이런것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 농공단지는 97년까지 忠淸南道에 6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은 농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으며 농민을 채용할려고 해도 기술을 갖지 못해서 못하고 기술교육을 시킬려 해도 실제로 교육을 받을만한 사람이 얼마 없다고 하는데 농공단지 취업을 위해서 농촌에 남아 있는 인력을 技術教育을 시킨다든지 별도의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위해서 職業訓練院같은 것을 도립으로 만든다든지 사립으로 만든다든지를 검토하고있고 국가의 직업훈련원은 이미 설치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시책을 펴는데는 역시 도에서 예산을 매년 얼마를 편성을 해서 어떻게 농어촌에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것이 중요하지만 道의 豫算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1월 4일날 도민들에게 도정 시책방향을 설명드릴때 그런말을 했는데 농어촌 지원기금을 만들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을 위한 기금을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지난해에 우리가 골프장을 허가를 해 주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람에게 農漁村 開發을 위해서 特別誠金을 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특별성금을 내도록 유도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농어촌 개발기금 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에 나타나 있는 목표는 65억정도입니다.
60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해서 그 돈을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 20억원을 지난해에 받은걸 가지고 조성을 하도록 확정을 해 놓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30억원을 더 확보해서 금년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확보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후계자, 4H회원, 농민지도자들을 海外에 教育을 보내고 국내에서도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기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전개하면서 한가지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언제까지나 행정에 의존해야 될것이냐 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풀베기 운동을 전개해서 堆肥增産運動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비싼값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받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論山郡 魯城面에서 참게를 다시 기르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영농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별 생산물을 생산하던지 고도의 영농을 할려면 재배를 많이해서 自然營農 方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재작년에 실시한 퇴비증산운동을 안했을때 論山郡과 錦山郡만 퇴비를 증산했습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면 욕을 하면서도 따라와 주시고 요즈음 農村을 보면 돼지값, 쌀값, 고추값등이 떨어지면 전부 정부의 책임으로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政府

에 의존해서 생산제품을 관리해 달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생산한 제품을 비싸게 불러서 판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農村振興院에서 하는 겨울農民敎育에 지원을 해주고 농민은 농민 스스로 더 잘살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노력해주시고 스스로 연구, 적극적인 영농방법을 전개해 주어야만 農村復興施策 또는 農村振興施策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민여러분께서는 이러한 道政施策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해야 할 일부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에 하는 영농 시책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가지만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의 지도자를 해외의 고도농업기술을 硏修할수 있도록 지원해서 파견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에도 農村指導者를 동남아시아에 해외연수를 시켰읍니다만 금년도에는 계획을 확대해서 2월말에 1주일동안 해외연수를 할 계획인데 농촌지도자 30명과 연구직 공무원 8명을 선진 해외에 연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施設園芸라든지 과수, 축산등 특수한 분야별로 시키고 교육받은 분들이 지방의 각지역에 돌아가셔서 솔선해서 교육효과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한 마을에 한 作目을 선정해서 특수작목을 재배해 그것을 더 비싼 값으로 팔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試驗硏究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농산물 생산보다는 농산물을 어떻게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상업적 영농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作目씩 재배시켜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영농기술 강좌를 農村指導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4H회원들의 육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0명의 4H회원을 해외에 연수시켰읍니다만 금년에는 競進大會에서 입상한 회원과 우수연합회의 会長団을 선정해서 30명을 늘려서 실시하겠읍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4H회원이나 후계자들의 해외연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전개하면서 눈으로 농어민들의 말씀을 듣고 농어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사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서울에서 農民大會를 두번 시도하다가 저희 행정에서 농민대회에 대한 사소한 오점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잘사는 방법을 農土에서 찾지않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찾기 시작하면 나라전체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것은 농어촌에 들어가서 농민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일부 그런 운동권학생이나 또는 農民運動을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 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농민단체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들을 이끌고 거리에 붉은 띠를 두르면서 農家의 몫을 찾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농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농촌이 잘 살 수 있느냐하는것을 가르치는게 아니고 輸入自由化 때문에 못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입에 대응해서 우리가 輸出할수 있는 품목은 없느냐 또 농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도시의 소비자와 직결시켜서 더 좋은 가격을 받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대안을 찾아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것이 아니라 데모해서 잘 살자는데 이 세상에서 데모해서 잘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農漁村 振興基金을 만들고 시책을 전개해 나가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1월15일 처음으로 農産物 輸出 相談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農村振興院長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농업관계공무원들과 전국의 농산물 수출하는 업자와 학자들이 함께 세미나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해서 우리 忠淸南道의 농어

민들의 소득을 높여 드리고 또 저는 진흥하는 그러한 길이 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民主化의 물결속에 민주화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면 민주화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民主主義는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몫을 함께 찾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말 속에 자기 婦人을 우리집 사람이나 우리마누라라고 애기합니다. 美國이나 또는 日本 이런데서는 우리 마누라는 없습니다. 내마누라, 마이와이프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우리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우리라는 틀이 무너지면 절대로 나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사회는 없다. 세상은 함께 살기 때문에 내 목소리만 크게 내고 내 몫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 다 함께 죽는 결과가 온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忠南의 도세를 조기에 회복하고 또 충남의 공업화 시책을 약속드리면서 특별히 農漁村 問題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것은 어느 한쪽이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겨서 우리라는 틀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죽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때문에 道政 전체의 方向은 균형적인 각 지역별로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인사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농업부문에서 과거의 증산운동에서 이제는 더 돈을 많이 버는 商業營農쪽으로 지원을 하고 농어촌을 진흥하는 시책을 전개를 하되 여러분께 직접 돈을 얼마를 드린다던지 또는 부채를 얼마를 탕감해 드린다던지 이런 시책은 政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전개를 하더라도 道政쪽에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農漁村을 지킬 사람을 育成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젊은 後繼者를 또 青少年들에 역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 장래에 우리 농어촌을 진정으로 스스로 설수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라 생각하면서 농촌진흥 개발 기금과 같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忠南道政의 比重은 農漁村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도정의 중점을 두는 가장 큰 내용은 農漁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열성분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보면 우리 모두를 함께 죽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地域社會 安定에 전념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직설적인 말씀을 드려서 혹시 여러분께서는 귀에 거슬리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道政을 수행하면서 누구든지 소외나 억울하게되면 責任을 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불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다수의 도민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절대로 도정의 기본방향인 人本行政이 기본이라는 것을 도민전체를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는데 업적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도정을 강화, 행정력을 구사해서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것을 여러분께 밝혀둡니다.

금년도에도 농어촌이 더욱 발전되고 잘사는데 전진이 있기를 기원하고 10년 연속 풍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복하시길 바라며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 평소에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또는 농촌문제나 기타 지역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道政에 反映하겠습니다.

제말씀 마치겠습니다.

(問1)

박홍규 입니다.

저희부락은 경지정리를 한지가 26년전에 했습니다만 농토가 그대로 되어있고 좁아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부락에는 딸기와 수박이 많이 나고 있는데 트랙터나 기타 기계가 활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관개를 지사님께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答)이 지역 경지정리가 67% 경지정리를 한 지역을 재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얘기를 처음 듣기 때문에 돌아가서 검토해보고 군수께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요.

(問2) 문성철 입니다.

저희 면에는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答) 농공단지는 시, 군당 7만평규모로 설치하고 특수한 지역은 30만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논산지역은 10만평이면 되지요

논산처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분명히 농공단지 설치한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많이 넣어주고 싶은데도 안 들어가고 요구하는 지역은 공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 농공단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問3) 성동에 사는 이해주 입니다.

저희 부락에는 주재 지도사를 배치해 주어서 시설채소 기술을 많이 익혔습니다. 그러나 상품값어치가 떨어져 시장수매에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창고를 하나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이 집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問4) 안태준 입니다.

87년도에 농지정리를 했는데 그전에 간이 저수지가 있었는데 농지 경리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렁이 생겨서 기계가 못들어가고 사람이 배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경리정리후 그 면적이 넓혀졌는데 수로를 설치해서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 농지개량 조합과 관계가 되는데 지사에게 얘기하면 빨리 될것으로 해결방안을 알고 얘기하신것 같은데 군수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問5) 기계화 단지로 인력보충을 하자면 이앙기4대, 콤바인4대, 트랙터3대가 필요한데 기계화단지 1개로는 도저히 기계화를 할 수 없습니다.

기계화단지를 더 확충해서 농민들이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바라며 그것이 부족하다면 농기계구입시 세금등을 정부에서 부담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答) 농촌기계화 단지를 한부락에 몇개 넣어달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 농기계 구입시 가격인하문제는 정부에서도 여러번 가격인하를 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의 구성은 희망하는곳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4H회장단에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로 하지 않고 면이나 군에 4H회원들이 특별기계 영농단들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연구하고 다시 한번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어려운 사정으로는 한부락에 1개이상 어렵게 되어있고 현재 기계화율이 80%정도 되었으나 농토가 많은 특수한 부락등에서는 희망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못하고 있었으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사가 나오면 도정 전망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고 농촌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 고향에 와서 어려움이 많은데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아무리 예산을 늘리고 몫을 크게 나누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꼭 같도록 흡족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는 고향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도정의 성과가 가능한한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주군과 논산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논산군에 와서 유지들을 만나면 도정을 책임맡으면서 어떻게던지 여러군데 다니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도록 해달라해서 가능한한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지사라는 자리가 자주 다니기가 어려워서 오늘 영농교육기간에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농촌문제는 인력기계화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하면 제값 받을 수 있느냐, 저도 그런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농촌진흥원장님, 지도소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에 대한 기술지도도 그런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해결해 나갈 도정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잘못되었거나 또는 도정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던지의 생각이 계시거든 편지를 주시던지 또는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도

정이 올바른 수행이 되리라 생각하며 참작하겠습니다.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잘한다고 박수도 주시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충고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많은 시간동안 감사합니다.

錦山郡 펜싱팀 創団式

1990년 1월 8일

致 辞

먼저 庚午年 새해에 錦山郡에 새로 탄생된 펜싱팀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새해연초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펜싱協會 關係者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燕岐郡에서 체조팀이 탄생된 이래 도에서는 두번째로 펜싱팀을 創団하게 됐습니다. 군 단위에 운동팀을 창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쉽게 하지 못하던 일입니다만은 저희 忠南道가 再起를 서두르고 있는 시기에 盧奎來 郡守이하 전군민의 합치된 노력의 결과로 내일의 忠南體育을 이끌어 갈 이러한 훌륭한 팀을 창단하게 된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80년대는 보람과 시련이 함께 교차했던 연대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우리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서울 올림픽이 세계 올림픽사상 가장 훌륭했던 文化올림픽으로 치루어 졌었고, 그리고 80년 초에 어려웠던 경기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經濟史에서 연속적으로 10%이상의 연평균 성장을 이룩했던 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올림픽을 치룬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들에게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民主化의 열기속에 묻혀진 여러가지 시련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연대를 맞는 국민의 슬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10일 盧泰愚 大統領께서 연두기자 회견을 통해서 21세기를 맞는 새로운해, 이 90년대의 첫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것이냐하는 확고한 國政意志를 표명하시고 또 전 국민이 여기에 공감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는 것은 내일의 새로운 영광된 歷史를 創造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忠淸南道는 지난해 대전직할시를 분리시키면서 여러가지 도정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처럼 재정규모라든지 文化體育을 비롯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도세 약화가 우리도민들에게 자칫하면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을 정도까지 됐습니다만은 도민여러분들의 집념어린 의지와 도정을 수행하는 만 7천여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노력에 힘입어서 불과 일년만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道勢 回復을 확실하게 이룩했다고 생각 합니다.

도세회복을 여러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 규모면에서 볼때는 지난해 88년도에 우리가 大田直轄市를 포함했을때 예산규모가 8천200억 정도였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우리의 당초 예산규모는 7천800억 정도로 규모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당초 예산규모를 1조 천3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忠淸南道 90년 道政史에 처음으로 재정규모가 1조원이 넘는 그러한 결과이고 어떻게 보면 대전직할시라는 우리충청남도 인구의 3분의 1을 떼어내면서 이룩한 도정사에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67년 이후에 계속 인구가 2만명내지 3만명씩 줄어왔던 도민의 수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人口增加를 실현했습니다. 약 4천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며는 대전직할시의 분리가 오히려 도세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工業化의 施策은 88년말에 우리가 67만평에 불과하던 공업단지 면적이 지난해에 완공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工業団地가 천2백 50만평이 되었고 금년에는 천3백 60만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도세의 可視的 回復, 이것을 이룩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의욕과 기대를 갖고 90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 90년대에 우리가 해야될 일은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면서

사기를 높여주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도세의 회복이 아니고 도세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저는 200만 도민과 만7천여 공무원에게 한결같이 우리가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을 더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자 특히 새로운 忠南時代를 확실하게 열어가자 하고 다짐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분야는 지난해에 全國体典에서 15개 시도중에서 14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14위를 하면서도 우리는 전국 시도선수단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模範選手団 賞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忠淸南道가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도세 회복이나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선비의 고장으로써 兩班의 道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道民像을 심어준 쾌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써 우리도민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자긍심을 심어 주기에는 부족하여 우리 忠南体育의 榮光을 다시 일으켜 보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 연말부터 全國体典의 成果를 면밀히 分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남체육을 진흥시킬 시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論山 工業高等學校에 体育科를 신설하고 이 체육과는 바로 체육고등학교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燕岐郡에서 체조팀을 창단하고 우리 錦山郡에서 펜싱팀을 창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팀을 창단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보다는 우리지역 출신의 선수들이 고장의 명예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뛸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錦山出身의 우리 전순미 選手가 주장이 되어서 이끄는 이 펜싱팀은 금산의 명예 뿐만이 아니라 우리 忠淸南道의 名譽를 위해서 200만 도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더 큰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난88년 서울 올림픽때 우리는 펜싱부에서 8강에 들어가거나 16강에 들어간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더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믿습니다.

西洋에서 들어온 洋弓이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서양에서 1935년에 들어온 우리 펜싱이 반드시 세계를 제패할수 있는 날이 올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忠清南道는 펜싱이 전국에서 가장 잘 훈련된 선수를 배출한 곳입니다. 특히 여자선수들은 전국 제일의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뒷받침을 해주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고수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펜싱이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운동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력이 훨씬 더 강조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精神訓練을 강화 한다면 틀림없이 큰 성과를 도민과 군민들께 안겨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운동팀을 창단하고 이 운동팀의 창단이 단순한 体育選手의 育成 측면이 아닌 도민의 사기진작과 도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매우 크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펜싱팀을 創団해준 군수이하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운동팀에서 창단의 의미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선 이 선수들을 잘 보살펴주고 끝까지 뒷받침해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길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펜싱협회 권선우 회장님 그리고 박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 유지 회원 단체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庚午年 새해에 錦山郡民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저의 치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錦山·燕岐·扶餘郡)1990년 1월 15일 午前

訓 示

新年 業務報告를 이런 형태로 받는 의의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실국원장들이나 또는 과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여러가지 토론도 해야될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년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실국장이 과장들을 중심으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시·군 업무에 대해서 討論會라던지 또는 시·군의 과장들, 실무자들을 불러서 報告會를 갖는다던지 이걸 구체화하는 작업을 같이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군에 나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知事가 시·군정에 대해서 아는것 만큼 도 실국장들은 또 실·과장들이 잘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군정업무 보고를 내가 도에서 받고 각 과장들을 전부 배석을 한 이유가 앉아서 그냥 듣고 넘어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군정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고 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도정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 또 시군의 업무를 각시군에 도 전체차원에서 파급시켜야 될 부분, 또 시·군계획으로 상당히 무리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道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大統領께서도 시·도의 업무보고를 年頭巡視중 다니시는 것을 상당히

민주적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런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業務報告를 도에서 이렇게 받도록 하는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금년도가 대단히 중요한 년도의 시작이다. 90년대의 첫해이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년대인데 뭔가 달라지는 도정의 모습, 또는 시·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 도의 행정력 시군 행정력을 한데 모아서 극대화시키는 그 노력의 일환이다. 첫번째 시도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국장들이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여기서 즉흥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끝나는 보고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評價 擔當官이 한사람이 되는게 아니고, 도행정 전체가 바로 시군정의 평가 담당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1월서부터 전체업무를 관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가 大田直轄市를 분리시키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행정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목표가 도세의 조기 회복,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도세를 회복시켜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캐치 프레이스가 "새로운 충남시대의 원년이다"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충남시대, 새로운 충남시대가 뭐냐? 여러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百濟精神으로 우리가 명명했던 개척과 교화의 정신 또 내부적으로 화합과 단결의 정신. 인본의 정신 이것을 우리도민 정신으로 발양시켜 나가겠다. 새로운 忠南時代는 바로 정신적인 그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충남시대의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공업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시책, 지금까지는 개발에서 소외됐거나 또는 개발후발지역으로 남아있던 忠淸南道의 도세를 국가개발의 전진 기지로서 또 농업위주의 산업 구조를 공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면서 적극적인 개발시책을 전개하겠다. 이것이 새로운 충남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해가는 공무원 모두를 엘리트 공무원화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企業精神을 導入을 하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하겠다. 우리가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시간을 절약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업정신의 기본인 시간의 절약 그리고 애사정신을 애향정신과 愛國心으로 승

화시키고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새로운 충남시대의 세가지 큰 명제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도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야기 되기 쉬운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개발행정을 주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충남시대였단 말이죠. 이 새로운 忠南時代를 연 元年을 우리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우리 산하 17천여 공무원과 시군의 행정력, 도의 행정력 여기에 200만 도민의 성원이 한데 응집이 되서 지난해의 도정성과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도 훨씬더 큰 성과를 거양했고 특히 도세회복의 측면에서 보면 공업화의 시책, 미래를 내다보는 서해안 개발계획에 우리도의 희망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든지 또는 3군본부가 있는 鷄龍市를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이 지역이 앞으로 통일시대의 주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시켜보자하는 노력을 加速化 시켰다든지 여러가지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도 더러 있었지만은 그런 아쉬운점을 여기서 굳이 들추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충남시대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새로운 충남시대가 아니라 확실히 변화하는 충남시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공무원 스스로나 이걸 보여주자. 市長, 郡守들이 가지고 온 업무계획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어떻게 시,군정과 도정을 더 융합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찾는 것입니다.

知事가 그저 듣고 넘어가는 1년의 연례행사로 지사가 한번 듣고 또는 시장 군수가 한번 보고하는 그런 業務計劃報告가 아니고 도정과 시,군정을 결합 시키는 노력을 이자리를 빌어서 하는 것이다. 우리 도의 실,국장과 과장들이 이 업무계획을 다시 시,군의 담당실, 과장실과 함께 토론한다든지 주요한 내용을 조정을 한다든지-해서 행정에서 가장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도민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년말에 가서 평가를 할때 큰 성과를 거둬서, 아-역시 忠南道政은 연초에 계획한 것이 연말에 가서 보다더 나은 성과로 나타나서 도민들에게

행정의 성과를 심어주는 구나. 그게 신뢰의 기본이다. 그리고 하지 못할 계획 또 전시효과를 노리는 말장난 이것을 계획에 넣어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아무 결과도 없는 龍頭蛇尾가 된다든지 그런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런 부탁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금년도에 우리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신뢰행정의 회복"여기에 다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과 용기에 대해서 내가 년초에 미래를 보는 눈, 지식을 습득하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자. 현재 행정은 신뢰성과 적극성 여기에 역점을 두고 내일을 위한 행정에는 미래 지향하는 행정을 하자. 오늘의 과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심어주고 하는 것을 함께 검토하는 자리가 오늘, 내일, 모레 3일동안 市, 郡政 報告를 받으면서 정착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몇가지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시, 군별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 한두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군이 모두 똑같이 행정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 잘 않되는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는데 "스승찾아보기"이렇게 쓴단 말예요. 스승 존경운동이라는 자체가 선생님의 존경심의 발로 아니냐. 하다못해 "스승찾아뵙기"이 정도로 용어를 쓸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세민들이라든지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용어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행정"이렇게 하면 아주 고압적인 행정이므로 우리가 용어를 순화한다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의 새마을 운동"이런걸 보면서 그러는데 道義 새마을중에서 "행정용어의 순화"이것도 한 목표가 될 수 있을것 같아요. 공무원 보고 "公僕"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공복"이라는 개념은 이 민주행정사회에서는 별로 적합치 않은 용어라고 그래요.

이런걸 바꾼다든지 우리가 늘써오던 행정용어를 한번 좀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순화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도 목표중에서 중요한게 부지런한 도민, 부지런한 공무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가지 새로운 忠南을 만드는 노력이 있을수 있지만, 예를 들어 부지런한 農漁村을 육성한다든지 지금 農漁村에 가보면 늘 公害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해로 떠드는 사람일수록 環境保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옛날같으면 시골냇가에 풀이 있을 새가 없었어요.
지금은 풀이 엄청나게 나 있어요. 그속에서 썩는데 그걸 통해서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는데 그런것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공장건립한다면 "環境汚染" 하고 떠든단 말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게을러 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도민, 부지런한 농어촌, 부지런한 도시-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새마을 清掃라든지 이런걸 통해서라도 부지런한 도민을 만들고 노력을 기울여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이 늘 뭘할려고 하면 않됩니다. 부탁하는데 이젠 시대가 바뀌어서 안따라옵니다. 그렇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따라올 부분이 상당히 많다. 부지런한 도민, 부지런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선 환경보전, 문화재관리, 문화재 보호 또는 농촌에서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력증진의 기본인 퇴비증산, 하천정비 이런걸 전부 다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걸 나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화합이란 얘기를 많이 씁니다.
"和合"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주민화합, 도민화합,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된다. 한 과, 한 계의 화합, 우리 과장들이 여기 계시지만 누구라고 지칭은 안해도 어느과장은 계장들이 보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그렇다. 계장들도 마찬가지이다. 계장 상호간에 말도 않하고 지내는 계장들도 있다. 그리고 더러 저녁에 약주라도 한잔 같이 먹으면 투닥탁 투닥탁 하는 것은 절대로 화합의 기본이 아니다. 자기가 좀 참으면 돼요. 윗사람이 더 위로 올라갈 수록 잘 참아야 돼요. 듣기싫은 얘기도 참 많을 텐데 듣고, 또 보기 싫은 사람도 얼굴 확 피고 보고 만나서 웃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합의 기본은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서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 주는것이므로 내부결속이 어려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內部結束, 나를 믿을수 있도록 해주고 만날때 살짝 웃는 미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꼭 돈을 주고 밥을사주고, 그래야만 내부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화합을 너무 크게 생각하여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도 화합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무슨 체육대회, 군민화합대회, 무슨잔치 이걸해야 화합이 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모임, 조그만 모임, 모임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면은 그게 화합의 모체입니다.

고운말 쓰고 또 밝은 웃음을 보여주고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화합은 윗사람이 하는 거예요. 밑의 사람은 화합에 책임이 별로 없어요. 개체로서의 책임이지 전체로서의 책임은 없다. 도민 화합이 안되면 道知事의 책임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화합이 안되면 郡守의 책임이다. 과의 화합이 안되면 課長의 책임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부분, 그 부분에 화합을 이룩하면 그걸로 충분히 도전체의 화합이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얘기로서 금년도에 우리가 "地域安定"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大統領께서 연두기자회견때에 과거를 청산 하고 새로운 연대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해로 금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敎皇庁에서도 그런 발표를 한걸로 본적이 있는데 평화의 연대, 화합의 연대,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忠淸南道가 이런 국가의 화합과 안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발상하는 中心道가 되자. 이런쪽으로 모든 행정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개인적인 노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상의 노력, 모든 노력을 이쪽으로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 局長들 얘기하는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은 지방자치 준비, 그런 얘기에서 지방의원선거가 주민분화를 촉진하는 또는 주민분화로 이루는 그런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 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 앞으로 여러가지 법이 많이 보완되겠지만 이런 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해야될 부분 주민분화를 촉진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고 무슨 청사의 마련, 법규의 정비,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할 걸로 봐요. 내용이 어떻게 모양 사납지 않도록 되느냐.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세회복 노력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文化体育 振興에 좀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문화육성을 위한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企劃管理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우리가 개발이익의 환수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여러가지 시설에서 문화체육 기금을 확대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문화기금이 생기면은 도단위 藝術団의 創設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도청에 두는게 아니고 시 또는 군에다가 맡겨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충청남도 관현악단 또는 부여군 국악단 이런것을 도단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시군에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술단을 창단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만 특히 시군단위로 조그마한 運動場施設을 하나씩 확보하자 이겁니다.

예를들어 금산같은 경우 농공단지 만들때 근로자 복지시설을 위한 대지를 확보를 하자. 6만평이면 10% 정도 대지로 추가해서 확보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꼭 실현해 주자. 그다음 운동장 같은 경우 3,000평 정도면 아주 좋은 운동장이 될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3,000평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바닥만하면 1,000평이나 2,000평이면 될지 몰라도 거기다가 미국이나 구라파쪽 처럼 잔디심어 주고 옆에 나무나 몇그루 심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히 운동장이 됩니다.
운동장을 10억, 20억 들여서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마을단위에 青少年들이 뛰어놀수 있는 운동장 정도는 큰돈 안들이고 충

분히 된다. 농공단지 만들때 내가 자꾸 추가해서 만들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걸 만들어 놓으면 근로자들도 쓰고 또 마을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얘기를 합니다만 조경수라든지 가로수의 수종선정을 좀 잘해서 도 식수과장이 忠淸南道에 맞는 가로수 수종, 조경수 수종 좀 연구해서 시·군의 과장도 데리고 세미나도 해 보고 우리가 빽하면 벚나무 심자고 하는데 가로수의 벚꽃은 鎭海보다 더 좋은 벚꽃 가로수를 우리 도에서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충청남도 아니면 볼 수 없는 가로조성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街路花壇같은것 조성하지 않습니까.

전국 어디가나 가로수화단 조성이 똑같아요. 내가 韓國花를 天安에서 할 때 비록 특유하게 띄지는 않지만 나는 저게 좋다. 왜 그러느냐. 충청남도 아니면 그런게 없어 좋다. 그런거 한번 선정을 해보세요.

앞으로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농민들 핑계, 무슨 핑계,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절대로 가로수 두목전지하지 말아요. 차라리 베든지 뽑아요.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라. 한 몇개월 지나면 더부룩하게 더벅머리 총각처럼 나서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무를 말이죠 산 나무를 사람목 짜르듯이 머리 부분을 턱 짤라놓고서 전지했다고 하면서 그게 며칠지나자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건 않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것도 생명체인데 생명체 싹 잘라놓은 그런 전지가 있을수가 있는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시장·군수들도 가로수의 수종선정, 가로수 관리에 조금더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전지를 그런식으로 전지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전지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수종을 바꾸세요.

식수과장 말입니다.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고 街路樹가 필요없는곳도 있을 거예요.

시군에 가보면 가로수를 없앨수가 없어가지고 할수 없이 두목전지를 한다는데 그런걸 아주 없애 버려요.

그 가로수가 아주 참 잔인하게 느껴지고 사람마음을 아주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요.

늘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농어촌문제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農漁村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을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많이 해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키는 주역을 육성하는데 도가 역점을 두어서 노력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을 관리하는 행정의 정성을 훨씬 더 크게 쏟아 달라. 사람한테 쏟고 단순하게 商品化, 유통질서, 이런 차원에서 용어를 구상할게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문제라도 정성을 쏟아주는 그런 행정을 꼭 해주고 특히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政府가 여러가지 시책을 많이 전개를 하는데도 구체적으로 農民들에게 알려지지를 않해요.

扶餘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주었는데 아까 보고한걸 보니까 농촌주요시책을 계량화합 작업을 부여에서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년7만 천호에 대해서 81억원을 지원해 주었다든지 수입개방품목이 전국은 234개 품목인데 우리 도에는 23개 품목이 해당되고 부여군은 17개 품목이 해당된다든지 이런 통계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농민들한테 손 딱 쥐어줄수 있는 통계자료, 이런것도 만들어주고 홍보를 강화해서 정부나 행정이 하는 시책의 고마움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것은 전 시·군이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농촌주요시책의 계량화 작업을 농림국장, 식산국장, 농촌진흥원장이 함께 작업을 해서 農漁村 弘報에 보다 좀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개씩 유치한다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기업을 유치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쪽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을 데려온다 하는 생각을 가져달라. 우리가 필요없는것을 에너지로 떼어낼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企業을 유치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필요에 의해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필요한 걸 어떻게 떼어내느냐 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많아요. 우리가 복합민원, 해결하는데 복합민원처리를 실지로 행정에서 많이 갖고 하고 있어요.

열몇개 부서가 연관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建設局長 14

개 과장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버려라. 14개 부서를 다닐려고 할려면 도에서 하루에 두과씩 다닌다고 해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단 말이요.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서 협의하고 문제되는게 뭐냐. 이래서 처리해 줘라.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런 복합민원처리에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은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 새로운 忠南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져요.

새로운 충남이 아니라 헌 충남이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충남이 급격히 발전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都市計劃 문제예요. 鳥致院에서 시 만든다고 하는데 조치원의 지금 현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市街化를 5만내지 10만정도의 주민이 살도록 하면은 이것은 완전지옥예요. 어떻게 도시계획을 더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쪽에 도의 관계 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국에서 시·군의 건설과장과 도로담당자가 도시계획을 할때 가로망 형태를 ×자형 가로망으로 형성을 했어요. 노타리처리를 하고 전부다 그렇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交通의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구가 또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형 가로망 설치가 아니라 環狀形 가로망설치를 한다. 그 의견이 나오니까 시군에서 외각도로, 우회도로 만드는데 환상형 도로형태를 정립하기 위해서 외각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곤 전혀 관계없이 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을 외각도로로 만들어 버려요. 市·郡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도 효과도 별로 없이 만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도시계획문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시·군 건설과장 또한 교통담당 공무원들을 아주 일주일이면 일주일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敎育院에서 주관해도 좋아요. 세미나도 하고 시장·군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忠淸南道는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都市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이 않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마 도시국이 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그러한 단계로 도시행정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大統領께서 공약한 사항중에서 가장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우리의 주택문제 해결인데 과거에는 3共和國에서 食水문제를 해결했고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80년대까지 다 해결했는데 住居문제 해결이 6共和國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업입니다.

200만호의 住宅建設을 위한 택지공급책임이 지방행정에 있다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해달라. 그래서 농지구역이 얼마이고 비율이 얼마고 해서 택지 않됩니다라고 하지말고 시, 군에서 公營開發로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도의 공영개발사업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책임이 지방행정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한두가지씩만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錦山郡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질과 수량이 대단히 좋고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와 금산군이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한것을 검토를 꼭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용담댐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하여 주세요. 그리고 無公害 영농시책의 성과에 대한 弘報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영농, 권장사업으로 농민에게 권유해서 끝내고 그러는게 아니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무공해 영농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내가 작년에도 錦山과 靑陽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錦山이 人蔘의 宗主地라면 무공해 지역으로 남겨 놓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弘報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가격하락 문제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재배면적 감축, 인삼제품개발이 나왔는데 인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규정을 해보세요.

인삼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인삼제품이 대중상품화 할것이냐, 아니면은 홍삼처럼 홍삼제품과 같이 아주 약품으로나 신비한 품목으로 남겨놔서 고가품화 할 것이냐, 이 성격을 규정을 해 주어야 돼요.

두가지를 같이 결정을 하여 주어야 돼요. 식품으로 개발할려면 4년근 5년근이 필요없는건 아니냐. 3년근이나 2년근으로 한다든지 또는 비료같은것을 많이 주어서 빨리 키워서 한다든지 이런 다량생산쪽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나는 금산을 무공해 지역으로 남겨 놓자는 얘기는 인삼의 신비성을 주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 놓자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인삼제품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다량생산 중심으로 생각하는것 같아요. 이건 학자들하고 실익측면에서 어떤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두개가 다 같이 병존할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어야 될것이예요.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인삼 쇼핑쎈터는 아주 고급스럽게 하자. 금산에 가면 인삼싸우나, 무슨 인삼탕, 또는 인삼식품 금산에 가지 못하면 이걸 못먹는다. 이런것을 나는 생각해서 지난 해도 얘기 했었는데 시설이라던지 들어가서 아주 신비스럽게 느끼는 예를 들어 수증기가 막 올라오게 한다던지 그런 시설을 해서 들어가면서 신비스럽게 느끼는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慶南에 있는 부곡온천, 부곡온천하는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뭘 먹을 수가 있고 또 관람도 하는 그런 시설도 있다. 이 인삼쇼핑쎈터가 부곡온천 이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해야지 무슨 돈(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걸 적당이 옮겨 놓는 그리고 이름만 인삼쇼핑쎈터, 인삼호텔, 그런것은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지금있는 수삼시장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없어,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거요. 이런것은 郡守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아이디어를 확 바꾸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기 바랍니다.

扶餘, 燕岐에서 塔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할 경우 각 시·군에서 다 똑같이 지시를 하세요. 어설프게 몇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하면 우리가 百濟 5層塔, 신라 다보탑, 이런건 수천년 뒤에도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가 文化財로서 거꾸로 우리가 만든塔은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될 것이 거든요. 이것을 세우기 쉽다고 3,000-

4,000만원 들여서 후닥닥 5년-10년도 아니고 몇개월 1-2개월을 들여서 뚜닥딱 뚜닥딱해서 맞추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그냥 팻말 세워 놔두고 나중에 더 여유가 생길때 좋은걸로 10년 20년 걸려서 만들도록 해야됩니다.

시장,군수들이 절대로 자기가 起工式 테프를 하고 竣工式 테프도 함께 할 생각을 하지를 말자. 그 생각때문에 늘 졸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탑, 기념비, 이것은 도에서 조정을 꼭하여 주세요.

이건 企劃管理室에서 맡아하던지 아니면 文化藝術課에서 맡아서 하던지, 주무과를 지정을 하여 가지고 각종 기념비, 탑, 이런것을 졸속으로 하거나 볼품없게 하지말고 1000년뒤에 받들 수 있는걸로 하라. 우리는 백제문화, 백제문화하면서 아주 百濟文化의 찬란한 유적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忠南時代의 遺蹟을 만드는 것이 그게 아주 형편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다음 연기군에서 나온 말인데 연기군 지명이 최치원 선생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서산 지곡면에도 최치원선생 유적이 있는것 같애요. 그리고 보령에도 최치원선생 유적이 있지요. 최치원선생하고 우리 충남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연기군수 : 그건 아니고 최치원선생께서 수도를 하시느라고 전국의 유명한 산과 강을 다니면서 기도를 다녔어요. 원효대사하고요. 그분이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기거한 장소는 암자가 생기고 그 자리가 최치원선생이 묵어갔던곳이라면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원효대사하고 최치원선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燕岐郡에서 수질오염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각시군 아까 부지런한 농어촌을 만들자고 한 것도 거의 같은 의도에서 얘기합니다만 환경오염이 약 80%는 점한다고 들었는데 수질오염원 해결문제 이건 종합적으로 保社局長이 도에서 목표를 아주 정해야 돼요.

예를들어 금년도부터 우리 도 전체가 해야 할 錦江保護 또는 시군 단위에서 연기군 같으면 미호천 보호 이렇게 목표를 주란 말예요.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금강보호를 위해서 燕岐郡에선 무엇을 정리를 하고 무엇을 보존을 하고 大田市는 대전시 대로 하고 公州郡에서는 무얼하고 부여군에서는 무얼하고 이런식으로 도가 관리해야 될 수질보존지역, 그리고 아산의 곡교천은 牙山郡, 溫陽市에 목표를 주어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터운영, 이것은 연기군, 부여군도 있는데 각 시,군에 농촌시책으로 農林局長이 전체를 다같이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대추 넥타공장 가공건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료공급능력 판로등을 감안 검토하여 보았나요(연기군수 : 4년전부터 대추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의에서 대추를 조그만 박스에다 상품화 하였더니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전체적인 수요공급은 세밀한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만은 全義 単協측에서 주관이 되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저의 군에서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바람직스럽긴 한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할땐 반드시 원료 공급능력을 봐야되요. 예를 들어 밤 가공 공장이 일시에 나오는 것이지만 연간 加工이 가능해야 공장이 경영수준을 맞출 수가 있지 않나요?

짚, 볏짚팔프 이런것이 慶南지역에서 생겼을 때에도 그 실패한 원인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공장을 가동할 수 없고 해서 이런 대추, 우리 충남지역에서 대추생산이 되는 지역의 전체 생산량은 얼마이고 생과실로 판매되는 것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넥타공장이 들어가서 가공하는것이 얼마인지, 대추같은건 약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려서도 보관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넥타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아주 작은거예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공이 안되면은 안되거든요. 그런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군수가 검토를 해 보았겠지만 말입니다.

燕岐郡에 마을 文庫가 아주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할 때에는 연기군의 마을문고 형식으로 조그마한 독서실을 병설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여 달라. 그다음에 마을福祉会館을 오지 마을에 있어서는 理美容施設, 간이 목욕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산을 수종갱신하면서 나무를 베놓으면 솔가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솔잎, 나뭇잎 낙엽은 떨어져 썩어서 토질을 보장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뭇가지 큰 둥치가 썩어서 거름이 되는건 아닐것 아니냐말이죠. 이건 오지마을의 마을복지회관에 목욕시설을 하여주고 자기가 나무를 갖다가 장작을 때는 그런 시설해주어라. 상당히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데워가지고 장작을 때고 물을 데워서 하는데 장작은 나무가 많이 들지도 않고 沐浴가고 싶은 사람은 산에가서 나뭇가지 조금 갖다가 불을 때서 목욕하고 하는 그런 향수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그런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도에서 보사국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회관건립때 노인회관건립때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돼요.

실내체육관이 나왔는데 水泳場까지 하면서 그돈 가지고 될것인지 검토 바랍니다.

扶餘郡의 부존자원 생산소득화는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면에 한 품종의 소득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어떻게 생산소득화 하느냐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市長, 郡守들의 책무입니다.

각 시군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주고 이것도 용어 문제인데 작은 정부의 실현, 군 업무보고에는 작은 政府 實現이라는것이 사실은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전국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교복을 착용해 보면은 스승존경운동하고도 관련 될거예요. 복장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길가에서 선생님을 만나도 교복을 입혀놓으면 선생님께 인사를 할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스승존경운동, 청소년보호운동 차원으로 좀 명분을 잘 개발해가지고 시,군에서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內務局에서 맡아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하구뚝이 완공되기전에 우리가 내수면 어종의 변화에 대해서 필요한 용역을 주어도 좋아요. 환경영향평가가 되었을 테니까요. 돈을 많이 안들여도 우리 도내에 있는 大學의 농업연구소들에 이런걸 주어보면 좋을것 같아요. 내수면 어종변화를 우리 충남지역의 내수면 어종변화에 대한 연구는 금강, 곡교천, 미호

천, 학천등 남아있는 어종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어종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소득증대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忠南지역의 게, 실뱀장어 같은것이 안잡혀 가지고 論山에서 새끼 게를 만경강인가 하느데서 잡아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게를 양식해가지고 필요하면 금강뚝 하구에다 1,000마리 2,000마리고 군에서 길러서 방류를 하자. 그러면 성게가 되어서 거기서 알을 낳아서 게를 올라올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용역을 주어서 한번 검토를 시켜보세요.

미꾸라지 양식 같은것 상당히 각광을 받은지 오래되어 자칫하면 뒤따라 가는 농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는 농업이 않되도록 이런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남들이 잘되는것은 지금하면 이미 늦어요. 한두집에서 할때에는 판로가 있어 괜찮은데 잘된다고 자꾸 확대보급 하였다가 판매가 안 되어 버리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따라 가는 농업이 안되도록 좀 특성이 있는것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農産物集荷場은 논산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論山이 보고하겠지만 간이시설로 하나씩 해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부여 하천변에 있는 수박, 무우, 거기다가 지난번 農村振興院에서 만들었던 조립식 집하장을 해주면 돈 몇푼 안들이고 되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간이 집하장 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여의 배수 펌프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治水課長이 착공을 빨리해주어야 조기 완성이 돼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설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되면 建設部하고 협조하여 조기발주 조기완공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기 바랍니다.

체육기금조성은 도에서 허가를 안해주나본데 타군과의 관계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회피성 행정입니다.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하도록 해줘요. 시군 별로 짤라서 예를 들어 3천만원이상 안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시군의 특성에 맞도록 행정을 하고 이런

것이 지방화 시대라고 하지말라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을때 벚꽃 공원은 태국에 가면 노우스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부여에 가면 예를 들어 공원이 있다는데 이런쪽으로 그 지역에 안가면 안되는것,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관광농업으로 유명하죠. 예를 들어 메밀꽃밭이 있다는 것과 같이 이런식으로 한번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道가 민자유치할 때에는 민자유치대상을 첫번째로 도내企業을 중심으로 한다. 돈이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안내장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권유도 해보고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 충남도 출신의 출향인사 출향기업에 권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세번째 순위로 제일교포던지 또는 타지역 출신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郡守나 나도 마찬가집니다만 知事가 아는 사람한테 하지말자 이거요. 민자유치를 위해선 그 대상을 확실히 해놓고 道企業 道 出鄕企業 그다음에 그것이 전혀 안될때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라든지 이런 사람을 조치하는 방법의 順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정시간보다 많이 걸렸습니다만 오늘 市郡政 業務報告를 이런식으로 받는 의의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도와 시, 군정이 보다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市郡政 意志 및 實踐計劃 報告會

(天安, 溫陽市, 天原, 牙山郡) 1990년 1월 15일 午後

訓 示

오전에 3개군, 오후에 4개 시, 군에 대해서 오늘 業務報告를 받았습니다만 오늘의 보고회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전에 얘기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가 "새로운 忠南時代를 연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새로운 충남시대" 대전직할시가 분리돼서 새로운 충남시대가 아니고 충남의 位相과 충남의 役割 또는 충남의 性格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뜻에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연다"는 캐치 프레이스를 내걸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도민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목표했던것 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새로운 충남시대의 요체를 우리가 새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百濟정신으로 忠南정신의 방향을 잡아 대외적으로 개척과 교화의 정신, 대내적으로는 화합과 인본의 정신으로 집약하여 충남정신의 방향으로 하고 선비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 道義 새마을 運動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따라 서로 鄕約實踐運動을 통해서 충남의 도민정신을 새로 정립시키고 발양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왔고 그 결과 어느 지역에서 보다도 가장 안정되고 화합된

도민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새로운 충남시대의 목표로 내세웠던 "道勢의 早期回復" 이것은 지난해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도세를 회복을 시켜서 도민에 기대에 부응하겠다 하는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1년이 지난 뒤에 상당한 부분에서는 이미 도세회복을 可視的으로 도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더구나 인구가 67년 이후에 20여년만에 처음으로 4천명정도로 늘어나고 그리고 전통적인 農業道로 남아있던 충남이 工業都市의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고 또 서해안 개발계획이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모두 우리가 기대했던것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던 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세회복이 아니고 "도세 도약의 해"가 금년부터 시작이 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충남시대는 우리 도 산하 17천여 공무원들이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을 떠서 이끌고 나간다, 이것이 새로온 忠南時代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도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자세에서 모두 새롭게 변모된 충남! 이것이 새로운 충남시대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그 충남시대를 여는 첫해로서의 성과를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 군수 그리고 산하 공무원과 200만 도민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그러한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충남시대를 확실히 여는 도세도약의 첫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군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은 과거처럼 단순히 내가 나가서 道知事만 알고 지나가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도의 전 공무원 특히 간부직 공무원들이 도정과 군정을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군정이 보다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바꿔 본것입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市,郡 業務計劃은 우리 도의 각 실과에서 시, 군의 主務課長과 함께 종합검토를 하고 실천계획을 확실히 수립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의 기본이 "信賴回復"임으로 도의 행정의 기본방침이 도민에게 신뢰를 심어준다는 점, 약속을 지켜주는 행정을 하자. 애당초 추진이 될 수 없거나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성과, 별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목표는 세우지도 말고 세워서도 않된다.

그것이 오늘 시,군정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또 하나 도의 행정이 시, 군의 행정이 그동안 전례 답습적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서는 방어적인 아주 소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행정의 속성이나 특성이 그런 방어적 행정에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도세회복의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어적, 소극적 행정에서 오히려 아주 전진적이고 적극적 공격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공격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道政과 市, 郡政이 보다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 행정이 대체로 현실 安住型 行政입니다. 대개 지방행정의 특성이 그런것이긴 하지만 너무 현실에 집착을 하다보면은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장래에 대한 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 도가 계획적인 행정능력에 있어서는 시, 군 행정보다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도의 企劃能力을 시, 군행정에 접목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보고회를 가지면서 우리 실, 국장이나 각 과장들이 자기 소관업무 뿐만이 아니고 자기 소관업무 아닌 시, 군정업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가지 공통적인 내용을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가 각시군별 각지역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지시한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해서 지시를 하여주고 오늘 天安市와 天原郡 溫陽市 牙山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 충청남도로 보면은 首都圈의 壓出 餘力을 흡수하는 관문적 지역,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만은 天安市가 충남 "제1의 도시" 지난해에 충남의 首部都市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천안시, 천원군 그리고 아산군의 시, 군정 책임자가 지난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시장, 군수를 거의

1년 남짓해서 한번씩 바꾼다는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될려면 시장 군수가 2,3년 정도 한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 군정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수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 시장, 군수가 바뀌는데 이 바뀐 시장, 군수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절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前任者의 시책은 후임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승계해서 추진을 하여주고 後任者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자연인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의 약속이나 행정의 계획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도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개 후임 시장이나 후임 군수들은 전임자의 뒷치닥거리에 1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다음 1년 정도가 자기의 계획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한 3년 정도되면은 이제 업무도 파악하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해서 새로운 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자기 행정형태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어떠한 경우든지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슨 계획을 하던지 자기가 起工式 테-프도 끊고 竣工테-프도 자기가 끊을려고 생각하는데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목표를 단기간내에 달성할려고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끓는다. 냄비솥 같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성 자체가 그렇다고 그럽니다만 나는 忠淸道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여유있고 양반이 갓을 쓰고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왜 안뛰어가냐, 왜 처마밑에도 안들어 가냐? "양반이 어떻게 달리느냐. 양반이 어떻게 처마밑에 들어 가느냐" 했다는 얘기를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런 양반정신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忠淸南道의 낙후를 초래한 요인도 됐지만은 이제는 그런 정신이 오히려 우리의 여유를 되찾는 정신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된다. 우리 충청남도 행정이 너무 냄비솥 끓듯이 빨리 성과를 거둬서 "나 있을 때 뭐 하나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내가 기공식 테-프를 끊고 준공식 테-프는 나중에 5

년뒤에 1년뒤에 다른 사람이 끊어도 된다. "완벽하게 한다"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특히 天安, 溫陽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新開發地가 갖는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都市行政에 있어서는 제일 문제가 물을 관리하는 상·하수도 문제, 그 다음에 먹은것을 버리는 쓰레기 처리문제, 이것이 도시행정의 가장기본적인 요소인데 여기에 최근에는 교통문제가 더 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질서, 치안문제 이것이 도시행정의 가장 취약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 대청댐의 물이 공급이 되어서 천안, 온양지역의 상수도 문제는 완전이 해결되었지만 하수시설은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예요. 그래서 하수시설에 대해서 또 교통처리에 대해서 특히 天安 경우는 2차선도로나 4차선 도로나 간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溫陽도 일부 구간이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人道를 조금 할애해서라도 한 2미터 정도에 버스정류장 시설을 인도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버스가 일단 설때 2m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버스가 노선 1차선을 잡아 먹지 않으면은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 될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난 행정지도로 교통법규를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지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나 이런 정도의 도로, 간선도로에서는 1차선을 완전히 버스노선과 트럭에 주고 거기에 끼어드는 승용차, 택시 이것을 엄중하게 단속을 하여주고 또 추럭이나 이것이 3차선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도시교통문제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1년정도 여유를 가지고는 불안해서 못견뎌요.

그래서 천안정도는 쓰레기 소각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소각장 시설을 한번 검토하세요. 쓰레기 소각장을 내가 대전에 있을때 만들려고 했는데 美國에 있는 어느 학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소각장 건설비는 문제가 아닌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 계곡을 하나 제대로 확보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썩은물이 나오는 시설은 정화시설을 제대로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것은 개발해야 된다. 이제는 거리가 멀고 가깝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비용을 줄여가면서 그런것을 쓸수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것을 들었는데 그래도 義政府에 있을때 그런 얘기를 못들어서 소각시설을 만들었었습니다. 착공을 해놓고 떠났는데 소각시설이 없었으면 의정부는 지금 쓰레기 처리를 못할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天安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각시설을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溫陽과 天安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도시의 성격을 한번 확실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위락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다 공존하는게 도시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天安같이 교육,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교육도시의 성격"을 띨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溫陽은 위락시설인데 아까도 자고가는 관광객이 많이 준다고 얘기 했습니다만 자고가는 위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냐 그런것은 지역학자, 전문가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유지들이 그런데 대해 인식이 되도록 해서 민자유치 하는데도 사업선정하는데도 참고를 하도록 구상을 하면은 여러가지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老人 人力의 生産化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敬老堂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와서 바둑 두시고 소일을 하는 경로당이 아주 많은데 외국 같으면 배추 한 포기를 밑에다(뿌리에다)물을 담아 비닐봉지를 묶어서 출하를 합니다. 엄청나게 포장에 신경을 쓰는데 이건 전부 인력으로 안하면 아니 됩니다.

농산물 포장은 天安에 아까 수출 배 거봉포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거봉포도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묘하게 넘어갔어요. 금년에도 또 문제가 생길것이라 말예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는지 몰라요. 배 수출도 지난해에 검사통과가 안되어서 우리가 輸出이 부진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국내 수요를 감안하기 위한 지난해 소포장 그걸 가지고 郡守가 직접고속

도로에 나가서 판매도 하고 했는데 이젠 市長, 郡守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소포장을 할때에 예를 들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지고 포장을 세개 네개씩 묶어서 파는 것을 노인양반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 노인양반들 한테 임금도 지급을 하면 노인 인력의 생산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강구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건설사업장이나 또 공장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은 방에 앉아서 소일 하면서 먹고 싶은것 먹어 가면서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天安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大田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한번 사전에 쭉 검토해 시켜 보세요. 대전이 전국에서는 비교적 잘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 20만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5천평 정도의 규모로 만드는게 바람직 하나, 거기에 농산물시장의 대량 수요자는 거의 서울로 가거나 대전으로 올것입니다.

그래서 天安지역의 農産物 都賣市場이 대전이라든지 또는 가락동 시장, 이런데 하고는 여건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교복착용문제를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스승존경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교복을 입혀 놓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외형적 변화와 함께 대학생들이 많은 天安市에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되겠습니다.

고리고 천안사랑 운동을 전개 한다고 했는데 천안 사랑이 바로 충남사랑, 충남사랑이 나라사랑과 연결되는 애향심과 애국심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대단히 좋게 받아들여 지고 또 한국의 꽃 가꾸기는 지난해에 대단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天原郡에서는 道義 새마을運動을 작년에 주창을 해서 다른지역에 확산을 시켰습니다만은 도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郡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아주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天原郡에 대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군의 여러가지 여건에 비해서 예산규모, 이런게 대단히 취약한것 같아요. 군의 창의적 군정개발계획이 조금 부족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天安市 같은데 소위 땅값이 비싸서 수용하지 못하는 주택, 공장, 이런것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걸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7,300평의 농토조성에 64백만원이면 평당 9천원 정도의 농토조성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소류지는 무슨 소류지인가 모르겠는데 7천 3백평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지 같은것은 검토를 해서 얼른 조성해서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가 무엇이 될 지역인지 보고 그러니까 농지 조성할려니까 평당 9천원 뿐이 못받는다. 거기가 무엇이 될 지역인가? 오히려 이런 정도는 메꿔서 동네하고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동네 운동장시설 같은걸 만들어 주었다가 나중에 다른것도 팔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막론하고 자기재산 팔아먹는것이 그네의 아버지의 가문을 훼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며 그래서 이런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류지를 메꿀려고 하면 메꾸는 비용이 아마 평당 상당히 들어갈 거예요. 어떤 소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걸 6천4백만원 돈 벌려고 여기다가 예를들어 한 구천만원을 들인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사업도 만오천평의 공동묘지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평당 한 5-6만원정도 받는것 같은데 天原, 天安市 이쪽은 땅값이 엄청히 비싸가지고 지금 공장부지 같은것도 10만 20만원씩 하는데 이건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걸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부가가치를 늘려서 팔 수 있으면 높여서 팔고 이건 오히려 택지조성같은것을 한다던지 여러가지 郡有施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살려고 하면 8억이 아니라 20억-30억 주어야 실제로 사는데, 잘생각 하십시요.

최근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수종갱신을 빙자해 가지고 산림을 아주 남발하는 지역이 있는데 식수과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여름에는 몰랐는데 겨울이되니까 산이 완전히 벗겨진데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그리고 몇년생 나무가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벌채를 하였는지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종갱신을 빙자해 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오래된 나무를 벌채하는 것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천원군의 목천, 병천의 계획인구가 목천은 2001년에 5천5백명, 병천은 5천3백60명인데 이건 어떻게해서 이렇게 정합니까?

웃을일이 아니예요. 계획이라는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계획인구가 무슨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내용에 나온 것을 보면 병천인구가 2001년에 5,360명 이렇게 나와있어요.

計劃人口라는 그 계획의 개념같은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郡守가 얘기했지만은 용현저수지 문제,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관계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 우리가 도내에서 국민관광지, 또 안면도 국제관광개발,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위락시설이라든지 노는 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용현저수지 같은것은 평당 5만원 6만원에 살려고 하던것이 30만원 20만원 이렇게하는 지역으로 오히려 땅값을 올려주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뭣하러 돈을 국고로 13억 군비를 몇억씩 들여서 개발을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땅을 가진 사람들. 민간자본이 개발가치가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주어야 된다. 민간이 개발하도록 주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왜 "국민관광지"라고 해서 투자를 해주느냐. 아까 부지런한 도민을 만들라고 했는데 놀러다니는 도민을 만들려고 자꾸 이런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검토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땅값이 비싸져가지고 우리가 내버려 둬도 지역주민이나 민간자본인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무슨 管理舍를 짓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民間資本이 들어오도록하고 개발이 1년 2년 늦어지면 어떠냐. 나는 "국민관광지"라는 것은 사정공원 같은것 처럼 운동장시설을 해주고 돈없는 사람이 와서 밥한끼 해먹고 하루 그냥 잠깐 다녀가는 그런 시설이고 또 그런걸로 충분합니다.

사정공원이 처음에 10억들여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도시근교에서 영세 서민들이 사는 100만 말고 50만도시가 있는 지역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그러한 서민들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관광지의 개념이라 이거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호화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하는것은 민간인 들이 하거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예요.

이런것에 대한 행정의 목적이 확실치 않으면 안됩니다. 계획이 원래 되었던 것이니까 그냥 합니다. 이건 그렇지 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온양에서 "안전한 도시" 대단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를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溫陽이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찾아오는 도시가 되고 거기서 숙박하는 도시가 되는데 여기서 깡패들이 칼부림하고 사람 찔러 죽이고 병이 생기고 하면은 절대로 온양에 사람이 붙을 수가 없다. 그건 경찰과 협조해서 질서, 치안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유니폼 경연대회 같은것은 새롭고 색다른 아이디어인데 이런것이 아주 온양의 도시 이미지를 바꿀수 있을 정도로 弘報같은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면은 좋을것 같아요.

어의정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아주 좋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온양의 이미지를 자꾸 바꿔 가면서 온양을 찾도록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내에서도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걸핏하면 釜谷간다, 선진지 견학하면 부곡가는거야, 부곡이 왜 선진지이냐, 우리 도내에도 온양온천, 대천해수욕장, 이런게 많이 있는데 도내의 관광자원을 관광객, 도내의 관광인원을 오래 유치하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溫陽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곡이나 수안보나 설악산에 가는 도내 인원을 그쪽으로 유도해 주는것을 우선 공무원, 학생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부부동반해서 어디가고 하는것도 溫陽市長이 그런 소식이 있으면 얼른 온양에 오면 내가 이런 정도까지는 너희들 써비스를 더 해주겠다 하면 얼른 온양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판공비가 모자라면 예산에 판공비를 더 계상해서 그런 공무원을 위해서 해주고-그래서 우리 도내 자원이 대외적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그런것도 생각을 해서 시정을 전개해 주기 바랍니다.

부녀층의 시정참여 확대. 이런 시책은 도 전체에 확산하는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온 시민에 대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온천탑 건립 같은 것과 관련해서 탑건립, 기념비, 이런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백제 유물이 1,000년 뒤, 한 1200년뒤인 지금도 아! 하고 문화재를 쳐다보는 그런 그 5층 석탑도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립하는 기념비. 이런 탑이 과연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아! 문화재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道廳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깥에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내부만 조금 고쳐가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건립한지 10년도 안되어서 무너지는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도 溫泉塔 같은 것도 돈이 모자라면 2년 3년 5년씩 기간을 두어서 건립할 수 있도록-그리고 아주 유수한 당대의 최고의 작가에게 의뢰해서 온천탑을 건립해 놓고 그게 1000년뒤에 어의정을 찾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그 탑을 보고서 아! 역시 그때 문화수준이 이 정도이다 이렇게 느껴질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산의 인주공단. 이것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지매입, 공영개발, 여러가지 측면에서 함께 검토를 해 주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상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雙龍自動車 같은걸 먼저 빨리 들어 오도록 해주고, 나머지 땅이 자동차가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갈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또는 땅값을 그렇게 올려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해의 시설, 이런것을 아주 조건 자체가 안 맞도록 만들어 줄 필요는 없느냐, 심지어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주세요.

나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 했지만 군 관광지 지정문제라든지 아까 내가 얘기 한데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군단위, 시단위에서 반드시 국민관광지

하나 공원시설 하나 위락시설 하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것을 검토해 보십시요. 民俗마을은 마을안길 포장, 화장실 시설 이런게 전혀 조화가 안 맞아요.

민속마을에 내가 지난번에 가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민속마을을 그런식으로 개발해 줄려면 민속마을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해 보세요. 마을안에 차를 못들어가도록 해주어야 되겠어요.

간이포장 같은것을 建設局長이 한번 지원해 주던지- 땅이 여하튼 남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 시멘트를 발라 놓으니까 안되겠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外形은 민속마을 그대로 두고 안에만 바꿀수 있을건데-그런걸 검토해 보세요.

김옥균 묘소관리사 이건 왜 만드는 겁니까? 동네가 없나요. 거기에다 맡기면 되지 뭣하러 관리사를 새로 지어서 관리해요. 그럴만한 부장품이 있나요.

집을 먼저 지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을 생각해보고 나중에 집을 짓던지 그래야지 묘소만 하나 떵그러니 있는데 집하나 지어서 관리사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이상한 것이 됩니다.

오늘 市長, 郡守들이 알찬 내용의 사업계획을 준비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두 얘기 한대로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이 되어서 "새로운 충남시대" 그리고 "도세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시, 군정 도정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0년 1월 17일 (青陽－泰安)

訓 示

3일동안 20개 시군에 業務報告를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 군 별로 몇가지씩만 얘기하고 綜合整理 하도록 하겠습니다.

(青陽郡)

청양군이 지난해에도 아주 군정이 특색있게 추진이 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鄕約實踐運動은 지난해에 郡守의 意志를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군수가 그런 군민들의 참여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주고 향약 실천운동이 道義 새마을 運動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심적 운동으로서 도내전체에 파급이 되도록 특히 도에서 공무원들의 향약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수 있도록 향약 교육을 발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公職名譽에 대해서 얘기 안한 市郡이 없습니다. 공직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겠느냐, 바로 이런 향약실천운동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 이러한 향약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부탁합니다.

이 青陽郡은 오늘 나온 7개 시 군 중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보존이 되야 될 지역이고, 양반의 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양군의 청정지역과 양반의 군으로서의 이미지, 특히 향약실천운동을 통한 도의 마을로써의 이미지를 도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 홍보를 해서 忠淸南道의 양반도로써의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을 公報擔當官이 맡아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공해 영농에 대해서 여러 시 군에서 얘기했는데 이 무공해 영농을 할려고 하며는 지력이 증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력증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무공해 영농이 산성땅에다 농약만 안쓰고 그냥 쌀농사만 지어서 생산해 내면 그게 무공해 영농이 아니고 아주 비옥한 땅에서 농약을 쓰지않고 잘 생산해낸 제품이라야 무공해인데 이 무공해 무공해 하면서 농약만 안쓰고 하면은 무공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振興院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고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이 4-H 회원을 통한 정신운동으로 직결되는 그런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만 발전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道義 새마을 運動이라든지 忠淸南道의 특수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추진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상징탑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각 시 군이 이런 탑이라던지 기념비라던지, 무슨 기념관 이런 것을 거의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데는 많은데는 5억에서부터 적은데는 몇천만원까지 예산을 계상했는데 자체예산 계상도 하지않고 도에서 이걸 지원 해 달라는 시 군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道의 文化財 課長은 상징탑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효과는 내 생각에 추모각, 기념비, 탑, 필요성, 역사성, 소요예산, 사업효과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함부로 아무데나 碑세우고 塔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의 특징중에 하나가 관광지 개발사업과 탑과 기념비, 추모각 또는 김옥균 선생의 관리사 이런식으로 문화예술 쪽에 강조하다보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것 같아요.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면 精神敎育의 道場 이런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주 조잡한 그런 물건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에서 상당히 조정과 검토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韓郡守가 보고 한대로 향약실천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元老院과 같은 지방자치 선거라든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수 있다면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다－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잘 검토해서 실효성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천댐 건설은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을 하다보면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행정을 이 시기에 꼭 해야되느냐, 이걸 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과에 대한 예측을 전부하고 시기가 반드시 이 시기에 해야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반대하면 뒤로 물러 섰다가 또 잠잠하면 또 시작할려다 또 뒤로 물러섰다 하는 행정의 권위가 안서서 행정이 안됩니다. 다른 행정까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지청댐 건설은 언제 필요할 것이냐, 이 물이 언제 필요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줘야되고 오염되지 않게 지청댐의 수원을 보존하는 방법 이런것을 강구하면서 실시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민이 필요할 때는 막지 않는다고 해도 막아달라고 막아달라고 하는 때가 있고 그걸 다수의 주민이 원할때 시기적인 것을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보령댐 건설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에 상수도원으로써 아주 양질의 수질을 가지고 있는 지청댐의 건설이 언젠가는 필요하다.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칠갑저수지와 관련해서 이와같은 아이디어는 日本에 幸福村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고베에 행복촌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都市課에서 계룡시 계획을 세우는 팀들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우리 青陽같은데는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걸 관계해 가지고 칠갑저수지를 만들면서 주변에 별장지 같은 것을 별도로 확보해 놓았다가 老人福祉村을 우리 충남 출신으로 외지나 나가있으면서 돈도 좀 있고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어도 어디에 땅을 사고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서울 그 아주 공해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공무원 출신중에서도 고급 공무원 출신중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데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노인복지촌 같은것을 하나 高級休養村으로 건설해서 돈을받고 팔고 알선해주는 그런것을 장기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칠갑저수지 만들어 놓고서 영영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면 나중에 그런 촌을 만들고 싶어도 불가능 할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립공원 개발이라든지 국민관광지개발등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투자를 1-2억 하는게 아니고 10-20억, 몇십억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시설 투자를 하면서 효과 분석을 전혀 않해요. 노는 장소만 자꾸 제공해 준다는 감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않된다 이거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관광지라는 것은 대도시에서 어디가서 하루를 보낼 수 없는 영세민들 고급 휴양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근교에 간단한 휴식 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로 國民 觀光地를 만들은 것이거든요. 國家가 50%를 자금 지원해 주는 거라고할때 지방재정이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관광지를 만드는 것을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아주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시 군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건 관광지에서 시군 업무를 검토 할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세요. 공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재정수입에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투자 수익율 분석같은 것도 한번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양의 市場 現代化는 도에서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洪城郡)

洪城郡은 충절의 유적지를 종합정비 한다는 계획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연관을 시켜서 유적지 종합 정비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廣域圈 사업하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 이건 洪城郡에서 내놓았는데 이런 새마을 사업 추진은 국민운동 지원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홍성은**교통의 요충지로서의**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인데 왜냐하면은 여기는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天安－長項間에 국도 4차선 車道가 금년도까지 되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공단조성이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로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廣川의 홍보지구라든지 공단이 조성되게 되면은 洪州文化圈의 발흥지로써 보존되어야 될 지역과 개발되어야 될 지역이 잘 보존되어야 될거예요. 이것에 대한 검토를 잘 해주고 교통의 중심지, 지리적인 中心地,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란 말예요. 지리적인 중심지 역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라든지 이런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군이나, 읍이나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적인 중심지로서 개발 가능한 지역이 洪城이라고 봐요. 그리고 보존해야 될 지역이 靑陽과 禮山이라고 봅니다. 보존한다고 해서 주민의 소득이라든지 지역의 주민생활에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자꾸 전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공장만 갖다 놓으면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장 안 넣어주고 개발 안하면은 자꾸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불식할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禮山郡)

禮山郡은 구체적인 지방 재정 증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본받아야 될것으로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몇%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李正雨団長이 얘기를 했지만은 나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지방수입에 비해서 일반회계의 규모가 엄청나게 적은 데와 또 대단히 많은 데가 있어요.

시 군별 예산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예산규모가 적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市長, 郡守가 확대 행정을 상당히 기피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 군의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여건만을 가지고 호비작 호비작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어진다. 그래서 지방재정 수입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시군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얘기를 하지말고 자립도가 낮으면 어떠냐－ 지방자치제가 돼서 보완기능이 없을 때이지 지금은 중앙부처라든지 도의 예산을 많이 지원 받으면 자립도는 떨어지고

그대신 지역발전은 더 이루어진다.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세수 증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계산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농촌쓰레기 자가처리 운동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農村쓰레기 自家處理運動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확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公州郡에서는 각 면당 논롤 BOX하나씩을 배부해 주고 보름에 한번씩 수거하는 그런 제도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태워서 없앨 수 있는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 만을 논롤 BOX에 넣는다면은 아주 이것은 좋은제도일 것 같아요.

쾌적한 환경의 보존이라는 것은 20개 시 군 어느 시 군어디에서나 안 내놓은 곳이없는데 쾌적한 환경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環境課長이 잘 검토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唐津郡)

唐津郡은 농업군이었는데 이제는 工業郡으로 급격히 변하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해안 고속도로 路線이 당진군으로 지나가게 되고 석문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느 군수가 大湖池에 공단조성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삽교호에 農組에서 물 방류한 것에 대한 대응도 대단히 미숙하다. 우리가 그런 개발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계층간의 갈등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능력은 아주 깊이 생각하는, 무슨 지식이 필요한 거라고 안봐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특히 개발이 부작용의 갈등요인이 있고 투기조장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企劃管理室長이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泰安같은데 화력발전소를 만드는데 거기도 또 배가 들어가서 등록하고 또 보상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단말예요. 그런것을 우리 행정이 대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唐津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곳입니다. 지역 안정의 모체로서 적극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忠淸南道의 각 지역에 있는 義

勇消防隊에 사기앙양책 등을 함께 검토를 해주고 여기 또 국민 관광지 얘기가 나왔는데 대호지구에 國民觀光地를 만들어 놓고 지방세수가 얼마나 느나요. 삽교호 같은데 투자에 비해서 국민 관광지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니예요. 국민 관광지를 군단위에서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大田市에서 국민 관광지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군민 전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도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예요. 쓰레기만을 남겨놓고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관광지는 도시민들이 밥도 싸고, 잠자리도 텐트 가지고 가고 다 그런곳을 생각해서 국민 관광지를 만드는 것 이거든요. 이걸 군 단위에서 자꾸 확대 할려고 하는것은 내가 볼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잘못 조정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국민관광지 만들때 국비지원 비율 같은것을 대폭 늘려 주어야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國家가 해야 될 일을 地方이 하라고 하면은 되느냐, 대도시에서 대도시내에 하는 것은 그런대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자매결연관계인데 唐津이 지난해 美國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日本, 대만을 갔는데 자매결연 맺은 뒤에 자매결연기관 관리를 할수있는 공무원이 있느냐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姉妹結緣 기관에 대한 관리, 우리가 지금 일본에 구마모도겡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도에서 내가 생각할때 관리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사실은 儀典係를 만든거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이 군단위에서 자매결연기관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군수나 또는 군의 간부들이 외국에 한번나가는 정도로 끝나면은 郡守가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그런 자매결연을 자꾸 맺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민간차원에서 맺을수 있도록 商工会議所라든지 이런데서 맺을 수 있도록 협의해 준다든지, 무슨 실효성을 놓고 자매결연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같은시기에 여러개를 맺을려고 하면은 행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 해서 참고로 얘기를 해 줍니다.

이것은 瑞山도 그렇고 唐津도 그렇고, 공유수면 매립은 도단위에서 별도의 조정을 이정우단장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것 찾기 운동을 적극적 추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瑞山市)

서산시는 대산공단의 배후도시로써 新設市인데 내가 가보니까 상당히 급격하게 발전하는 도시인것 같아요. 배후도시로써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될 도시냐 베드타운이냐, 대산공단에 대한 각종 서비스기능 도시냐, 뭔가 성격을 확실하게 규명해가지고 시정에 중점을 설정 해줘야 될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신설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기존도시의 짜임새가 짝 짜여진 도시와 달리 읍에서 바로 신설되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市長이 장기 목표를 세워서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정립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 했지만 재정규모가 대단히 취약하다. 130억이면 도내에서 재정규모가 제일 적다. 도에서 지원하든지 재정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야 될 것 같아요.

瑞山市가 지난해 상당히 잘 했다고 보는것 중의 하나가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운영하는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泰安郡도 주민과 함께하는 걱정을 했으면은 그런 사고가 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처음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市長이 유도해주는 노력, 지난해 내가 가서 인사 잘하는 청소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한적이 있는데 學校에 가서 시장이 학생들과 대화 할때도 그런 얘기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시의 청소년들이 다른 시의 청소년들과 다른 것을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복착용 같은것, 스승에 대한 존경심 이런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람직한 향토관 정립 운동, 이런 것은 다른데에서도 상당히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과장들이 조정할때 이런것을 참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주민촌개발은 우리 도에서 행정의 소외계층이 없도록 한다하는데 도의 행정목표중 하나 이지만, 소외계층 없도록 人本行政도 그런것이고, 어제 농촌의 영세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슨 변소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런걸 개량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低所得 住民村開發 이런것은 保社

局에서 도전체를 놓고 도에서 해야될 부분을 찾아 보세요.

쉽게 찾는 지번 설정은 우리가 아주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구획정리할때 行政先例를 남기고 시 단위에서는 파급이 될 수 있도록 地籍課에서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瑞山郡)

瑞山郡이 제일의 雄郡이었는데 전국 제일에 雄郡으로서의 기풍을 분군 또는 시승격후에도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瑞山郡이 KZ기지 건설사업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군의 행정력이 이제 다시 제 본위치에 돌아온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합니다만은 전도 제일의 웅군이였던 瑞山郡의 기풍을 또는 명예를 계속지켜 나가자 하는 운동을 군정 목표로 삼아서 추진하면은 군 행정공무원이나 군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 瑞山市, 泰安郡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唐津郡도 그렇고 개발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瑞山의 뿌리정신이라든지 하는것을 아주 정신적으로 어느 地区라고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泰安郡)

泰安郡이 사실은 분군할 당시의 기대하고는 대단히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군할때에 태안군민들이 무어라고 했냐면은 國泰民安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국태민안의 중심지가 될려면은 道泰民安의 중심지가 되야 되는데 지금 태안군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군수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분군의 잇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분군이나 시승격 됐을때는 국민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장래에 대한 희망의 불을 붙혀 줄 수 있는데 瑞山市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泰安郡쪽은 행정이 자기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해주고 있다. 분군의 잇점이 전혀 없다, 느끼고 있는것 같아요.

나는 分郡의 잇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원인을 두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행정내부 결속이 결여되있다. 그래서 행정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역유지들이 결속도 않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리더가 될만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각국 단체라든지 이런것이 瑞山郡이 였을때 거기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泰安郡 되니까 떨어져 나가서 자기가 저마다 리더해야 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정비를 해줘야만 되고 지역의 어느 단체든지 어른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발위원회면 開發委員會, 군정자문회면 郡政諮問委員會, 누가 어른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력이 되야 되는데 다 어른 노릇할려고 하니까 안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어민과 배타고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하면은 郡政 弘報를 들을새도 없고, 볼새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매일 싸움 행각을 한다던지하여 분군의 잇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郡守가 검토하지 않으면 泰安郡이 상당히 어려운 군으로 계속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선 郡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여기서 죽을 자리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세요.

郡守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너는 딴데 나갈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갈데도 없다, 우리 여기서 함께 죽자, 나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군수와 군행정 공무원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지역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체제로 빨리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愛鄕精神運動 같은것은 너무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아주 내부적으로 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잡기운동 같은것은 소득과 연계되어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郡民 倫理 運動전개는 郡守가 인식을 대단히 같이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초대군수가 그 시군에서 버텨내지 못한 시 군은 없었을거예요. 나는 이런것이 충남 공무원들의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泰安郡에 있는 副郡守이하 전간부직과 공무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군수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고치도록 해야됩니다. 內務課長 내

얘기 한것 맞죠? 군의 전 공무원이 군수와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새로운 태안군을 만드는데 진력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군청사 신축 예산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대체로 오늘 말씀하신 7개 시군에 대한 내 느낌이 너무 단편적으로 들리는 느낌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실정에 안맞는 부분이 있을테니까 우리 도의 실무 과장들이 잘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綜　合)

내가 왜 이렇게 도에서 업무보고를 받느냐 또 도의 실과장들을 전원 배석 시켜서 보고를 받느냐 하는데, 우리 과장들 중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첫날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참석을 안한 과장들도 그렇고 참석한 과장중에서도 별로 인식이 안되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도정이라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道知事의 의지가 도정에 반영이 될려면은 도의 실국장, 실과장, 전 직원, 시군에 있는 우리 1만7천여 공무원이 함께 움직여 주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사람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정 의지를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세회복의 1차년도를 대단히 성공속에서 보냈다. 大田直轄市로 분리된 이후에 도민들에게 우리가 처음 약속한게 무어냐,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내에 도세를 회복하겠다. 빠르면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 도세를 회복해서 도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工業化 시책이라든지 人口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든지 또는 서해안 개발 계획에 도의 사업계획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反映이 되었다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확정이라든지 또 재정 규모가 지난해 88년에 비해서 줄었던 재정 규모를 금년도에 1년만에 1조 1,300억 이라는 우리 도정사에 처음있는 일로 大田市를 포함했을때도 당초예산 1조 원이 안넘어 갔는데 이런 모든 성과들, 어떤면에서도 우리 도민의 기대만큼 도정이 성과를 거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정 수행에 대한 성원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새로운 충남시대, 새로운 충남시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 달라. 새로운 충남시대는 말만 새로운 충남시대가 아니라 우선 정신적으로 과거에 소극적인 사고방식, 충남 무대접, 그냥 눈감고 있었던 도민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바꾸어 놓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민정신을 **발양하기** 위한 忠南精神 發揚, 이것이 새로운 충남시대 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산업측면으로 볼때 농업 또는 1차 산업위주로 낙후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도의 형편을 2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그러한 물량적 발전, 경제력의 증대를 기한 충남시대였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방어적인 행정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고자 했다, 신념과 용기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여기에 공무원 사회에 企業精神을 도입해서 능률성을 제고한 이것들이 새로운 충남시대의 요체다, 새로운 충남새대는 말만 새로와진게 아니고 내용이 아주 변한 그것이 새로운 충남시대 였는데 우리는 새로운 충남시대 원년에 도세회복의 1차년도, 그래서 우리는 80년대를 마무리짓는 89년을 대단히 성과있게 보냈는데 금년은 도세회복이 아니라 도세회복의 차원을 한단계 넘어선 도세도약의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충남시대를 도세 도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룩해 나가고 그리고 금년도에 개청하게 될 계룡출장소, 鷄龍新都市 모체가 되는것입니다만은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軍官民 화합의 장을 열고 統一時代를 여는 기운이 이 鷄龍市로 부터 솟아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새로운 충남시대는 국가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할 수 있는 정신적 응집력을 가진道, 충남정신 바로 그런 것이다. 화합인보의 정신, 개척과 교화의 정신 이런 우리 百濟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鄕約운동이라든지, 道義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것이 모두 그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확실하게 다져나가자, 금년도에 내가 몇가지 목표를 세운것 중에 부지런한 도민이 되자 이런 얘기를 첫날 했습니다.

농어민들도 부지런해야 되고 근로자들도 부지런해야 되고 특히 공무원이 부지

런해지어야 되겠다. 시장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아주 부지런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봉사자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이러한 아주 부지런한 도민 공직자, 이것을 금년도 목표로 삼는다. 우리가 민주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代案들을 시 군에서 보고를 했는데 민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첫째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돼요. 그리고 그 능력은 자기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발표하는 것과 두가지가 같이 겸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民主行政이 절대로 추진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민주행정은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능력은 자기 머리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과 추진력이 여기에서만 나올 수 있고 또 민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다시 재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될지 모른다고 아까 社會課長이 얘기 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민주주의가 안됩니다. 특히 地方自治制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뒷받침 행정은 확실히 해나가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번 시 군정 업무보고는 대단히 유익한 업무보고 였었고 또 우리 새로운 忠南時代를 확실히 열어나가기 위한 市長郡守의 의지가 돋보인 보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3일동안 걸쳐서 보고해 준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시 군에서 보고서를 준비한 간부직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忠淸南道가 보이는 곳에 대한 행정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지원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 행정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그 행정의 성과가 오래동안 道民의 머리속에 남아있고 또 道의 位相이 또는 도의 이미지가 그렇게 변모될 수 있는 측면도 강조해 가면서 **소외계층이** 없는 그러한 도정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분명히 90년대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해 우리가 기울였던 도세 회복에 대한 노력을 倍加해서 도세도약, 그리고 정

신적인 우리 충남정신의 발양이 함께 큰 성과있게 이루어져서 연말에 우리가 다시 이런 모임을 갖고 분석을 할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0년 1월 16일 (서천 ~ 보령)-

여러분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같이 도정 의지의 실천을 위한 시군정 의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고회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도의 행정과 시군 행정을 接木시키는 역할을, 그동안 단편적으로 우리 室課所長들이 시 군정을 접하는 기회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 군정 의지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계획하에 추진되는지에 대해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런보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일선 시장군수이하 전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합심협력해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출발했던 道政인데 우리가 연초에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도정의 모든 목표를 거의 초과 달성했습니다.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겠다, 새로운 충남시대의 의의를 몇번씩 강조하지만은 과거와 달라진 충남의 모습을 우리 도민의 가슴속에도 심어주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도 물려주자 하는 것이 충남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화합과 인보와 개척과 교화의 百濟精神을 오늘에 되살려서 충남의 새정신으로 이끌어 보자.

그리고 물량적으로는 도세를 빠른시일내 回復해서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이내에 충남도세가 대전직할시라는 인구의 3/1, 경제력의 반을 떼어 내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 도세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표현에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자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도정을

수행해 나가자, 기업정신도 도입을 하고 미래를 보는 눈, 지식도 함양을 하고 여러가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왔는데 다행히 이러한 忠南時代의 元年을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훨씬 더 큰 성숙속에서 해낼 수 있었다, 지난 89년 한해 시장군수들과 시 군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하면서 내가 특히 지난해에 보람있게 생각했던 부분은 서해안 개발계획에 우리 충남도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政府도 3軍 本部를 이전해 오면서 우리 忠南이 명실공히 國家安保의 중핵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도시 鷄龍市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통일을 향한 국민에 의지를 결집하는 한 거점등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그대로 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政府의 행정개편 사상 전례가 없었던 몇가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룩하면서 많은 보람도 느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렵고 시련을 겪었던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지난 한해의 도정 성과가 대단히 눈부신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세 회복의 차원이 아니고 도세 도약을 위해서 금년도를 道勢跳躍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러한 도정의지를 지방에서 확실하게 실천해 주는 시 군정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제 공통적으로 몇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지역안정과 화합의 문제에 대해서 시 군 지역에서 확실히 지역안정을 다져주고 최근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충남지역은 문제를 사전에 배제해 나가거나 또는 사후에라도 대화를 통해서 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문제를 아물게 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작년에 노사분규라든지, 교원노조 문제라든지 또는 瑞山, 泰安지역의 간척지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해줬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타지역에서 유흥업소 심야영업 단축등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급격히 추진하고 있는 개발시책 특히

공업화와 관련한 여러가지 시책이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保寧의 대단위 댐 건설, 瑞山의 大山地區의 공장건설 아산, 당진, 태안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현재화 될 소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事前에 찾아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민의 성격이 대단히 끈질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성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 발생이 되어서 표출이 되면 그것을 막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처를 해나가자, 지역단위의 안정과 화합을 아주 확실하게 이룩해 나가자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얘기한 공통사항중에 시 군과 관련한 공통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市長郡守들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시멘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해 내가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指導者의 士氣를 높여주자는 뜻에서 1개 시군에 2,000포 씩 나눠준뒤 효과 좀 있었는지요?

(보령군수)작년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知事님이 주신 2천 포와 金龍煥議員님이 1만 포를 포함하여 지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 안길 포장을 하는데 도급을 주면은 예를 들어 100m에 5백만원 든다는데, 레미콘을 주면은 260만원 정도 시멘트를 주면은 120만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시멘트를 주면 철조망도 사고, 노력이 드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레미콘으로 지원해주면은 아주 좋아 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道義 새마을 運動을 하는데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뭔가 구심사업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도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언가 마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企劃管理室이나 地方課에서 예산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요.

마을 안길 포장이나 조그만 농로 포장이나 이런것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지원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미콘으로 주는 방법이 좋다면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포장도 하고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고 우리 保寧이라든지 唐津쪽에도 있습니다만은 간척농지에 대해서 보령군수도 시범포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A.B 지구도 시범포를 가지고 이미 86년도 부터인가 농사를 짓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農村振興院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간척지구에 해일피해가 나서 국정감사때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간척지에 설계 심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관리를 도나 시군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寫眞이라든지 對應資料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나 작년도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일부 시군은 공장부지를 제공하지 못해서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시군은 부지가 있어도 희망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希望 中小企業이라든지 기업체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신문여백 란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민원 창구에 가서 민원서류를 냈는데 민원인 한테 쳐다 보지도 않고 가라, 그리고 한 열흘 뒤에 이것을 반려를 해 왔는데 M^2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한글로 평방미터 라고 썼다고 해서 반려했다, 그런 신문보도를 보면서 과연 우리 충남 공무원 중에도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느냐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무슨 기업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마치 필요없는것, 여러가지 귀찮은 것이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100대기업을 유치했는데 150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知事는 자랑을 하고 다니고 실지로 담당자는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법규에 대한 연찬이 부족하거나 또는 법규 적용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보령 군수가 소신을 가지고 책임 행정구현하겠

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충남공무원 전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념과 용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하두 많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우리지역의 개발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보는 시각,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안하고 시군별로 몇가지 느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論山郡)

훈련소에 면회객을 위한 환영, 농촌 알뜰살림펴기 등 좋은 시책을 발굴했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계획을 세우고 그냥 말로 알뜰살림펴기 또는 면회객 환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可視化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또 論山郡은 3개읍이 있습니다.

論山, 江景, 鍊武邑 3개읍이 서로 경쟁의식이 강한 지역이예요, 이 경쟁의식이 강한 것을 군에서 잘 조정을 하면은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를 한다든지 또는 농산물 수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특화 산업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경쟁적으로 유도하면은 論山郡이 3개읍 때문에 지금 단결도 안되고 무슨 화합도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하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것을 활용하자, 경쟁심을 유발해주고 그래서 논산군이 鷄龍市를 떼어내고도 전국제일의 논산군이, 전국 1위나 2위를 가지고 있을거예요. 계룡시를 떼어내도 전국 1위 2위를 유지할 수 있고 제일의 雄郡으로써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작년에 논산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청소년 보호관리를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각 시 군에 전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성게 양식을 확대해주고 국립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700평에 7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機械式 駐車는 안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평면에 놓고 위로 올리면은 기계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2.3 층 정도에 주차가 가능한데 시골은 잘 안할려고 할것입니다. 서울은 많이 있어요. 그런것을 검토해 보면 돈 받기도 떳떳하고 좋아요. 빈 땅놓고 돈 받는 것 보다 기계식으로 올려놓고 돈 받으면은 돈 받는다고 무어라고 않할 것이고 그런것은 論山같은 곳에 해 볼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公州市)

각 시 군별로 특성이 있는데 公州市는 교육문화 도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보면 교육문화 도시가 아니라 아주 낙후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교육문화 행정하면 공주 했단 말예요. 學校의 質이라든지 학생의 질이라든지 또 지역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다행히 백제문화권 개발 특정지역으로 지정 받아서 금년도에 건설부 예산에 10억 원의 용역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公州市에서는 금요토론회, 公州郡에서는 도의 문화강좌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行政發展 討論會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실효를 거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그런 것을 서로 협의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釜山 같은 데는 목요강좌라고 있어요. 순수하게 민간인이 하는 것 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학교수가 목요강좌에 멤버이고 자기들이 돈을 내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그것을 모아서 강좌를 하고 거기에 나와서 듣는 사람들은 기업체의 직원들로써 대학나오지 않은 직원들이 교양강좌로 듣는 것 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일정한 장소에서 그 목요강좌를 해요.

대단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에 시장, 군수들이 한번 나가서 강의해 준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민간 자율적으로 金曜講座라든지 해주면은 아마 지역여론을 문화교육 도시로 이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강좌라든지, 도의 문화강좌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주거, 주방, 변소등 개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保社局에서도 검토해 보고 정부의 의존정신을 불식시켜 가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잘 사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런식으로 해서 보사국에서 도전체를 검토해 보세요.

청소년 애향운동, 이것은 어떻게 내용과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아직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소년 애향운동이라든지 "보람찬 공주가꾸기운동" 같은게 대단히 바람직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公州가 행정 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옛 기능을 또 성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사무도 위임은 도에서 적극적 검토해 보세요.

대개 어느 시군이든지 애향운동 얘기를 많이하고 애향노래를 만들고 하는데 애향노래를 들어보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치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안불리는 이유가 그 앵두나무 우물가에 하는 것처럼 응얼응얼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도 어렵고 시장 군수님들이 먼저 한번 불러 보세요. 자신있게 부를 수 있으면 다 부를 수 있다고.

충남찬가는 내가 부를 수 있으니까 다 부르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가져오면 市長 郡守가 먼저 배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도 흥얼흥얼 해보고 "아하" 이런 정도면 보급가능하다, 그때 애향노래로 채택해도 되지 그냥 작곡자한테 줘서 받아서 보면은 특수한 사람이나 부르지 우리 같은 음치는 안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가정 채소재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참 좋은 것인데 가능하면 결연가정 후원자 꼭 소년, 소녀가장등이 같이 나와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효과가 있고 정을 담아주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자원화** 문제에 대해서 밤 재배단지를 확대, 농촌소득사업을 전개하면서 절대로 뒤따라 다니는 행정은 하지말자, 농민한테 무엇을 권장해 놓고 소득이 안되면 행정이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고 감 같은 경우 지난해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급이 과잉 돼 버리면 밤나무를 제거하는 시책도 전개하고 했습니다. 좋다고 하면 심고 나쁘다고 하면 제거해 버리고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뒤따라 가는 행정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農林局이 작년에 참두릅나무를 개발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묘목이 생산이 됐나요. 그래서 참두릅나무라든지 벽오동나무 같은것, 이러한 특수한 수종인 참두릅 등을 잘 하면은 상당한 소득이 될 것 같드라고요. 그런것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촌총각 결연사업은 자칫 농촌총각들이 대단히 반감을 갖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번 용어 자체부터 잘 검토해 보세요. 농촌총각 결연사업 한다고 해서 잘 놔두어도 장가들 수 있는 사람을 괜히 쑤석쑤석해서 장가들여 놓고서 200몇십쌍이나 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장가들 수 없는 사람 나이가 40이 되거나 37—8이 되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들은 결연사업 한다고해서 얘기도 안하고서도 소득도 있고 얼굴도 잘 생기고 해서 내버려 둬도 장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괜히 와서 결연사업이다 하는 등으로 자기들만 장가 못간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大川市)

大川市는 서해안 거점 도시인데 진짜로 행정 목표를 참 잘 설정 한것 같아요. 서해안 거점도시로서의 여러가지 시책을 잘 전개해주고 지난해 해일피해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공직자 시민 모두 함께 큰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청 청사 2만평달라고 하는데 企劃管理室長이 안 줄거예요. 2만평 얘기하지 말고 합리성 있는 방안으로 조정해서 1만평 정도를 생각해봐요. 만평도 큰거예요.

그러니까 청사핑계 대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할려고 하나본데 殖産局長은 大川의 종축장 문제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섯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생각하면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母校 関心갖기 運動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모교에 관심갖기 운동을 해서 상당히 큰 성과 거두었죠. 또 大川農高, 水高같은 고등학교가 전도적으로 퍼져나가야 된단 말예요.

(保寧郡)

保寧에서 스승찾아 보기에 대해서는 은사찾아 뵙기 라는 행정 용어를 순화해서 쓰면 좋습니다.

해안분지가 아직도 조사 않된 것이 있나, 작년에 전부 끝났을 것으로 아는데요. (보령군수)등기 이전 하고 하면은 간혹 한 두필지씩 나오는게 있어요.

은익재산을 찾으면 국유가 되니까 찾아서 관리전환을 받는다든지 해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폐광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특별취로 사업을 전개하는게 바람직 하지만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어요. 농공단지라든지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근로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舒川郡)

고향가꾸기 사업에 면당 4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각 시 군의 용역사업비가 많았는데 지난 해도 있었고 금년도에 많고 용역사업의 성과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企劃室은 1/4분기에 도,시군 평가 분석을 하되 도시계획, 또는 문화개발 각종 사업별로 용역비를 쓴 사업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수 주종선정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시군에 민속 발전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文化藝術課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도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매년하는 民俗競演大會 출품작을 집중지원해서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보세요

(綜　　合)

이제 市長, 郡守들께서 업무를 하면서 내가 어떤 都市를 만들겠다 어떤郡의 성격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맡아서 하면서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시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業務計劃을 잘 수립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각 실과별 담당과장들과 토론회도 하고

또 실천계획도 주고 받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각 실국과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JC會長 就任式

1990년 1월 18일

祝 辭

먼저 우리의 소망과 기대 가득한 새해 연초에 忠南 地區 青年會議所 會長 離·就任式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들어 우리 고장의 젊은 知性人들과 처음 만난 이 자리에서 JC会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는 地域 出身 國會議員님, 여러 機關長님, 내빈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격동의 80년대를 역사의 뒷장으로 넘기고 대망의 90년대를 펼치면서 지난 임기 동안 우리 고장 JC運動을 알차게 이끌어 주신 조중룡 전직 회장님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또한 그 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2000년대를 대비하는 첫 出發点에서 고장의 JC회원들을 이끌어 주실 新任 이재욱 會長님과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JC회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幸運과 成就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JC運動은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높은 理想과 활기찬 活動力을 바탕으로 진실한 社會 運動을 추진하는 젊은이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未來 世代의 주역으로서 한 地域 社會와 國家 그리고 民族과 人類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가를 선험하고 사회의 지도자로 力量과 眼目을 키우는 것 또한 JC運動의 좋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처럼 오늘날은 自律과 開放, 그리고 責任과 義務가 요구되는 民主化의 時代입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유보되었던 地方 自治 時代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하고자하는 것은 民主化나 地方化의 개념이 우리가 어떤 객체나 제3자로 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키우고 확대해 나가야 할 우리들 스스로의 課題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마치 地方 自治라는 制度만 시행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일 뿐 실제로는 地域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함께 보람을 나누는 和合과 성취의 力量이 알맹이라고 봅니다.

새해들어 새로운 指導者를 선임하신 忠南 JC會員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적인 여건을 생각하시면서 부디 알차고 비젼있는 JC運動을 전개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JC會員 여러분에게 幸運과 함께 가정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祝賀의 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第346次 忠淸南道 敎育委員會 會議

1990년 1월 31일

人 事

지난해에도 忠南敎育은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성심성의껏 보살펴 주신 덕분에 큰 발전과 성장을 하였고 특히 미래를 책임질 人材育成 敎育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全敎組 사태로 인하여 큰 혼란과 대립이 있었고 忠南地域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나 전 공무원이 합심협력, 잘 처리하여 교육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른 도세약화도 敎育委員會의 적극적인 대처로 상당히 회복하였고, 다만 全國体典에서 우리가 거두었던 성과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교육감님과 교육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어 論山工高에 체육과를 병설, 체육고등학교 신설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위원님들 께서도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어 지난 1년동안 12회 14일의 회의를 개최하고 3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道政도 도세회복의 차원을 넘어 道勢跳躍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충남교육도 이러한 도세회복의 노력과 함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데 더큰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敎育委員 여러분께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초 교육위원님께서 해외시찰 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해외시찰에서 얻으신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지식을 忠南未來敎育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다녀 오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월



▲ 노인정 방문

1990

1990년 2월 1일

訓　　示

벌써 금년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시련과 갈등의 연대라고 생각했던 80년대, 또 榮光과 보람도 함께 안겨주었던 80년대를 마감하고 지난 한달동안 우리는 새로운 21世紀를 맞는 準備年代 즉 90년대를 여는 여러가지 준비작업을 해왔습니다.

90년대의 첫달을 보낸 오늘, 우리는 몇가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 년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내야 하는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으로 두가지 국내외적인 중요한 변화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를 보내며 우리는 19세기말의 역사적 사실들을 回顧해보고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해야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9세기말을 회고해 보면 첫째로 西洋의 세력이 東洋으로 침투해 오는 과정에서 세계조류를 무시한 大院君의 鎖國政策이 있었고, 여기에다 黨派싸움과 집권자간의 극한적인 세력다툼으로 인해 나라를 잃은 뼈아픈 역사적 業報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庚戌國恥의 國權喪失이 바로 그것이고 이어서 36년간 日帝의 압박과 그로 인한 민주역사의 屈折, 또 解放과 더불어 南北分斷이 있었고 남북분단의 결과로 야기됐던 6·25의 民族相殘이 우리의 가슴속에 큰 傷處를 남기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업보는 우리가 19세기말에 좀더 슬기롭게 國家와 民族을 이끌어

가지 못했던 우리 指導層의 오만과 아집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90년대, 20세기를 마감하는 년대에 우리는 이러한 19세기말의 역사적 過誤를 되새겨 보면서 새로운 연대인 21세기를 맞기위한 우리의 姿勢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는 분명히 20세기를 마감하는 연대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民主, 繁榮, 統一을 기약하는 연대이며, 21세기를 맞기 위한 民族史의 大轉換을 준비해야할 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80년대 말을 다시 回顧해 봅니다.

갈등과 대립과 질시, 그리고 우리 뇌리속에서 안지워지는 여러가지 착잡한 사건들이 많았던 80년대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民族史에 길이 남을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보람과 그리고 경제적인 繁榮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놓은 年代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아시아의 龍으로 지칭받기도 했던 우리 韓國人 이었고, 그리고 6·29宣言을 기점으로 하여 民主主義의 기틀을 새롭게 일구어낸 그 年代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88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기도전에 우리는 아시아의 지렁이라고 지칭받는 아픈모습을 맞보아야 했고, 또 지난날의 경제적인 貧困을 잊어버린채 자기몫을 찾고자 하는 葛藤도 맞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갈등이 우리 經濟의 安定과 繁榮과 發展을 沮害하는 모습의 그러한 80년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民族史의 大轉換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反省 불어넣어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15 盧泰愚 大統領과 3黨總裁間의 역사적인 政治的 決斷을 가져오게 했고 그것이 과거에 묶여 있는 우리의 역사를 前進의 歷史로 轉換시키는 5共淸算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民主 繁榮의 큰 역사의 흐름을 創出해 낼수 있도록 저마다의 역할과 책무완수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大統領께서 內務部를 巡視하시면서 國政運營의 方針에 대한 몇가지 지시와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기본 骨幹은 民主主義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역의 安定을 확고히 다질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지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 이자리에서 大統領 指示事項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民主國政을 大統領께서 확고히 다짐하시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地方行政 또는 地方自治團體 公務員들의 역할에 대한 지시를 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民主國政運營을 뒷받침하는 중추지역의 기능을 우리 忠淸南道가 담당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3黨統合에서도 우리 지역에 큰 기반을 가지고 있는 共和黨과 또 영남지방에 큰 기반을 가지고 있던 民主黨, 그리고 民主正義黨, 이 3당이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忠淸南道가 언제든지 중도적 입장에서 양반과 선비의 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忠臣烈士를 배출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던 그러한 지역이라는 생각을 깊게 갖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뒷받침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政治的 安定에 우리 忠淸南道가 機能을 다해 나가야하는데 정치적 안정중에서 특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가 바로 지역간의 갈등, 또는 지역내부의 갈등 씨족간의 갈등, 또는 출신학교라든지 연고지역간의 葛藤을 深化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마는 우리 忠淸南道가 가지고 있는 精神중에서 忠과 孝의 정신, 특히 忠誠精神을 우리 지역의 정신적 支柱로 해서 忠淸南道가 국가 정치안정의 가장 중요한 뒷받침을 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道政方向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經濟, 社會安定의 垂範地域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 우리 忠淸南道에는 産業平和가 定着되는 지역, 이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사분규가 한건도 일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地方行政을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圈域別 開發計劃을 樹立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지역간 均衡開發을 위한 기본구상입니다.

이 基本構想을 더 구체화해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母體로 삼고, 工業化를

추진하면서도 農業部門의 發展을 함께 염두에 두는 산업간의 均衡發展을 도모해 나가는데 도정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도덕한 營業이나 不法民願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심야영업의 규제를 통해 民生治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青少年 問題의 근원적 解決을 위해 여러가지 施策을 전개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忠南地域에서 集團民願이 일단 발생되면은 그것을 수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법한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완벽하게 대처하고 봉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이러한 不法民願이 경찰력을 약화시키는 또는 警察力을 소모시키는 데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행정의 지역단위에서 責任을 지고 民願을 解消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經濟, 社會 安定을 위한 여러가지 垂範的 努力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로는 새마을운동을 再點火하는 창발지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道義 새마을運動을 齊唱했습니다 마는 새마을운동이 70년대를 통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난을 몰아내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확실히 심어준 運動이었습니다.

勤勉, 自助, 協同의 이 새마을 운동이 80년대를 지나면서 國民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운동으로 전락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基本精神이 國民속에서 멀어진것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의 잘못이 國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原因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反省하면서 이러한 새마을 운동을 우리가 다시 불을 붙이고 다시 發現시켜 우리 국민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 내는 運動, 그리고 참 民主主義를 국민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運動으로 定着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忠南이 항상 이야기하는 道義의 마을, 이 道義의 마을을 만들지 위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 이 精神的 運動을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시책을 전

개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靑陽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鄕約運動을 새마을 運動과 接木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70년대는 새마을운동,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인해 點火되었다고 봅니다. 새마을 가꾸기 運動을 통해서 지붕을 개량하고, 그리고 울타리를 고치고 마을 안길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마을 안길을 보면 부서진 시멘트 조각이 그대로 나뒹굴고 있고 주위가 풀과 오물투성이로 뒤덮인 마을이나 냇가를 보면서 과거의 새마을 運動의 榮光을 되새겨 봅니다.

그때에는 우리 냇가에서 무성한 풀이나 오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했던 새마을 淸掃는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해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마을 운동의 點火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깨끗이 改善하고 그리고 民主秩序를 定着시키고 서로 協同하고 더불어 살수 있는 社會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의 道政運營은 大統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民主國政運營을 확실히 뒷받침해 나가는 道政으로 그힘을 모아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忠南道가 특히 公務員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公職者像, 신념과 용기, 그리고 지식을 겸비한 公務員, 여기에 企業精神을 導入하여 우리것을 사랑하고, 우리고향을 새롭게 일구어내는 열의와 정열을 쏟는 公務員像을 定立하는데 각자가 자기 직분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충남은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忠南時代의 元年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道勢回復을 확실히 이룩하여 이를 道民들에게 확실히 보여줬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道勢回復이 아니라 道勢跳躍의 차원에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별로 주어진 일이 없었던 故鄕發展의 기회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忠南發展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시대, 西海岸 高速道路의 建設, 그리고 首都圈으로부터 내려오는 工業化

의 물결, 이것이 바로 우리의 忠南時代를 열어갈 수 있는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이 機會를 절대로 놓쳐서는 않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서 우리 後孫들과 後輩들에게 보다 나은 고향을 안겨주도록 산하 全公務員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牙山郡 레스링팀 創團式

1990년 2월 1일

致 辭

牙山郡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지역유지 여러분, 기관장님 또 중앙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늦은 것은 20년만에 내린 正初의 瑞雪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牙山郡의 레슬링 選手團을 創團하는 자리에 늦게 온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처럼 내린 서설이 특히 정초에 내린 서설은 한해의 축복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금년이 90년대를 여는 첫해이고 그 첫해의 정초에 우리가 20년만에 처음으로 서설을 맞아서 축복된 정초를 보내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눈이 좀 많이 와서 일부 지역의 農民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모든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忠淸南道는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大田直轄市를 分離 昇格을 시켰습니다.

도정 90년사에 100만의 도시를 탄생시켜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분리시킨 것은 충청남도민 모두의 큰 자랑이고 자부 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도세가 대단히 약화가 되었고 특히 체육부분은 선수층의 70% 그리고 체육시설의 50% 이상을 大田市에 분리시켜줌으로 해서 지난해 全國體典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最

下位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세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남도는 200만 道民과 만 7천여 公務員이 합심협력 도세회복에 전심전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한해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忠淸南道는 대전시를 포함했던 시절인 67년 이후에 매년 2만명 내지 3만명씩 줄어왔었습니다. 한때 350만명을 운운하던 충청남도의 도민의 수가 88년 말에 300만으로 줄었었고 지난해 대전직할시를 분리시키고 난뒤에 200만이 채 안되는 도민으로 도세 회복에 임했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工業化도 이룩하고 우리지역에 首都圈으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시설들을 유치하고 특히 鷄龍台 지역에 3군본부 이전을 실현시킴으로 해서 67년 이래로 매년 감소됐던 도민의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京畿道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도민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도민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지역의 産業構造 변화와 그리고 많은 시설과 기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大田과 같은 대도시를 분리해낸 뒤에 이러한 인구의 증가가, 우리는 도세회복의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道民과 함께 일년을 참으로 땀흘려 일한 결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88년도에 대전시를 포함했을 때 우리의 예산규모는 8천 100억원 정도 였었습니다.

지난해 일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민들이 벌어들인 세금과 내주신 세금과 그리고 우리가 中央政府로 부터 지원을 받고 스스로 만들어낸 재원으로 금년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한 결과 저희들은 1조 천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大田市를 포함했을 때에 도의 예산 규모 8천100억원에 비해서 무려 3,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엄청난 규모의 확대입니다.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도민의 수 증가 예산의 증대 이 모든 것이 우리 도민의 의지와 땀의 結集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대단히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90년대가 갖는 의미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年代입니다.

돌이켜 보며는 우리가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는 西洋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힘

을 우리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고 大院君이 추진했던 쇄국정책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도층이 각성하지 못하고 권력투쟁과 암투속에서 국운을 융성 시키지 못한 결과 36년동안 나라를 日帝에 빼앗겼던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解放과 祖國을 統一시키지 못하고 조국의 분단과 함께 6·25의 민족상잔을 겪지 않으면 안됐던 그러한 20세기를 우리에게 물려주게 됐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올림픽을 치룬 자랑스러운 國民 그리고 세계 10大經濟 强國을 이룩한 국민으로써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21세기에 우리 후배들에게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뒤의 혼란상이 모든 국민들 가슴속에 희망보다는 좌절을 심어 주었고 그리고 화해와 화합보다는 갈등 속에서 1989년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12월 15일 與·野 領袖가 한자리에 모여서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적 大決斷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금년 1월 22일에 盧泰愚 大統領과 金泳三 總裁, 金鍾泌 總裁가 함께 모여서 3당 통합을 이룩하는 정치적인 큰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민들 모두는 큰 희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정치에 기대를 걸게 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가의 큰 변화에 발 맞추어서 저희 忠淸南道도 지방적으로 여러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했던 도세 회복의 노력을 넘어서 도세 도약의 차원으로 승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 도세 도약은 새로운 충남시대를 약속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의 확정 그리고 西海岸 開發計劃에 우리 충청남도 意思의 반영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급격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農漁村 部門의 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그러한 도정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地域開發의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도민의 사기를 높이는 道政을 펴고자 합니다.

그 첫사업이 體育振興, 文化振興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牙山郡廳에 創團을 하는 레슬링選手團이 4명으로 구성된 단순한 운

동선수단이 아니고 200만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우리의 상징적 노력의 선수단으로 창단되는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비록 전국 14위의 충남체육의 수준이었읍니다만은 우리 충남이 도세회복과 도세도약의 차원에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며는 전국의 최고 上位圈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는 榮光된 忠南을 재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可視的인 영광된 충남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음으로 해서 우리도민들 모두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충남시대에 동참하고 그리고 새로운 국운 형성에 自主的 役割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한 레슬링 選手團을 創團한 朴相敦 郡守의 용기에 대하여 큰 박수를 보내고 牙山郡民 여러분의 뒷받침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레슬링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大會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梁正模 選手가 4천만 국민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오늘 창단하는 아산군 레슬링팀이 한 조그마한 郡의 선수단으로써 우리 200만 도민에게 전국체전에 많은 금메달을 안겨줌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속에서 창단되는 이 레슬링 선수단이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地域 體育에 새로운 隆盛과 그리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팀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성원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창단이 있기 까지 크게 노력을 기울여 주신 盧奉國 忠南레스링協會長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 자리를 해서 축하를 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2월 1일

祝 刊 辭

먼저 우리 고장에 전래되어온 오랜 風俗을 한데묶어 冊子로 發刊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를 축하하는 바 입니다.

인류의 기원으로 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에는 傳統이 쌓이고 共同生活의 구심점이 되어온 여러가지 형태의 慣習이 生成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한 지역에서 주민의 生活과 密接하고 독특하게 생성된 유형 무형의 文化的인 관행을 風俗이라고 일컫습니다.

특히 우리 民族은 農耕 文化의 오랜 定着 生活과 누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地域마다 독특한 風俗을 繼承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고장의 風俗을 통하여 우리는 한 고장에 살아온 소속감과 함께 鄕土愛를 느끼고 삶의 공감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래들어 급속한 산업 사회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아름답게 지켜온 歲時風俗이나 소중한 민속놀이를 점차 잃어버리거나 어릴때의 향수로만 간직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세대가 이처럼 누천년 동안 계승된 風俗들을 잊어버리고 다음 世代에 물려주지 못한다면 이는 커다란 文化 遺産의 損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들어 설날의 復活과 함께 윷놀이와 널뛰기 연날리기등 대표적인 民俗 놀이와 갖가지 風俗을 되살리려는 국민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民族 文化의 한 원류를 이룩한 우리 고장에서 오랫동안 生命力을 가진 風俗을 집대성한 책자의 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우리의 풍속을 잘 가꾸고 保存해 나가는데 대한 道民의 參与와 聲援을 기대하면서 이 책자의 발간에 심혈을 기울인 藝總 忠南 道支會의 예술인 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韓國電氣工事協會 忠南支部定期總會

1990년 2월 7일

致 辭

오늘 한해의 알찬 사업을 계획하는 새해 연 초에 스물 세번째의 韓國電氣工事協會 忠南支部 定期 總會를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고장의 전기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地域社會 開發에 貢獻해 주시고 또한 道政에도 적극 參與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처럼 이제 격동의 80년대를 역사의 뒷장으로 넘기고 大望의 90年代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맞은 90년대는 국가적으로 지난 80년대의 뼈아픈 體驗과 敎訓을 바탕으로 제2의 國運 跳躍을 성취해야할 싯점이며 지방적으로는 大田直轄市 분리 승격 이후 새로운 忠南 時代의 創造에 매진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중첩된 난관 앞에서 우리 모두가 和合하고 團結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때라는 상황의 認識이라고 봅니다.

世界 情勢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던동서의 대결이 새로운 和解와 平和의 時代를 열어나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한 희망을 속단 하기에는 아직 때 이른 감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完全한 先進國이 되기 전에 세계 곳곳으로 부터 집중되고 있는 개방 압력과 함께 더욱 거세지는 경제적 도전은 우리가 목표로한 先進 韓國이 되느냐, 아니면 南美 諸國처럼 도중에서 좌절하고 말것이냐 하는 고빗길에 서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위기적인 시기라고 걱정하였습니

다만 사회 일부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땀흘려 일하지 않고 所得을 얻으려는 옳치 못한 생각,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消費와 浪費傾向이 번지고 있어 국민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스스로를 가다듬고 社會와 國家가 지닌 공동의 課題를 인식하여 시련의 시기를 오히려 發展과 跳躍의 機會로 삼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은 한 때 高度 성장을 구가하던 經濟 發展의 위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和合의 슬기를 발휘하지 못한 과격한 勞使間의 對立등은 큰 後悔를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터라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신뢰를 구축하는 産業의 平和가 절실한 현실로 다가섰습니다.

오늘 소망스런 한 해의 사업을 계획하고 토의하는 중에도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國民的 課題도 함께 認識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고장 電氣 事業 從事者 여러분의 結束과 發展가운데 행운과 보람이 있으시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家庭에 洪福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扶餘郡廳 카누팀 創團式

1990년 2월 7일

致 辭

보람과 시련이 교차되었던 80년대를 뒤로하고 부푼 기대와 希望찬 庚午年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선인들의 얼이 서리고 찬란한 百濟文化를 꽃피웠던 이곳 扶餘에서 扶餘郡廳 카누팀의 뜻깊은 創團을 200만 道民과 함께 축하하면서 激勵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곳 扶餘는 지난해 고등부 남녀 카누팀을 創團한 이래 白馬江의 물줄기를 바탕으로 忠南 카누의 고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體育界 人士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면서 創團에 애쓰신 體育關係者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忠南은 大田直轄市의 분리 승격 이후 體育은 물론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약화된 道勢를 體驗해야 했습니다.

우리 17,000여 公務員과 道民 모두는 약화된 道勢回復을 위해 精誠을 다했고 再跳躍을 위한 基盤을 튼튼히 다져왔던 한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西海岸 時代의 본격적인 開發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느낄수 있었습니다.

우선 忠南 西北部 地域의 工團造成 추진과 西海岸 高速道路가 도민의 뜻대로 確定되었으며 錦江과 百濟文化圈 開發 推進등 소외되었던 地域 開發의 힘찬 고

동소리를 들었으며 우리 忠南人의 전통적인 끈질긴 底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大田直轄市의 분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忠南時代를 향한 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었으며 도민 모두에게 道勢 跳躍의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忠南發展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망의 90년대는 이러한 도민의 의지와 희망을 성취하는 시기이며 2000년대 先進國을 향하는 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道政에 협조해 주신 道民여러분의 聲援 덕분임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忠南人의 힘과 지혜를 모아 和合과 團結된 모습으로 우리의 自負心과 矜持를 다시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忠南 體育은 第70回 全國體典에서의 뼈아픈 패배를 기억하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고 지난 연말 우리 體育人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하면서 道民體育振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오늘 創團式이 주는 의미도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다짐하고 우리 選手들이 계속하여 運動에 전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은 물론, 우리 忠南體育 再起의 디딤돌이 되고 跳躍의 발판이 되리라 굳게 믿으면서 그 기대가 자못 큽니다.

카누는 그 옛날 先祖들이 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輸送手段으로서 그 기원을 찾을수 있으며 이곳 扶餘는 白馬江 줄기를 터전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적합한 種目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야 카누협회가 創設될 만큼 그 저변층이나 기량면에서 世界水準과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꾸준한 選手 育成과 底邊擴大로 조만간 그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우리 扶餘地方에서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選手 여러분은 體力과 기량 연마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體育界는 물론 扶餘郡民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적극적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創團하는 扶餘郡廳 카누팀이 우리 고장을 대표하여 全國을 제패하고 世界로 뻗어나가는 우수한 名門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創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이 중광 忠南카누協會 會長님과 體育關係者 여러분, 그리고

임 봉순 扶餘郡守以下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치하를 보내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扶餘郡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創團式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健康과 하시는 사업 繁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第36回 自由의 날

1990년 2월 7일

激 勵 辭

오늘 세계 自由의 날에 즈음하여 당시의 勇士들이 自由를 찾은 깊은 이곳 論山에서 처음으로 記念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으로 부터 36년 전 오늘 自由의 소중한 價値와 함께 共産主義의 허구성을 온 세계에 외치신 反共 愛國 勇士 여러분의 勇氣와 決斷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自由의 勇士 여러분!

그리고 戰後 世代 여러분!

비록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유를 얻었지만 自由를 누릴 수 있는 勇氣와 能力이 없으면 어둠과 고통속에서 신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압으로 부터 풀려난 그 당시 자유의 남쪽이냐 아니면 속박의 북쪽이냐, 民主 大韓이냐, 아니면 共産 北韓이냐 하는 중대한 選擇에서 북쪽을 택한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순간 그들은 무엇이 그립고 어떠한 後悔를 남겼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의 한핏줄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유를 만족하기에 앞서 糧券과 旅行證明書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北韓 同胞들의 고통과 조상을 찾아 성묘조차 자유롭지

못한 아픔을 오늘 함께하는 바 입니다.

고장의 反共 勇士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며칠 전 北韓의 政治犯 收容所에 대한 보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北韓 體制에 비판적이거나 눈에 거슬리는 住民을 재판도 없이 강제 격리시키는 여덟 군데의 集團 收容所에 이어 최근 네 개의 收容所를 더 증설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곳에 수용된 사람은 약 15만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수많은 北韓 同胞들이 4중의 철조망에 갇혀 人間이 살아갈 수 있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죽을 때 까지의 강제 勞役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自由와 人間의 價値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인권 유린과 人間이 누릴 수 있는 근본적 自由의 억압은 세계 어느 곳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북한 당국은 허울좋은 자유와 민주를 외치고 民族 統一의 그럴듯한 政治 宣傳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국가 안보의 큰 문제는, 저들 北韓의 허구와 야욕보다도 저들의 주장과 선전에 동조하는 우리 내부의 좌익 세력과 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오늘 反共 捕虜 석방의 歷史 遺蹟地에서 우리는 그날의 감격을 일대 화합과 대타협의 政治로 가는 오늘의 國運과 國民的 合意를 뒷받침 하는 道民의 슬기와 力量으로 승화코자 합니다

더우기 自由를 지키고 조국의 平和 統一을 향한 國防의 보루 鷄龍臺를 바라보면서 自由와 民主 守護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自由와 民主를 위한 우리의 강한 신념과 함께, 금년 한해 反共 勇士 여러분에게 幸運과 더불어 萬福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洪城郡廳 洋弓팀 創團式

1990년 2월 8일

致 辭

충절의 고장, 이곳 洪城에서 금년도 첫 행사로 女子洋弓팀 創團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오년 새해에 홍성군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단위에 체육팀 창단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고 이와같이 훌륭한 팀을 창설해 주신 郡守이하 공무원 그리고 모든 體育人士 여러분 또 지역유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성지방은 오늘 창단하는 양궁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곳이고 지난날 洪城女高가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아니라 국민학교, 중학교에 모두 팀이 있고 이제 뒤늦게 나마 일반팀이 군청내에 창단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내의 洋弓運動에 더욱 주력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지난 89년은 우리 忠淸南道로서는 대단히 뜻깊은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1월1일자로 大田直轄市를 분리시켰읍니다만은 충청남도 90년 역사를 통해 100만이 넘는 大都市를 대전직할시로 분리시켰고 그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는 영광과 함께 도세의 약화라는 불가피한 현상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도세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해주셨읍니다만은 지난 일년 참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저희 道의 예산규모가 88년 大田市를 포함했을때에 8천 100억원정도였읍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도의 예산규모가 300억원정도 줄게되면 할일을 다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이해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200만 도민들과 함께 의지와 땀을 결집시켜서 일년동안 열심히 道勢回復을 위해서 노력 했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도 그렇고 공장 유치도 그렇고 그리고 각급 기관 유치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政府의 서해안 개발 계획과 관련지어서 저희 지역이 새로운 西海岸 時代의 主役으로 부각되면서 여건이 대단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휘어잡느냐 하는 것이 성과를 크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들은 주어진 기회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저희 忠南의 것으로 잡아왔습니다. 서해안 공업단지 조성과 서해안 개발계획 사업에 충청남도의 의지를 反映시킨것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무려 3,000억원 정도의 예산규모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道政史에서도 일찌기 없었던 성과이고 그리고 다른 어느 市·道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67년도에 충청남도 인구가 350만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해서 88년까지 인구가 매년 줄어 갔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대전직할시를 분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자체만의 인구가 4,000명정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는 도민들에게 충분히 도세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약속 드린대로 3년 이내에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른 도세 약화를 회복시키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지켜내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우리는 도세회복의 여러가지에 비해서 體育의 成果는 대단히 부진했었습니다. 특히 대전직할시에 선수의 85%를 그리고 시설의 대부분을 넘겨주고 난 忠淸南道 體育은 과거 전국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우리 체육의 영광을 생각하는 도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세회복이 아니고 道勢跳躍의 차원에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자하는 패치켓을 내걸고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의지를 불어 넣어 주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여건을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 忠南이 새로운 충남시대를 여는 구체적인 前進을 금년부터 이룩해 내겠다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體育도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榮光을 창출해 내야겠습니다.

체육은 물론 농사처럼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기에 성과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팀을 창단한 洋弓팀이 금년내에 바로 全國을 재패하는 그런 성과를 거수할 팀으로 자랄 수 있는 것에는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忠南體育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20개 시·군에 모두 팀을 하나씩 창단하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洪城郡에서도 전통의 洋弓팀을 創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팀이 200만 도민에게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고 도민의 사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감당해 내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는 반드시 전국을 재패하리라고 믿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내서 郡民들에게 道民들에게 보답할 것을 확신합니다. 체육분야 만큼 정직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뿌린만큼 제가 노력한 만큼, 바로 저희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正直한 것이 바로 體育입니다.

저희 도정도 도민들 기대에 못지않게 정직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道政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군 단위에서 이러한 체육팀을 창단해 육성한다는 것이 대단해 어려운 일인줄 알면서도 忠淸南道의 전 시군이 함께 이러한 體育팀을 創團해서 우리 충남체육의 영광을 재현하고 도민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충남시대를 여는 도세 도약의 디딤돌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洪城郡民 여러분께서 이러한 계제에 큰 뜻을 함께 받아 주신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세워 주기 위해서 동참해 주신 體育人 여러분과 우리 選手들에게 큰 期待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체육이 끼치는 영향은 비단 선수의 육성, 특정한 계층의 선수 육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社會體育의 發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學校體育과 사회체육과 그리고 일반선수 육성에 모든 연결이 되도록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忠節의 고장인 洪城에서 우리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고 부르기 보다는 우리 생활의 도구로 활용되어왔던 또는 우리 安保를 지켜왔던 무기로 활용되었던 洋弓이 이판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구심적 역할이 양궁을 통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팀創團과 팀後援에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팀을 창단하는데 끝까지 도와주신 孟致鎬 忠清南道 洋弓協會 會長님과 체육관계 인사 여러분 그리고 지역유지 여러분 기관장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庚午年 새해에 더큰 성과를 거두시고 또한 가정에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치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2월 9일

人 事

오늘 우리 鄕土部隊와 豫備軍 指揮官 여러분!

여러 防衛 協議會 委員님과 學界, 地域社會 人士, 그리고 각급 行政 機關長과 警察 指揮官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금년도 대 간첩 대책과 함께 地域安保에 대한 새로운 決意를 갖게 되어 무엇 보다도 믿음직 스럽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각에도 해안 초소에서 그리고 도내 주요 안보시설 보호를 위해서 한시도 영일이 없는 鄕土師團과 豫備軍 將兵 여러분, 警察官을 비롯한 安保要員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 드리며 아울러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쁜 일을 제치고 이처럼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국내외 정세의 격동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보루인 自由民主 體制를 지키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스스로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世界 情勢는 어지러움증을 느낄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체제 유지에 한계성을 깨달은 蘇聯의 개방 정책이 급기야는 東歐圈 스스로가 그들 체제의 金科玉條처럼 떠받들던 共産 이데올로기를 포기하면서 마침내는 東·西 냉전의 상징이 되어왔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金日成 북한 공산 집단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폐쇄적인 루마니아의 철옹城, 차우세스쿠 政權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이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共産圈의 변화는 그들 내부에서도 지금 예측 불허의 혼란을 빚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와 인접한 中國의 天安門 유혈사태와 함께 최근 北韓의 체제 고수를 위한 고심을 우리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깊은 관심속에 지켜보는 것은 지난 45년동안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누며 共産主義와 싸웠던 駐韓美軍의 움직임입니다.

비록 美軍의 감축이 비 전투 요원에 국한되고, 또 대 北韓 戰力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自主國防을 더욱 재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장의 對 間諜作戰 指揮官 여러분!

그리고 鄕土安保 指導者 여러분!

오늘까지 격변을 계속하는 東歐圈의 자유화 운동이 이곳 極東까지 연결되리라는 막연한 도미노 理論의 기대는 결코 금물이라고 할것입니다.

설혹 우리와 대치한 北韓 사회에 東歐圈과 같은 민주화의 물결이 파급된다해도 이러한 격랑을 우리가 튼튼하게 막아 주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흡인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自問해 봅니다.

이러한 물음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전에 우리 自由民主 體制의 수호를 위한 확고한 國民的 意志, 어떠한 도발이나 후방 교란 행위도 사전에 분쇄할 수 있는 對 間諜 對策의 完備, 그리고 이 두가지를 완벽하게 이끌 수 있는 지역의 안정과 도민 화합을 이룩하고 있는가를 깊이 점검 해보는 것이 오늘 이 회의의 본뜻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990년, 이 한해는 정말 所重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歷史의 고빗길이 될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마치 우리가 완전한 先進國이 된것처럼 마구 쓰고 먹고 노는 일부 사회의 과소비 경향과 함께 자기만의 이익과 목소리를 드높인 우리 내부의 오류, 그리고 世界 각국의 거센 開放 壓力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試鍊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는 지금, 世界 民主 歷史에 그 유례가 없는 與·野의 일대 정치적 타협과 함께 국민적 대 화합의 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파란의 80년대를 마감하면서, 90년대 새로운 民族 跳躍의 전기를 마련한 크나큰 瑞光으로써 이 國運 상승의 호기를 뒷받침하는 忠節의 道民으로서 그 전통적인 역할 그리고 물샐틈 없는 地域 安保가 우리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준비된 地域 安保의 당면 상황 설명을 경청하여 對 間諜 對策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자세의 확립을 함께 다짐하면서 금년 한해 여러분에게 幸運과 榮光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公州市廳 水泳팀 創團式

1990년 2월 10일

致 辭

희망찬 庚午年 새해가 벌써 한달반 여가 지나고 오늘이 정월 대보름날이 됐습니다. 이런 좋은날에 公州市廳에 새로운 體育팀이 탄생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水泳팀은 우리 忠南體育을 진흥시킬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종목입니다. 우리 충남체육이 과거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늘 상위에 입상을 해왔고 또 도세에 비해서 언제나 앞서가는 體育道로써 국가 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해왔던 道였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육상 종목과 수영종목이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침 체육진흥을 부르짖는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뜻에서 시·군별로 한개 팀 이상씩 창단하게 되는 시책에 발 맞추어 오늘 창단을 보게된 公州市廳의 수영팀은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의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특히 우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尹在基 議員님 李相宰 委員長님 그리고 지역 체육관계 인사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희 忠淸南道는 지난해에 大田市를 분리 시켜서 도세가 대단히 약화 됐었습니다만은 200만 도민의 의지와 저희 모두의 집념과 화합에 힘입어서 지난 일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道民들께서 기대하신것 이상으로 도세가 크게 신장 되었습니다. 작년 연초에 저는 도민들께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도세를 회

복 시켜서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른 도세 약화를 회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년을 지내왔습니다만은 일년이 지난뒤에 생각해 보면은 거의 전분야에서 道勢가 대단히 크게 回復이 되고 이제 금년 1990년을 맞이해서 저는 도세회복이 아닌 道勢跳躍의 기치를 걸고 새로운 忠南時代를 우리도민들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1990년은 여러가지 뜻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90년이라는 10년을 주기로 하는 연대의 첫해가 90년이고 1900년대에 100년 단위로 따질때에 90년대를 마감하는 年代의 첫해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1000년 단위로 생각할 때에 1000년 단위의 연대를 마감하는 그러한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첫 해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가지 해야될일이 많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忠南道는 이러한 새로운 년도를 맞이해서 여러가지 구상을 하면서 도민들의 기대와 또 국가의 여러가지 시책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西海岸 開發計劃에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계획이 어느 시도 보다도 훨씬 많은 사업, 훨씬 큰 예산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돼 있어서 저는 서해안 시대의 주역은 분명히 우리 忠淸南道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200만 도민 모두도 그것을 함께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제가 특히 금년도에 體育振興에 역점을 쏟는 것은 체육이 우리 도민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어려움속에서 우리가 치루어 냈던 88올림픽, 5천년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던 그 올림픽기간동안 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 특히 內國에 있는 국민들 뿐만 아니고 海外에 나가있는 우리 同胞들의 자부심과 긍지에 심어 주었던 그 영광이 우리는 채 뇌리에서 사라지기 전입니다.

물론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새로운 결단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거나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있었던 정치적 決斷이 우리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政府와 국민적 努力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이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고자 하는 단계에서 體育振興을 위한

새로운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며는 당연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좋은 논밭을 가지고 있어도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둘 수 있는 農夫는 없습니다. 우리 충남이 아무리 발전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봄에 새로운 忠南體育에 씨를 각시, 군별로 하나씩 뿌리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금년에 또는 내년에 분명히 우리의 손에 쥐어 주리라고 봅니다. 다만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큰 성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선수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選手를 키우고 育成하고 뒷받침해 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 創團된 우리 公州市의 水泳팀이 큰 성과를 거두어서 개인의 영광과 함께 충남 체육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이들을 위해서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수 개개인도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려 마지 안습니다.

끝으로 創團에 힘을 써 주신 신창균 忠南 水泳聯盟 會長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公州市長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유지, 기관 단체장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더욱 큰 의지와 집념으로 금년 한해 더욱 땀 흘릴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2월 20일

人 事

친애하는 勞動組合 指導者 여러분!

그리고 企業體 代表와 公務員 여러분!

오늘 금년들어 처음으로 우리 고장의 勤勞者와 使用者,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와 국가발전의 열쇠가 되고 있는 명랑한 勤勞雰圍氣 造成에 대하여 진지한 시간을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企業이나 職場의 바쁜 사정을 뒤로 미루고 이 보람있는 연수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벅찬 試鍊과 보람도 함께 뼈아픈 敎訓을 준 80년대를 역사의 뒷장으로 넘기고 희망과 도전의 시대인 90년대 그 첫발을 내디뎠습다.

아마 여러분은 지난 80년초 舍北事態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행했던 노사간의 대립과 사회혼란 그리고 마이너스 成長의 經濟 침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년전 6.29宣言 이후 민주화의 계기를 잘못 인식한 일부 사회에서 마치 일방적인 자기주장의 목소리 높이기 경쟁으로 생각했던 不協和音과 그 후유증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지나간 서로의 과오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관용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妥協과 和合의 자세가 바로 진정한 民主主義의 根本理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勤勞者와 企業人,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고 또 선진사회에 도달한 것으로 착각한 일부 富裕層의 사치와 과소비 경향이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의 經濟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言論의 報道를 통해서, 그리고 産業現場의 實物經濟를 통해서, 우리 韓國의 經濟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계속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던 經濟 成長率과 함께 재작년 外換保有의 과다로 幸福 한 고민에 빠졌던 우리의 貿易黑字가 작년에는 급전 직하로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의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압박을 줄 전망입니다.

이 싯점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경제적 難關, 사회적인 負擔,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가늠하지 못하고 슬기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길은 너무나 뻔한 事實입니다.

친애하는 勤勞者 여러분!

그리고 企業人과 公務員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벼랑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精神을 가다듬고 이제까지 계속 질주해온 成長과 繁榮의 길로 다시 들어서느냐 아니면 지난날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 때문에 先進國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오늘까지 허우적거리는 南美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칠레와 같은 나라가 되느냐 하는 選擇의 岐路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우리는 그들 나라처럼 資源이나 資本, 그리고 技術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했기에 南美諸國과는 또다른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世界의 경제분석가들은 우리 韓國이 승천하는 아시아의 龍이 될 나라가 이제는 한마리의 초라한 지렁이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半, 비웃음半의 評價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아픈 針을 맞은 것같은 비웃음을 묵묵히 듣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반성이 필요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가진자들의 과소비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이익을 보려는 몰지각한 企業人도 공생을 위한 새로운 勞使和合의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勤勞者를 부추겨 勞組를 정치 참여나 企業의 경영권 침해로 이끌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勞動運動도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할것입니다.

또한 公務員들도 주민과 국가의 진정한 奉仕者로서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고 서로 讓步와 妥協, 공존 공생의 民主理念을 尊重해 나갈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産業平和, 그리고 사회와 국가발전은 기약될것입니다.

오늘 서로 정을 나누는 勞使政의 研修와 함께 信賴를 쌓는 對話를 통해서 좋은 結論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幸運과 繁榮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國會議員에게 보내는

1990년 2월 21일

書 翰

벅찬 보람과 함께 어려움 또한 많았던 80년대를 보내고 21世紀를 준비해야 하는 90년대의 첫해를 맞아 훌륭한 議員님의 議政 活動과 함께 행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議員님께서 항상 저희 忠南 道政에 관심과 후원을 베풀어 주시는 德分에 저희 公務員들은 용기 배가하여 大田直轄市 승격 후 약화된 道勢挽回에 정려한 결과 可視的인 성과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음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더우기 지난 2월 17일 大統領께서 저희 忠南道 巡視시에는 여러 議員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아낌없는 聲援과 激勵를 해주셔서 道政을 隨行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으며 責任 또한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200만道民과 16,000여 公職者는 忠南人의 은근과 끈기,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中心道 역할을 수행하면서 國家와 地域發展의 꿈과 영광을 성취할 것을 다짐합니다.

더우기 올해는 政府에서 확정한 西海岸 綜合 開發計劃의 본격적인 착수와 함께 道勢跳躍의 해임을 명심하고 국정의 지방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忠南의 발전이 더욱 加速力을 갖도록 변함없으신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고 大統領께 보고드린 "道政意志와 實踐計劃"을 보내 드리오니 잘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새 봄과 더불어 기쁜일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1990년 2월 21일

人 事

論山郡民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계 각층을 대표하신 여러분과 각급 기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올림픽이 끝난 뒤 그 열기가 가시기 전에 각계 각층에서 표출되었던 民主化의 열기·갈등과 내부적인 시련이 지난 일년 내내 국,내외 社會, 政治, 經濟 전반에 걸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한해 였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속에서도 우리는 80년대를 큰 보람속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忠南으로도 지난 한해 어려움속에서 큰 보람을 성취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정월 초하루 우리 충남에서 백만의 도시를 떼어내는 大田直轄市 분리 승격 작업을 하여 대전시가 충남에서 떨어져 나간뒤에 저의 도세는 크게 약하게 되었읍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70-80% 거의 전 도세가 부분적으로는 30%이상 도세가 大田市로 넘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體育 文化施設 같은것은 거의 70%가 대전시로 분리 되었습니다.

또 재정규모면에서도 저의 忠淸南道가 大田市을 포함했을 때 88년도 당초예산이 8,100억 이였읍니다만, 지난해 약 300억이 줄은 7,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

의 살림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우리도민에게 빠른 시일안에 대전시 분리에 따른 도세약화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忠南時代를 여는 道政을 펴 나가겠다고 約束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중에서 첫째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충남 정신 즉 우리가 百濟精神이라고 일컬었던 개척과 교화의 새로운 忠南精神을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발양시키는 노력을 기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은 충남도세 약화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늦어도 5년 빠르면 3년 이내에 도세를 회복 하겠다는 目標를 세워 추진 하였습니다.

그러한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 가짐과 새로운 도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함께 가다듬는 그러한 公職 風土의 새로운 조성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난해 저희는 도세회복의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규모도 지난 1년 동안의 노력 결과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 보다도 약 4000억정도가 늘어난 1조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일차적으로 副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道義 새마을 運動을 제창함으로써 靑陽에서 향약 운동을 실천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충남정신의 발양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다른 市·道에서는 많은 사회적 분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정된 사회적 분위기를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갈등을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200만 도민의 하나같은 의지를 도세회복에 집결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위주였던 이 충청남도에 새로운 工業道로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道民數가 67년도이래 매년 3,4만명씩 줄어 왔던 20년을 지난해에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인구 4천명이 늘어나는 결과을 초래했습니다.

방금 군수가 얘기 했읍니다만 논산군 두마면 지역에 정부의 三軍 本部 이전

계획이 실현되어서 이 두마면이 새로운 시로써 발전될 수 있는 出張所 설치를, 그 기틀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두마지역에 鷄龍出張所라는 새로운 도시가 탄생되도록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같은 道政報告會을 가지면서 도정보고를 드리기전에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88년도에 부임해서 처음 論山에 왔을 때 우리 고향 어른 여러분께 약속 드리기를 제가 고향 어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그 발전의 성과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는 도정을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만, 그 목표를 도민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업무를 결정하고 그리고 늘 도민의 편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난 2년 동안 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찾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저는 격의 없는 對話를 해왔고, 그 결과 제 나름대로 상당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그런 자만심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취하고 있는 道의 행정 부분이 상당한 부분에서 漏水도 있고, 행정의 四角地帶도 있다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 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는 것은 그동안 시군의 年頭巡視를 통해서 시,군정 업무를 郡守로부터 보고 받고 짧은 시간내에 제가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시군정에 조언을 하고 지시를 하고 돌아가면은 그것으로 순시을 끝내고 또 오찬이나 다과회를 통해서 도민들과 잠깐 얼굴이나 대하는 것으로 인사를 차리는 그런 형식적인 行政을 한 부분도 있다하는 反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격의 없는 토론을 해서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고 道政이 시군정에 대하여 무엇을 도와 주어야 되고 또 市郡에서 特殊施策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도 전반에 걸쳐 확산을 시키며 또 시군이 의욕만 앞서서 추진하기 어려운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과 조언을 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도정과 시군정을 보다 깊이 있게 接木시켰던 기회였다고 저희 간부들이 異口同聲으로 얘기 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주 단편적

입니다만, 道政이 수행하고자 하는 意志를 도민 여러분에게 知事가 직접 說明드리고, 관계 실국장들이 나와서 우리 시군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들을 격의 없이 듣고 답변해 드리고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2월13일날 天安을 시발로 해서 이런 행사를 오늘 다섯번째로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도정보고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한시간 이상씩 시간을 지연시켜가며 우리 도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지 못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히 지난 2월17일 大統領께서 저의 忠南을 訪問해 주시면서 여러가지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서해안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일일히 사업을 열거하시면서 미래의 땅 충남에 대한 국정 추진상 의지를 격려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두가지 말씀 드리고 道政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大統領께서 90년대 의미에 대해 말씀하신 중에 이 90년대가 바로 세가지 연대에 시발점이며 90년대라는 10년을 평가하는 첫 해이고, 또 1900년대의 900년 단위로 볼때 100년을 마무리 짓는 해의 첫해이고, 1,000년 단위로 볼때에도 1900년대이니깐 1000년 단위을 마무리 짓고, 2000년대를 준비해야하는 첫 해임으로, 이런 때에 中部 忠南의 국토의 중심부로써 모든 부분에서 국가 안전과 民主·統一·繁榮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하겠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또 서해안 시대를 여는 국가 중요 시책을 전개함에 있어 특히 서해안 개발 사업에 大統領께서 公約하신 사업 중 30개 사업을 포함시켜서 투자해 4조 3천억원을 계산하고 일일히 개별적인 사업을 열거하시면서 충남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百濟圈 開發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셨고 瑞山과 大田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의 개설과 長項과 天安을 연결하는 X축의 충남 내륙 고속화 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論山은 논산지역과 직접 관계있는 鷄龍市 건설에 대해서 규모의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우리 계룡시가 앞으로 문화와 田園 都市로서 가장 수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지침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은 충남 출신인 金鍾泌 최고 의원과 경상도 출신 金泳三 최고 의원 그리고 大統領이신 盧泰愚 總裁까지 합의을 해서 국가의 먼 장래을 위해 3黨을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을 필히 책임져 나갈테니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방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는 59건의 조그마한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사분규 59건이 전부 타결 되어서 실제로는 다른 어느 도에서도 없었던 분규없는 한 해를 이룩한 忠南을 達成 했습니다.

금년도도 그런 측면에서 지역단위에서의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 産業平和를 우리 忠淸南道가 중심이 되어 이룩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도록 간곡한 당부가 계셨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여러가지 도정 수행의 과제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가장 중요한 과제로써 도세를 조기에 회복시키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도세를 재 도약시켜 새로운 忠南時代을 여는 착실한 한해를 시작하겠다고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고 다짐합니다.

연초에 제가 텔레비젼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사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도세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도세 도약의 차원에서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200만의 도민과 함께 집념과 의지를 모아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충남시대는 저희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 함께 이룩해내는 時代라 하는것을 확실히 보여 들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을 통해서 보고 드리는 내용도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 그리고 오후의 늦은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서 우리 새로운 충남 시대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신 논산지역 기관장님, 유지 각계각층 인사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2월 21일

人 事

대화에 들어가기전에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年頭巡視을 왔을 때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論山郡의 구시장과 중앙극장 사이 하천복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 도비를 지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산면 고정리 사계선생 묘소 진입로 사업비 지원요망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쳐 2억원을 지원했읍니다만 1차 공사분은 완료 되었고 2차 공사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백제 문화권 개발에 논산군도 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는 요망이 계셨읍니다만 저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23일날 계백장군 묘역을 유적 전승지로 지정하여 道 文化財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구상을 계속 추진 하면서 이 지역을 聖域化 시키는 사업비를 투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論山郡守가 도에 업무보고한 자리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훈련소 입소대간의 국도 개량 공사 소요사업비가 17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建設部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論山郡의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특히 기억남는 일은 한가지 있습니다. 무공해 산업 무공해 농업을 육성하자는 것중에서도 지난해 가장

성과가 있었던것이 魯城게의 養殖 事業입니다. 작년에 시설비 천만원을 지원해서 노성게 양식을 했읍니다만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확대 실시하도록 되었고 특히 논산이 대전 근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無公害 農業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개발과 그리고 이 지역에 공장 입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공장 입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鷄龍市 건설에 관련해서 지역의 내부에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公州郡의 계룡면 주민들이 계룡시라는 이름은 계룡면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해서 계룡시라고 하지말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달라는 요청이 있고 진정도 있는것 같습니다만 저는 충남의 상징이 鷄龍山이라고 봅니다. 계룡산은 우리의 영산이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단순한 지방적 차원에서 사랑받는 지역이 아니고 국가 수도가 들어올려고 했던 지역 입니다. 그것은 비단 무학대사가 신도안 지역을 궁궐터로 잡았던 그것뿐 아니고 엊그제 경향신문에 잠깐 났었읍니다만 신도안 지역은 제3공화국 때에도 행정 수도의 제일 입지로서 검토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공화국 때에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삼군본부 이전사업이 추진되었고 6共和國에 들어와 삼군본부가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룡시 명칭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또 계룡시를 건설함에 있어 현재 두마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신도안 개발 때처럼 자기 땅과 조상의 묘을 전부 옮겨가면서 도시를 건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땅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都市를 건설 하겠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都市計劃을 수립하는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 한적이 없습니다.

자기 땅을 투자하고 행정이 맡아서 개발하고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다시 돌려 드리는 식으로 개발하여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都市開發을 할 생각입니다. 일부 복덕방 하는 분들이 옛날 신도안 개발할 때 봤지 않는냐 하며 정부가 땅을 수용해서 땅값을 주면 얼마 못받는다 그러니 지금 팔

아라 해서 그 지역에 최근 거래가 몇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 했습니다. 그 지역은 절대로 토지투기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됩니다.

만약 그렇게 땅을 파는 사람은 1.2년 뒤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분이나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과 대화할때 또 언론기관에 계신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도시를 만드는 그런 행정은 않하겠습니다. 두마지역에 살고계신 주민들도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며 우리 論山지역이 우리 忠南의 여러측면에서 발전을 주도해 가고 행정적으로도 中心地域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 되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이자리에 나와있는 현 農林局長인 前任郡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보다 논산군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정을 맡아가면서 論山郡의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우려 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시간을 활용해 郡政과 道政이 함께 고향 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對話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鷄龍出張所 開所式

1990년 2월 27일

致 辭

오늘 우리 忠淸人의 상징인 鷄龍山의 정상이 보이는 이곳에서 마침내 역사적인 忠淸南道 鷄龍出張所의 開所式을 갖게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開所式을 보기까지 위로는 大統領을 비롯하시어 中央部處 長官님과 여러분의 배려, 그리고 兩軍 參謀總長님과 軍關係官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 내빈 여러분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出張所의 출범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주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忠淸南道의 다섯개 市에 또 하나의 市를 더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첫발을 디딘 鷄龍出張所는 먼저 鷄龍臺의 창설이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구상되고, 또 7년여의 시설기간을 거쳐 드디어 작년에 우리의 국방사에 鷄龍臺 時代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저 鷄龍山의 산세는 한 대륙을 차지한 나라 中國의 드넓은 땅에도 그에 견줄만한 곳이 없을 만큼 수려하고 빼어난 山이라고 합니다.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풍수지리를 내세운 다기보다는 이곳의 오랜 역사와 유래가 우리에게 주는 뜻과 감회가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鷄龍山 아래 신도안은 朝鮮王朝 500년 개국과 함께 新都邑地로 선택됐던 곳이며 6.25당시 가까운 大田의 임시 수도 그리고 얼마 전 行政首都 建設의 예정지였던 지역을 감안한다면 이지역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각광을 받았던 곳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일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지역에 민족의 영원한 安保와 國防의 핵심 기능을 다할 鷄龍臺의 창설은 곧 自主國防時代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이란 변화 무쌍한 국제정세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력을 토대로 하여 조국의 平和統一을 우리 스스로 앞당기는 과제와 그 성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막중한 역할을 다할 鷄龍臺의 중심 都市로서, 그리고 쾌적한 文化藝術 都市로서 民·軍·官이 서로 협조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都市로 육성해 나갈것을 우리모두 함께 다짐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행정기관이 주체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하겠지만 조금전에 出張所長이 언급한대로 오늘 이자리를 축하해 주시는 각계의 指導 人士 여러분께서 항시 격의없는 조언과 격려를 베풀어 주셔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忠南道가 大田直轄市 분리 이후 道勢 早期挽回와 함께 활기차게 西海岸時代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서해안시대의 의미는 內陸과 海岸地方의 균형된 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鷄龍市의 개발은 內陸開發에 따른 하나의 구심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都市開發에 模範이 될수 있도록 슬기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도시의 개발과 함께 주변지역 주민의 기대에 충족되도록 所長이하 全職員은 최선의 봉사와 유대행정을 펴줄것을 당부하면서 鷄龍出張所의 출범을 축하해주시는 내빈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第33期 택시運送事業組合定期總會

1990년 2월 27일

致 辭

오늘 성큼다가선 봄소식과 함께 금년도 택시運送事業組合 定期總會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먼저 택시 운수사업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道民의 가장 친숙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주시는 申皓均 理事長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 무쌍한 격동과 시련, 그리고 성취의 보람을 함께 준 80년대를 역사의 뒷면으로 보내고 이제 대망의 90년대를 맞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체험한 80년대를 돌이켜보면 급변한 국내외 정세와 함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급박하게 다가서고, 또 물러간 시련들은 우리의 인내력과 함께 民主力量, 그리고 미래발전의 가능성까지도 시험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80년초의 국가적 혼란과 舍北 탄광사태와 같은 勞使紛糾, 그리고 국론의 분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경제의 위기등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극복하고 계속 두자리 숫자를 기록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제막 債務國에서 債權國으로 올라서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더욱 기억에 새로운 것은 開發塗上國家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고 世界人類로 부터 전례없는 찬사를 받은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계신 여러분과 택시운전 종사원들이 한마음 한뜻이되어 친절하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韓國의 택시운송 수준을 세계인에게 자랑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자 여러분!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과 자신감을 안겨준 서울 올림픽을 成功시키고 나서 우리는 얼마만큼 跳躍을 했는가 하는 反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올림픽의 成功은 단순한 경제력의 뒷받침만이 아닙니다. 祖上 대대로부터 오늘 우리 世代에 이르기까지 쌓이고 창조되어온 역사와 오랜 文化國民 의식수준과 질서,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총망라되고 조화된 모든 역량의 결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交通秩序는 다시 흐트러지고, 商去來는 혼란해졌으며, 언제 우리가 친절했던가 할 정도로 사회분위기는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또 서로 불신하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주장과 갈등이 增幅되었습니다. 그뿐아니라 우리가 마치 世界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라도 된것처럼 흥청망청 쓰고 먹고 노는 過消費 文化와 함께 享樂을 생활의 최고 가치인양 착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풍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運輸事業人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부 사회기풍과 함께 나만 잘살겠다 하는 그릇된 생각으로는 더이상 우리의 社會와 國家發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社會價値와 德目을 앞세워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다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더불어 인식하는 것으로 오늘 치하의 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90停年退任 및 勳·褒章 授與式

1990년 2월 27일

祝 辭

오늘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정든 敎壇을 떠나시는 고장의 백 열다섯분 선생님을 지켜보면서 본인은 지난날의 어린 학창 시절과 함께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이제 한 평생을 2세 교육에 몸바치시고 영예로운 정년을 맞으신 여러 선생님 중에는 본인을 직접 가르치신 恩師님이 계시기에 더욱 그러한 지도 모릅니다.

먼저 격동의 시대를 사시면서 한눈도 팔지 않고 오직 스승의 외길을 통해서 오늘 이 時代의 希望과 보람을 가꾸어 오신 선생님 여러분께 본인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면서 勳章과 褒章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만가지 감회로 가득하실 선생님들이 젊은 시절 弟子들을 가르칠 때는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이 아쉬웠다고 회고됩니다.

한번 사용한 선화지의 뒷면에 다시 등사한 試驗紙는 글씨를 알아보기가 어려웠으며 몇푼 되지 않는 학비를 내지못해 氣가죽은 어린이들이 많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언젠가 끼니를 거르는 弟子에게 도시락을 내주고 하숙집에 돌아와 채마밭에서 오이 한개를 따먹고 오후 수업을 계속했노라는 어느 원로 여선생님의 말씀에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납니다.

그래도 그때는 선생님의 말씀이면 하늘과 같이 떠받들고 존경 받으면서 스승의

보람과 긍지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나 마찬가지로 자녀 敎育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날 우리의 사회가 단순한 農耕 社會였던 점에 반해 지금은 高度 産業 社會로 변화되면서 겪어온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대체로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의 敎育이 정신적 가치에 촛점을 두었지만 오늘의 사회적 흐름이 물질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때문에 敎育이나 스승의 영향력에 흠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생각해 볼때 무엇이든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다는 사회적 관념, 말하자면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학비를 내고 비싼 책을 보아야 지식을 얻고 成功할 수 있다는 물질적 敎育觀을 가진 어른들이 많은 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價値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록 셋방을 사는 가난한 가정이라도 사랑과 진실이 있으면 幸福하듯이 모든것을 물질로 評價하고 저울질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마음과 精神文化 위주로 돌이키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교육적 課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까지 사랑과 정신 위주로 일생을 育英 事業에 바치신 선생님들의 그 크신 가르침으로 이제는 기성 세대와 사회를 조용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물질은 나눌수록 적어지지만 사랑과 精神的 價値는 나누어주고 받을수록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내와 극복으로 쌓으신 보람과 영광의 停年 退任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선생님들을 내조하시고 도와주신 師母님과 가족·친지, 그리고 우리 忠南 敎育家族 여러분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洪城職業訓練院 入校. 修了式

1990년 2월 28일

激 勵 辭

친애하는 修了生 여러분!

그리고 技能人의 문을 두드린 入學生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진 기능인의 꿈을 안고 그동안 땀흘려 배우고 익힌 배움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한편 또 새로운 **향학열로** 職業訓練院의 문을 들어서는 여러분에게 치하와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영예로운 修了式이 있기 까지 밤낮 없이 여러분을 **보살펴주시고** 가르쳐 주신 金澤得 院長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주신 學. 父母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나라는 완벽한 先進國의 성취를 위해 모든 상품의 國際的 競爭力을 향상 시켜 가면서 産業 投資와 技術開發에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경제성장이 지속되려면 산업의 최일선에서 수고할 技能人 여러분의 우수한 技能과 創意力이 뒷바침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연마하여 기대이상의 훌륭한 技能을 습득했을때 지역사회와 국가 산업은 그만큼 튼튼한 技術의 토대위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技能이 세계의 수준에서 뒤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産業과 經濟成長 또한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忠淸南道는 희망찬 西海岸 開發時代를 맞아 그동안 농업위주의 고장에서 공업이 지역사회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 高度 産業의 고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技能人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겠지만 이곳 洪城을 중심으로한 西海岸 地方에는 하루가 다르게 工團이 조성되고 또 첨단 기능과 기술인을 기다리는 工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가까운 瑞山郡 大山의 1, 2, 3工團과 함께 도내 곳곳에 건설되는 農工團地, 그리고 전국의 유망 산업체는 技能 人力이 모자라 쩔쩔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職業 訓練生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것은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技能을 가진 여러분과 같은 人才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는 꼭 大學을 나와야하고 그것도 일류 대학을 卒業해야 모든 분야에서 대우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이 아주 고쳐지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지금 일류대학을 나오고 外國 留學까지 마쳤어도 일터가 없어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적인 걱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소질이나 분수를 잊어버린 가운데 가족의 희생까지 무릅쓰며 무모하게 간판만을 선호한 까닭에 겪는 하나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민주화시대는 꼭 大學을 나온 사람만이 指導者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인격이 훌륭하면 그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指導者가 되고 權威者가 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지금 직종간이나 학력간의 임금격차가 좁혀져 머지않아 완전히 없어질 전망입니다.

앞날이 기대되는 訓練生 여러분!

앞으로는 學校를 다니지 않고 職場과 社會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도 大學

卒業資格이나 그 이상의 學位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학문의 길을 가라는 권유 보다는 이제 우리社會는 간판보다 노력을 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를 第2의 實學 時代로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문을 나서는 修了生 여러분은 여러분의 先輩들이 세계 정상을 지켜온 전통을 이어받아 최고 정상의 技能을 目標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새로 校門을 들어온 入學生 여러분은 이제 자랑스런 先輩들의 뒤를 이어 熱과 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여 유능한 忠南의 技能人이 되어주기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加護와 幸運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앞날을 祝福합니다.

第12回 3.1節 紀念 烽火祭

1990년 2월 28일

致 辭

오늘 기미 독립만세의 함성이 귀에 쟁쟁한 이곳 아우내에서 青年會議所 會員 여러분이 주관하는 열두번째의 3.1節 紀念烽火祭를 올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71년전 겨레의 자주와 독립을 향한 그 결연한 의지를 오늘날 國家 發展과 民族의 앞날을 開拓하는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갈것을 도민과 더불어 다짐합니다.

젊은 지성인 여러분이 잘아시는 것처럼 세계 정세는 지금 종속과 속박을 벗어나 인간성의 회복과 함께 自由의 고귀함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자유와 民主의 가치를 드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73년 동안 춥고 음산한 땅 러시아를 중심으로 人類를 불행의 길로 빠트리던 공산주의 스스로 회의를 느끼면서 굳게 잠겼던 共産 東歐圈이 開放의 문을 열고 마침내는 동서대결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몇십년의 변화에 달하는 격변의 와중에서 우리가 설 땅은 어디이며,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烽火祭가 우리에게 주는 물음이라고 봅니다.

이 새대의 지성인 JC회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것을 초월한 겨레의 자존과 대동단결이 원천이었던 己未獨立萬歲運動과 함께 그 정신의 계승이라고 믿습니다.

나이어린 소녀 柳寬順 烈士,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굶주리고 지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외침은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하나 민족의 독립을 향한 신념과 자기희생을 앞세운 大同團結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함께 깨달아야 할 교훈이요 도민의 가슴속에 하나하나 지피고 나서 연기없이 불태워야할 봉화의 참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烽火祭를 올리는 저 산넘어는 지난날 민족의 수난을 상징하는 獨立紀念館이 웅장하게 서있습니다.

그 獨立紀念館은 지난날의 아픈 자취라기 보다는 그러한 시련 극복을 토대로 새로운 장래와 번영을 창조하는 민족정기의 샘터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JC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유서깊은 역사 유적에서 세계역사의 주역을 향한 우리민족의 활약과 함께 조국의 平和統一을 향한 제2의 3.1운동을 향해 이곳 아우내에서 白頭山까지 봉화의 불길을 높이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월



▲ 영농준비현장 방문지도

1990

月例朝會

1990년 3월 2일

訓　　示

금년도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이제 봄을 맞는 3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道政을 알차게 遂行해 나가기 위한 計劃의 樹立과 細部實踐計劃의 點檢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달동안 노력해 준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大統領께서 우리 忠南을 巡視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2월25일은 6共和國 出帆 2周年을 맞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치적인 시작이 臨時國會의 開院과 함께 현재 활발히 진전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외정세의 변화가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우리의 敵이 누구고 우리의 友邦이 누구인가를 分間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서울과 모스크바가 급격히 가까와 지면서 國交關係의 樹立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 특히 金泳三 民主黨 最高委員이 얼마있지 않으면 蘇聯을 訪問해서 우리의 北方外交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 전망도 함께하게 됩니다.

지난번 大統領께서 우리 忠南을 訪問하셨을때에 여러분들이 報告內容을 알차게 준비해 주고 大統領을 맞을 準備를 착실하게 추진해 주어서 모든 報告와 迎接이 아주 完璧하게 이루어졌다는 評價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준비에 임해준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

니다.

하나는 國政意志의 實踐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차원에서의 道勢跳躍을 위한 道勢創出事業의 적극 추진이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말씀드리면서 이 보고내용이 大統領께 대한 約束이라기 보다는 우리 道民에 대한 約束이라는 차원에서 더 알차게 보완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細部實踐計劃을 더욱 계획성 있게 樹立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大統領께 報告드린 내용중에서 특히 産業平和와 관련된 經濟問題의 解決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勞使紛糾 없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하여 작년 1년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어느 市·道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리는 노사분규 없는 한 해를 이룩하여 이것이 새로운 忠南跳躍의 基盤이 될 수 있도록해 나가겠다는 報告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보고는 民生治安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서 地方의 安定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公職內部의 결속과 司正 意志의 실천을 통하여 公職者가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約束을 드렸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는 道勢創出을 위한 가시화 작업으로 7大力點施策과 農漁村 활력화를 위한 5大重點事業의 推進에 대하여 報告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大統領께서는 몇가지 지방에서 추진해 주어야할 사항들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첫째로 地方自治의 실시에 따른 公職姿勢의 確立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의 成敗는 地方廳公務員들의 확고한 公職姿勢가 관건이 되고 바로 民主主義의 成敗와 직결이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둘째로, 이상적인 鷄龍新都市의 建設에 대하여 신도시구역을 확대하기보다는 都市의 내용을 보다 더 내실있게 다지는 都市計劃을 樹立해서 추진해 달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으며, 信賴받는 경찰상의 확립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共感을 받는 警察像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는 百濟文化圈開發을 위하여 古都의 風致가 훼손되지 않도록 투자를 확대하여 나아가되 그 내용을 잘 점검하고 문화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道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道義 새마을 運動」의 전개에 대하여는, 특히 靑陽의 鄕約實踐運動을 전국적으로 확대 파급시키라는 지시를 內務部長官께 하신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道義 새마을運動이 전 도내에서 市道別로 特色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확산시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指示말씀에 대하여 細部實踐計劃을 확실히 수립하여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지난 2월달에는 忠南道政史에 아주 길이 남을 일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27일에 있었던 鷄龍出張所의 개소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忠南道의 道政史에 길이 남을 일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획기적인 새로운 都市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鷄龍山時代의 開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만은 鷄龍出張所는 이조5백년 역사를 통해서도 새로운 都邑地로 선정될 만큼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고, 共和黨 정부하에서도 行政首都 移轉計劃의 제1후보지의 하나로 선정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國土를 지키는 3軍本部가 이지역으로 이전해 오면서 2천년대 국가의 統一과 安保를 책임지는 都市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鷄龍出張所 개소를 통하여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地方行政史는 물론이려니와 우리행정사에서도 인구 13천명의 면단위 행정기구를 국가 3급공무원을 책임자로 맡기는 出張所로 出帆시킨 경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地域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고 우리地方으로서도 道勢創出이나 道勢跳躍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行政을 맡아나아가야 할 地域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軍部隊 移轉에 따라서 행정적인 支援을 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이

文化와 田園이 함께 보장되는 都市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都市計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鷄龍出張所의 보직을 받은 전 직원이 渾然一體가 되어 새로운 都市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하나 지난 2월21일 內務部로부터 직제승인된 開發擔當官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機構입니다.

이것은 우리 忠南이 새로운 西海岸開發時代에 발맞추어서, 그 主役으로 부상되면서 開發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전국 최초로 이러한 開發擔當官室이라는 職制가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개발담당관실은 가장 유능한 公務員들을 선발하여 업무를 전담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開發擔當官室만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분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 公務員들의 동참을 이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大統領께서 말씀하신 職業公務員制의 確立과 관련하여 그동안 느끼고 있었던 몇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地方自治를 실시하면 職業公務員制가 더 확고히 정립이 되고 그리고 직업공무원이 국가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아가야 될 책무를 함께 부여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民主主義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태가 될 것이다라고 大統領께서도 指摘을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도만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현재의 우리를 反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임한 이래로 우리 忠南公務員들에게 忠誠과 使命感을 가진 집단으로, 그리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智慧를 더해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는 主役이 되자고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그속에 함축이 되어있는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깨우쳐서 새시대에 부응하는 公職者의 姿勢를 갖추어 주기를 기대하고, 또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함께 다시한번 우리가 이야기 하였던 새로운 公職者像, 신념과 용기와 지혜를 갖추고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獻身奉仕하겠다고 知事와 함께 여러분이 다

짐하였던 그 생각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생각으로 되살려서, 새로운 忠南時代를 열어가는 主役으로서 부끄러움 없도록 굳게 다짐을 하십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의 責任과 權限을 가지고 市郡 公務員들을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부끄러움 없는 公職生活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우리의 공직기간을 하루를 쪼개고, 분·초를 쪼개서, 投資할 수 있는 勇氣를 발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瑞山市廳 射擊팀 創團式

1990년 3월 2일

致 辭

오늘 市民 여러분, 各界 人士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는 가운데 瑞山市廳 射擊팀이 創團하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瑞山市 승격이후로 한번씩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이곳 瑞山市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면서, 오늘 이 創團式도 그러한 발전의 하나로 생각되어 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瑞山市廳 射擊팀의 創團이 있기까지 뜨거운 성원을 베풀어 주신 내빈 여러분과 市民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 팀 創團의 주역이 돼주신 體育人 여러분과 公務員에게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80년대의 시련과 역경을 슬기롭게 딛고 일어서 희망찬 90년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2000년을 준비하면서 民主主義의 새로운 秩序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헤치고 영광된 先進韓國을 성취해야 할 기대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90년대의 첫해에 들어서 우리는 급변하는 國際情勢 속에서 때마침 불어닥친 東歐圈의 민주화 물결과 공산 종주국인 蘇聯의 共産主義 포기 등 계속되는 거센 변화의 파고는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東·西 獨逸의 통일 분위기가 성숙되는 것을 지켜보며 같은 分斷 民族으

로서 우리는 언제나 統一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과 함께 北韓에 대한 연민의 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쇄의 문고리를 꼭 움켜잡은 그들이 밉기도 하지만 우리는 양보와 인내로써 저들 北韓 體制의 開放을 유도하고 마음을 돌리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民族 繁榮의 고삐를 잡는데 국민적 力量을 結集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금리와 석유가, 원자재값의 3 低時代에 힘 입어 高度成長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가 지금은 다소 침체에 빠져 있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운을 겪게된 것은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일부 국민의 자만에 따른 사치풍조와 너나 할것 없이 자기 몫 챙기기에 목청을 높이는 등 우리 내부의 흐트러짐과 世界 各國의 開放 壓力이 한꺼번에 짐이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자제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社會安定을 도모하고 産業平和를 이룩하여 국가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忠南은 지난해 大田直轄市의 분리 승격 이후 道勢挽回와 함께 西海岸 時代의 활기찬 主役이 되고자 道民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전체가 모두 균형된 개발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그동안 다소 성장의 그늘아래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이곳 瑞山 地方에도 開發과 跳躍의 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푼 희망과 성취를 위해서는 도민의 의욕과 단결을 위한 구심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道民 體育의 振興입니다.

지난해 大田直轄市의 분리는 우리 忠南의 도세 뿐만 아니라 道民 體育의 榮光도

양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忠南體育이 이러한 일시적 약화에 결코 위축될 수 없다는 것이 道民 모두의 意志였습니다.

이제 지난날 忠南體育의 영광을 재현코자 우리 體育人은 물론 道民 모두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혼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瑞山市廳 射擊팀의 創團도 우리 도민 의지의 집념어린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롭게 創團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瑞山市廳 射擊팀의 선수 여러분은 必勝의 信念과 각고의 노력으로 고장과 시민의 명예를 드높여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市民 여러분은 우리 선수들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創團이 있기까지 모든 정성을 기울여 주신 황 희성 忠南 射擊聯盟 會長님과 體育人, 그리고 公務員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聲援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主婦敎室忠南道支部長離就任式

1990년 3월 2일

致　　辭

오늘 전국主婦敎室 忠南道支部長離就任式을 겸해서 새로 옮긴 사무실의 懸板式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의 女性指導者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본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地域社會 女性運動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쌓고 이임하시는 任令中 支部長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임 지부장님의 뒤를 이어 새롭게 변화된 고장의 여성조직을 이끌어 주실 河鎭海支部長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主婦敎室은 20여년의 꾸준한 활동과 성장을 통해서 이제는 가장 활발한 女性運動의 대표적인 조직과 전통을 쌓아 왔습니다.

한때는 우리 女性들이 가정을 갖게되면 집안일과 함께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안주하고 또 여기에서 만족을 구하면 된다는 인식에 기울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家庭生活도 따라서 변화되고 主婦의 役割 또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産業社會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엄밀히 구분할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고 女性의 社會參與가 두드러지면서 시대의 가치와 능률에 알맞는 女性活動의 모색이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主婦敎室 忠南道支部의 女性會員들도 이러한 가정과 사회적 과제의 성취를

위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의 技能指導나 消費者保護事業등을 꾸준히 펴오신데 대하여 도민들은 매우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大田直轄市가 분리 승격됨에 따라 그동안 고장의 主婦敎室 사업지도를 충실히 해오던 主 事務所를 이곳 天安으로 옮기고 오늘 그 懸板式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무실의 이전과 함께 우리 主婦敎室 女性指導者들은 앞으로 90년대의 바람직한 主婦像 定立과 함께 다가오는 2000년대 여성의 모습도 가늠해보는 지혜가 必要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主婦들의 가장 큰 關心事인 子女들의 敎育問題만 해도 내 子息만 따로 잘 가르칠 수 없는 敎育環境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家庭에 머무는 것은 불과 잠자는 시간뿐이며 생활의 대부분을 學校나 집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社會環境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여성운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主婦敎室 女性指導者 여러분에게 한가지 강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입니다.

금년도 여러분의 중점 사업중에도 가정과 지역사회의 道德性涵養이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만 올바른 생활 가치관에 뿌리를 둔 우리의 女性運動이 더욱 활기찬 활동력을 갖을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主婦敎室 女性指導者 여러분의 새로운 활약에 幸運과 祝福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支部長 離就任을 다시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3월 6일

激 勵 辭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평소 여러분의 愛鄕에 대한 신념과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고향을 떠나 있는 가족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고향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農村을 지키지 안을때 都市에 있는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친구들은 모두 浮萍草와 같다 할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을 지켜주기에 고향을 향한 정신적의지를 토대로 都會生活을 하면서도 외로움 같은 것을 느끼지 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農漁村의 現實은 우리 모두의 宿題입니다.

여러분이나 父母의 책임도 또 政府나 行政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노력을 경주하며 지속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民族의 고향이고 모든 民族文化의 원초적 고향이며 韓民族의 母胎요, 뿌리이며 버팀木은 바로 農漁村입니다.

누구도 오묘한 자연과 情緖가 깃든 아늑한 시골은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農漁村을 떠나는 젊은이는 마음은 두고 몸만 떠난다면서 대체로 3가지인 所得, 教育, 文化生活의 결핍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세가지 都農의 격차만 없다면 도시를 선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만 모두 떠나버리면 우리의 고향은 누가 지킬것인가가 問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3가지 決定을 해야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것인가하는 價値觀의 결정으로서 돈이냐 名譽냐 奉仕냐 宗敎냐 아니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하고 살것이냐하는 職業 選擇의 결정으로 農 漁業이냐 장사냐 公務員이냐 政治人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와 살 것이냐하는 伴侶者의 選擇으로서 나의 人生이 본인의 50%와 배우자가 50%라고 하면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스스로 혼자 결정할수 없는 복잡성이 內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던지 무슨일을 하던지 또 누구와 살던지 目標도 있어야하고 그 目的地에 도달하는 신념과 실천력은 人生의 본질이며 원동력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고쳐도 못할 일이 있고 무한대한 인간의 능력에 따라 고칠일도 있습니다.

外貌의 문제는 고칠수 못합니다.

美男. 美女가 아니고 키가 작고 크다가 문제가 아니라 각자 지니고 있는 素質이 問題입니다.

부모를 잘 두고 못 두고 富者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일들은 모두 스스로 마음데로 되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造物主는 무언가 저마다에게 유리한 점 남이 잘못하는 재주 다시 말해서 素質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유리한 점. 소질을 살리거나 不運이라도 박차고 무언가 이룩하려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아직 이룩하지 못했으면 可能性을 보여야하며 그러한 가능성과 매력을 쌓아나가면서 配偶者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장가못가는 失意에 세상 져버리는 農漁村 젊은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왜 죽을수 있는 信念으로 살지 못하며 어찌 죽움이 자기 혼자만의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父母도 친구도 가르친 先生님도 동생도 없으며 오로지 자기만 아는 利己主義者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많은 세상사의 어려움 가운데 단 한가지 이유로 黃金같은 人生을 포기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魅力을 가지십시오!

매력은 누가 뭐래도 내 고향을 지키는 매력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할수 있는 매력, 배우자를 위해서 무슨일도 할수 있는 매력, 부족함을 감싸주고 이해하는 매력, 이러한 갖가지 魅力을 쌓으시기를 바라마지 안습니다.

세상일이 뜻대로 안되는 것이 한 原則이라고 할 수 있듯이 누구나 난관이 있기에 여기에 挑戰하고 어려움을 克服하였기에 기쁨이 더 한 것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되 안되면 次善으로 또 안되면 三善으로 굽히지 말고 나가면 결국은 당초 목표한바대로 最善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서울 가는데 꼭 高速道路만이 길이 아니듯이 千가지 길 萬가지 방법중에 자기가 갈 길을 選擇해야 합니다.

끝내 自己의 길을 자기가 가는 것이 人生입니다.

여러분 가고자 하는 信念의 길은 "農漁村 開發"이고 그리고 보람있는 여러분의 앞날을 開拓해 나감에 있어 여러분의 所望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90勤勞者의날 施賞式

1990년 3월 10일

激 勵 辭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勤勞者 여러분들에게, 특히 전 근로자를 대표해서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조의 간부직에 계신분들과 産業平和를 위해서 행정의 업무를 맡고 있는 公務員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산업화 또는 공업화라고 하는 말로 대변되는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해온 것은 불과 30년이 채 못됩니다. 50년대초에 있었던 6.25의 폐허에서, 또 일제 36년간의 어려움속에서 우리는 늘 가난이 우리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衣·食·住 문제의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내왔던 것이 불과 30년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輸出實績은 3천만불 남짓 했었고, 우리 國民所得은 80달러가 겨우 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표창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그때 당시에 아직 출생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던 나라가 62년 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우리는 늘 産業, 그러면은 農業이라든지 商業만 생각해 왔던 나라에서 처음으로 工業이라는 말을 시작했고, 공업의 특성이 일년에도 수십 퍼센트씩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또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 경제는 세계 역

사상 찾아볼수 없는 연평균 10퍼센트가 넘는 經濟成長을 20여년 가까이 이루어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석유파동이라든지, 또는 80년초에 그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 경제가 뒤로 되돌아간 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산업일선에서 노력해온 勤勞者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여러분 선배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經濟大國을 이루어 왔습니다.

88년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낼 수 있었던 경제력도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낸것 보다는 우리의 선배들이 산업일선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또 자기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피땀을 흘린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계10대 貿易强國으로 그리고 세계 4대 體育大國으로 또 5천년 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를 올림픽에 참석했던 나라와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켜본 수십억 세계인들에게 과시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6.29宣言으로 대변되는 民主化運動의 시작은 60년대초부터 시작했던 경제개발계획의 성과에 따른 10대 강국의 경제력을 이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주화를 이룩하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상황에서 빵이 중요한 것을 인식했던 그러한 시대에도 민주화를 이룩할 수가 없었고, 설령 민주화를 한다고 해도 수십만명이 굶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자초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집, 내집을 보고 우리집이라하고 자기 부인을 보고 우리집사람, 우리마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것을 가지고 내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것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지난 '88년과 '89년도를 비교해 볼때 우리는 6.29선언 이후에 있었던 산업일선에서의 평화의 붕괴는 우리의 것보다는 내것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던 분들이 택시안에 분명히 재털이가 있는데 문을 열고 담배 꽁초를 집어 던집니다. 자기 안방에서 재털이가 있는데 재털이에 담배불을 끄지 않고 방바닥에 담배불을 비벼서 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담배불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담배불을 버리면은 화재가 날 경우에 우리의 것이 타버리고 만약에 청소를 할 경우에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淸掃員을 써서 그 담배꽁초를 치워야 되는데 결국은 내것이 없어지는데 내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적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내몫을 줄여서 전체를 키워왔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못살게 해왔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것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零細民이 있습니다. 그 영세민은 우리가 國家에서 최소한도의 衣食住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도 만들어서 의료보험도 하고 있습니다. 더 잘사느냐, 더 못사느냐 하는 그러한 차이는 개인의 능력과 분배문제에서 생길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富의, 나라의 富의 增加는 우리모두에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高等學校, 大學敎에 다녔던 '60년대초 까지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심지어는 버스표가 없을때에 적어도 사십 내지 오십리의 길을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두번 타는 경우가 아까워서 패스를 끊어서 전차를 타고 내려서 나머지 구간 십리 정도를 걸어서 學校에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學生들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것이 커지면, 결과적으로는 많이 분배되고 적게 分配되던지 간에 여하튼 내것이 커진다는 생각, 이것을 생각할때가 지금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커지면은 우리지역, 우리지역이 커지면은 우리나라가 커진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표창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忠淸南道는 지난 한해동안 정말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확실하게 지역내의 産業平和가 정착이 되어왔던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工團面積이 60만평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한해동안 확장된 것이 수백만평이고 추진중인 것까지 합하면 천2백만평이 넘습니다.

이런 증가가 가능하고 우리의 그런 工團地域에 외부의 기업이 4대1, 5대1씩 경쟁을 뚫고 들어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적, 지리적인 여건의 잇점도 있겠지만은 우리지역의 産業平和가 정착된 부분이 기여한 그러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慶尙道지역, 또는 湖南지역에서 연간 수조원의 손실을 보면서 내몫찾기 시합을, 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것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미덕과 참는 인내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으뜸 忠南道의 예산이 작년도에 8천억원도 편성하지 못했던 규모가 금년도에 1조 천 3백억원이라는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1조 천 3백억원, 한 4천억원 늘어난 돈은 바로 내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것으로 골고루 분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따라서 내가 소득이 한달에 10만원을 올리느냐, 이십만원을 올리느냐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소득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 쪽에서 배분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勤勞者의 날에 우리가 꼭 한번씩 더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루워온 산업평화를 좀더 확실하게 다져가면서 모처럼 우리地域에 주어진 기회를, 發展의 기회를 함께 가꾸어내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산업일선에서 모범적으로 산업평화를 이끌어 주고 산업발전을 유도해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國家의 經濟가 되살아 날수 있는 것이고 발전도 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7%정도의 경제가 성장이 돼야 새로 나오는 근로자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해 또는 그 전처럼 내몫찾기에 전념하다 보면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들어가야될 産業의 現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근로자의 날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선배근로자들이 가꾸어 낸 國家發展에 더 가꾸고 키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확실한 經濟基盤을 물려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과 함께 政府나 企業家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또는 선배근로자들이 피땀흘려 일구어낸 발전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나누어주는 그런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배는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세대, 우리 아들 딸세대에게 우리 또는 아우들 세대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때에 다 써버리면은 우리 선배들이 일구어낸 몫을 그분들도 우리에게 넘겨 주었는데 우리가 일구어낸 몫을 우리의 아들, 딸, 아우들에게 더 적게 물려준다면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忠南의 행정책임을 맡아 가면서 勤勞者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기탄없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우리의 것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갖는 智慧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을 대표한 오늘 수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 가는데, 큰 성과를 이끌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전체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施賞式을 갖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부덕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政府나 우리 勤勞者가 이러한 문제도 함께 협의해서 우리들 일을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산업일선에서 누구보다도 나라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受賞을 받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瑞山消防署 開署

1990년 3월 16일

激 勵 辭

오늘 이곳 瑞山을 중심으로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瑞山消防署가 마침내 문을 열게 된 것을 道民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 뜻깊은 開署式이 있기까지 瑞山消防署의 탄생을 위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市民여러분, 各級機關長과 社會團體長, 地域有志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적극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內務部 消防關係官 여러분에게도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각까지 순수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의 火災豫防과 鎭壓活動에 밤낮없이 헌신해오신 義勇消防隊 要員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義勇消防隊員 여러분은 오늘 업무를 시작하는 消防公務員들과 힘을 합하여 앞으로도 이 지역의 화재예방과 함께 地域社會 發展을 위해서 변함없는 봉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消防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市民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 瑞山市는 오늘의 발전과 함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고장 입니다.

앞으로 이 都市는 지금 한창 활기찬 개발의 고동소리와 함께 희망찬 西海岸時

代의 背後都市로 번영을 구가 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시청에서 시민 여러분과의 대화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곳 瑞山은 대규모 大山工團을 뒷받침하는 敎育, 文化, 金融 등의 綜合機能을 가진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가 바로 市政의 目標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처럼 기대에 찬 희망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市民 여러분이 開發의 主役이 되고 그 성장과 보람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主人意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개설된 消防署도 평소에는 시내의 消防行政에 주력하게 되지만 대형화재의 예방이나 진화등의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 볼때 이곳 瑞山市는 물론 瑞山郡과 泰安郡 그리고 唐津郡地域까지도 消防行政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4개 시군지역의 消防本部 역할을 맡게될 것 입니다.

앞으로도 이곳 瑞山市는 이 消防署처럼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고 또 지원하는 유관기관이나 사회 공익단체들의 中心機關이 더욱 늘어날 展望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시민 여러분은 앞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有關機關이나 産業體의 誘致에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지역사회 많은 주민의 불침번으로 봉사행정을 시작한 消防公務員 여러분은 현대 산업사회의 화재위험성을 감안 소방의 豫防行政에 주력해 주기를 當付합니다.

더불어서 단순한 소방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해 무엇이든지 찾아서 일하는 폭넓은 奉仕行政과 함께 民·官 유대의 선봉이 되어줄 것을 아울러 당부합니다.

오늘 瑞山消防署의 출범을 激勵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드리면서 消防行政에 대한 적극적인 協調와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鷄龍出張所 巡視

1990년 3월 21일

訓 示

지난번 개소식때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치른데 대하여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합니다.

新設機關으로 새집 살림을 하려면 施設, 裝備, 人力面에서 부족한것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텐데, 所長 이하 전 직원이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준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문목적은 이상적인 新都市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번 해외선진도시를 견학하고 돌아온, 開發擔當官과 黃 博士님 一行의 결과를 듣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出張所가 발족된지 일천한데 알찬 業務計劃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었기 때문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鷄龍臺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국가안보의 핵이라 할 수 있는 3軍本部가 所在한 곳으로 가히 自主國防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국가적으로 막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出張所의 기능은 지방행정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鷄龍臺의 기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國家次元의 지원역할까지 해야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背後都市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군. 관. 민간 협조체제 강화로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 안정을 다지는데 더욱 努力해 주기 바랍니다.

鷄龍出張所는 앞으로의 鷄龍市를 전제로 해서 條例로 정한 시군단위 종합행정기관으로, 그동안 論山郡에서 다루어오던 조장행정업무와, 豆磨面에서 다루어 온 호적과 주민등록사무등 국가사무까지 위임위탁받아, 관할구역내 모든 행정을 관장하면서도 選擧, 戶籍, 稅務등 개별법으로 정한 일부 국가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郡守 또는 面長 명의로 집행되는 사무가 있으므로 실무자의 관계법규 연찬이 크게 요청됩니다.

이와같이 생소한 행정체제로 자칫 행정집행에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職場自體敎育을 보다 강화하고 대민계도를 잘하여 住民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곳 新都市의 開發方向은 통일이후까지 대비하여 **국제수준의** 군사, 문화기능을 수행하는 이상적인 田園都市로 육성하고 장차 鷄龍山을 중심으로 한 원추형 環狀都市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開發戰略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 거시적 안목의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의 도시계획과 같은 平面計劃이외에 도시설계 방식에 의한 立體計劃을 수립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開發方法도 公營開發등에 의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隣近地域의 連繫 特定地城 指定, 國家次元의 投資促進 方案 檢討 그리고 開發委員會를 구성하여 주민대표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특히 당면한 주택건설 택지개발 상·하수도 시설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出張所가 설치되기 전 이 지역은 論山郡에서 먼거리인 동시에 大田을 생활권으로 하기 때문에 郡으로 부터는 소외감을 느끼고 大田直轄市 편입을 원하던 지역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大田市의 변두리보다 독립된 市로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고, 개발지역을 주민과 함께 享受할 수

있다는 이점등을 널리 弘報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들뜬 심리를 진정시켜 투기꾼들에 현혹되어 불의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당부합니다.

金佐鎭將軍 靑山里大捷 70周年 記念

1990년 3월23일

記 念 辭

나라사랑의 값진 정신과 國運開拓의 슬기로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기에 오늘 白冶 記念事業會가 주관이 되어 우리 고장이 낳은 민족의 큰별 白冶 金佐鎭 將軍의 靑山里 大捷 70周年을 記念하는 추모의 밤 행사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뜻깊은 모임을 준비해주신 조경한 회장님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임원 및 관계인사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民自黨 朴俊炳 事務總長, 李基澤·朴燦鍾 議員님을 비롯한 내빈인사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도에서는 金佐鎭 將軍의 유덕을 기리고 국난극복의 의지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김좌진 장군의 묘역정비를 비롯한 生家地 復元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앞서 記念事業會가 중심이되어 장군추모의 기념사업을 앞장서 추진해 주신점에 대하여 매우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근원이 없는 물줄기는 없다고 합니다.

일찌기 獨立鬪士가 있었기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었기에 민족이, 그리고 역사와 傳統文化를 계승하는 오늘의 삶이 있으며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소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변함없는 명제앞에서 우리 祖上이 물려준 고귀한 忠節精神과 遺産을 잘 갈고 닦을때 겨레의 융성을 가져왔으며 그렇지 못할때에는 굴곡있는 시

그러나 어떠한 國家나 社會이던 역사적으로 볼때 명암과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울때 일수록 서로 忍耐하고 自制하며 각자가 자기일에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처럼 누구나가 바르게 살려는 努力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忠南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百濟時代로 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忠孝精神과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품위를 지키는 선비의 자세를 아름다운 風俗으로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일제시대와 해방이후의 사회적 혼란으로 맹목적인 西歐化와 물질만능적 價値觀으로 변모함에 따라 풍요로운 대신 人情이 메마르고 秩序가 없는 이기적인 社會로 표류하고 있어 우리모두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고 도의사회 건설을 위한 道義心 回復運動으로 鄕約運動, 선비精神 되찾기 運動, 부모奉養의 날 實踐하기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큰 成果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도 우리 忠南人의 가슴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忠節과 선비精神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치유하고자 함이며 연면이 흐르는 傳統 忠南 精神의 발양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오늘의 이 다짐大會와도 그 脈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모임을 계기로 우리는 百濟人의 후예로써 자긍심 가득찬 忠南精神의 횃불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고, 우리 지역에서 道義 社會를 꼭 실현하겠다는 회원여러분의 굳은 意志가 알찬 結實로 이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잠시후에 있을 盧石基 博士님의 강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정립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行動方向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끝으로 바르게 살기運動 協議會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3월 30일

人　　事

온 大地가 푸릇함을 더하여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즈음 바쁘신 가운데도 멀리서까지 참석해 주신 委員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大田直轄市의 승격으로 忠南의 문예기반이 더욱 열악한 가운데 있읍니다만 地方文藝振興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고 住民들도 文化生活을 누리려는 욕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가 가시화 되어 가면서 지방화도 촉진되어 감에 따라 地方文化 振興에 대한 기대도 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발 맞추어 文化部가 독립되어 문예진흥에 대한 분위기도 확산되어 가고 있고, 국민의 물질 수준의 향상과 함께 文化藝術에 대한 욕구도 또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忠南文化藝術의 시책방향도 百濟文化의 찬란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忠南精神을 발양함에 있어, 금년 부터는 百濟文化圈 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 시대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도 모든 道民이 화합하고 결속하여 創造·開發의 의지를 높이는 것도 文化藝術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文藝振興委員會는 忠南 문예진흥의 기틀을 확립하고 그 울타리 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오늘의 이 모임에서 충남 도세 도약의 원동력이 문예진흥에 있슴을 인식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委員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당부하여 마지 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월



▲ 식목일 기념식수

1990

月例朝會

1990년 4월 2일

訓　　示

금년도도 이제 한 分期가 지나 갔습니다. 1년 4분기 중에서 1/4이 벌써 지나간 셈입니다.

오늘은 2/4분기가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만은, 4월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世界史的으로 볼 때 오랜 戰爭의 시달림에서 벗어난 달, 그리고 그에 따라서 平和가 定着된 달이기도 합니다. 1865년 4월 9일은 美國의 南北戰爭이 끝난 날이고, 그리고 1895년 4월17일은 淸日 講和條約이 締結된 날입니다.

獨逸이 聯合軍에 항복해서 平和를 이룩하도록한 달도, 北大西洋條約機構로 나토라는 機構를 만들어서 世界史에서 유럽의 平和를 定着시키게 한 달도 이달이고 越南의 30년 戰爭이 終熄된 날도 바로 이 달입니다.

우리 韓國史에서 볼 때에도 4월은 갈등과 혼란속에서 새로운 刷新과 發展의 계기를 이룩한 달입니다.

1950년 4월 16일은 農地改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4·19혁명도 이달이며 또 鄕土豫備軍의 創設과 새마을運動이 提唱된 달도 이 달입니다.

1970년 4월22일 새마을運動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提唱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勤勉, 自助, 協同의 정신적 기반을 갈고 닦게 했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忠南으로 보았을 때에도 尹奉吉 義士의 상해 홍구공원 義擧라던지, 顯忠祠의 重建이라던지, 瑞山 앞바다에서 과거 우리 역사의 유물이었던 청자, 백자등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住民과 對話를 지속하면서 道政이 나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道政이 수행하고 있는 業務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住民들의 협조를 얻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셋째, 다음에는 統計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統計數値가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대단히 有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住民과 對話를 할 때 필요한 數字를 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 뿐만이 아니고 상사와 하부 직원과의 대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手帖을 보면 노트에 잔뜩 적어가지고 다니거나 붙여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꼭 필요한 통계를 물을 경우에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수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숫자의 개념도 머리에 넣어가면서 對話의 技法을 좀 다양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에 大統領께서 사정장관회의때 公職紀綱 刷新에 관한 特別한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公職紀綱 刷新에 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企劃管理室長이 朝會가 끝난 다음에 직원 여러분에게 特別敎育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우리 公職者가 60년대, 70년대에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 왔던 것처럼 90년대 들어와서는 國家發展과 國民精神을 改革해 나가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公務員들이 다시 국민정신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엘리트 집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忠南道政도 60년대와 70년대 국가발전의 주역이 공무원이었고, 이제 우리는 국가발전의 주역만이 아니고 국민정신개혁이 선도자로서의 役割과 任務를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公職者의 새 精神運動」은 바로 이러한 차원으로 승화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公職者의 새 精神運動이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個人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며,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바로 組織의 名譽를 지키는 길이고, 조직의 명예를 지켜가면 그 자체로서

公職者의 새로운 精神紀綱은 확립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公務員들은 경제적인 富보다는 오히려 名譽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職業人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가꾸어 놓은 傳統을 우리 代에서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傳統을 세워서 우리 선배들이 세운 그것에다 우리가 부가를 해 주어야만 우리 組織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와 함께 組織의 名譽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公職者의 새精神運動의 기본이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大統領각하의 指示事項을 숙지하여 실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맡고 있는 一般行政의 추진외에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民生治安의 確立과 經濟安定의 目標達成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특히 産業平和의 定着은 우리 地方行政이 꼭 맡아서 추진해야 할 責務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民主主義는 經濟의 發展과 安定이 없이는 절대로 그 꽃을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꽃을 피우기는 커녕 실현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6.7%의 經濟成長을 달성하였으며 4,900불을 넘어서 5,000불 가까운 1인당 國民所得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1인당 5,000불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先進國家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 5,000불은 겨우 우리가 넘고자 하는 先進國의 進入段階입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갯길을 올라갈때 밑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은 미끄러져도 별로 크게 다치지 않지만 고개를 다 올라가서 고개마루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經濟가 지금 바로 고개마루에 올라서는 단계이고 여기서 미끄러지면 다시 回復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 經濟의 어려움을 克服할 수 있느냐 하는 길은 바로 우리 地域의 經濟社會安定을 이룩하는 길이고 그 첫걸음이 民生治安의 確立과 그리고 産業平和의 定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公務員들은 늘 無限責任을 진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지방행정공무원만큼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國家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無限責任 社員입니다. 國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지는 奉仕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책임 사원, 무한책임 公職者로서의 役割을 기대하면서 이 4월이 우리 역사가 증명해 주었듯이 平和의 定着基盤을 확립하고 그리고 刷新과 發展의 전기가 되는 달로써 기록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道政 責任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奮發을 거듭 촉구합니다.

鹽峙邑 開廳式

1990년 4월 2일

祝　　辭

오늘 우리 忠南의 자랑이자 민족의 영원한 사표이신 李忠武公의 숭고한 충효의 얼이 깃든 이곳 鹽峙에서 牙山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약하는 鹽峙邑 開廳式을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개청식은 지난 '86년 1월 1일 溫陽邑이 시로 승격된 이후 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을 소망해온 10만 牙山 郡民의 의지와 내빈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믿어져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이곳 牙山은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닥쳤을때마다 자신을 바쳐 위난을 극복한 愛國志士를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었을 뿐만이니라 훈훈한 人心과 아름다운 自然을 자랑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한편 오늘날 이 牙山은 본격적인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과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미래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牙山港開發, 仁州工團 조성등 이미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해안과 내륙, 도시와 농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리적 특성이 우리가 지향하는 均衡發展의 要件을 이상적으로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기회가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슬기와 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繁榮과 發展은 자연적으로 성취되거나 그냥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역의 발전도 개발여건과 잠재력이 아무리 좋고 무한하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行政機關의 힘과 노력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牙山의 發展도 이 지역 주민의 아낌없는 同參과 協調속에 지역의 역량을 최대로 결집 발휘해 나갈때 이룩할 수 있으며 또한 가속화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忠淸南道가 大田直轄市 분리이후 도세 창출과 서해안 시대 주도를 위한 각종 시책을 펴오면서 道民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오늘 鹽峙邑의 昇格도 단순한 자축행사에 그칠것이 아니라 새로 탄생된 鹽峙邑을 구심점으로 牙山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로 키워 나갈수 있도록 주민의 和合과 團結을 다지고 더높은 슬기와 더 큰 역량을 모으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군수와 읍장이하 全 公務員은 邑民의 祝福속에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行政을 펴나갈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과 봉사 그리고 주민과의 진정어린 유대를 다짐하여야 될 것입니다.

牙山郡民 여러분!

이제 牙山은 鹽峙邑이 탄생됨으로써 核이 없는 無所의 地域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鹽峙面은 "面"이 아닌 "邑"이된 것이며 "農村"이 아닌 "都市"로 불리워 질수 있고 "村落"이 아니라 "都市計劃"을 마련해야 하는 성장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鹽峙를 核으로 10만군민이 단합하여 타 시·군이 부러워하는 "21世紀의 據點 힘찬 牙山 建設"을 위해 온 정열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鹽峙邑 승격을 계기로 이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됨으로써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 牙山의 榮光을 더욱 빛내 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읍출범을 축하해 주시기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幸運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0년 4월 2일

人 事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唐津 機池市 줄다리기 行事가 4년만에 다시 개최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機池市 줄다리기 行事는 줄의 제작에서 부터 모든 행사가 애향심과 단결의 결정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 道民 모두가 힘을 합쳐 西海岸 高速道路 노선의 변경등 화합과 단결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때에 단합과 애향심을 통한 발전의 상징인 줄다리기 행사 大祭는 도세 도약과 더불어 성공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최근 大田이 분리된 이후 道勢가 약화되었다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道民 의식의 전환과 함께 忠南道勢가 도약단계로 뛰어넘는 이때 활달한 기상의 機池市 줄다리기 같은 文化祝祭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촉진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고장 출신 金顯煌의원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이우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機池市 줄다리기의 발전과 唐津군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創設第22周年 豫備軍의 날

1990년 4월 7일

紀 念 辭

오늘 創設된지 스물두해를 맞는 豫備軍의 날에 즈음하여 본인은 먼저 豫備軍 여러분이 生業에 從事하면서 내 職場과 고장을 지키는 막중한 任務를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2백만 道民과 더불어 심심한 사의와 치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鄕土防衛와 戰鬪力 向上에 남다른 노력과 공로를 쌓아 오늘 表彰을 받는 豫備軍 여러분과 豫備軍 部隊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69년 "내 고장 내 職場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自衛意志와 국민적 聲援으로 탄생한 鄕土豫備軍은 그동안 여러분의 열성적인 교육훈련 參與와 내실있는 運營으로 반석과 같은 그 組織을 다져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축된 철벽같은 鄕土防衛體制는 북한공산집단의 誤判에 의한 어떠한 挑發도 許容치 않는 막강한 戰力을 갖추게 되었으며 國家安保를 굳건히 하고 호전적인 저들의 戰爭挑發을 抑制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豫備軍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보람과 試練이 교차되었던 지난 80년대, 民主化의 熱氣와 勞使紛糾의 회오리 속에서도 우리 國民 모두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國家安保와 地域安定의 意志를 확고하게 지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5천년 歷史에 길이 남을 서울올림픽을 세계인의 讚辭속에 성공

적으로 치루어 냈을 뿐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貿易國家로 부상하면서 1인당 GNP 5천$에 육박하는 등 世界속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國力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슴뿌듯한 矜持와 自負心을 갖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國家安保를 더욱 튼튼히 해왔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0년 새해들어 급변하는 世界情勢는 그동안 政府가 추진하여 온 北方政策에 一大 轉換期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東西 兩陣營의 理念 思想이 開放化 물결에 의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東歐圈의 民主化 熱氣는 전세계인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東歐圈 國家는 물론 共産宗主國인 소련과도 通商外交에서 실질적 國交 正常化의 단계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는 北韓은 門을 꼭 닫은채 반목의 매듭을 풀지 않고 있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北方政策의 궁극적 目標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南北韓 緊張緩和를 願하는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東·西獨의 統一進行 過程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北韓에 대하여 같은 民族으로서 憐憫의 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北韓에 대하여 계속 忍耐心을 가지고 그들을 協商테이블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統一을 念願하는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빙무드의 世界情勢 흐름을 거부하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상적인 豫測이나 무사안일한 자세로 警戒의 눈빛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며, 우리의 精神武裝 또한 더욱 가다듬어야 할 줄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땅에 살고 있는 한 國土防衛와 國民 모두의 安寧을 위한 國家安保는 우리 모두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최우선의 국민적 課題이기 때문입니다.

豫備軍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우리가 애써 가꾸어 놓은 成長과 法秩序의 자율적 遵守가 흔들리고 퇴색되는 전환기적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고

장을 지키면서 내 家族과 이웃이 保護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地域安定與件을 조성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團結과 安保 意志를 결집하고 法秩序確立과 民主安定의 共感帶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주변을 살펴보고 계도하면서, 鄕土防衛는 물론 밝고 명랑한 地域社會를 가꾸는데 등불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향토방위와 지역안정은 戰線防衛와 國家安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豫備軍 여러분들의 使命과 役割 또한 그만큼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民·官·軍 모두가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유사시 어떠한 사태가 있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地域共同防衛體制를 더욱 튼튼히 하고 地域安定과 民生治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豫備軍 여러분들의 健康과 幸運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大川市民 體育館 起工式

1990년 4월 9일

致 辭

오늘 활기찬 개발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는 이곳 大川에서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大川 體育館의 起工式을 갖게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市民 여러분의 염원과 성원에 힘입어 오늘 起工式을 갖는 大川體育館은 지난해 大田直轄市의 분리 이후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大田에 집중되었던 점을 감안할때 우리 忠南의 체육수준 향상과 傳統 忠南 體育의 榮光을 재현하는데 있어, 그 요람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 大川은 태권도, 레슬링, 요트등 전국적으로 우수한 體育人을 많이 배출한 고장으로 그 활용과 이용면에서 볼때 오늘의 起工은 서해안 개발의 중심도시인 大川 發展을 위하여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忠南은 과거 체육을 통하여 道民의 和合과 슬기를 다지고 가슴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忠南人의 기백과 精神을 한껏 드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忠南體育은 전례없던 전력의 약화로 道民 모두를 한때 실망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수와 열악한 施設與件 그리고 주어진 시간마저 너무 촉박했기에 그 결과를 受容하면서도 못내 아쉽고 안타까워 했던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傳統 忠南體育의 뿌리를 되찾고자 하는 우리 體育人과 道民 모두는 재도약의

기치를 높이 들고 忠南人 특유의 끈질긴 저력을 바탕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수한 選手로 짜여진 새로운 팀이 創團되고 경향 각지에 흩어진 우리 선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정성어린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임을 자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선수들을 보살피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道에서는 금년에 運動場 네군데, 室內 體育館 다섯군데의 建設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설들은 선수훈련은 물론, 올림픽 이후 증대된 生活體育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것입니다.

體育人 여러분!

그리고 道民 여러분!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法과 秩序가 무시되고 나라를 걱정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忠孝精神등 전통적 가치관이 퇴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지역도 이러한 현상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민생안정의 여건은 비단 政府 뿐만이 아닌 우리 體育人과 道民 모두가 감시자가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속에서 진정한 지역안정은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忠南의 일부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걱정한 나머지 뜻을 같이하는 體育人이 한데 모여 자율순찰조를 편성하여 사회의 위해요인으로부터 우리의 青少年을 보호하고 선도하면서 民生治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밝고 명랑한 우리 고장을 가꾸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때 우리 지역의 안정은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때 지켜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起工式을 갖는 大川體育館이 시민 여러분의 體育活動과 文化藝術

行事등 지역모임의 전당이 되고 지역 발전의 산실로 우뚝솟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起工式이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지역유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健康과 幸運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天安, 天原, 住民自律防犯隊 發隊式

1990년 4월 11일

激 勵 辭

오늘 우리道의 關門이며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고장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天安市民과 天原郡民들이 犯罪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住民自律防犯隊 發隊式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禮와 義를 숭상하며 서로를 존중하여 범죄없는 살기좋은 나라로 東方禮儀之國이라 일컬어져 왔을 뿐아니라, 마을마다 「鄕約」이라는 자율적인 規約을 만들어놓고 마을에 외부의 침략이나 재난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고 마을 住民이 잘못을 저질렀을때는 患難相恤과 過失相規로 서로돕고 힘을 합하여 스스로 다스려나가는 슬기로움을 간직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人口가 점점 늘고 西洋의 文物이 분별없이 유입되면서 物質萬能의 풍조가 일게되어 계층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個人 主義가 팽배해져 先人들의 美風良俗이 점점 퇴색되어가는가 하면 작금에는 살인, 강도, 방화, 폭력과 같은 強力事犯이 京鄕 各地에서 빈번히 發生하고 있어 선량한 住民들이 불안감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住民의 不安心理가 더 以上 增幅 된다고 하면 地球村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88올림픽의 좋은 印象과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國家經濟도 하루 아침에 주저앉게될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政府에서도 民生治安의 確保없이는 정치, 경제, 사회의 安定을 기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警察人力과 裝備의 보강은 물론, 뒷골목의 防犯燈 增設등 犯因性 危害環境의 정화와 青少年 善導問題에 이르기까지 모든 行政 力量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안에 住民들의 不安感을 解消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政府의 民生治安 의지와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奮然히 일어서신 여러분의 장한 생각에 성원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실로 警察의 부족한 人力과 裝備만 가지고는 완전한 民生治安의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住民들 스스로가 범죄로부터 나와 고장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강열한 自警意識이 政府의 民生治安 意志를 뒷받침 하게될때 우리모두가 바라는 범죄없는 밝고 명랑한 社會는 앞당겨 造成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犯人을 직접 檢擧하거나 檢問, 檢索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自警意識을 일깨워 선도하는 前衛隊로서 犯人을 검거하는데 필요한 情報提供과 신속한 申告, 그리고 자율적인 防犯 雰圍氣를 조성하고 犯因性 有害環境 淨化등 犯罪豫防活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준다면 우리주변에서 民生犯罪는 退治될 수 있을 것입니다.

政府에서도 여러분들의 自律防犯活動에 필요한 장비와 경비는 최대한 지원해 드림으로써 활동하시는데 조그만한 어려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자리에 모이신 住民自律防犯隊員들의 결의에 찬 自警意志를 직접 보게되니 民生治安에 대한 일말의 安堵感과 함께 自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發隊式이 起爆劑가 되어 住民自律 防犯意識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하루속히 住民들이 안심하고 生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고장의 治安秩序를 유지해 보겠다고 스스로 일어선 여러분들의 장한 의지에 다시한번 치하를 보내면서, 지속적인 防犯活動으로 밝고 明朗한 社會가 빠른 시일내에 이룩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勉庵先生 崇慕 顯正會 發起人 大會

1990년 4월 13일

激 勵 辭

오늘 勉庵 崔益鉉 선생의 抗日 義擧 제84주년을 맞이하여 遺志를 발들고 기릴 수 있는 모임체를 발기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勉庵精神은 자기 희생을 통한 적극적 실천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洪州 義兵의 총수로 추대 받아 의병운동을 전개하면서, 勉庵 선생의 愛國정신은 바로 忠孝, 節義, 禮儀, 선비, 開拓精神이었고 大義정신은 衛正尺邪로 道義를 실현하는 정신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현실을 볼때에도 말로만 아닌 몸과 마음으로 나라 사랑이 절실한 이때, 한 평생을 부귀나 편안보다는 大義와 愛國의 오직 한길로 고난과 희생을 선택하신 선생의 삶을 오늘에 계승하여 사회정의와 나라번영을 실현하는데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부터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忠南정신과 勉庵정신은 일맥 상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부터 道義가 살아있고, 애국정신이 함양되도록 면암정신을 받들고 이를 계승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임을 계기로 더욱 忠南精神이 발양되고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4월 17일

人 事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玄敬大 總長님과 바쁘신 일정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관기관장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89.12.13. 활동 보고회 후 4개월만에 건강한 모습의 道內 平統委員 여러분과 再會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평소 道政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한 범 도민적 의지 확산에 노력하고 계시는 平統 市郡會長님과 幹事님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의 이 모임은 지난번 金泳三 最高委員과 朴哲彦 前政務長官 일행의 訪蘇 등으로 대 북방외교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차제에 새로 부임하신 玄總長님의 본도 방문은 더욱 뜻깊습니다.

요즈음 蘇聯을 비롯한 東歐 변화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통일론과 성급한 속단은 아직 금물이라 하겠습니다.

더우기 北韓은 아직까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럴때 일수록 더욱 긴장하여 단합할 때라고 보아 여러분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健康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빌며 人事에 가름합니다.

瑞山 보리수 合唱團 創團 公演

1990년 4월 21일

激 勵 辭

4월의 훈풍을 타고 신록이 짙어져가는 계절

우리 지역의 文化暢達과 合唱藝術 發展의 등불을 밝혀온 "民族藝術 보리수合唱團"이 이곳 瑞山地方에 合唱團을 새로이 구성하고 그 첫 公演을 갖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으며 音律과 歌辭가 지닌 뜻의 진실을 느끼고 공감하는 풍요롭고 격조높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이질화된 産業 社會속에서는 이와같은 순수한 진실의 소리가 자칫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 合唱團의 役割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藝術이 藝術人의 전유물이 아니듯, 音樂 또한 우리모두 듣고, 즐기며 느끼는 생활속의 藝術로 모든이에게 보급되고 승화될때 現代人의 정신적 貧困感 해소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公演의 감동적 和音이 이곳 좁은 空間을 넘어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 고장 곳곳에 울려 퍼지어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의 장벽도 허물수 있는 和合의 물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고향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瑞山 보리수合唱團이 갈고 다듬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 文化藝術 發展의 빛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더욱 사랑받는 合唱團으로 성장하기를 성원해 마지 안습니다.

오늘의 公演이 있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인사와 瑞山市, 郡民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第6回 桃園文化祭 開幕式

1990년 4월 22일

致 辭

오늘 복사꽃 향기 그윽한 이곳 鳥致院에서 10만 燕岐郡民 여러분의 예지와 축복속에 여섯번째 桃園文化 祝典이 성대하게 베풀어지게 된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경축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축제의 자리를 빛내주시고 평소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李麟求 議員님을 비롯하신 향토인사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燕岐郡民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鄕土文化는 민족의 문화를 지탱하는 뿌리이면서 그 지방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의지가 담겨있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忠南은 예로부터 충절의 역사와 격조높은 훌륭한 傳統文化를 꽃피우면서 우리고장 곳곳에 깊고 넓은,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찬란한 우리 民族文化는 2년전 서울 올림픽에서 전세계인의 감탄과 찬사를 받으면서 大會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世界속의 韓國으로 국력이 신장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先進福祉社會의 새로운 繁榮이 기대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예술적 역량과 의욕에서 샘솟는 지혜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文化와 예술적 意志가 결여된 지역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역사회를 潤澤

하고 豐饒롭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우리 忠南人의 가슴속에 면면히 이어져온 百濟人의 숭고한 정신과 傳統 文化 遺産은 곧 우리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요 未來의 産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산과 미래의 가능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재현하고 조화시켜 나갈때 비로소 훌륭한 先祖를 둔 후예로서 자부와 긍지를 느끼면서 우리 後孫에게도 자랑스럽게 길이 물려줄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燕岐郡民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곳 燕岐地方은 錦江연안을 끼고 先史時代부터 우리 조상의 삶의 터전이 되어오면서 百濟時代에는 그 중심지역으로서 百濟와 더불어 흥망성쇠를 같이 하여온 유서깊은 忠節의 고장이요 文化의 고장임을 자랑합니다.

오늘의 祝典에서도 30년 전통에 빛나는 白樹文學의 슬기가 숨쉬고 앞서가는 문화의 씨를 뿌리면서 가꾸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된 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와 더욱이 우리 百濟人의 마지막 抗戰地 중의 하나인 이곳 금이성 정상에서 祭香을 올리는 것도 우리 선열들의 높으신 뜻을 기리고 우리 고장의 유적을 길이 보전코자 하는 군민 여러분의 의지에 더없는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 傳統文化를 개발하고 계승 발전 시키는데 몇사람만의 힘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정성과 힘이 모아지고 다져지면서 그 역량이 끊임없이 분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해를 거듭할수록 地域傳統 民俗文化祭로 정착되는 본 행사가 鄕土文化 振興의 등불이 되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나아가 새로운 忠南時代를 창출하는 화합과 약진의 한마당 잔치로 승화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축전행사에 진력해오신 桃園 文化祭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각 기관 단체. 관계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致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浦渚 趙翼, 松谷 趙復陽先生 保護閣 竣工式

1990년 4월 22일

祝 辭

오늘 유서깊은 충절의 고장, 이곳 禮山에서 浦渚 趙翼 先生과 松谷 趙復陽 先生의 뜻을 기리고, 후손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 保護閣의 竣工을 갖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처럼 보람된 사업을 이룩하신 浦渚 趙翼 先生 紀念事業會 조병언 회장님과 참석해 주신 趙淳 前 副總理님, 조남조, 최창규 前議員님, 그리고 문중의 여러 인사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장구한 역사를 다져온 빛나는 지혜와 의지는 오늘에 사는 우리 민족의 숨결 속에 면면히 함께 하여갈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선열들께서 물려주신 명예와 전통을 숭상하고 정성으로 갈고 닦아온 풍양 趙씨 門中이 지난날 수많은 학자와 인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도 선대의 넋을 기리며 후손된 도리로써 그 높으신 뜻과 정신을 길이 받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浦渚 趙翼 先生께서 이룩하신 功績과 후손에 끼친 影響은 비록 문중 뿐만이 아니고 우리고장과 나아가 유구한 우리 민족 역사의 한페이지를 찬연히 수놓기에 충분 했습니다.

浦渚 趙翼 先生은 이율곡 선생이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창시한 大同法을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끝내 실천하셨으며, 또한 과거제도 개혁등을 통해서 당시 폐정을 혁파하려한 當代의 先覺者이자 훌륭한 指導者이셨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銳智로써 壬辰亂과 丁卯胡亂, 丙子胡亂등 민족의 受難을 내다보시어 국방정책의 필요성과 방어책을 구상하고 유사시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빈번히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

당시의 任官들에게는 생소하면서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점을 감안할때 선생의 남다른 선견지명과 높으신 충성심은 가히 누구도 따를 수 없다 할것입니다.

松谷 조복양 先生 또한 대제학등 요직을 거치면서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많은 저서를 내놓는 등 두분께서 남겨 놓으신 그 높으신 뜻과 혁혁한 행적은 복잡하고 이질화된 産業社會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開拓의 精神과 함께 수많은 敎訓을 주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 !

우리의 얼과 祖上의 숨결을 되살리고 사라져가는 옛 先人들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곧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 확립과 民族의 脈을 오늘의 삶에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들의 召命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와같은 사업이 조상을 숭상하고 민족의 전통을 기리는 忠南道民의 矜持를 더욱 높이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마음을 가꾸고, 올바른 價値觀 定立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竣工이 있기까지 애쓰신 문중의 인사 여러분, 그리고 관계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성원해 주신 禮山郡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공식을 다시한번 치하드리며 豊陽 趙씨 門中의 發展과 繁榮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忠南職業訓練院 後援會 創立總會

1990년 4월 23일

人 事

오늘 忠南職業 訓練院 後援會의 創立總會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작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어 죄송스럽게 여기며, 본 後援會 구성에 뜻을 같이 해 주신 會員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모임을 갖도록 힘쓴 민영오院長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論山과 洪城 2개소에 訓練院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직업훈련원을 설립한 이후 약 7,000명의 기능인을 배출하였고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던지 진학하지 못한 青少年의 탈선 예방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89년 수료생 608명 전원이 技能 資格證 획득과 동시에 100% 취업이 되어 技能人으로서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役軍이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을 더 확대하여 96년까지는 비진학자 전원을 수용할 계획이며 우리 忠南의 경우도 工業道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훈련에 따른 基盤造成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므로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道民 모두가 불우 훈련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표명과 함께 후원회에서도

많은 人力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바라마지 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룬 오늘의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人事에 가름합니다.

道政과 民生治安을 爲한 晩餐祈禱會

1990년 4월 23일

人　　事

오늘 이 뜻깊은 祈禱會를 마련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각 지역의 牧師님 그리고 警牧회원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또 주관해 주시는 이상오 牧師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슴에 와닿는 세분 목사님의 특별기도에 대하며 더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정과 민생치안을 위해서 오늘 이와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읍니다만 과거 어느때 보다도 가장 절실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런 기도회가 마련된 것을 道政의 책임을 맡고 있는 知事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해있는 이 사회는 대단히 여러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모든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는 그런 시기인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秩序가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겸손의 社會로 되돌려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사회로 만드느냐가 이 시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이러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行政, 警察 그리고 우리 道民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열을 바쳐 經濟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社會秩序를 확립하면서 民生治安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 하겠읍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목사님, 그리고 기도를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노력과 하느님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어려운 이 사회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여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번영과 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나가는 기운이 우리 忠淸南道로부터 일어나기를 또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함께 가지면서, 큰 가호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 안습니다.

1／4分期 道政 評價團會議

1990년 4월 24일

人 事

금년도 4월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간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道政評價團 制度는 재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 會議를 오늘 처음 갖습니다.

매 분기말에 저희들이 한 분기동안 추진해온 도정 추진 상황을 각계각층에 계신 우리 道民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직접 도정전반에 걸친 평가를 받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음 분기의 도정을 보다 도민의 의사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道政評價團 會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運營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 평가위원들께서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각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회의를 하시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모임도 작년도와 같이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찬을 함께 하신뒤에 끝내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첫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해 저희 道는 大田直轄市 분리에 따른 여러가지 道勢弱化를 각분야에 걸쳐서 도민들의 성원과 참여속에서 거의 대부분 약화된 도세를 回復하고 새로운 忠南時代를 창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연말 決算 評價團 會議때에도 그런 보고의 말씀과 평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道政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道民 여러분께서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이해 하시고 직할시 분리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도민의 和合속에서 서해안시대에 맞는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도세회복을 위해서 지난 1년을 정말로 땀을 흘려 뛰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大田直轄市라는 그런 큰 都市, 또 忠南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도시를 떼어내고 난뒤에 올 수 있는 도민들의 허탈감이나 사기의 저하가 없이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 낸 都市를 떼어주고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忠南時代를 창출해 내겠다는 그런 意志를 집약했기 때문에 큰 成果를 거둔 한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道勢回復의 차원이 아닌 道勢跳躍의 차원에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지난해 못지 않은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선결되어야 될 일이지만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與件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뤄낸 이후에 아주 어려운 속에서 금년 1년을 보내게 될 것이고 특히 지난날 까지의 노사분규가 韓國의 經濟를 아시아의 龍으로부터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이 아니고 한마리의 지렁이로 轉落시키는 그러한 評價를 받게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적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타결해 나가면서 地域의 安定과 産業平和를 정착시켜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고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 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公務員 엘리트, 經濟 엘리트, 그리고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 왔습니다.

이제 6·29宣言 이후에 민주화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국민 전체가 함께 끌고나가야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봤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한 主導勢力이 없이 각자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속에서 民生治安의 문제, 또 道義가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長幼有序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새로운 질서개편의 시대 이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을 다시 질서있는 생활로 되돌리고 道義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民生安定이 이룩되는 그러한 기틀을 우리 忠南으로부터 마련하느냐 하는 과제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道政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役割을 수행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도정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개진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잘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잘못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확실하게 道民들에게 모든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 드리고 評價를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行政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정을 쪼개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評價委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올린, 정말로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것을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느낄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평가를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中央部處 公務員 招請 道政說明會

1990년 4월 25일

人 事

오늘 이 자리는 中央 各 部處에서 근무하시는 公務員을 招請하여, 같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발전을 기원하는 모임입니다.

지난해 3월 처음 모임을 가진 이후 세번째로 鄕友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많이 參席하여 고향 사랑의 情을 나누게 된데 대하여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처음 만났을 때도 단지 故鄕이 같다는 理由하나 때문에 年令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배움이 다른데도, 서로 포근한 精誠을 느끼며 스스럼 없는 자리가 되었읍니다만, 이제 만남의 회수가 더 해지고 서로의 情을 두텁게 느끼게 되어서인지 좋지 않은 날씨인데도 홀 안에는 和氣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在京, 鄕友會 모임인 忠友會 유근창 회장님과 오늘 스폰서 해 주시는 三扶土建 조정구 회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會員들에게 感謝드립니다.

더우기 國政에 다망하신 金鍾泌 最高委員님을 비롯한 여러 國會議員님, 그리고 文化部 李御寧 長官님, 李賢雨 警護室長님도 참석해 주셔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모임시에 大田直轄市의 승격으로 道勢의 弱化를 우려한 분들이 있었으나, 오히려 忠南은 지역 발전의 加速化로 3년 이내에 道勢回復이 될것으로 展望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는 最善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成果도 컸습니다.

精神面에서는 忠南精神의 뿌리에 대한 연구 결과 忠孝精神이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비·禮·義·開拓精神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忠誠心, 고향을 떠나서는 愛鄕心이 우리들 정신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 맥맥히 흐르는 忠南精神을 오늘에 이어 받아 적극적인 忠淸人으로서 매사에 임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계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物量面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道勢回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大田市 분리 이전보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西海岸 開發을 위시하여 工業團地 1,200여만평에 720여개 공장이 들어서게 되므로써 工業道로서 발돋음 하고 있고, 人口 또한 67년 이후 20여년만에 처음으로 4000명이 증가하고 豫算도 1조원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계룡출장소를 설치하여 鷄龍時代의 개막을 보면서 忠南도 많이 크게 변하고 있슴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더 많은 변화를 위해 금년부터 道勢跳躍 7大戰略事業과 農漁村 活力化 5大重點事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體育에서도 大田直轄市 분리이후 지난번 전국 체전에서 14위를 하였으나 20개 市郡에 각기 다른 팀을 창설하여 우선 중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論山의 근대 5종이 금메달, 天原의 싸이클이 7위, 公州의 역도가 금메달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이 모두를 가능케 한것은 지리적, 시의적인 與件도 중요하지만 200만 道民과 함께 鄕友 모두의 성원에 힘입어 눈부신 發展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를 위해 열심히 잘 하겠지만 내일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計劃입니다만, 특히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人材育成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도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위해 일하는 鄕友, 고향을 위해서도 물심 양면으로 投資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안습니다.

여러분, 고향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부탁드리며 아니 고향을 잊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父母兄弟 다 돌아가시고 떠나셨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묻히시고 또 우리가 묻

혀야 할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忠南人만의 모임으로 地方色을 띄우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忠"字가 中心을 뜻 하듯이 우리가 굳게 뭉쳐 中心을 지키면 나라의 安定도 튼튼해 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모임을 뒷받침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 드리며, 저와 故鄕 行政을 맡아 일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市長·郡守·室局長들이 함께 일어나 여러분께 감사의 人事를 드립니다.

鄕友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海外勤勞者 家族에게 보내는

1990년 4월 25일

書 翰

온누리에 싱그러운 봄빛이 신록을 재촉하는 계절

먼저 海外 勤勞者 家族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신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우리 海外 勤勞者들께서 비워놓은 자리를 지키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내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人間은 미래의 幸福과 풍요로움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는 智慧와 슬기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때마다 깊어지는 家族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이겨낼수 있는 것은 再會의 기쁨과 보다 큰 내일의 希望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삶을 충실히 하고 우리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방법과 내용은 수 없이 많지만 海外에 나가 祖國 繁榮의 최일선에서 땀흘려 일하고 실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간 해외 근로자들의 피어린 땀과 정성어린 노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바탕이 되고 國家 發展의 보람된 기틀이 되어 왔으며, 행복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을 참고 이겨내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忠南의 道政도 지난해 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공업화시책 추진과 서해안 고속도로 확정등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전 도민의 참여속에 착실하게 跳躍의

元年을 다져왔던 보람있는 한해 였습니다.

또한 90년대 들어서도 격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높은 파고를 헤치면서 영광된 새로운 忠南時代 創造에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본격적인 개발과 더불어 우리 忠南은 도민 전통의 끈질긴 저력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긍지와 자부심 가득찬 고장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해외 勤勞者 家族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흘린 땀과 노력은 작게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행복을 주면서 크게는 우리 地域과 나아가 祖國의 선진된 福祉社會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歸國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내와 노고에 우리 이웃과 도민 모두는 더없는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가족모두의 안녕과 앞날의 영광, 그리고 행운이 늘 함께 하는 은총을 빕니다.

1990년 4월 26일

人 事

고향의 향우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이런 모임을 가졌을때에는 서울에서 저의 忠淸道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모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回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향우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한 향우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만나 뵈었을 때에도 단지 고향이 같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연령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의 배움과 처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포근한 情感을 느껴가면서 스스럼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만남의 回数가 점점 거듭 될수록 서로의 情이 더욱 두텁게 느껴지고 오늘 날씨가 대단히 봄날씨 치고는 쌀쌀하고 나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안의 열기가 고향의 봄기운을 옮겨 놓은 것 처럼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임은 특히 在京鄕友님들의 모임이신 忠友會의 유근창 會長님께서 마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스폰서를 삼부토건의 조정구 會長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모임에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해 주신 김용환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박태권 의원님, 박병선 의

원님, 김현옥 의원님, 조남욱 의원님, 윤재기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3월 첫모임때 저희들은 향우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忠淸南道에서 大田直轄市가 승격되어서 분리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忠南은 도세의 약 반이 大田市로 떨어져 나가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남이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도세를 회복시켜서 鄕友님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도민들의 사기를 높여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스라이드를 통해서 報告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들 16천여 충남공무원과 200만 충남도민 그리고 오천여 대전직할시 공무원과 백만의 시민은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한결과 그 성과도 컸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저희 忠南地域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忠南精神을 정리를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충남 하면 무대접 받는 도로 도민들 스스로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접받는 道, 대접받을 수 있는 道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만 도민 아무도 무대접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政府의 西海岸 開發 計劃과 西海岸 高速道路 路線의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난해 저희는 크고 작은 工團을 만들어서 62만평으로 시작한 공단이 지난 1년동안 확정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공단면적이 합해서 1,200만평을 넘고 있습니다.

工場도 지난 1년동안 中小企業 이상만 720여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인구도 67년 이후 처음으로 4천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3軍本部가 이전해 오는 新都安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鷄龍市를 전제로한 出張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21個 市郡이 된셈입니다.

저희 忠南은 참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침체의 변화가 아닌 跳躍의 變化로 이 자리에서 향우인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저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저희들의 노력인 것으로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향우님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愛鄕心과 성원 그리고 忠友會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향우님 여러분께 200만 도민의 감사의 정을 함께 전해 올립니다.

역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아닌 함께 일하는 힘이 일의 成果를 크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정말 잘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해서 잘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한 投資에도 더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고향을 지키는 사람을 육성하고 農漁村의 人材를 기르면서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향우님들을 위해서도 저희들 힘껏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 향우님께서 부디 고향을 잊지 마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도 향우님들께서 고향을 잊지 못하시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모 형제가 다 함께 고향을 떠났어도 우리는 함께 고향에 묻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묻혀야 될 땅을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저희는 忠南道政을 펴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향우님들께서는 中央部處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支援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오늘의 모임이 서울 한복판에서 忠南人들만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國土의 中心部에 위치한 우리 忠南이 이와같이 향리와 서울에서 똘똘 뭉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團結과 和合을 이룩한다며는 그것이 바로 國家 安定의 모체가 되고 기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의 모임이 있도록 뒤받침해 주신 유근창회장님, 조정구 회장님 그리고 在京鄕友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도정을 맡고있는 지사 이하 실국장 모두가 그리고 시장·군수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향우 여러분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笠場 己未 獨立萬歲運動 紀念塔 除幕式

1990년 4월 27일

追 念 辭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의 숨결이 간직된 역사의 고장 이곳 天原에서 金鍾泌 最高 委員님을 비롯하신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笠場 己未 獨立萬歲運動의 드높은 함성과 독립자주정신을 되새기며 기념탑 제막식을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선열들의 영령 앞에 삼가 옷깃을 여밉니다.

己未 獨立萬歲運動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지키며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횃불이 祖國山河에 불타올랐던 민족의 장거였습니다.

민족의 수난기를 오로지 민족 자존과 구국일념으로 신명을 바쳤던 愛國烈士들의 그 높으신 뜻과 精神을 기리고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71년전 이곳 笠場市場과 稷山 鑛山村을 흔들었던 獨立萬歲운동은 우리 忠南 최초의 거사이면서 全國을 太極旗와 萬歲運動으로 넘치게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가녀린 少女의 몸 임에도 무서울 것 없는 신념과 용기로 민족의 양심과 애국심을 불질렀던 이고장 세 女學生들의 충정에 찬 犧牲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여야 할 정신적 유산입니다.

오늘날 산업화의 그늘과 물질문명 속에서 흐려져 가는 우리의 역사의식을 재 조명하고 愛國精神을 기리며 그 忠義를 오늘에 되살리는 것은, 우리 민족사 위에 우뚝 솟은 己未 獨立萬歲運動을 민족의 정신적 뿌리로 삼음이 그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가 世界속의 韓國으로 국력이 신장되고 나아가 부강하고 윤택한 先進國의 문턱에 들어설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제 헌병의 총칼 앞에 분연히 항거했던 우리 선열들의 넋과 혼이 한 시대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저항에 불과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번영의 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조와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를 살아 있는 유산으로 계승하고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世界史의 뒷전으로 물러나 있거나 쇠퇴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歷史를 통하여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모두는 國權과 겨레의 獨立을 외쳐왔던 先代의 智慧와 團結力을 오늘에 되살리고 면면히 이어가야 하는 召命을 안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선열들께서는 비록 소원은 다하지 못했지만 무궁화 피는 이 祖國江山에 우리 민족의 맥박을 뛰게하고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함이 없이 生命까지도 犧牲하셨슴이 우리 後孫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선열들께서는 지금도 저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민족 앞날의 발전을 기원하며 繁榮을 이루는 날 또다시 벅찬환희의 萬歲를 부르실 것입니다.

歷史는 끊임없이 흐르고 來日은 밝아오며 우리는 다시 이곳을 떠나 일터로, 學校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우리 선대가 겪었던 그 아픔과 恨을 생각하면서 맡은바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지혜와 힘을 모아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픈 역사를 살다가신 先烈들에 대한 慰安이며 다음 세대에게 값진 역사를 물려주는 우리의 당연한 道理입니다.

國政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金鍾泌 最高委員님을 비롯하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 뜻깊은 행사가 있기까지 애쓰신 민태일 推進委員長님과 후원하여 주신 각급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追念辭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御醫井 發願祭

1990년 4월 28일

祝　　辭

오늘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인 이곳 溫陽에서 李御寧 文化部長官님, 黃明秀 議員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뜻깊은 御醫井 發願祭 行事를 갖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溫陽은 溫泉의 고장으로 조선시대 역대 임금님께서 休養을 하시면서 溫泉浴을 즐기셨던 곳입니다.

또한 聖雄 李舜臣 將軍과 古佛 孟思誠 선생, 古均 金玉均 선생등 우리 민족의 진로를 일깨워 주시고 百尺竿頭에선 나라를 구했던 수많은 名賢烈士를 배출한 忠節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우리 선현들의 고매한 정신은 오늘의 傳統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 고장 곳곳의 크고 작은 유적과 역사적인 기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천년 동안 이땅을 가꿔오신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얼은 우리모두 지켜야할 정신적 유산이며 남겨 놓으신 文化遺蹟을 길이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보람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창조와 성장을 이룩하고 내 祖國 내 江山을 살기좋은 福된 터전으로 일구어 왔습니다.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지혜와 정신적 유산을 발판으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대망의 2000년대에 국운을 꽃피우려는 우리 세대의 歷史的 召命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溫陽市民 여러분 !

우리는 그동안 옛부터 전해 내려왔던 한 우물에 어려있는 우리의 文化 遺蹟地를 되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傳統文化의 뿌리를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려는 시민 여러분의 정성과 문화적 긍지는 바로 오늘의 發願祭를 갖게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잊혀져가는 기억을 復元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서서 본인은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동안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現地調査와 發掘에 진력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옛날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물가에 정한수 떠다놓고 가족의 안녕과 신수를 기원했던 기억을 합니다.

동네 아낙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고 과거보러가는 선비에게 버들잎 띄워 물잔을 건네주던 逸話들이 생각납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의 삶의 예지가 투영된 우물에 얽힌 얘기는 옛 정취를 느끼고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뜻깊은 御醫井 復元을 계기로 우리모두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고장의 역사와 이러한 文化遺産을 지키는 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값진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서 우리 전통의 脈을 이어가면서 후손으로부터 대접받는 세대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난날 한 시대에 걸쳐 땀흘려 이룩한 성장의 결실도 자부심 가득찬 보람도 傳統으로 이어지는 調和속에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될것입니다.

아무쪼록 溫陽文化祭 행사와 더불어 펼쳐지는 이 發願祭가 지역 전통문화 계발의 디딤돌이 되고 자긍심 높은 市民精神을 가꾸는 和合과 躍進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起工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溫陽文化祭 推進委員會 委員님들과 성원을 다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4월 29일

人 事

오늘 第7次 藝總 全國代表者 大會가 第29回 溫陽 文化祭 期間中에 개최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강선영 會長님과 각 협회의 열분의 理事長님이 參席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절제하면서 오로지 經濟發展에만 매진하여 先進國에 진입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金剛山도 食後景이라고 했읍니다만,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됨에 따라 文化藝術에 대한 국민의 추세에 대응하여 文化部도 신설하였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산업사회 속에서 인심도 각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몰인정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촉매역은 바로 文化藝術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忠南의 文人은 藝術을 예로부터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녀오고 있습니다. 百濟아직기, 안견, 한용운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忠南人으로서 초대 文化部長官이신 李御寧 長官등 무수한 문화 예술인들의 면면속에서 忠南 문화 예술의 전통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서는 道政의 중점 방향에도 나타나 있고, 文化藝術을 꽃피울때 이 지역과 나라의 번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모임이 지역간 藝術情報의 支援과 함께 상호 친목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忠南발전을 위해 느끼신 점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남은 일정을 유익하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道政說明會를 마치고 在京鄕友에게 보내는 書翰

1990년 4월 29일

書 翰

푸르름을 자랑하는 新綠의 季節, 10年 連續 豊年農事를 기약하는 농촌의 活氣를 발걸음과 함께 奔走해지는 때입니다.

恒常 健康하시고 宅內 平安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해 드립니다.

故鄕을 아끼고, 故鄕發展을 위해 活躍하고 계신 鄕友님의 德分으로 새로운 忠南時代를 향한 開發의 굉음이 날로 雄壯해지고 있음을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가졌던 道政說明會에는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直接 參席하시어 많은 助言과 激勵를 해주셔서 저희는 더욱 더 自信感을 가지고 道政을 遂行할 수 있는 覺悟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鄕友님의 積極的인 支援과 200萬 道民이 한마음이 되어 獻身 努力한 結果, 精神的으로는 忠南 無待接이라는 認識을 拂拭시키고 「하면된다」는 새로운 道民 意識으로 轉換되었으며, 物量的으로는 많은 分野에서 道勢回復 또는 超過하는 成果를 올려 새로운 成長基盤을 着實히 다져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16千余 公務員과 200萬 道民은 渾然一體가 되어 道政發展에 努力하겠아오니,

아무쪼록 今年에도 저희 忠南이 새롭게 跳躍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激勵와 支援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家庭의 幸福과 健康을 眞心으로 祈願드립니다.

全州製紙(株) 長項工場 起工式

1990년 4월 30일

祝 辭

오늘 희망이 가득찬 미래의 고장 이곳 長項에서 군민 여러분과 全州製紙 任職員 그리고 李肯珪 議員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서 자리를 같이 하신 가운데 全州製紙 長項工場 起工式을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본인은 忠南의 西南端인 이곳 長項에 대규모 공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주제지 공장이 立地하여 오늘의 기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김인호 社長님과 그룹 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全州製紙는 우리 제지 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가까운 장래에 長項工場이 가동될 경우 우리 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도민과 더불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舒川郡民 여러분!

이곳 舒川地方은 천혜의 港灣과 풍부한 수자원등 개발에 좋은 이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역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先發開發 對象으로 부터 다소 소외되어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6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이곳 舒川은 개발의 요충지로서 크게 각광을 받는 희망찬 미래를 약속 받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長項을 중심으로한 忠南의 西南部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유치

함과 아울러 長·群 産業基地가 활발히 개발되고 西海岸 高速道路가 개통될 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새로운 희망과 부푼 꿈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공식을 갖는 이 全州製紙 長項工場이 완공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면서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多數 취업을 하게 되어 고용효과를 통한 住民所得增大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道民 여러분!

지난해 우리 忠南은 大田直轄市 분리에 따른 도세의 약화를 각 분야에 걸쳐서 도민들의 성원과 참여속에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는 알찬 道政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90년 새해들어 우리는 금년을 "새로운 道勢跳躍의 해"로 삼고 우리의 개발의욕을 다시 다지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忠南時代를 창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형성될 공업지대는 天安工業團地를 비롯하여 牙山의 仁州工團, 唐津의 石門工團, 瑞山의 大山工團, 그리고 이곳 長·群産業基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長項과 鍾川의 農工團地를 위시하여 지난 해까지 요소요소에 건설중인 41개 지구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이제 우리 忠南은 전통 農業道에서 工業道로 크게 탈바꿈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중히 다가온 오늘의 여건을 우리는 忠南人 특유의 끈질긴 저력과 단합을 바탕으로 확실히 우리것이 되도록 受容하고 국토의 중심지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지역으로 가꾸고 다듬는 역사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忠南이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된 터전으로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찬 고장이 될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起工式을 갖는 全州製紙 長項工場이 우리 忠南人의 企業이 되어 도민과 더불어 내일의 희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보람을 찾는 결실로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舒川郡民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起工式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全州製紙 任職員 여러분과 성원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기공식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健康과 幸運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H會員과의 對話

1990년 4월 30일

人　　事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향을 지키고 땀흘려 일하는 4H會員 여러분과 이곳 福祉 農道院 아우내 研修院에서 자리를 함께 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4H活動을 보면 넘치는 의욕과 슬기를 지니고 先進 農村의 기수로서 9년 연속 豊年農事를 이룩한 主役이 바로 여러분이었기에 뜨거운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더우기 4H출신 道·市郡 會長 모임인 先後會는 그동안 會長, 다시 말해서 農漁村의 指導者로써 32명의 회원이 4H이념으로 평생동안 생활하기로 다짐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農村에 뿌리 내릴 때 福祉農村의 기틀이 더욱 튼튼해 질 것입니다.

燕岐郡 全東面 후계자들의 유통사업을 보면 후계자 10명과 4H회원 4명이 참여하여 한달에 750두의 양돈을 清州市場, 可樂洞 市場, 畜協등에 계통 판매하여 월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환원사업으로 會員중에 불의의 재난이나 양돈불황에 대비하여 착실히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燕岐郡 南面 陽化里 농촌지도자 임붕철외 여섯 農家 15ha에 오이 하우스 재배로, 50만원 이상 저축을 하여 오이 促成栽培로서 노력하면 都市보다 더 잘 사는 農村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의 좋은 사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日本에 다녀온 農村振興院長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복숭아는 7월에 출하하는

데, 하우스 복숭아도 4월에 출하하여 3개월 앞당겨 높은 가격을 받고 좋은 품질로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日本에서도 사과, 배, 앵두 등 모든 과수를 시설재배하고 있으며 日本 市場에도 美國, 멕시코, 뉴질랜드 과실이 산더미 처럼 팔리고 있지만, 일본 과일이 가장 고급품으로서 기술로 수입 농산물을 이겨내는 일본 농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수입 자유화 품목 예시와 보완대책을 법으로 정하여, 피해액을 보상하고 다른 作目으로 바꿀때 자금지원도 하고 構造改善을 위한 투자확대 등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農家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多品目 良質, 少量生産으로 높은 값을 받고 「一村一品」 특산물 가공에 힘쓰며 전통농산물로 새로운 수요도 창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道知事가 적극 지원해 나감에 있어 그 근본은 기술혁신을 선도할 專門農業人 육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경지정리 관개 등 생산기반 조성과 시설의 현대화를 돕고 流通改善을 위한 都市市場등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이미 農漁民 後繼者 생산농산물 판매를 위해 5日 市場屋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忠南은 西海岸 時代를 맞이하여 개발의 현장만 살필것이 아니라 農村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소득 작물로 계속 개발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도 전개하며 50억원의 농어촌 기금도 조성하여 지원하면서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이 협조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H 會員 여러분!

흙은 거짓말을 아니하고 일한 만큼 所得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아실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은 반드시 좋은 結果가 있게 마련이고 先進 福祉農村은 멀지만은 않다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틀간의 研修大會을 보람있고 유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4H會員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5 월



▲ 모내기작업 지원

1990

犯罪없는 마을 懸板式

1990년 5월 1일

激 勵 辭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단히 자랑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군 사곡면 부곡리 마을은 37가구에 164명의 주민이 살고 계시는 적지도 크지도 않은 마을 입니다만 우리 忠淸南道에서 가장 자랑스런 마을 중의 하나 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여러분과 함께 犯罪 없는 마을 懸板式을 가지면서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도단위 기관장님 그리고 안기부 지부장님 또 대전일보 사장님, 자유총연맹 회장님등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들어 오면서 마을 입구의 옆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을 봤습니다.

사실은 저기에 여덟개의 현판이 붙어 있어야 맞는 자리 입니다만 지금 86년도를 제외하고 일곱개의 현판이 붙어서 오늘 報道는 3년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7년 범죄없는 마을을 이룩 했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것은 86년도 한해에 범죄없는 마을을 이룩하지 못해서 8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의 영예를 이룩하지 못한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께서는 틀림 없이 8년 10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을 이룩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民主主義를 한다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法을 어겨서도 법을 지키지 않아서도 않된다는 것은 스스로 아시는 분들 입니다.

우리 옛말에 법이 없어서도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법이 없으시면 못사시는 분들 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을 잘지키고 그리고 스스로 法의 尊嚴性을 인정을 하면서 生活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里長을 맡아보시는 정부희 이장님이나 마을 尊長이신 이석규 尊長님 그리고 새마을指導者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화목한 마을을 가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수님과 부처님과 공자님 세분이 모여서 세상을 화목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論議를 하셨답니다. 세분이 서로 의견을 맞추어 보기 위해서 각자 손바닥에다가 그 방법을 써보자 하고 세분이 손바닥에 글자를 써서 펴 보이니까 참을 인(忍)字 더랍니다.

가정이 화목할려면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참아야 되고 또 마을이 화목할려면 마을 주민 모두가 서로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고 참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때에만 和睦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특히 마을 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 범죄없는 마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을만 범죄없는 마을로 가꾸어 낼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 있는 마을들도 모두 범죄없는 마을이 되도록 이제 가르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각박한 사회가 된다해도 서로 참고 사랑하며 아끼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남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그러한 일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께서 저 현판밑에 8년 연속 범죄없는 현판을 붙이면서 여러분

마을 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도 犯罪없는 마을의 懸板을 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은 마곡사 옆에 있는 마을 이고 또 내일은 부처님이 오신 날 입니다. 아마 부처님께서도 여러분 마을에 큰 가호를 내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 좋은 한해가 되시고 이 마을이 더욱 더 발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이웃 곳곳에 사랑과 또 서로의 和合이 實踐되는 마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하십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마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1990년 5월 2일

訓　　示

벌써 신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5월은 家庭의 달이자 青少年의 달이며, 法의 날과 스승의 날, 그리고 어린이 날, 成年의 날이 함께 겹쳐있는 달입니다. 또한 10년연속 豊年農事를 기대하면서 모심기 등 분주한 農事日程이 겹쳐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5월은 대단히 희망적이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울만큼 좋은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텔리비젼을 보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속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2월에 大統領께서 우리 忠清南道를 순시 하셨을때 우리는 3黨 統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 사회적 安定이 확실히 이루어 지겠구하는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낀바와 같이 지난 4월은 아주 어려웠던 한 달 이었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우려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民主主義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출범한 우리 6共和國이 가장 어려운 격동기에 처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大邱, 忠北 補闕選擧의 내용 또한 정치적인 안정을 기대하는 國民들의 기대에 副應하지 못하였고, KBS事態라든지 現代重工業事態등을 보면서 다시 악몽의 春鬪

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각자가 理由에 대하여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하루빨리 치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일치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우리 道 자체적으로도 여러가지 많은 行事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安定을 지속해 가면서 우리 할 일을 착실하게 다져온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28일, 445周年 忠武公誕辰 記念行事에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大統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忠武公精神을 기리었고 4·25에는 서울에서 세번째 在京忠南出身 公務員들에 대한 道政說明會는 우리가 中央部處 44개기관에 1,200여명의 事務官級이상 忠南出身 鄕友들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고향의 따뜻한 情을 전달해 주고 그들이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복돋아 준 그런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이 中央部處 公職者들에게 우리들의 情을 전달하고 그들의 고향 사랑하는 情을 우리가 잘 받아 들이는 일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치고져 합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狀況들을 보면 이 5월을 어떻게 보낼것이냐?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격동하고 있는 이 여건에 우리가 어떻게 副應해 나가면서 우리가 指向하고 있는 새로운 忠南時代를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선인이 「내일 나라가 亡하고 세상이 亡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國民들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치 않고 설사 생각했다 해도 實踐에 옮기지 못하면서 남이 하는 일, 남이 주장하는 일에 관심을 너무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이 내 탓이 아니고 政府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일의 責任을 다시 말씀드려 모든 일의 結果에 대한 責任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갖는다고

하며는 세상일중 삐뚤어 나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長官이 바뀌거나, 또는 上級責任者가 바뀌며는 내 위치가 달라지고 내 위치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저 長官은, 저 知事는, 저 市長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하는 느낌을 가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바뀌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화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長官이 나를 미워했던 것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인정해 주었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바뀌었으면 하고 느끼게 됩니까? 자기가 自己 責任을 다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待遇를 받고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더 좋은 자리로 가야되는데…, 내가 좀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努力과 熱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남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중 KBS事態를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안된다 하는 생각은 바로 이사람이 오게되면 내 責任을 다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낫게 만들어 주고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 이것처럼 비굴하고 無責任한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公職者들 가운데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나는 오늘 그것을 反省해 보고자 합니다.

이 知事가 바뀌었으면 내가 좀더 더 잘 될 수 있었을텐데, 또는 우리 課長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좀 더 評價를 잘 받을수 있었을텐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오늘의 문제는 國民 모두의 責任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우리 全體의 責任입니다. 다만, 政府를 대표하고 또 行政을 책임맡고 있는 우리 公務員들의 責任이 더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할 뿐 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權限이 없는 國民들 責任보다는 커야 됩니다.

우리는 民主主義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民主主義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무엇입니까? 經濟的인 安定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늘 우리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民主化를 외치면서 經濟 安定과 經濟 發展을 이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産業平和가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産業平和의 일선에서 地域責任·勞組에 대한 責任을 지면서 公職者가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民主主義를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産業平和의 現場에서 私製 박격포를 만들고 화염병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經濟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經濟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民主化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責任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農漁村의 어려운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어촌을 지키는 人才를 育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勤勞者들과 對話를 하고 또 勞使政 懇談會도 하고 함께 登山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紛爭의 要素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면서 그들과 흉금을 터놓고 對話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産業平和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可視的 努力을 사전에 豫防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네덜란드의 先覺者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확고한 信念과 姿勢, 이것을 우리 公職者가 갖추어야만이 나라가 危機에 처하지 않는다는데 認識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라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亡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이 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를 극복해 온 民族입니다.

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國民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도 더 슬기롭게 충분히 危機를 克服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텔레비젼등 言論報道를 보고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개탄을 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뒤로 미루어 놓는 公職者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環境이 어떻게 변하던 우리가 지켜야 될 이자리를 確實하게 지키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는 同僚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떠맡아서 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忠南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야될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信念과 實踐力과 行動力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忠南時代의 創造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손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命題입니다.

社會가 조금 흐트러지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위의 여건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로한 課題는 우리 힘으로 達成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責務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5월은 우리가 잘만하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산에는 신록이 우거지고 그리고 들에는 내일의 收穫을 가꾸는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오늘 할 일을 확실하게 오늘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 놓거나 또는 社會紀綱秩序가 어지럽다고해서 자기의 責務를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모쪼록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확실하게 우리의 任務를 完遂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言論機關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단편적으로 들은 얘기들에 쉽게 同調를 하거나 또는 우리 道民들을 만나거나 어떤 對話의 廣場에서 공직자로서 所信과 信念이 없는 말들을 쉽게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道民들에게 자칫 좌절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보다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을 갖고 言行을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스승 尊敬運動에 對하여 各級 學校長에게 보내는

1990년 5월 2일

書 翰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계절, 온 누리에 신의 가호가 충만한 이때 校長先生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敎育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2세교육과 인재양성의 일념으로 외길인생을 살아오신 校長선생님의 정성과 노고에 찬사를 드리며 그동안 地域社會 및 道政發展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급격한 産業化와 物質文明의 영향으로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미풍양속과 전통적 가치관이 점차 퇴색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옛부터 尊師愛弟라 하여 스승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제자를 아끼며 사랑하던 사제간의 숭고한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깝고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아쉬워 해왔던 도에서는 스승의 恩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지난 87년부터 스승 尊敬運動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이는 한 機關, 한 사람의 관심이나 한 때의 구호로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學校와 社會, 그리고 200만도민이 다함께 호응하고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의 靑少年들에게 건전한 국가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道德과 倫理를 숭상하는 기풍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와같은 運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덕망이 높으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승尊敬運動이 소망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정착이 되어 계속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校長先生님께서 하시는 일과 學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스승尊敬運動에 對하여 機關團體長에게 보내는

1990년 5월 2일

書 翰

싱그러운 5월의 신록이 대자연을 생명의 희열로 가득 채우는 계절.
평소 道政에 대한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입니다. 시대와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옛 스승에 대한 고마움과 恩惠는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感懷가 새롭고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면서 우리 모두가 숙연해지게 합니다.

"弟子는 일곱자 떨어져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스승을 존경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은 언제부터인가 그 빛이 바래져 버린 오늘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더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아쉽게 생각한 본도에서는 道德과 倫理를 존중하는 道民精神 발현으로 敎職者에 대한 사회적 尊敬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고자 스승께 問安便紙 보내기, 母校 및 恩師 찾아뵙기등 "스승尊敬運動"을 지난 '87년부터 汎道民運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은 어느 한단체의 일괄적인 행사나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家庭과 社會, 그리고 道民 모두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해 나갈때 비로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진 이 運動이 밝고 건전한 地域社會조성과 우리 忠南의 전통적

價値觀을 재정립하는 전 道民運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심은 물론 귀산하 任職員들에게도 同參을 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저희 道政에 적극 協調해 주신데 대하여 再三 感謝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 5월 3일

人 事

오랜만에 뵙게 되어 매우 반가웁고 아침일찍 나와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더우기 論山, 燕岐, 公州, 錦山에서 오신 會員 여러분,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이자리는 각급기관장, 민간단체, 지역유지 여러분과 함께 친교와 협력을 위해 서로돕고 여론을 수렴하며 부담없이 만나는 對話의 場입니다.

지난 83년 4월에 구성된 본 모임이 지난해 大田直轄市 분리이후 중단되었다가 다시 再開되었습니다.

지역 공조체제의 확립과 機關, 團體間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再開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사정상 다소 늦어졌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大田直轄市와 분리되여 30~50% 정도의 道勢가 弱化되면서 행정구역상 2개의 市道로 나누어지기는 했으나 汎忠南圈으로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지 雙頭馬車體制를 지속하면서, 漢江의 기적에 버금가는 錦江時代 창출에 미력하나마 200만 道民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전력해 왔습니다.

그 結果 精神的으로는 「無待接論」을 불식하여 道民意識을 轉換시켜가고 物量的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道勢가 회복되거나 또는 초과되었습니다. 人口는 '67 이후 최초로 反轉勢로 增加하였으며 財政規模는 1조원이 돌파되고 西海岸 高速道路는 忠南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공단면적도 62만평에서 1,184 만평으로 늘어났

고 공장수도 1,431개에서 2,142개로 711개가 더 많아졌고 지난 2월에 鷄龍出張所도 設置했습니다.

이제 90년대의 課題 국가적으로는 黨統合에 의한 안정과 발전의 정치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法秩序의 점진적 정착과 노사관계로 점차 안정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양보와 자제 화합과 노력의 국민적 共感帶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經濟發展과 서울올림픽 개최의 神話 再創造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집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道內的으로는 도세회복에서 道勢跳躍의 단계로 접어 들었고 이제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수행 국가안정과 발전의 中心道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지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제반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새로운 자세가 요구되는 時期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책임을 완수하며 最善을 다하는 姿勢가 중요합니다.

내일 世上이 망해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安定만이 나라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民主主義를 앞당기는 일은 各級機關의 주어진 권능과 責任하에서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한 가지라도 實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에는 4·28 李忠武公 탄신 445주년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大統領께서 참석하시어 본 행사를 빛내 주시고 道民에게 自矜心을 고취시키면서 忠武公의 깊은 뜻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받아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精神으로 繼承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4월 25일 서울에서 忠南출신 中央部處 5級 이상 公務員 招請 道政說明會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해 3월에 처음 개최한 후 이번이 3번째 실시하였는데, 당초에는 忠淸人의 소극성때문에 걱정했으나, 回數를 거듭할수록 盛況이어서 中央의 44개부처의 1,200명중 700여명이 참석하여 강한 愛鄕心을 확인하였고, 지난 해부터 구호로 내건 "새로운 忠南時代"의 確實한 실현가능성을 확인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겠지만 5월은 家庭의 달, 青少年의 달로서 여러가지 뜻깊은 행사가 거행될 것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成年의 날 등이 있어 삶의 보금자리인 家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敬老愛幼사상을 고취하면서 추진하는 青少年 善導에 여러 機關, 團體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經濟安定극복에 있어서도 지난 해 우리 經濟는 6.7% 성장으로 8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 '90년 1/4분기 경상수지도 10억 2천만 달러나 적자였습니다.

우리의 經濟成長과 서울올림픽 개최로 찬양받던 「아시아의 龍」 이 「지렁이」로 변하고 있다는 世界의 눈초리를 볼 수 있고 지난날의 보리고개를 잊은 채 자기몫 찾기에 혈안이 된 勞使紛糾, 過消費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부채질 했습니다.

함께 죽는길로 갈것인가 아니면 함께 사는 길을 열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실현과 과소비 억제 및 외제품 선호현상을 불식하는데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흐름이 首都圈 東南圈 중심에서 西海岸圈으로 전환되어 忠南은 희망과 도약의 實踐場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忠南時代를 향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계승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再開한 이 모임이 지역단위의 機關, 團體間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國家安定과 地域社會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家庭과 職場에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택시業體 代表 懇談會

1990년 5월 3일

人 事

꽃 香氣 그윽한 5월에 택시 業體 代表 여러분을 모시고 懇談會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도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우기 신호균 會長님은 택시 運送事業에도 불구하시고 道體育會 핸드볼 協會長으로 재임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도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은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試鍊의 時期입니다. 수출부진에 개방압력이 거세어지고 貿易赤字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도덕성이 상실되어가는 社會를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法의 날이 지난지 이틀이 되었습니다만 法秩序에 대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KBC, 現代重工業事態의 휴유증이라던지, 또 여러분과 직접 관계되는 택시 業體의 勞使紛糾도 작년에는 22건이나 되었고 금년 새해 들어서도 6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말뿐인 産業平和 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때입니다.

우리 國民 모두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國家 繁榮의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나만이라도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걱정하는 産業平和나 民生安定에 있어서도 택시業界에서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로 손님에게 친절하게 정성껏 奉仕하며 분규가 발생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도 底力도 충분히 있으며, 이 시련의 시기를 和合과 團結로서 발전과 도약의 充電時期로 삼아 여기계신 택시業界 代表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으로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더욱 道民의 사랑받는 業體로 택시業界가 성장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더욱 繁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 5월 3일

發 刊 辭

우리는 지난해 大田直轄市를 분리 승격시킴에 따라 현저한 도세의 약화를 경험한 바 있으나 우리道民과 公務員 모두는 이에 위축되지 않고 의지와 땀을 모아 착실하게 도세회복의 원년을 다져왔습니다.

1967년 이후 계속되어 온 인구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공단면적 규모에서 약 20배의 신장을 이루는 등 우리모두의 슬기와 정성어린 노력은 새로운 忠南時代를 향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忠南地域은 미개발된 풍부한 부존자원과 서해안시대의 前進基地로서의 유리한 입지조건등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2000년대의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開發의 中心地帶로 등장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개발의 가속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측면과 함께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엄청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며 環境保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토지투기를 근절시켜야 하며 開發利益이 特定人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분배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위와같이 문제들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한 忠南의 창출을 앞당기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발을 담당하는 公務員들의 미래를 투시하는 혜안과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며 道民과 내고장 을 위하는 확고한 개발의지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번 잘못된 개발은 200년 후에나 고칠 수 있다"는 교훈을 상기할 때 開發擔當公務員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야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開發擔當官室의 창설을 계기로 매월 발행되는 본 "開發情報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도내외 개발동향, 개발관련 주요논문, 법령의 변경 및 국내외 신기술등 개발담당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개발행정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임은 물론 忠南開發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관계직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연구로 더욱 알찬 내용을 게재하여 본 情報誌를 통해 충남개발의 방향이 모색되고 개발의 지혜를 함께 모으며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 5월 3일

激 勵 辭

오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汎道民運動 확산과, 北韓 同胞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촉구하기 위한 民族統一 忠淸南道 促進大會가 이처럼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자리를 빛내주신 孫在植 民族統一 中央協議會 議長님, 그리고 내빈여러분께 더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民族統一 忠南協議會는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확산시키면서 民族統一의 主導勢力으로 그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온 것을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난 2월부터 市郡을 순회하면서 民族統一 弘報講演會를 실시하므로써, 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홍보하고,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더욱 학고히 다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신 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民族統一 忠南協議會 가족여러분!

그리고 道民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도 국력이 신장되고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화의 과정을 세계속에 심으면서 우리의 위상을 확실히 해 오고 있습니

다.

이러한 바탕위에 최근 蘇聯과 東歐圈 國家의 변화는 韓國의 외교에 또 하나의 큰 轉機를 마련 하였습니다.

특히 東유럽 國家들의 체제변화와 우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외 정책 추진에 北韓은 큰 충격과 함께 매우 당황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蘇聯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성을 강조했던 東獨 호네커政權의 몰락에서 北韓의 주체사상은 그 행방을 잃게 되었으며, 피를 부른 혁명에 의하여 루마니아 차우세스쿠가 처형되면서, 北韓 김일성은 일말의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北韓도 어떠한 變化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를 거부하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는 물결을 거스를 수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우리와 모든 대화창구를 막아놓은채 빗장을 굳게 잠그고 부자세습 독재로 남조선혁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가 기다리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장은 北韓 住民들의 民主化의 눈과 귀를 봉쇄하겠지만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고,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려면 西方國家와의 協力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北韓을 對話의 場으로 끌어내는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이며 大統領께서 천명하신 "7.7宣言"에 입각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統一의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會員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일부 좌익단체나 민주화를 가장한 불순세력들이 北韓을 동조하며 찬양하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시점에서 분열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진다면 결국 北韓 김일성 집

단에 유리한 상황과 남침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세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東獨人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自由에 대한 열망과 政府에 대한 불신 그리고 西獨 사람들의 自然스럽고 잘사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충만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統一의 意志를 하나로 하여 이제는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아닌 和解와 協力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大會를 계기로 우리 民族統一 協議會 會員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自由 民主體制를 지키면서 민족전체의 화합과 번영을 이끄는 첨병으로서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앞당기는 견인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大會를 위하여 애쓰신 金炳卓 會長님과 會員여러분께 거듭 치하를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第68回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1990년 5월 5일

談 話 文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만들어 주신 어린이 날이 예순 여덟 번째가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싱그러운 5월에 저 푸르고 맑은 하늘처럼 티없이 자라나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더없는 축하와 가득한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보람이요,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의 새싹이면서 기둥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큰 자랑이며 참으로 소중한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보람되고 희망찬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남을 이해하고 함께 도와주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내가 맡은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차 이 고장과 나라를 이끌고 갈 내일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고장과 나라의 장래는 여러분이 가진 꿈에 의하여 결정되고 또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내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을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우리 어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가꾸는 데 정성을 다하고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것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티없는 모습과 순진무구한 세계에서 흔히 "어린이는 어른의 어버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어른들의 일상생활은 곧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사고와 행동으로 투영됩니다

사랑과 이해가 충만된 가정은 우리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을 가꾸는 모태입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가정과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밝고 명랑한 사회를 가꾸는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과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도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가꿔야 합니다.

또, 빛나는 우리전통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으로 보호되고 보살펴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오늘 뜻 깊은 어린이 날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꿈이 마음껏 펼쳐지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第68回 어린이날 記念式

1990년 5월 5일

記 念 辭

오늘 뜻깊은 예순 여덟번째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씩씩하고 健康하게 꿈을 가꾸며 자라나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무궁한 사랑과 祝福을 보냅니다.

5월의 푸른 하늘아래 기쁨으로 맞는 우리 새싹들의 잔치날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전 여러분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小坡 方定煥 선생님께서는 색동회를 만드시고 이땅의 아이들에게 "어린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 어른들께서는 日本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설움 속에서도 어린이 여러분에게 꿈과 希望을 심어주고, 勇氣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굳세고 슬기롭게 자라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루지 못한 祖国의 獨立을 찾아주기를 기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 家庭에서 더없는 보람이요, 우리 고장 未來의 希望이 되는 참으로 소중한 새싹들입니다.

그리고 世界속으로 뻗어 나가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내일의 主人公입니다.

여러분은 父母님과 선생님을 공경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世界 여러나라

어린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슬기로운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서 우리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멋지고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가꾸는데 精誠과 가득한 사랑으로 보살필 것입니다.

道民 여러분!

사랑과 信賴 가득찬 社會는 우리 家庭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더구나 우리어린이들은 올바르게 자라고 원대한 꿈을 갖도록 좋은 施設과 環境에서 사랑을 받으며 키워져야 합니다.

어린이가 禮節을 갖추고 秩序를 지키도록 자율적인 品性을 길러주어,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指導하고 해로운 사회환경으로 부터 保護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小坡 方定煥 先生님의 말처럼 "慈悲와 平等과 博愛와 歡喜와 幸福과 이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어린이들이 한없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社會에서는 아직도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한 어린이가 많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하게 자라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 한 구석에서 소외를 받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施設 어린이들과 少年少女 家長 世帶, 그리고 障碍를 가진 어린이들을 우리 모두 똑같이 보살피고 따뜻한 情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훈훈한 정과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칠때, 이 社會는 보다 밝고 환하게 꽃 필 것입니다.

아무쪼록 푸른 5월의 하늘처럼 어린이 여러분의 티없는 모습과 밝은 웃음이 우리고장 곳곳에 넘쳐 흐르고 보람찬 내일을 가꾸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希望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사준비에 애쓰신 關係者 여러분의 勞苦를 치하드리면서,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이 마음껏 펼쳐지고 기쁨과 祝福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第8回 어버이날 記念式

1990년 5월 8일

記 念 辭

친애하는 道民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크나큰 恩德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열여덟번째 맞이하는 어버이 날 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우리 200만 도민은 父母님의 하늘같은 恩惠를 헤아리고 소중한 우리 정신유산인 孝行思想을 더욱 선양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忠孝를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나라에 忠誠하고, 父母님을 받들며 가르침에 순종하는 倫理觀을 가정과 사회는 물론 治政의 근본으로 알고 父母 섬기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고 정성으로 모시면서 孝道를 하면 福을 많이 받고 잘 살게 된다고 믿어 왔습니다.

어진 아내요 자애로운 어머니인 申師任堂께서 江陵에서 서울가는 大關嶺 고개를 넘으면서 친정어머님을 향한 애절한 심정을 그린 思親詩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또한 白凡 金九先生께서는 50의 나이에도 어머님의 회초리를 맞으며, 어머님의 원기가 예전과 같지 못하여 늙어가심을 한탄하였다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 先賢

들의 그 깊은 孝心에 그저 탄복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풍양속인 敬老孝親의 가치관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人倫의 根本을 잃어버린 오늘의 세태는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孝道를 하는 것은 법률 이전의 天倫이요, 지식 이전의 人間의 道理라고 했습니다.

어버이의 뜻을 받들고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이념은 오늘날에 와서도 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우리는 시대와 생활의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삶의 가치에 맞는 효도의 방법을 새롭게 찾아내고 宣揚해 나가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좋은 음식과 옷, 그리고 좋은 거처를 마련해 드리거나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항상 관심을 갖고 가족의 작은 일까지도 상의드리면서, 和睦하고 훈훈한 가족의 情이 샘솟는 가운데, 자연스럽고 편안히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효를 관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작은 일에서 부터 찾고 또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道民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傳統 孝行의 脈을 재조명하고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윤리와 덕목을 되살리고자 道義 새마을 運動을 추진하고 실천하면서 傳統 뿌리찾기 運動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신유산으로 소중히 가꾸고 전승시켜온 敬老孝親 示範道의 명예를 지키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면서, 우리의 共感帶를 넓게 그리고 견고하게 다져나갈 計劃입니다.

이에 道民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어버이에 대한 孝心과 웃어른 恭敬의 귀감이 되어 표창을 받으시는 受賞者 여러분께 더없는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버이날이 오늘 하루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다함께 부모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孝行을 生活化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 父母의 뜻을 소중히 받드는 우리 고장의 傳統과 名譽를 더욱 드높여 가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의 恩惠는 높기가 山王과 같고 깊기는 大海와 같다는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지역에 효행이 충만된 道民 여러분의 實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幸運과 神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工藝品 競進大會 施賞式

1990년 5월 8일

人 事

오늘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成年의 해를 맞은 忠淸南道 工藝品 競進大會에 출품을 해주시고 그리고 명예로운 受賞을 받으신 출품자 **여러분께**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는 해를 거듭할 수록 출품자의 수도 늘어나고 또 作品의 數도 늘어나고 作品의 質도 높아지면서 作品의 量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빠른 속도로 工藝品의 發展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도 함께 갖습니다.

우리 忠淸南道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百濟의 찬란했던 문화를 계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우리 백제문화는 세계 사람들이 놀랄만큼 섬세하고 우아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섬세하면 속되기 쉽고 그리고 멋을 부리다가 보면 은은하고 우아한 맛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우리 先人들은 섬세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아하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文化를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동안 선인들이 가꾸어 놓은 **文化遺蹟을** 제대로 保存 관리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데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忠淸南道가 이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큰 반성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함께

하면서, 정부와 도에서는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公州와 扶餘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百濟 文化圈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정부예산이 10억원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예산을 투입을 해서 起工式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선인들이 남겨준 文化遺蹟을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는 일 등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工藝品 競進大會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계로 만들어 내는 共産品이나 또는 다량 생산해내는 그러한 製品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양적으로도 많은 생산을 하면서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제품이 우리 문화의 한 척도로서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예품 경진대회를 스무번째 개최를 했습니다만 단순한 觀光 商品開發이나 또는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을 가지고 본 競進大會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정성과 혼이 함께 들어간 작품을 만들어 내서 우리의 文化의 質을 한층더 높이고 또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제품을 알려 주므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工藝品 競進大會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행히 참가하는 우리 출품자들이 더 많아지고 製品의 量과 質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것은 그러한 우리 선인들의 얼을 가지고 뜻을 살리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뒷받침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면에서 우리가 더욱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百濟圈 開發 事業을 추진하면서 우리지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제품 우리지역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제품 그리고 우리 忠淸南道 사람의 손과 생각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제품을 더욱 많이 발굴해 내서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受賞하신 출품자 중심으로 더욱 精進함으로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商品을 남겨 주는데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함께 참석해주신 양준호 **천안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하신 각급 후원기관과 단체에서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행정이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신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러한 競進大會를 통해서 1년동안의 노력의 결정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 노력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과정중에서도 우리 商工會議所나 일반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것을 부탁드려 마지 안습니다.

모쪼록 우리 忠淸南道 工藝品 競進大會가 앞으로 지방대회에서의 차원높은 작품의 출품과 함께 全國大會에서 優勝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더 좋은 작품을 낼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과 격려를 함께 당부 드리면서 오늘 수상하신 出品者 여러분께 거듭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5월 9일

머 리 글

일찌기 우리 선조들께서는 스승이 가르쳐 주신 은혜를 부모님 못지않게 섬기고 우리 社會에서도 스승의 고마움은 모두의 恭敬을 받아왔습니다.

더우기 우리 忠南은 忠節과 선비의 고장으로 스승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섬겨왔으며 수많은 先賢과 人物을 배출시킨 빛나는 敎育의 고장으로 傳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와 물질문명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소홀해지고 스승에 대한 恩惠에 감사하고 尊敬하는 마음도 점점 바래져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본도에서는 尊師愛弟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지난 '87년부터 스승尊敬運動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는 평생을 몸바쳐 2세 敎育을 담당하신 선생님과 제자사이의 사랑과 존경이 오고가는 교육분위기에서 道德과 倫理가 충만되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道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제간의 공경심과 애정이담긴 美談과 書信을 한데모아 冊子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선생님들께서 택하신 師道의 길에 다소나마 위안과 용기를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倫理와 德目을 되찾고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百濟文化財 研究所 開所

1990년 5월 9일

致 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忠淸南道의 200만 도민과 그리고 특히 扶餘 郡民 모두가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가장 바람직한 政府機關을 맞는 날입니다.

中央政府機關이 우리 忠淸南道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가 생긴지 45년만에 우리 도민이 모두 함께 환영하면서 그리고 큰 기대와 박수를 보내면서 맞는 중앙정부의 지방기관은 아마 이 百濟 文化財硏究所가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百濟人의 후예로 자처하고 그리고 百濟文化가 우리충남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文化遺産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일구어 내고 보존하며 계승시키는데 소홀히 해 왔으며,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소홀히 해 왔다기 보다는 힘이 부족해서 못해 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제6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후에 특히 百濟文化再現을 위한 백제권 개발사업이 가장 중요한 정부시책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오늘 백제 문화재연구소가 개소되어 硏究活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로서도 물론 잘된 일이지만 우리 온 국민이 모두 다행스럽게 생각하여야 할, 그리고 특히 환영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百濟의 歷史를 뒤돌아 보면서 많은 敎訓을 얻습니다.

三國史記에 新羅의 얘기가 百濟의 역사적 사실 보다는 3배 정도가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패망한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기에서 교훈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가 신라 문화 보다 더 우아하고 섬세 하다는 것은 일본에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후예인 우리가 그러한 文化的 遺産을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강인한 의지를 다져 봅니다.

우리 忠淸南道가 忠節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만은 이것은 우리가 걸어온 역사적 敎訓에서 우리 스스로 터득해 온 결과이며 하나의 事實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開所를 한** 百濟文化財硏究所는 독자적인 연구를 한 실적이라든지 또 그런 배경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시설과 여건을 안고 開所를 했지만 우리 200만 도민이 여기에 거는 기대는 외형적인 것 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큰 기대를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재훈 문화재관리 국장께서 와 계십니다만, 文化部가 創設된 이래로 우리 文化財의 발굴, 보존, 계승 사업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그 태동으로 백제 문화재연구소를 만들어서 百濟 文化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큰 業績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재연구소의 최무장 박사님은 불란서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建國大學에서 현직 敎授로 계시면서 이 시골 扶餘에 오셔서 조그만 硏究所의 所長 직책을 기꺼이 받아 들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해오지 못했던 百濟 文化 硏究와 發掘事業을 맡아 주신데 대하여 우리는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열의와 능력을 갖춘 사람은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0만 도민은 기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큰 성원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우리 扶餘地方에서 文化를 사랑하시는 郡民 여러분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각오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백제 문화를 사랑해 주시고 百濟圈 文化開發事業에 한 삽의 흙을 보태는 열의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근에 이곳 부여에서는 韓南大學校로 넘어간 文化財를 되찾기 위한 군민 모두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의 뜻을 모아서 百濟 文化를 保存하고 管理하는데 쏟는 하나의 정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모쪼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역사 속에 잘못 투영된 백제문화를 原狀으로 回復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의 자랑스런 모습을 재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진력 할 것을 다짐하는 바 입니다.

文化部에서 이런 백제 문화재 연구소를 저희 지역에 만들어 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리고, 또한 개인적인 희생을 무릎쓰고 研究所를 맡아 주신 최무장 박사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부와 최무장 소장님께 거는 이 기대와 사연을 함께 담아서 이분들께 뜨러운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치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大然 白明基 教授 回甲 記念 論文集 發刊

1990년 5월 13일

祝 辭

푸른 5월의 싱그러움이 더욱 짙어져 가는 계절에 大然 白明基教授께서 回甲을 맞이하여 紀念 論文集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教授님께서는 지난 40여 星霜을 優秀 體育人을 養成하시면서 우리고장 체육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忠南體育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忠南體育이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도약하고자 하는 차제에 우리 忠南體育會을 이끌고 짊어져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과 맡은바 소임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평소 연구하며 실천하여 오신 哲學과 집념어린 意志가 담긴 본 論文集이 우리 地域 體育發展과 나아가 國民體育增進에 기여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스포츠를 통한 道民의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와 후진 양성에 힘쓰면서 忠南體育의 基盤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主導的 役割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앞날의 더 큰 榮光을 기원합니다.

스승의 날

1990년 5월 15일

祝　　辭

오늘 白承鐸 敎育監님을 비롯한 우리 고장의 敎育家族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아홉번째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 記念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2세 교육과 인재양성의 일념으로 平生을 몸바쳐 오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感謝와 敬意를 표하면서 아울러 영광의 受賞을 받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교육이나 스승의 길이란 내일의 社會와 國家의 國運이 걸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어떤 理想이나 德目보다 높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이든지 여러가지 發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발달되고 힘의 균형을 이룰때, 그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敎育이며 이 사회를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敎育을 통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폭을 넓혀 주면서, 人材를 養成하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도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민족의 수난기를 겪으며 가난을 이겨내면서, 너나 할 것없이 깨우치고 배우고자 했던 기억을 합니다.

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열악했던 敎育環境에도 사람을 만들고 人材를 키우

는데 온힘과 정열을 쏟고 그 뜻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國力이 伸張되고 高度成長을 구가하게 된 밑바탕이 되었슴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절실하고 소중했던 우리 敎育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發展과 成長에 걸맞는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先生님에 대한 예우를 해 주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해진 산업사회, 여과없이 밀려오는 물질문명 속에서 우리는 스승에 대한 恩惠에 감사하고 報答하며 존경해 왔던 풍토가 잊혀져 가는 가운데 2세 敎育에 獻身하고 계시는 先生님들도 의욕은 있으되 보람이 없는 오늘의 敎育環境을 아쉬움과 함께 안타까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믿고 정을 나누는 밝고 明朗한 社會, 그리고 스승과 제자간에 사랑과 尊敬이 오고가는 아름다운 傳統을 이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는 "汎道民 스승 尊敬運動"과 "道義 새마을運動"을 特殊施策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언젠가는 꼭 그것이 절실해지고 공감대를 이루며 모두가 行動하고 實踐하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 敎職에 계시는 先生님께서도 더욱 소중하게 인식하시고 이끌고 先導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스승의 날이 先生님들께서 택하신 외롭고 험난한 師道의 길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勇氣와 希望이 샘솟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더욱 精進해 주시고 앞날의 큰 榮光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恩師의 밤

1990년 5월 15일

人　　事

오늘 참으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지역에 살고 계시는 각계 각층의 弟子들과 평소에 존경하는 先生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늘 생각은 합니다만 정월 초하루가 12월31일과 다른 것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위해서 지난 1년을 회고 하고 새로운 한해를 計劃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선생님의 恩惠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선생님께 한번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人事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제자들이 스승의 날에 그동안 못했던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뜻을 다시 되새기고 앞으로 1년동안 선생님 감사하게 또 지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러한 날을 마련하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가장 존경하는 존칭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에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백발이 성성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大學校 總長님으로부터 아직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계 각층의 제자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세태가 많이 변해서 옛날 같으면 선생님의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는 社會이지마는 아마도 모두의 가슴속에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염원이 함께 어우려져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도 강요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강제한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모두 함께 연락을 드리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倫理學者들의 모임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32년전에 저를 가르쳐 주시고 擔任해 주셨던 先生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졸업한 뒤에 사모님을 함께 모시면서 그동안 찾아 뵙지도 못하고 연락조하 드리지 못했던 죄를 오늘 하루에 다 씻을 수는 없지마는 선생님께 제가 늘 선생님의 고마운 뜻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늘 선생님께 저희들을 선생님댁에 불러주시고 사모님께서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나와라 똑딱하면 금도 나오고 은나와라 똑딱하면 은도 나오는 그런 방망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손은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을 만드는 손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시는 손 이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을 만드신 손 이십니다.

대학교 총장님, 교육감님, 신문사 사장님 그리고 기술자, 서예가, 문학가, 모든 분야의 사람을 만드신 손입니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손은 없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가 함께 이러한 선생님들의 은혜를 1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느끼

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師恩의 便紙와 美談佳話에 대한 公募를 했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200건이 안되는 應募者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000건에 가까운 응모자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유리알 같은 美談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메말라 가는 사회에 새로운 정과 그리고 우리에 道德倫理를 되살리는 그러한 미담가화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조그마한 책자로 발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가지 뜻을 담아서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참여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스승존경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忠淸南道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에 큰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다시 일으켜야 될 생각이고 당연히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날이가고 해가가면은 큰 성과가 다시 되살아 나서 君師父 일체의 옛 우리에 道德과 倫理가 되살아 나고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가득히 퍼져서 자칫 잘못되어 가고 있는 唯我獨尊的 思考나 선생님을 외면하면서 내가 스스로 잘된것 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한 생각이 사그러들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社會를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렵고 외로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오직 한길을 걸어오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 제자의 얼굴을 보시면서 지난날의 어렵고 괴로웠던 일들을 머리에서 잠시나마 잊으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없는 榮光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과 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노력이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져 師道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더 빨리 이룩되기를 기원하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빌어 마지 안습니다.

감사합니다.

學校長 招請 懇談會

1990년 5월 16일

人 事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洪城, 青陽, 禮山地域의 校長선생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이와같이 저희가 저희 편의대로 한자리에 모이시도록 한 것이 오히려 번거로움을 드린것 같아서 송구스런 인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특히 바쁘신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白承鐸 敎育감님께 감사의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30년, 40년을 오직 사도의 외길로 인생을 지내오시면서 그동안 우리 후학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를 확립하시는데 정열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저도 先親께저 敎育界에 계셨기 때문에 敎育者 一生이 어떠한 것인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히 일선 교육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것은 저희가 굳이 스승尊敬運動을 벌이는 일환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일일이 전할 수 없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때문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사의 뜻을 이런식으로나마 단편적으로 전달해 올리는 것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慰勞의 뜻이 전달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物質萬能主義의 사고라고 합니다만 우리 國家經濟가 급속히 발전되는 그

뒤안에는 정신적인 쇠퇴라고 할까 타락이라고 할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위기의 상황 또는 난국의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저는 危機나 難局이라는 표현에 대해 옳치못한 느낌을 갖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입장을 난국이라 표현한다든지 또는 자기집을 다른 집보다 못하다고 표현한다면 결국은 남들이 우리를 난국이라고 보고 우리집은 다른 집보다 못하게 評價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겠다는 굳은 意志와 해결해 낼 수 있다는 信念을 가지고 정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난국이니 위기니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스스로를 표면화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 과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고 먹고 살고 잘 지낼 수 있음에도 겪는 어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신적으로 조금만 더 새로운 생각을 갖는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敎育으로부터 비롯된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러한 사제관계가 전체사회의 분위기를 아주 옳고 바르게 이끌어 왔던 시대의 師弟關係는, 오늘날 제자가 스승의 머리를 깍을 수 있는 상황으로 까지 변모해오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校長선생님을 모시는 이 자리는 우리 200만 도민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선생님들의 지난날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師弟間의 옳은 관계를 定立을 하고 선생님에 대한 尊敬과 사랑의 정을 되 살리는 그러한 運動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 하루의 행사 또는 단 2~3시간의 만남이 그러한 뜻을 전달하고 확립하기에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되고 빌미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스승에 길을 더 옳고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方向으로 精進을 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의 문제가 더쉽게 해결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 敎育이 가고 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忠南道에서 스승尊敬運動 일환으로 편지쓰기, 선생님 찾아뵙기, 은사 초청하기등 여러가지 일들을 해 보았습니다.

87년부터 스승존경운동을 펴왔습니다만 작년에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공모에 200통도 채 않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0여통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1만통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2만통, 3만통, 10만통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옛 師弟關係가 되살아나는 날이 확실히 닥아 올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길이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論山에서 출생하신 윤 증 선생님은 재상의 자리, 나라에서 주시는 大提學의 자리도 마다하시면서 내가 후학을 가르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나아가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내가 후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라의 재상일을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일이지마는 내가 맡은 가르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감께서 부르셔도 저는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교장선생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그러한 생각의 일념으로 오직 외길을 걸어 오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최근에 젊은 선생님들께서 참교육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정말로 참선생님에 師表가 되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참 교육 이전에 참 스승상을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선생님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냐 하는 그러한 信念과 姿勢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도 저희 다음 세대의 선생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제자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해오셨던 尊師愛弟의 사제관계가 다시 되 살아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선생님들께서 師道의 확립과 그리고 새로운 倫理, 道德이 시대에 맞게 확립이 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사도의 길을 확립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저희 도가 그동안 道政을 수행해 오면서 여러가지로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의 말씀조차 못했던 지난 2년여동안의 道政遂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침 스승의 날이고 해서 선생님들 정말로 그동안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도정을 도와 주시는데도 앞장을 서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저희 道政에 관한 스라이드 報告를 드린후 오찬을 함께 하시면서 懇談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고져 합니다.

거듭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시게 한데 대해서 송구수런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5월 16일

訓 示

먼저 오늘 갑자기 會議를 召集하고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大田까지 오도록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道政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地域 責任行政을 맡아온 市長·郡守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副知事 이하 局長들께서 大統領 閣下의 特別 對談 內容이라든지 長官 記者會見 實踐計劃과 또 당면한 國·道政遂行을 위한 弘報등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전부 외워서 기억해 달라는 뜻으로 指示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國政이 대단히 어렵고 긴장된 가운데 運營이 되고 있는 現實에 대한 理解를 먼저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現實과 實體에 대한 感覺과 理解가 부족한 관계로 또 이런 방법을 하는가, 方法이 이것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 公務員중에도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內務公務員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0년대초의 狀況을 한번 비교하고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판단되면 그 마지막 카드가 公職 姿勢의 確立, 그리고 공직자의 직무와 자기책임의 완수등 公職紀綱 確立으로 귀결되어 왔습니다.

물론 國家의 安危와 장래에 대한 責任은 나라의 主人인 국민전체가 지어야겠지만 실제는 國民이 그 責任을 질 수도 없고 또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고 특히 內務公務員이 責任을 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지막 카드를 내놓을 수 밖에 없는 狀況이라는 認識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方法에 있어서 "또 이것밖에 없는가"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共感하고 認識하고 들어가야만 당면한 問題 解決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초 經濟危機때의 狀況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율이 -3.8% 물가상승율이 40%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國際收支 赤字가 50억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經濟危機를 딛고서 85년부터 연속 3년동안 연 12%이상의 경이적인 經濟成長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와같은 經濟 成長은 後進國에서 中進國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중진국에서 先進國으로 進入때에는 연 12%의 성장을 그것도 3년 연속 이루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지금 우리 經濟가 危機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 확실히 鈍化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成長이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금년도 上半期 經濟成長은 7.5%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금년도 物價가 4.7%올랐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자리 숫자이며 현재 그 이하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經濟 現實에서 가장 큰 問題는 지난 80년초에 없었던 不動産 投機 過熱과 不動産 價格의 暴騰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運行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건실한 우리 국민과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국민의 一體感을 헤치는 主犯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전력 투구해야하며 大統領께서도 不動産 投機를 꼭 잡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하셨느냐하면 바로 이와같은 理由때문입니다.

이와같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막연히 이에 따른다는 식의 무사안일 適當 主義 行政은 단호히 排擊해야 합니다.

지난번 青陽郡守가 토지신고허가한 것을 일일이 체크하니까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市長·郡守가 이와같은 意志와 所信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大田市長으로 있을때 屯山地區의 땅값이 오르고 投機가 일어나자 "大田市가 전 토지를 매수해서 全面 公營開發 하겠다"고, 中央新聞에서 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일부 言論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성립되었던 10건의 거래가 곧 바로 취소되었고 지금 公營開發方式으로 開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市長·郡守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틀림없이 不動産 投機는 사라지게 된다는 實證입니다.

오늘과 관련하여 자꾸 80년대를 비교하는데, 문제는 80년대 위기는 대외적인 危機를 대내적으로 克服했다는 사실입니다.

原油 價格이 배럴당 12$에서 36$로 3배나 뛰어오르고, 그에 따른 國際 原資材값이 상승했던 기억을 합니다.

景氣가 급격히 後退하는 중에도 우리는 일사불란한 對內 結束를 통해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그러한 結束의 힘으로 3년 연속 높은 경제 성장율을 이루고 國際

收支 黑字를 실현해 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과 저력이 있으며 또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대외적인 危機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好轉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東歐圈市場이 우리에게 開放되어 있으며, 소련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經濟 改革, 그리고 中東市場의 여건이 改善되었습니다.

적어도 理念紛爭에 의한 대외적 經濟要件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危機라고 하는가?

對內的으로 한쪽에서는 投機가 만연되고 있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勞使紛糾와 理念鬪爭이 그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克服하는 것은 지난 80년대초와 88올림픽 당시 보여주었던 일사불란한 對內 結束을 確立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5共和國처럼 힘에 의한 行政權이나 統治權 確立을 추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大統領께서는 정치적인 3黨統合을 이룩하시어 원활한 國政運營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公務員들의 확고한 對內 結束을 통해서 이러한 危機를 克服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大統領 特別對談에 담겨져 있는 어려움 극복의 기본적인 내용을 나는 이와 같은 視覺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市長·郡守들께서도 또 옛날에 있었던 공무원 기강확립이냐,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말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公職紀綱을 確立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勞使間의 關係를 정상화 시키겠다 하는것이 뒤에 숨겨져 있는 위기 극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리고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論山에서 12년만에 移動 道廳 성격의 移動爲民室 運營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목표로 했던것하고 느낀것을 몇가지 말씀 드리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對應方法을 講究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奉仕行政과 듣는 對話行政을 얘기해오고 있지만,

民主主義의 實現을 위하여는 첫째 經濟가 安定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公務員이 듣는 자세의 對話行政이 定着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나는 부임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해 오면서 또한 기회있을 때마다 奉仕行政과 주위의 이야기를 듣는 對話行政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민실 운영에서 公職者의 水準과 住民이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差異가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公務員은 市長의 수준 또 과장이면 課長, 결국 공무원의 수준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住民들의 생각과는 큰 視覺差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세민을 격려해 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동안 住民들하고 對話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영세민은 가지도 않고 떠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기 처지가 아주 어려운데 대한 설움에서 눈물이 나왔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理解하고 激勵해 준 고마운 뜻에서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세민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더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住民水準의 두가지 差異입니다.

우리 行政은 이 두가지 측면을 收容하면서 對處해야 합니다.

더 달라고 하는 사람보고 핀잔을 주어서 박절하게 거절할 수는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인간의 양면성을 體驗하면서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여러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얼굴에 표정도 안나타나고 웃지도 않으며 말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가슴속에는 뜨거운 피가 용솟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사람은 겉으로는 상냥하고 밝은 웃음이 있는대신 속에는 차가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겉으로는 住民들에 親切하고 속에서도 뜨거운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람의 성격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샘솟을 수 있는 자신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水準에 맞춰 그 바램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 내가 이번에 첫번째 느낀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職務 遂行을 하는데 있어서 절실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論山에서 都市計劃 얘기가 나왔는데 면단위 自然 緑地地域 가운데에다 구멍뚫듯이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이게 住居地域입니다 하고 표시를 하면 혹시 特惠가 아니냐는등 당장 반발이 나올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십대에 걸쳐 자연 녹지지역내의 기준 면적 180평에 미달하는 땅을 갖고 살아오는 주민들은 평생 자기 집 한번 고치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말 理解가 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特例規定을 둔다든지, 法에 規定이 없으면 법개정을 建議한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都市計劃을 변경할때 集團 住居地域은 용도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해 주어야 할 것이며 行政便宜로 막아 놔서는 안됩니다.

또한 農工團地 주변에 高速道路나 國道可視地域은 住宅 建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公營開發이라든지 일단의 宅地開發을 하여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예를 보아도 우리 생각은 너무 경직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면 서도 이런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 公務員들의 思考方式을 轉換하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진적도 없었습니다.

自然緑地를 변경하거나 農工團地 住宅問題는 知事에게 建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市長·郡守 또는 面長이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듣는 姿勢가 절실하고도 안타까운 생각을 갖지 않고 형식적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

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느낀점은 우리 公職者는 住民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權利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님을 재삼 느꼈습니다.

오히려 住民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주민들을 尊重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權利를 찾아주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번 爲民室運營을 하면서 公務員들에 대한 敎育的인 의미가 훨씬 더 컷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郡守이하 모든 公務員들이 나와 같이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그날 하루는 허송세월을 보낸것이나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課題중의 또 하나는 「生活의 質」 향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를들면 都市地域이면 도로포장을 또는 奧地地域이면 사리부설, 그밖에도 버스증차에 대한 요구등 전연 안되는 일이 아닌 生活의 質을 어떻게 던지 높여 달라는 욕구였습니다.

이러한 慾求를 우리가 充足시켜주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住民들의 불평불만이 누적이 되고 表出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하고 쉬운 일부터 社會紀綱과 秩序가 정착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나는 地方 行政을 하면서 路上적치물을 제거하고 路上 駐車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로를 개설하는 편이 훨씬 쉬운 일이라고 봅니다.

실예로 자전거를 노상에 내놓지 말것을 市長이 지시하고 시행이 안되면 동장 問責한다고 하니까 市長이 시내 한곳을 지나가면 자전거가 거짓말같이 없어집니다.

그런대 2-3일 지나서 市長 혼자 가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 露店商을 어느 특정지역에다 指定해 놓고 옮겨 놓으면 거리는 일시적으로 노점상은 없어지고 깨끗해 집니다.

얼마지나다 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씩 둘씩 또 생깁니다. 결국 特定地域 露店商 거리만 하나 더 생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마는 악순환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쉽지 않은 일을 장관께서는 우리에게 평범하고 쉬운일로 指示하셨는데 道知事를 하셨던 長官님이 이 어려움을 모르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지시를 하셨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秩序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또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外國에서는 不法駐車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體罰을 하고 있고 또 法이 강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TV화면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示範 街路를 조성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시군별로 示範街路 하나만이라도 造成하고자 그랬던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市單位는 몰라도 邑單位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km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500m라도 강력히 시행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상습적인 不法 駐車를 하고 밤에 가로에도 세워놓는 自動車가 問題입니다. 이러한 야간불법 주차 차량을 集中團束을 하면서 開發利益 환수를 통하여 얻어진 基金으로 헌집이든 골목 한 공간이든 駐車場을 造成한다든지 해서 의지를 가지고 밤에 駐車하는것을 어떻게든지 완전히 없애 보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비장한 각오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노상의 적치물을 없애고 不法駐車를 根絶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 7월이후 우리는 法秩序 確立을 위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그게 좀 안됐던 것은 역시 우리 公務員과 住民과의 수준차이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水準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주민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위에서 指示한 것을 할 수 없이 할려고 하면 애당초

시작하지 말것이며 그 다음에 도저히 안되는 일이다 판단되어도 始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非常한 覺悟가 있을때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特出한 아이디어(idea)가 떠 오르게 될 것입니다.

道幹部들도 일선에 市長·郡守가 있지 않는냐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일선의 責任者라 하는 인식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指示事項을 보면 막연한 지시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었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方針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法秩序 確立하여라 露店商 團束하여라 하니까 市長·郡守들께서 아무도 서류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지시는 막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니 듣고 적을 필요성이 없는것은 당연한 理致입니다.

그러나 方針이라도 주면 듣고 기록하면 느끼게 되고 消化하여 다시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며, 또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豫防行政이란 것이 부가적인 業務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챙기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중에는 오늘 내가 얘기한 것을 절실한 것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실한 마음 가짐으로 아래 사람이 미처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開發하여 되는 方向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知事에게 결심해 달라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실무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檢討를 하고 가급적 되는 方向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市長·郡守들께서 각 室課長들 그리고 邑面洞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 같으면 저렇게 할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市長·郡守는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야 합니다.

우리 市長·郡守들께서는 지금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늘어지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인식하시고 아주 중대한 시행착오가 아니라면 여러가지 필요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對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大統領께서 경제난국, 경제위기 또 총체적 難局이니 하는 이런 얘기를 쓰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는 外國新聞이나 放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의의 視線이 바뀌어 오히려 우리가 들어도 불쾌한 표현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家庭에서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비하하고 험담을 하는 것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尊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습게 보게 됩니다.

孝道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父母한테 잘한다는 것, 정말 어렵고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 생각하는 것만큼 효도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孝子, 孝婦 表彰을 많이 해 줍니다만 오히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危機라고 또 難局이라고 부추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위기 또는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道도 「忠南 無秩序」가 무슨 자랑거리처럼 얘기하면 남들은 충남은 안줘도 되는 道이구나 하는 인식만 심어 주게 됩니다.

우리 道를 評價切下하고 嫌惡하며 스스로 낮추는 愚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 입니다.

우는 아기 젖 한번 더 준다고 했습니다. 평소 우리가 中央部處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道의 與件을 피알(P.R)도 하고 일사불란한 推進體系를 갖추게 되면 우리도 充分한 待遇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國道政 弘報를 하는데 있어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弘報를 하는데 「억지로 떠먹이는 식」의 일방적인 注入式 弘報方法은 이

제 낡고 최하위의 弘報方式이라고 봅니다.

은유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상대방이 실감나게 "아! 이것이 國政이구나! 이것이 道政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도록 하여야 합니다.

같은 大統領指示말씀을 전달하더라도 "지시사항 잘 외우시오, 실천계획 추진하시오, 직원교육 시키시오"하는 이런 指示事項은 제대로 전달될리가 없습니다.

大統領께서 왜 이런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왜 실천에 옮겨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消化하여 유효한 機會에 적절한 표현방법으로 對話하고 전달하여야 그 效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좋은 表現方法과 方案이 있으면 다른 市郡에도 전파를 해 주시고 사실 나에게도 指揮報告를 이런것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얘기 할 기회에 효과적인 國道政 弘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때와 場所와 對象을 생각하고 弘報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때나 아무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하게되면 그건 홍보가 아니라 國道政을 그릇되게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금은 지나친 얘기 같지만 가끔은 眞實과 善意의 거짓을 섞어서 弘報하는 것도 재미도 있고 효과가 더 클것 같습니다.

洪城郡廳뒤에 동헌이 있고 그곳에 庭園이 있는데 언젠가 洪城郡守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정원 연못에 있는 수백년이 된 버드나무가 있는데 정자도 옆에 있고 해서 여기에다 전설을 하나 써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옛날에 아무개 왕 ○○원님 시절에 밤마다 잉어가 사람으로 변하여 나무에 올라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는다는 전설이 있다는 식으로 만들고 꾸며서 적어 붙여 놓으면 그것이 한사람, 두사람 건너 "옛날에 잉어가 놀던 나무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가끔 善意의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國道政 弘報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觀光地 호텔이나 여관에는 有線放送이 設置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텔이나 여관의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변의 觀光地 같은 곳도 紹介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관광코스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많은 硏究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업무는 밤이나 낮이나 자꾸 챙기고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扶餘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에 韓國語와 英語만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公州나 扶餘는 日本人 **觀光客**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아마도 史蹟地 표지판 이외에는 다른 안내 표지판을 못붙이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왜 日本語 表記를 못하게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山林廳과 같이 도립공원내에 休養林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은 뜻입니다.

休養林은 住民을 보다 많이 이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山林廳에서 道立公園에 만들게 해달라고 부탁하여야 할 처지인데도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판 문제도 文化部와 협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하면서 나보다 **경험** 많으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내가 엊그제 論山郡 장구리에 있는 윤 증선생 고택을 방문한적이 있어 그곳에서 들은 윤 증선생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에 이를 引用하는 것으로 내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윤 증선생께서는 임금님께서 대사헌을 맡아 달라고 하시니 이를 사양하셨습니다.

그럼 정승을 맡아달라고 제수하시니 이도 한사코 마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님께 辯을 하기를 "내가 後學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학들을 가르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정승이나 대사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後學을 가르치는 일은 나보다 더 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公務員들은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時點에서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지시고 당면한 업무를 좀더 치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郡守들께서도 오늘 지시된 사항에 살과 내용을 붙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산하 공무원들이 확실히 인식되도록 철저히 敎育을 꼭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5월 17일

激 勵 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게 참석한 것만 해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인데 또 壇에 나와서 人事까지 여쭐수 있는 機會를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中小企業人의 밤에 저의 道와 市의 各級 機關長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對話를 할 수 있는 機會가 되었습니다만은 마침 사랑의 쌀 나누기 運動을 展開하는 모임에 또 많은 機關長들께서 참석하시고 그 모임 또한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나오게 된 것이 결례인줄 알면서도 人事를 여쭐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와같은 모임을 갖게된 여러가지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 존경받기도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權限을 行事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진것이 늘 부족하게 생각이 되어서 더 많은것을 갖기를 希望을 합니다.

요즘 社會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들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것을 남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고, 내가 남에게 존경받기 보다는 남을 尊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權限을 行使하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責任을 스스로 하고자 하고, 나보다는 오히려 남을 위하는 생각들이 앞선다면 아마도 요즘의 어려운 問題들이 쉽게 解決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어제 저희도 市長·郡守들과 함께 모여서 최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忠淸南道에서는 앞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자주 쓰지 말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때 忠南 無待接이라는 얘기를 우리 公務員들이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지금은 누구도 충남 무대접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접받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일을 충분히 해내면 되는것을 자기 할일은 하지 않고, 남이 무엇을 안준다고 늘 불평을 하는 無待接論,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속성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解決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남이 무엇을 해 주어야 한다, 政府가 무엇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모든 잘못이 政府에 있는것처럼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몸담고 있는 公職者 스스로가 이러한 危機 또는 어려움에 대한 말을 하지말고,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方法을 講究하자 이렇게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을 20수년하면서 어느 한 해도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中小 企業人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한 해고 中小 企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늘 中小企業 振興 政策이 추진되어 왔고, 그러면서도 매년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과거보다고 더 어려운것이 아니고, 더 잘되기 위한 몸부림 또는 노력의 어려움이라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經濟의 成長率은 마이너스 3.8%, 우리 國際收支는 100억$ 이상 赤字를 내었고, 그리고 物價 騰貴率은 연간 40%가 넘었습니다. 沙北事態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충분히 그 어려움을 克服해 나왔고,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라든지, 難局이라든지, 총체적難局 이런 얘기 해본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안했어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克服해 나왔습니다. 최근의 여러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經濟도 나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경제도 지난 1/4분기 동안에 7%정도 成長했고, 物價騰貴도 4% 內外입니다. 그리고 沙北 事態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勞使 現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제한된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할 일을 해 나가고 옆에서 누가 떠들던지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앞길에 장애가 되는 얘기를 한든지간에 그것을 극복해 내고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能力을 최대한도로 發揮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어려움을 克服해 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中國의 유명한 思想家이며, 哲學家였던 梁啓超 先生이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을 못하게 하고 남이 잘한것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비웃고 꼬집고 그리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때문에 中國이 망해가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傍觀者를 꾸짖노라"하는 그러한 글에서 우리는 역역히 읽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社會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傍觀者가 되지 않고 자기의 해야할 일을 해내는 적극적인 社會人, 또 愛國人이 되는 것이며, 그러면 작금과 같은 약간의 어려움은 충분히 克服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우리 南洋 機工의 孫社長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걸 들었습니다.

日本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忠淸南道는 農産物 輸出 相談所를 만들어 놓고 몇 개월 지났는데 뭐 하는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新聞에서 더러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農産物 輸入을 開

放해서 수입을 하는 것을 問題삼지 말고, 어떻게 對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우리것을 輸出하면 될것아니냐,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말레이지아 王子도 저희 禮山에 다녀갔습니다만, 輸出相談所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나와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매년 政府는 中小企業 振興施策을 쓰고 있으며, 商工部 中小企業局長이 나와계십니다만은 내년에도 똑같은 中小企業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呼訴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것을 늘 알게 되고 그 어려운것을 극복하는 것은 政府나 또는 남이 나를 도와줘서 克服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하는 그러한 覺悟와 또 對應 能力을 기르는데서 극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政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쉽게 옆에서 거들어 줄 수 있는 役割밖에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시면 쉽게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잘 이루어 지고, 특히 우리 忠淸南道와 大田直轄市에 계신 中小企業하시는 여러분께서 더 많은 돈을 버시고 더 빨리 企業을 發展시키는 것이 저희 200萬 道民과 100萬 市民 모두를 살찌우게 하는 그러한 일도 된다는 사실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고 두서없는 人事말씀에 가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第6回 青少年 健全놀이 大會

1990년 5월 20일

激 勵 辭

푸르른 5월 青少年의 달에 즈음하여, 오늘 여섯번째로 맞는 青少年 健全놀이 發表大會를 이처럼 성대하게 갖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라나는 우리 青少年 여러분에게 더 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의 우리 青少年은 내일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미래를 開拓해 나갈 主役이며 참으로 소중한 우리 모두의 希望입니다.

여러분이 건전하게 자라고 지혜로울 수록 이 나라의 앞날 또한 밝고 希望찬 未來가 보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青少年 여러분!

이제 10년 후면 21世紀가 시작됩니다.

21세기가 되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고 우리나라는 世界의 歷史를 主導하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세기초 나폴레옹의 復古政治가 獨逸을 짓밟고 있을때, 비운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재생할 것을 절규했던 「피히테」의 「獨逸國民에게 告함」이라는 연설문 내용이 떠오릅니다.

"독일인은 죽은 것도 아니요, 노예가 되지도 않았다. 지금 멸망하지 않는 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마르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民族은 5천년 역사 속에서 960차례의 무수한 外侵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히

스스로를 지켜 온 배달民族 입니다.

더 이상 아시아 大陸 동쪽 끝에 매달린 半島 땅이 아니며, 分斷의 악순환에 운명 지워진 은둔된 땅은 더욱 아닙니다.

지난 88년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세계인의 찬사속에 역대 어느 大會 보다도 훌륭히 치르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우리의 底力은 지속될 것이며 또 能力과 힘이 있습니다.

「피히테」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民族의 에네르기를 擔保할 자라나는 우리 青少年들이 살아 숨쉬고, 이땅에 우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다도 내일을 준비하는 世代입니다.

스스로 發展目標를 세우고 능력과 자질을 啓發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샨 포오르」는 "기회는 두번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때는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급히 지나가는 것이며 그때 자신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青少年期는 한순간 머무르다 지나고 나면 두번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높은 꿈과 理想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심신을 단련하여 내일의 훌륭한 일꾼으로 成長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青少年 여러분!

오늘의 大會를 통해서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고 健全한 餘暇를 즐기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共同體 認識과 질서있고 조화로운 協同心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傳統 한마당 놀이에서 우리 先祖들이 가꾸어 온 文化를 함께 호흡하고 올바르게 인식하여, 우리고장 忠南人의 뿌리를 일깨우고 선양하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많은 벗을 사귀고 더 높은 꿈을 키우며 보다 큰 和合을 創造

하는 슬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과 아름다운 律動, 그리고 우렁찬 합창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기대를 갖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대 만큼 우리는 여러분의 미래와 우리고장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보다 건전한 環境을 만들고 가꾸고 보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來日이 바로 여러분들 것이며, 여러분은 바로 풍요로운 未來의 우리社會를 약속하는 所望이요,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青少年들에게 이처럼 풍성한 잔치를 마련해 주신 忠清南道 레크레이션협회 崔昇 支部長님과 대회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大會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榮光과 幸運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沈大平知事演說文選集

1990年 5月 20日 印刷
1990年 5月 25日 發行

發行：忠 清 南 道
編輯：公 報 官 室
印刷：協 成 文 化 社

〔非賣品〕

CHUNG CHEONG NAM – DO
AM010953